

# 진정한 삶의 책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

제8권

가르침 208 - 241

12권으로 구성된 저서 『진정한 삶의 책』 (Libro de la Vida Verdadera)  
은 전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멕시코 시티 (Mexico D.F.) 소재 “교육부 산하 저작권  
총국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 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및 독일어판 서문 작성 책임자:  
독일어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참고 사항:  
발터 마이어 (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 (Traugott  
Göltenboth).

2017년 1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mailto:manfredbaese@gmx.de)

『진정한 삶의 책』은 DeepL Translator를 통해 이 버전을 바탕으로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d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저작권이 있는 진정한 원본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2017년 3월 25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印)의 시대” ...

...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하라.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가르침을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이는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입니다.

(이메일: [hoanna64@yahoo.com](mailto:hoanna64@yahoo.com) )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http://www.DeepL.com/Translator) (비즈니스 버전)

DeepL은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목차

|                |     |
|----------------|-----|
| 진정한 삶의 책 ..... | 1   |
| 서문 .....       | 6   |
| 가르침 208 .....  | 8   |
| 가르침 209 .....  | 18  |
| 가르침 210 .....  | 28  |
| 가르침 211 .....  | 37  |
| 가르침 212 .....  | 48  |
| 가르침 213 .....  | 59  |
| 가르침 214 .....  | 68  |
| 가르침 215 .....  | 78  |
| 가르침 216 .....  | 88  |
| 가르침 217 .....  | 97  |
| 가르침 218 .....  | 106 |
| 가르침 219 .....  | 117 |
| 가르침 220 .....  | 127 |
| 가르침 221 .....  | 139 |
| 가르침 222 .....  | 149 |
| 가르침 223 .....  | 159 |
| 가르침 224 .....  | 167 |
| 가르침 225 .....  | 179 |

|                                 |     |
|---------------------------------|-----|
| 가르침 226 .....                   | 187 |
| 가르침 227 .....                   | 196 |
| 가르침 228 .....                   | 207 |
| 가르침 229 .....                   | 217 |
| 가르침 230 .....                   | 228 |
| 가르침 231 .....                   | 237 |
| 가르침 232 .....                   | 246 |
| 가르침 233 .....                   | 255 |
| 가르침 234 .....                   | 264 |
| 가르침 235 .....                   | 273 |
| 가르침 236 .....                   | 284 |
| 가르침 237 .....                   | 294 |
| 가르침 238 .....                   | 303 |
| 가르침 239 .....                   | 316 |
| 가르침 240 .....                   | 329 |
| 가르침 241 .....                   | 339 |
| 목차 .....                        | 351 |
|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 | 361 |

## 서문

이 저작 『진정한 삶의 책』의 첫 번째 권들에는 서문에 몇 가지 역사적 배경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합니다. 또한, 이 권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집을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질 발췌문들은 독자들에게 신의 말씀이 지닌 명료하고 고양되는 힘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경험을 쌓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신성한 법을 실천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 삶의 조화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의 계시를 통해, 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혼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28, 54)

여러분 안에는 땅에서 온 물질적인 부분과 하늘에서 온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을 물질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을 떠나 영적인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므로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높은 영역으로 날아올라,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며 영적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228, 69)

영혼들은 사다리의 각기 다른 단계에 있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가진 영적 발전의 정도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223, 72)

원자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가장 뒤쳐진 인간 피조물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나를 찬양한다. 너희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익숙한 너희는, 모든 존재와 모든 육체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운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라. 이러한 수행 속에서 그들은 나를 찬양한다. 그것은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헌사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기뻐하느니라. 심지어 그 단단함과 움직이지 않음 때문에 너희에게 무감각하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위조차도 그러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229, 53)

영의 왕국은 무한하나, 그 왕국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고양을 얻기 위해서는

살 수 있게 해주는 xml-ph-0000@deepl.internal 승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알고 빛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상 삶을 경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직접 준비해 둔 삶을 내가 어찌 경시하겠느냐! 물질 세계에서야 삶 또한 영적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왕국에서의 삶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223, 26)

만약 너희가 이 지구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내 율법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행복의 세계로 바꿀 수 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삶은 비록 너희가 그 고통과 불행, 눈물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 눈에는 오히려 고통과 불행, 눈물로 가득 찬 삶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될 것이다. 언제쯤 너희는 영적인 삶과 인간적인 삶을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경계 없이 하나로 통합할 준비가 될 것인가? 언제 너희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영원으로 들어감으로써, 너희의 존재를 하나의 삶으로 만들게 될 것인가? 이 깨달음의 빛은 세상에 영성이 꽃피울 때 비로소 사람 안에 비칠 것이다. (219, 16)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영성화를 통해 세계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213, 61)

## 가르침 208

1. 내 말씀의 메아리가 너희를 깨웠고, 너희는 스승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온갖 우여곡절이 가득한 긴 여정을 거쳐 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고생하고 희생했던 그 대가를 얻었으니, 바로 내게로 온 것이다. 너희는 산 정상으로 이끄는 길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그곳은 내가 너희를 기다리기 위해 먼저 가 놓았던 곳이다.

2. 너희는 내가 이 가르침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빈 책처럼 너희 마음을 활짝 열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그들의 이성을 바쳤고, 나는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이성 속에도 내 말씀을 새겨 넣었다. 이 빛은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 안식처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내 말씀은 이 제3의 시대에 이르러, 내가 인간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고 상세해졌습니다. 내 말씀은 지난 두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들을 너희가 이해하게 해 줍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남긴 두 계명에는 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중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4. 나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안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갈망하며 왔기 때문이다. 성찬식의 엄숙함이나 종교 의식의 화려함은 내 영을 사로잡지 못하며, 그것들이 내 교회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5. 제2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제들은 메시아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나에게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더 순수했고, 추운 겨울에 목자들 곁에서 더 많은 사랑과 온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착각했고, 통치자들이 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박해한 이유이다.

6. 오늘날 신학자들은 나의 재림 앞에서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 이는 재림에 관한 예언과 예고들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처음부터 내 오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를 증언하는 증거들을 주었노라. 이와 같이 나는 내 백성의 마음속에 믿음을 세워 주었노라.

8. 오늘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으나,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2시대에 나를 따랐던 그 열두 제자가 가졌던 믿음과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는 모두, 인간적 이성을 통해 받게 될 마지막 3년간의 가르침 동안에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영원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누가 내 신성한 임재를 느끼고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떠나기로 정해진 시기인 1950년까지, 중재자 없이도 스승과 교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영적 성숙을 이룰 사람은 누구인가?

9. 너희가 나에게 제단이나 꽃을 바치지 않거나, 등불을 켜주지 않아도 나는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찾았던 것은 영적인 제단이기 때문이다.

10. 꽃은 정원과 초원의 헌물이며, 그 향기와 은은한 향기는 사랑의 선물로 내게 닿는다. 그러니 초원과 정원에서 사랑의 선물을 빼앗지 말라. 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의 등불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등불을 켜지 말라. 너희 마음이 어둡다면, 기름등을 켜는 것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완전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삼위일체-마리아 영성 교리’라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영적 고양, 신적 계시의 삼위일체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신성한 연민인 마리아에 대한 숭배.

12. 1948년이 시작되기 전, 나는 수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준비하라. 내가 너희의 영적 예배 의식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니.”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너희를, 스승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관습에 동참하게 만든 나쁜 제자들로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완전한 사역을 맡겼으니, 너희의 행동으로 그 사역을 거짓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려고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해 가능한 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진리를 전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련이나 고통받는 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때 너희는 즉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가장들에게는 십자가의 짐이 무겁다. 그들은 세상에 새로운 세대를 낳았으나, 이것이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고 여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첫 인간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법은 “번성하고 번식하라”였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인간 영혼의 큰 발전을 목격하는 이 시점에,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번성하고 번식하라”, 그러나 단지 물질적인 면에서만 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미덕과 사랑 안에서 번성하고 번식하라. 이것이 태초부터 끝까지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며, 이를 통해 너희는 만족한 마음으로 내 면전에 나아가 나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이것이 저의 영적·인간적 성취이며,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다.”

14. 사랑하는 백성아, 이 시대는 너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한다. 자연의 힘과 고통, 전쟁, 갈등, 그리고 혼돈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깨어나라,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 스승의 피인 이 포도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그것이 생명과 사랑이 되어 너희 이웃들에게 넘쳐흐르게 하라.

15. 내 말씀은 너희를 찾고, 사랑하며, 바로잡아 주시고, 너희가 비틀거릴 때 일으켜 세우시며,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명심하라. 또한 오늘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너희를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양심의 빛 속에서 너희의 모든 행실을 분명히 드러내겠지만, 어떤 이를 다른 이보다 더 드러내어 망신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심판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행실로 스승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16. 나는 종종 나의 작별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내가 제2시대의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다. 거의 모든 제자가 스승보다 나이가 많았다. 어떤 이들은 중년이었고, 다른 이들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상태였다. 예수보다 어린 사람은 요한 단 한 명뿐이었다.

스승께서는 다시 한번 임박한 이별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발표를 듣고 제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운데, 왜 그분은 임박한 죽음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생명과 사랑, 그리고 힘으로 가득 찬 그분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삶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떠남에 대해 말씀하시며 작별 인사를 이어가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은 이별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으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소중한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한 제자가 스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누군가 주님을 해치려 한다면, 우리가 이를 막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버지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 제자들은 낙담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이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혼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맹인에게 빛을 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겠는가? 스승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적절한 기회를 택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대신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18. 나의 수난이 이루어지고, 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사도들은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들을 두려워하시는 듯 피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용기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분은 손에 권능을 쥐고 계셨음에도 말이다. 고향치는 폭도들을 보며,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그들을 침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승님께서 직접 귀신 들린 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손이 랍비를 붙잡아 체포하려 할 때, 당황한 제자들은 물었다. “주님, 주님께는 죄가 전혀 없으시는데, 어찌하여 죄인처럼 체포되시려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버리고 주님을 저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분은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 인간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온전한 버림받음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육신으로 모든 모욕과 치욕을 겪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19.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눈은 군중 속에서 친구들, 즉 제자들—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왔던 이들—을 찾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그곳에 없었고, 그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오직 가장 어린 제자인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어 스승의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분은 그 제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셨고, 바로 그 순간 온 인류를 향해 마리아를 만민의 어머니로 선포하셨다.

20.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21. 애도와 슬픔에 잠긴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위로를 구했다. 그러나 이미 영적 존재가 되신 스승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마리아와 성녀들을 찾아가, 사도들이 의심하던 사실에 대해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심을 증명해 주기 위해, 그들도 찾아가 모습을 보이셨다.

22. 사도들은 어떤 행사로 인해 한 집에 머물고 있었다. 도마는 그들 중에 없었다. 그 남자들이 추억에 잠겨 있을 때, 스승께서는 벽을 뚫고 그들에게 들어오시며 말씀하셨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은 그들에게 낯설고도 독특한 그 목소리의 음색을 알아차렸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꼈다.

23. 예수의 형상은 다시 사라졌고, 사도들은 용기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토마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형제들을 조롱했다. 그가 그 증언을 부정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닫힌 방 문 너머로 다시 나타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인사하셨다. 토마스는 - 기적을 마주하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다가 곧 후회로 가득 찼다 -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나, 의심이 그를 괴롭혔다. 그때 스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토마스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 보아라.” 믿음이 없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제자는 손가락을 넣어 보았고, 그 상처 너머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 도마는 스승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통과 회한에 사로잡혀 고백했다. “주님, 주님, 주님이시군요.” “그래, 도마야, 네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임을 고백하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4.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나의 작별을 알리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중에

불신자나 무지한 자, 혹은 혼란에 빠진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의 물질주의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25.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마지막 날, 너희가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며, 너희 입에서 “왜 떠나시는 겁니까, 스승님?”이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26.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희가 영성, 평정, 그리고 경건함의 망토로 감싸인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실제로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확신을 가득 품은 모습으로 말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죄인이든 죄가 없는 자든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노라.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마음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성 속에서 나의 빛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길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도와 시련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슬픔이 지배해서는 안 되며, 공허함이나 버림받은 느낌도 있어서는 안 되고, 비통함이나 흐느낌도 있어서는 안 된다.

28. 내가 떠나갈 때 너희가 하나로 뭉쳐, 너희의 모든 영적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란다. 그 힘을 통해 너희는 스승께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9. 너희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에 표징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민족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30.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나의 사랑과 훈계의 말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애정 어린 어루만짐이었습니다.

31. 너희는 점점 더 잘 준비해야 한다.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다가올수록 말이다. 너희는 내 말씀이 전하는 영적 힘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려 노력할 것이다.

물질주의는 절정에 달해 있다. 오늘날까지 세상은 나를 느끼거나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 영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빛을 보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이들은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인간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살아 있다.

32. 나를 들은 제자들아, 너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분명하다.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의 계시와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제2시대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 즉 영적으로 너희에게 왔음을 아는 증인들이다.

33. 그러나 너희가 영과 영으로 너희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나는 단순하지만 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그러한 소통이 너희의 미래 상향 발전을 위한 기초나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4. 그 성취를 이룬 인간 과학은 영혼이 발전해 왔다는 증거이며, 비록 그 길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영혼은 모든 시대에 걸쳐 상향 발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언젠가는 과학 그 자체가 영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정한 과학자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창조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비밀을 찾아 신성한 빛을 발견할 때까지 탐구하는 자이다. 그렇게 일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창조주의 도구로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35. 또한, 은둔처에 갇혀 지내던 수도사들이 세속을 등진 삶과 신비주의의 무익함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다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투쟁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신적 정체를 끝내고 진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36. 영성의 씨앗은 내가 너희 가운데 뿌리는 제3시대의 씨앗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한 비밀을 선사한다.

37. 사람들이 영성이 부족하여 서로를 오해하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라.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길을 만들어 냈다. 너희 스스로가 이러한 오해의 증인이다.

38.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념과 신앙 고백, 종교, 철학, 교리 간의 전쟁이 닥칠 것이니, 그 때 각자는 다른 이들에 비해 오직 자신만이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려 할 것이다.

39. 제2시대의 나의 희생은 이 인류에 의해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니다. 비록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나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온유와

자비와 정의의 길만을 걷고 있는데, 어찌하여 굽이진 길에서 나를 찾으려 합니까?

40. 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1. 오늘날 너희에게는 여전히 성직자와 재판관,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의 영적·도덕적 성품이 한 단계 높아지면, 더 이상 이러한 버팀목이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재판관, 인도자, 스승, 그리고 제단이 있을 것이다.

42. 나는 의식과 규정, 교리가 없는 백성을 보고자 한다. 그들은 바른 길을 걷는 법을 알고,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백성이다.

43. 나는 오늘날 너희에게 이 자유를 준다. 너희는 더 이상 특정 숭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제시해 두었으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길의 일부이다. 연구하고, 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보라.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4. 나는 사랑이며, 사랑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내어준다.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는 모든 인간적인 애정을 초월하는 이 자국, 이 사랑이 필요하다.

45. 너희를 나의 신성과 연결시켜 주는 그 고양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는 더 이상 몇 가지 음악적 음조의 조화로 감각을 자극하거나, 의식이나 물질적 대상 앞에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지극히 영적인 것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릴 때마다, 무한함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46. 어떻게 영혼의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등한 존재나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보다 더 깊이 추락하는 인간 존재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는 죄를 짓지 않으니, 그저 자신의 법칙을 따르는 데 그칠 뿐이다. 반면 인간은 자신 안에 빛의 영혼과 영, 그리고 직관의 은사를 지니고 있기에 분명히 죄를 짓는다.

47.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 중에는 때때로 그 길을 잊어버리거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겨 주신 영적인 표식을 잊어버리는 이들도 있는데, 그 표식은 그들이 가는 길에 오직 평화와 축복의 흔적만을 남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세워 놓은 그 단계에서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끊임없이 내려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내 말씀이 마치 정교한 끌처럼 너희 마음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 너희가 불결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비로소 너희가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무한한 곳에서 나를 찾게 될 때, 너희는 묘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으면 아버지의 자비가 주저 없이 너희 영혼 속에 드러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48. 진실로, 그러한 순간에는 너희의 육신이 여전히 땅 위에 있더라도, 너희는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있지 않다. 영적 영혼은 다른 삶과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육체적 유대를 끊고 높이 치솟아 올랐다.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왕국의 평화와 행복을 어렵듯이 감지하게 된다.

49. 완고한 자들 안에 이러한 갈망을 일깨우기 위해, 나는 그들이 마음속의 선함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 그 선함이 그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행실을 이루게 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 순수한 마음의 동행자로 변모한다. 그들이 이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게 되며, 그곳은 그들을 일과 투쟁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고귀하고도 섬세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는 귀로도 듣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될까요.

50. 너희 모두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스승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의 비참함을 점점 더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나에게서 보았던 그 일을 너희 이웃에게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때로 스스로를 합당하지 않거나 서툴다고 여긴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로 돌아와,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 주도록 하면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그 과제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믿음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굶주린 자들, 나병 환자들, 누더기 옷을 입은 자들, 실패한 자들, 그리고 온갖 형태의 궁핍이 차츰차츰 여러분의 문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유혹과 미혹이 너희를 괴롭히며, 너희의 영성화를 대가로 세상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말과 생각으로 너희를 현혹하려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정욕은 너희의 육신을 유혹하여 영혼을 약화시킬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에 맞서야 할 것이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형제들과 함께 말이다. 너희의 무기는 준비와 믿음, 너희 안에 내재된 목표,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점차 받아가는 지식일 것이다.

51. 그리하여 너희는 삶에 패배한 사람들에서 강한 전사로 거듭날 것이다. 너희는 현재 겪고 있는 투쟁의 시대로 준비된 상태로 들어설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낙담하지 않을 것이니, 정화되고 고양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필요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자신의 일을 완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이에게, 그 일은 물질 세계에서의 마지막 업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52. 그 후, 너희의 육신이 흠으로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 인간의 옷을 벗어던진 너희 영혼이 영적인 일을 시작하면, 영혼은 일곱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사다리를 보게 될 것이며, 권능과 은혜와 빛이신 아버지의 품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을 오르게 될 것이다.

53. 보라. 너희가 여러 육신을 거치며 세상의 길을 걷는 동안 더러움과 불순함을 경험하며 그토록 큰 불완전함 속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긴 여정은 너희 영혼이 내 법칙에 내재된 가치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의 발전이 영광과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사람들을 이 길로 초대해 왔다. 그들이 이 길에 이르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며, 거짓된 쾌락은 계속해서 그들을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54.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가르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행실이 그들을 미래의 스승으로 변화시켜, 세상의 타락을 극복해야 할 나의 힘과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55. 이 시대의 악은 사람들 앞에 절망의 심연을 열어 놓았다.

56. 사람들 사이에는 겉보기에는 위대하고 선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안에 비할 데 없는 참된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기만을 물리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57. 선을 타인과 나누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그 빛과 영향력이 이웃 또한 완전함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여 현재 서 있는 단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영혼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58. 이미 제2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영적 삶에 대해 말했었고, 너희의 영은 내가 말한 내용 중 일부와 그 영이 향해야 할 목적을 이해했다. 오늘, 내가 너희가 다시 내 주위에 모인 것을 보니, 너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고 설명해 주리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타심, 영혼의 온전함을 위한 불필요한 소유물의 희생이기 때문이다.

59. 제자들아,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내 가르침을 알려 주라. 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자녀들을 높은 이상으로 양육하고, 마음속의 모든 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에게 선의 씨앗, 곧 영성을 심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내 가르침의 효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해력을 갖추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이 확고해질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60. 생명과 빛, 그리고 온기를 발산하는 태양처럼, 나는 모든 이에게 내 자신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각자는 자신의 발전 단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09

1. 여러분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방식이 끝나는 정해진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나의 신성한 메시지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2.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세상이 나를 느끼지도 듣지도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나의 오심을 알게 된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인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돌아올 때, 육신으로 돌아오리라고, 즉 다시 인간이 되리라고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4. 오직 여러분만이 이미 제3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제가 제 말씀의 대변자로 선택된 이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 인류의 과학은 그 발전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또한 영적 발전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아라. 인간은 모든 시대에 걸쳐 진보의 흔적을 남겼으며, 후대에 온 이들은 이를 점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6. 과학은 인간에게 그 신비를 드러내는 내 지혜의 빛이다. 고귀한 영혼을 지닌 과학자는 의식을 통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니, 과학이라는 은사가 그를 신성한 과학 그 자체이신 아버지께 끊임없이 가까이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니, 더 많이 발견할수록 자신이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니, 걸음걸음마다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제자들과, 너희 안에도 내가 너희가 꽃피워야 할 은사를 심어 두었으니, 너희가 소박하지만 진리로 가득 찬 말로 이 가르침을 이웃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8. 내가 항상 세상에 뿌려 온 영성화의 씨앗을, 이 시대에도 다시 한 번 남겨 두겠다. 이 씨앗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비밀이 담겨 있다.

9.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신앙 교리나 계급, 인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의 씨앗이 싹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은혜의 이슬처럼 발 위로 내려오는 이 시기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된 나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10.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나의 오심을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인간들 가운데 나의 영성화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며, 신앙 고백과 세계관 및 종교 간의 전쟁을 너희에게 알린다.

11. 나의 말씀은 불타는 칼처럼 수세기 동안 인간을 감싸고 있던 광신을 파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의 장막을 찢어 버리고, 나를 향해 이끄는 밝고 빛나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12. 인류가 갱신을 통해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면,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더 이상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엄격한 법이나 세상의 사법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나의 가르침은 교리나 의식을 도입하지 않으며, 오직 선을 고무할 뿐이다. 나의 영적 가르침은 누구에게도 특정한 숭배 형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진리의 길로 향하는 끊임없는 초대이다.

14. 너희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고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그곳에는 너희에게 영생의 빵, 즉 삶의 여정을 헤쳐 나갈 힘을 주는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15. “그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16. 나는 너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도록 촉구하는 영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육체의 물질은 마치 무거운 사슬 고리처럼 영혼을 땅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17. 너희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너희의 운명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18. 사람은 항상 나의 의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게 거부감과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이미 여러 번 나를 불의하다고 비난하며, 나의 고귀한 뜻에 간섭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중에 그것을 얻게 되면 그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신이나 왕으로 여기며, 인간 안에 영적 영혼을 심어주고 놀라운 본성을 부여해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19. 인간이 가진 모든 과학으로 내가 창조한 것 중 어떤 것이라도 창조할 수 있겠느냐? 아니, 백성아.

20. 인간의 과학에는 한계가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그런 한계가 없다. 과학은 빛이지만, 많은 사람의 손에 들리면 어둠이 된다. 반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한다. 모든 자연계는 생명과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내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불완전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 속에서 나의 형상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는 그 작품들 앞에 절하며 숭배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높아지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

21.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기 위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웃을 섬기라고 부와 권세를 맡긴 자들은 어떠한

연민도 거부하며, 심지어 땅에서 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자들조차 사치에 둘러싸여 왕처럼 차려입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자비를 갈망하는 이의 탄원에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다.

22. 이것이 나의 길은 아니다. 내가 제시한 좁은 길은 선의 길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씀은 나의 길이니, 그것은 언제나 너희에게 의로움과 도덕, 그리고 사랑을 말하기 때문이다.

23. 나는 너희의 마음을 감수성 있게 만들어 내 가르침을 새기게 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양육받는 것을 느끼게 하리라.

24. 나는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 모든 이가 나를 듣지는 못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와 마찬가지로, 나는 땅 위에서 한 곳을 택하여, 나를 들어야 할 자들을 그곳에 모았다.

25. 모든 종교 공동체에는 스스로를 나의 사자, 나의 선택받은 자, 나의 총애받는 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한다. 내가 그 당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입은 없다.

26. 사람들은 회오리바람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으며, 그 혼란 속에서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다.

27. 내가 돌아오는 동안 그 민족들은 '제2의 시대'에 대한 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분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양식은 숨겨지거나 왜곡되었다. 그리하여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대다수는 광신적이고 냉혹한 모습을 보게 된다.

28. 부유한 자들은 언제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가 될 것인가?

29. 호화로운 옷을 입은 자가 언제 그 옷을 벗어 벌거벗은 자를 덮어 줄 준비가 될 것인가? 인류는 본보기를 갈망하며 정의와 자비를 필요로 한다.

30. 사람들은 내가 내 왕국을 포기하고 너희 가운데서 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나를 진정으로 본보기로 삼는 나의 대리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31.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다시 상속자로 삼기 위해 너희를 부르셨으며, 내 피 그 자체인 사랑의 향유로 병자들을 치유할 권한을 너희에게 주노라.

32.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내가 너희를 내 은총에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길 잃은 양처럼 탄식을 터뜨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아라. 고통과 절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33. 너희의 손을 보아라. 그 안에서 너희는 이 고통을 덜어줄 힘과 위로를 찾을 것이다. 어찌하여 이 은총을 의심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믿음의 불빛이 햇불이 될 때까지 타오르게 하라. 너희 마음을 닫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부유한 구두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증거하고 나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34. 나는 권능이자 정의이지만, 내가 고통이나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을 통해 너희에게 이 교훈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의 신성한 광채가 너희를 감싸고, 나의 사랑이 영원히 너희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라.

35. 나의 신성한 영이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는 너희의 여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다. 겸손의 스승이 너희에게 그분의 가르침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내려오신다.

36. 때로는 너희가 내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는 내가 이미 오래전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로써 너희에게 완전한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37.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숨겨 두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너희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바라보고 느끼도록 배우라.

38. 나는 너희를 무한한 영광의 소유자로 삼았으나, 너희는 그 영광을 이웃과 나누는 법을 알지 못한다.

39. 1866년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해 온 교훈이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했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내가 결코 너희를 후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으로 곁에서 돕고 있다. 나는 내 뜻을 분명히 전하고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언어로 지극히 단순하게 말해 왔다.

40. 나는 너희가 도중에 멈춰 서 있고, 너희의 상향적 발전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세상과, 나의 말씀을 조롱하는 불신자들을 바라보아라. 사랑과 빛을 갈망하는 이들도 보아라. 그러나 제자들아, 너희는 무지하거나, 병들었거나, 궁핍하거나, 약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오,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41. 마음을 고양시켜 내 말씀을 그 본연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 자신의 영혼을 나에게로 드높이는 대신 - 단지 이 땅의 삶과 그 비참함과 궁핍함을 내 눈앞에 내세우기 위해 다가올 뿐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연약함과 백성들 사이의 화합 부족의 원인이다. 언제쯤 너희는 자신을 잊고 세상을 위해 나를 간구하게 될 것인가?

42.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서 울고 있다. 황량한 도시는 나에게 그들의 삶의 황폐함을 보여준다. 아내는 나에게 배우자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길, 즉 희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내 빈 손바닥 위에 너희 각자의 운명이 놓여 있다.”

43. 순종하라. 너희가 크게 고통받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44. 오직 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너희의 잣대로 판단함으로써 너희의 고통을 더욱 키우지 마라.

45.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너희를 이해하고 있다. 보라, 너희는 나에게 그토록 가까이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46. 어떤 이들은 시련의 무게 앞에서 나의 현존을 의심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 뒤로 남겨둔 그 길로 향하곤 한다. 잃어버렸다고 믿는 것을 되찾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손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닫고, 전 세계적인 거대한 고통과 전염병, 그리고 각국의 문턱을 두드리며 너희를 위협하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무력함을 느낄 때, 다시 내 사역으로 시선을 돌린다.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예감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47. 내 존재를 믿기 위해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전쟁을 즉시 끝내고 모든 식탁에 빵을 가득 채워 주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그 불신자들처럼 되지 마라.

48.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계시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이 끝나기까지 이제 단 3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너희는 이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세상과 그 교회들, 그리고 종파들을 빛과 영성의 길로 초대해야 한다. 그곳에서 모든 이가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9. 이는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가 민족들의 마음속에서 근절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50. 그때 너희는 거친 바다 위에서 구명정을 의지하는 선원들처럼 될 것이다.

51. 나는 또한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해 널리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름을 보내어, 그들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땅의 모든 주민을 비추는 찬란한 새벽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52. 내 말씀에 익숙해지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매체를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의미를 파악하여, 너희의 지식이 온전해지도록 하라.

53. 그 의미는 신성의 표현이다.

54.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은 익숙한 전례도 아니며, 너희의 감각에 인상을 남기는 의식도 아니다. 이 계시의 엄숙함은 너희 영혼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55. 이 순간들 속에서 너희는 이 모임 장소의 네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진정한 내적 예배를 통해 나의 신성과의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이 고양되기를 기다려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임 장소를 짓도록 허락한 것은, 너희가 그곳에서 경건함과 고요함, 그리고 생각의 집중을 찾아 내 신성한 광채를 끌어당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네 벽은 나의 성전이 아니다. 이 모임 장소들은 너희가 함께 모이기 위해 정해진 곳일 뿐이다. 참된 성전, 곧 나의 성소는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56. 너희는 1950년 이후에 이 모임 장소들이 사라질지 나에게 묻고,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아니, 너희는 내가 이 장소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허락해 줄지 알지 못한다. 백성들 사이에 나의 사역에 대한 지식과 고양, 그리고 나의 율법에 대한 끈기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장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는 안식의 날에 모일 것이다. 이는 전통이나 기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말씀과 영적 세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각자의 길에서 나의 기적에 대한 진실한 증언을 서로 나누게 하려 함이며,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나에게 기뻐할 만한 경배를 드리고, 너희 마음이 식거나 지루해지거나, 광신적이거나 물질주의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57. 너희는 내가 이 모임의 장소를 얼마나 더 너희에게 맡겨 둘지 모른다. 195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임의 장소가 설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곳에서 나의 말씀이 대변자를 통해 울려 퍼지거나 영적 세계가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 그때는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 오직 그곳에서 나의 말씀과 가르침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순수하고 변함없이 전해지기 위함이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나의 임재와 마리아의 임재, 엘리야의 임재, 그리고 영적 세계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다. 그곳에서 병자는 치유받고, 눈먼 자는 빛을 향해 눈을 뜨며, 세속적인 사람은 경외심을 깨닫고, 죄인은 회개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이 퍼져 나가도록 필요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58. 너희는 현재의 육신 생활에서 내 신성의 참된 성전을 알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만일 *너희*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 두거나, 그들의 자녀들이 내 신성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임재가 이 모임의 장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영혼이 오직 그곳에서만 경배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신성의 성전이 바로 우주이며, 너희의 마음이 제단이고, 너희의 믿음이 등잔이자 제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창조물 또한 성전이며, 심지어 너희 발이 밟는 먼지조차도 그러하다. 산들은 나를 향해 솟아오르는 제단들이다. 풀밭과 꽃이 피어 있는 계곡들도 나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왕의 별, 모든 별과 행성들은 나에게 사랑의 헌사를 바치는 세계들이며, 여러분이 가거나 바라보는 모든 곳에 나의 신성한 영이 아버지로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원히 성전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59.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성전을 품고 있으며, 너희의 집 또한 성소이다. 그곳에는 영적 가족과 같은 인간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 가족의 품 안에 나의 가장 훌륭한 성전이 있다.

60. 그러나 오늘날 나는 길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들이 참된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곳이 물질적인 교회뿐임을 봅니다.

61. 나는 인류 속의 혼란과, 인간적·신성한 법칙에 대한 무시를 보고 있다. 이 시대에 나의 가르침은 로 숨겨졌으며,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하고, 제도들은 분열하며, 가장 신성한 것을 조롱한다. 내가 보는 인류는 이렇다: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파괴하며, 서로를 죽이면서, 영혼을 육신으로, 신성을 인간성으로, 빛을 어둠으로 혼동하고 있다.

62. 이러한 혼란과 악행이 만연한 이 시대에, 나는 오해받고 경시당하는 한 나라를 택하였다: 바로 멕시코 민족이다. 그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내려, 그들을 내 곁으로 모으고, 내 말씀의 끝로 그들을 다듬어 주며,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한 뒤, 준비가 되어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내 사역의 사절로서 온 땅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63. 이것이 바로 나의 신성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64. 나는 내 백성을 정화하고 그들의 불완전함을 제거한다. 그러나 이 정화는 너희의 영적 활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정에도 미칠 것이다. 나는 회오리바람처럼 나타나 그 힘으로 모든 나쁜 열매를 떨어뜨려, 영적 나무와 인간 나무의 가지에는 오직 좋은 열매만 남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질문을 던질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65. 나의 사역은 새로운 종파로 여겨질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생활,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의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며, 그때 여러분이 나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의 말씀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흠잡을 데 없는 외투 아래 마음속의 썩은 속내를 숨겼던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66. 너희 주님의 심판은 내가 이곳에 머무는 마지막 해에 내려질 것이며, 특히 나의 작별의 날은 모든 이가 느끼게 될 것이며, 죄인의 눈과 죄 없는 자의 눈을 막론하고 모든 이의 눈에 드러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말씀, 즉 이 시기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모두를 준비시키고 있다.

67. 평온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 너희는 내가 오래전에 예고했던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너희들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 투쟁에서 너희는 똑같은 무기를 들게 될 것이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대의를 위해 무기를 들 것이며, 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얼마 전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제2시대의 비유를 기억하라.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둘 다 익었을 때 비로소 베어 밀을 가려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버리라.” 나, 선한 농부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의 밀과 죄라는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했다. 그러나 이제 내 의의 낫으로 베어낼 때가 왔다. 그리하여 내 일꾼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 속에는 오직 진리와 사랑의 씨앗만이 남게 하리라.

68. 너희는 내 가르침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므로 시련이 닥칠 때 깜짝 놀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분열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내 말씀이 실현되었을 때,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며, 회오리바람이 모든 나쁜 열매를 뜯어내도록 허락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생명이나 열매, 그들을 주지 않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폭풍의 위력 아래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많은 일꾼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뜻이 너희를 바로잡을 것이다.

69. 나에게 등을 돌렸던 모든 이들이 깨어나 회개하며 돌아와 나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스승님, 주님의 사역은 참으로 순수하십니다.”

70. 오늘날 이 민족의 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와 불완전한 영혼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깨우치고 정화하며 온전하게 하기 위해 나의 정의의 칼을 들고 모든 이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제2의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단 열두 명만을 택하였고, 그들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세계 곳곳으로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허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영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71.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누가 너희를 박해하거나 범죄자로 고발하거나 비방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즉 사랑과 내적 경배, 그리고 나의 신성을 담은 참된 성전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10

1. 나는 너희를 물질주의가 빠뜨린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왔으며, 너희가 너희의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을 가져다준다.

2. 너희는 제3시대의 사람들이다. 곧,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자들이며, 나는 나의 계시를 통해 너희가 그 깨달음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3. 여러분은 나의 왕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은 선을 영적 이상으로 삼고, 가장 훌륭한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행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4. 사랑과 진리는 영적 영혼에 속한 것이며, 지혜는 그로부터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영혼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돌아가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5. 나, 스승은 너희 마음이 알지 못하는 너희 영적 과거에 대한 기억들로 너희를 일깨운다. 그 기억들은 너희 영혼이 진정한 존재를 살던 시절, 너희의 세상이 지금과는 달랐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영혼을 위한 시금석이자, 모루이자, 교훈인—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것들이다.

6. 나는 너희 육신의 베일 뒤에 숨겨진 영적 삶에 대한 기억을 너희에게 되살려, 그 삶이 다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려 한다. 이는 너희가 순례와 경험, 그리고 성장을 마친 후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여러분이 다시 영원한 고향에 돌아가 그곳에서 사는 행복을 느낄 때, 여러분은 행복과 평화, 빛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던 이 눈물의 세상을 축복하는 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8. 나의 재림—지금은 영으로—은 여러분을 절대자와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을 우주적 조화로 들어가게 할 율법의 길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신성한 조화의 일부가 되고, 나의 지혜의 양식으로 양육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9. 인간 삶의 비참함을 초월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너희를 울게 할 수 있겠느냐? 고통도, 궁핍도, 도덕적 시련도, 자연의 힘도—너희가 일단 진정한 영성화에 도달했다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길 수 없거나 낙담시킬 수 없을 것이다.

10. 너희의 고통은 타인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너희의 근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을 목격할 때마다, 너희는 아버지의 빛이 너희 내면을 비추는 것을 느낄 것이며, 그 길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날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11. 내 말씀은,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자 한다면, 너희의 모든 감각과 온전한 이성,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다해 걸어가야 할 영적인 길이다.

12. 아직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만큼 스스로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13.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노니, 이는 “말씀” 그 자체이신 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이 마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진주나 보석처럼, 너희의 마음에서 형제의 마음으로 전해지도록 말하기를 배우라.

14. 영혼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양심의 목소리를 듣도록 가르치며, 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라.

15. 보라, 나의 모든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는 길로 이끄는 것을. 비록 너희가 현재는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내일 더 높은 차원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면, 너희는 나의 말씀 속에서 오직 본질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6. 나는 너희에게 직접 내려오지 않는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다고 말할 때, 이는 비유적인 의미이다. 왜냐하면 나의 계시는 영감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영감은 이 대변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심지어 기억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너희가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일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말을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17. 겉보기에는 이 시기의 나의 계시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위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온 그 영광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가르침이 영성화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8.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세우는 영적인 성전은 많은 기둥들에 의해 지탱될 것이다. 그들 각자는 내 율법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19. 너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아직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믿으며, 항상 믿어 왔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고 점점 더 큰 계시를 너희에게 맡겨 온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웃들에게 깊은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부해서 얻은 말이 아니라, 신성한 스승과 교감할 때 성령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일 것이다.

20. 메마른 마음에서 선한 감정이 싹트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죄를 지은 자의 마음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21. 너희는 오늘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지성의 기관들만이 아니다. 너희는 오늘 살아 있다가 곧 존재를 멈추는 육체만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 너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영혼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너희에게 어울리는 길을 제시해 준다.

22. 나는 내 자녀들의 보존과 건강, 생계, 안녕, 그리고 기쁨을 위해 자연 속에 심어 둔 것 중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숨기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베풀고, 신성한 정수를 들이마시며 영적인 기운으로 배불리도록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자연이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오해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너희는 조화와 건강,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생명의 법칙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너희는 내가 너희의 인도자임을 알고 있다, 백성아. 그러나 내게 말해 보라. 내가 너희의 인도자라면 - 너희는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고 있는가, 이미 내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미 나의 계명과 법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너희의 인도자라면 -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내게 순종하고 있는가?

24. 양심의 목소리가 너희 내면에서 응답하며, 너희의 희생 정신이 절대적이지 않고, 너희의 순종이 꾸준하지 않다고 내게 말해 주고 있다.

25.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바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라. 내 율법을 따르는 자는 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아는 이들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불행’, ‘저주’, ‘죽음’이라는 말들이 위협처럼, 혹은 영혼의 평화를 가리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빛 가운데 살며, 영원히 건강과 평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26. 내 가르침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는 이들은, 신성한 빛이 그들을 인도하므로 길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바로 그 빛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확신을 준다.

27. 제자들의아, 나의 길은 선의 길이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선한 행실과 선한 생각, 선한 말로 그 길을 가꾸어라. 그러나 결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계산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실수를 점점 덜 저지르도록 너희의 나쁜 행실과 말, 생각을 아주 꼼꼼히 기록해 두라고 권한다.

28. 너희가 거둔 좋은 씨앗은 내게 맡기고, 나쁜 씨앗은 너희가 가져가라.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너희 약점의 원인을 깨달으라. 그것이 좋은 곡식과 섞여 좋은 곡식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9. 오직 선함만이 평화와 기쁨, 건강, 이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영적으로 위대해질 것이다.

30.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살았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며, 오늘 다시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손으로 병자들을 만져 치유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는 그들을 만져 건강을 되찾아 주고, 다시  
삶의 기적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31. 오늘 나는 영으로 오기 때문에, 너희의 병든 몸을 만질  
물질적인 손은 없다. 그러나 영은 그 사랑으로 너희를 만질 수  
있으며, 그 임재를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32. 그 당시의 눈먼 사람들 - 영적으로 눈먼 자들 - 은 스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만짐으로써 치유하고, 어루만지며 축복하던 그  
손을 꿰뚫었지만, 그들은 나의 영을 파괴할 수도, 사로잡을 수도,  
못 박을 수도 없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함을 초월하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당시 그분은 인정받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도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3. 보라, 내가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인류가  
나를 알아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3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면, '그리스도가 거하셨던 그  
축복받은 육신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너희는 내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신성한 사랑의  
도구였던 그 육신은, 그 사명을 다하고 입술과 눈도 영원히 감은  
후, 인간 육신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땅에 맡겨졌다.  
그러나 땅이 그 몸을 품에 안았을 때,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세포들로 이루어진 그 몸의 구성 요소들은 무한한 우주로  
흩어졌다가, 후에 구세주가 그들에게 가져다준 생명을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비가 되어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사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잘못  
상상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자신이 주님의 걸작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의 작품 중  
걸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으며, 게다가 너희는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함과 아름다움, 숭고함을 지닌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5. 너희를 넘어서는, 너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작품들이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작품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너희 형제자매들의 작품들도 있다.

36. 어찌하여 사람이 오늘날 주님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믿는가? 너희는 참된 위대함을 갈망하며 먼 길을 걷고 있는 작은 피조물일 뿐이다.

37. 너희는 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위대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너희의 행적에 있어서는 아직 매우 작고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가운데 스승으로 나타나, 너희를 선과 지식, 사랑의 정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완전한 것과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할 새로운 계시를 너희에게 주려 한다.

38. 고통이 있고, 고통받는 자와 악한 자, 상처 입은 자, 억압받는 자가 있으며, 오만한 자와 이기적인 자, 심지어 살인자까지 있는 너희 세상에 어떻게 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39. 행복은 높은 천상의 영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너희 세상에서는 아직 행복을 볼 수 없구나.

40. 오늘 나는 너희가 새로운 삶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남긴다.

41. 내 가르침의 힘을 활용하여 너희만의 평화를 이루고, 너희만의 행복의 세계를 창조하라.

42. 너희는 편익과 쾌락, 그리고 발전을 얻기 위해 많이 투쟁해 왔다. 그러나 너희의 목표에는 종종 이기심과 나쁘고 무분별한 권력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 행복이나 평화를 얻는 대신, 너희는 고통과 전쟁, 파괴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오늘날 거두고 있는 결과이다.

43. 너희가 살아가는 근원이자 생명줄인 자연의 요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너희의 지상에서의 행실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44.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자연의 원소와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45. 자연의 힘은 너희 손에서 친구이자 형제에서, 너희를 엄중히 벌하는 심판자로 변할 수 있다.

46. 사람들이 더 이상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않도록, 경험의 열매를 거둘 때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과학을 동원하더라도 그 힘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7. 오, 인류여 - 언제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너희가 나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피로 물든 이 세상아, 나에게 대한 기억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전한다.

48. 제2시대에 내가 행한 모범적인 일들을 기억하느냐? -  
그러니 들어라:

49. 내가 한 마을 밖에 있을 때, 한 권력자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 닿기까지 얼마나 멀리 걸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니라.”

50. “네가 누구 앞에서 있느냐?” -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 앞에서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자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며, 부활이자 생명이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이 땅과 지방, 마을 곳곳을 가로질러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느냐? 내일 너도 나와 같이 따르게 될 것이며, 네 호화로운 망토를 벗고 평범한 백성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섞이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러 온 것이니, 그분은 내가 그분의 나병을 고쳐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은 당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51. 그러자 그 종이 내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을 부르시는 내 주인의 집으로 오십시오.”

52. “오, 사람아,”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주인에게, 그가 나를 믿은 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충분하다고 전해라. 네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는 이미 깨끗해져 있을 것이니.”

53.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곧 기쁨으로 빛나는 그의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 마태가 내게 다가와 말하였다. “스승님, 한 여인이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녀를 사로잡았던 악령들의 영향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제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54. 내가 한 마을로 가던 중, 마리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입으로 네가 곧 떠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을 알고 있네. 내 마음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인류를 위해 내가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은 너에게 전해야겠구나.” “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내가 그녀에게 대답했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의 희생적인 죽음은 필수적이다. 씨앗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기 위해 땅속에서

죽어야 한다. 네 아들의 피는, 흘러질 때 네 마음에 지대한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내가 네 자녀들로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과 같을 것이다. 나의 죽음은 생명이 될 것이며, 너와 나는 단 한 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55. “이제 나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겠다. 그는 곧 무덤에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를 거기서 다시 데려올 것이다.”

56. “너도 그곳으로 가거라. 네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니, 그들의 슬픔은 곧 커질 것이나, 네 사랑 안에서 그들은 매우 달콤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57. 나는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왔다. 이미 그들과 함께 지내는 마지막 날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이에 놀라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나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요한은 시련의 시간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가 나의 어머니 곁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내 손을 자신의 두 손 사이에 꼭 쥐었다.

58. 타데오는 스승과의 이별을 생각만 해도 이미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나는 아직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은 애뜻하면서도 고통스러웠고, 입술보다 영혼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이었고, 나의 말씀은 그 마음속에 쌓여 있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달래주어야만 했다.

59.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형제로서 형제들에게,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 제자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목마른 순례자들의 물을 마셨고, 나의 말씀과 행적을 갈망하며 먼 길의 고생을 견뎌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내가 너희 시야에서 사라지겠지만, 너희를 떠나지는 않으리라. 너희가 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한다면, 내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안에 살아 있고, 너희 입을 통해 말하게 하리라.”

60. “제자들아, 내 마지막 말까지 귀 기울여 들어라.” 그 후, 호화로운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리아 막달레나였는데, 오랫동안 나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구원해 줄 빛을 내 눈에서 찾고자 했던 이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나사렛 사람이 자신의 더러운 짐을 벗겨 주는 모습을 보았다. 빛과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에 이끌려 그녀는 내게로 왔다.

61. 그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놀라움 속에 내 앞에 엎드렸고, 사람들이 내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적어도 한 마디의 책망이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하였다. “왜 울고 있느냐? - 너는 고통과 기쁨 때문에 울고 있다. 그러나 네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용서하리라.”

62. 그 순간, 그 피조물을 세상에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떨어져 나갔고, 자유를 얻은 그녀는 나의 제자들 중 가장 충실한 자처럼 나의 발자취를 따랐다.

63. 한때 자신의 가문에 수치와 오점을 안겨주고 남성들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여인은, 용서의 한 마디로 스승의 가장 겸손한 시녀로 거듭났으며, 나중에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 닥쳤을 때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버팀목이 되었다.

64.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는 나는, 그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지은 제가,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 “오, 여인아,” 내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깨끗해졌으니. 겸손의 망토로 몸을 감싸고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마리아를 찾아 그녀를 따르거라.”

65. 그 후, 모든 이의 얼굴에 드러난 놀라움을 보시고, 내가 말씀하셨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의 길을 비추기 위해 온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로들의 쇠사슬을 끊어 주는 해방자이다. 너희는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이제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내 생명이 너희 존재 안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순간이 머지않았다.”

66. 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저택을 떠났다. 그러나 나는 한 그루 나무 그늘 아래 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너희는 아직 내 말씀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 물론 너희는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남겨지게 되겠지만, 내 망토가 너희를 덮어줄 것이므로 너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너희는 내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먹여 살릴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빵을 불릴 것이다.”

67. 그리하여 나는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셨으며,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나를 따르겠다는 수많은 약속을 드렸다.

68.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사흘을 너희에게 상기시키지 않겠다. 이는 다른 기회에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받은 백성아. 그때 나는 너희에게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도를 드리

위해 물러났던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나의 마지막 체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1

1. 나는 내 지혜와 사랑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닿게 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것은, 너희가 잠시나마 내 말씀의 영적 광채 아래서 살게 하고, 영적 생명의 왕국에서 몇 순간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3. 힘과 생명이신 내 말씀의 빵을 받아 먹으라. 그래야 시련 속에서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4. 나의 새로운 제자들 중 일부는 골고다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지상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온전히 영과 고양,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만이 그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5. 당분간은 쉬며 내 말씀을 들으라. 힘을 내라. 내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아. 이 십자가를 지는 자는, 그의 마음이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온 존재가 끝없는 이웃 사랑과 큰 온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발하겠는가?
7. 이 영성화 시대에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지고 갈 것이다.
8. 이 십자가는 영적으로 위대한 이들, 즉 참된 사랑의 불길에 휩싸인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9. 현재 인류를 집어삼키고 있는 불이 하나 있지만, 그것은 나의 불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의 형제들이 서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그 불은, 그들의 폭력, 정욕, 적대감, 헤아릴 수 없는 탐욕, 복수심, 그리고 물질주의에서 비롯된 불길입니다.
10. 인류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 불길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만들어낸 그 지옥에서 비롯된 것이다.
11. 나의 신성한 불은 모든 존재에게 빛을 비추는 생명이지, 파괴나 죽음이 아니다.

12. 나의 불은 정화하고 고귀하게 하며, 비추고 힘을 주는 빛이지, 영원히 괴롭히거나 영혼의 생명을 파괴하는 불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다.

13. 내가 이 시기에 너희가 나를 들을 수 있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면, 이는 내가 세상을 위해 가져온 씨앗이 꽃피기에 유리한 영적 시대에, 너희가 빛으로 승화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을 명심하라.

14. 나는 너희 영혼에 나의 지혜와 사랑을 심어주노라 - 생명과 건강, 기쁨과 평화 그 자체인 이 영성화의 흐름을.

15. 인류 위에 진리의 말씀을 쏟아 부어라. 내가 너희에게 글로 남겨 줄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말씀도 함께 말이다.

16. 나는 너희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다양한 길을 걷는 방랑자들을 인도하는 별과 같아야 하고, 다른 이들은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인간의 정욕이라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빛을 비추어 난파당한 자들의 길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아야 한다. 나는 내 가르침이 너희 입술에 깃들기를 원하노니,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라.

17.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정화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왔음을 깨달아라.

18. 이 기억의 순간들 속에서, 나는 온 우주가 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리라. 길을 걷는 모든 이가 스승을 생각하며 잠시 멈춰 서서 묵상하게 하리라. 이 시간에 임종을 앞둔 모든 이가 영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19. 나는 사랑의 씨 뿌리는 자요, 너희는 나의 밭이다. 너희를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실 나의 능력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20.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씨앗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없다.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올 이들을 위해 그것을 계속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경작할 밭도, 뿌릴 씨앗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그것은 후손들을 위해 보존될 것이다.

21. 내 메시지를 이해하여,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라. 눈을 뜨고, 내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깨달아라.

22. 폭력을 행사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을 보느냐? 머지않아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3. 나는 그들에게 오직 사랑의 빛인 선함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력해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24.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계속해서 세상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25. “말씀”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너희가 그 빛을 너희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두를 돌보겠다.

26. 나는 영원한 씨 뿌리는 자이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불리기 전부터 나는 이미 씨 뿌리는 자였으며, 물질화나 오류, 무지를 초월한 자들—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 영역과 거처에 거주하던 자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27.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알았던 이들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많은 이들을 보내어 세상에서 나를 증거하고,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언자였고, 어떤 이들은 선구자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사도들이었다.

28. 내 발자취가 남아 있는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다. 구세주가 필요했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은, 다른 세상들에서는 너희 형제자매들의 갱신과 사랑으로 인해 나의 십자가와 잔이 제거되었으나, 이곳 이 세상에서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시관을 쓰고, 너희의 불완전함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며, 여전히 담즙과 식초가 담긴 잔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29. 나의 사랑의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나는 무한한 인내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인간 존재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승천 기회를 허락해 주었고, 깊은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이 깨어나기를 수많은 시대를 걸쳐 기다려 왔다.

30. 이제 너희는 빛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위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 나는 너희가 이 책의 또 다른 장을 알게 하려고, 생명과 지혜의 책에 달린 또 하나의 인장을 풀었다.

31. 나는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너희가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만을 적절한 분량으로 너희에게 준다.

32. 사람들은 발전해 나갈 것이며, 그들의 영적 성숙과 상향적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나는 그들에게 내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리라.

33. 나는 너희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너희 영혼을 위해 정하신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배와 같기를 원한다. 위대한 것은 오직

위대한 것 안에만 쏟아져 들어갈 수 있으며, 하찮은 것은 위대한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34. 너희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창조의 계획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창조의 교향곡 속에서 조화로운 음이 되는 것이다.

35. 나는 사랑의 내적 깨달음을 느끼는 자가, 그것이 아버지께로 높아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골고다로 나아갈 것임을 안다.

필요하다면, 너희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기 부인과 헌신 속에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풍요롭고 완전한 생명이 존재하는 영의 왕국으로 승천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36. 인류여,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희를 비참함에서 구원하러 왔다. 완고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부드러운 손은 바로 나의 손이었다. 너희를 치유하기 위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갔던 그 자비로운 의사는 바로 나였다.

37. 병들고 슬퍼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 곁에 있었으나, 너희는 누가 너희를 찾아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 눈에서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오, 너희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도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운 물로 너희 발에 물을 주려 하지 않았기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38. 이곳으로 와서, 끝없는 완전한 사랑과 조화의 선물이 너희 영혼에게 말을 걸어주는 그 연주를 들어보아라.

39. 겻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그 밤을 비추었던 것처럼, 신성한 빛이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라.

40. 나를 심판하려고 찾아온 무리에게 내가 스스로를 내어준 것을 기억하느냐?

41. 그 순간 스승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가르침은 매우 의미 깊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2. 그 순종은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랑의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살아있는 본보기가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훗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43.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삶은 너희가 그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열린 책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책을 읽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44.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미약한 힘을 드러내는 너희의 연약함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보완할 만큼 강하고 위대하며, 너희의 사랑 부족을 채워줄 만큼 사랑이 넘친다.

45.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순수해지도록, 참아내고 고통되는 고통 속에서 정화되도록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 진정한 회개를 의미한다.

46. 정화는 영혼의 완전함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화와 완전함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 완전한 영혼은 단지 순수한 영혼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47. 너희는 머지않아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너희 영혼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48.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갈 때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미 영적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부와 안락함, 만족을 누린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며, 언젠가 고통이 닥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지상의 육신을 뒤로 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때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 평화도, 기쁨도, 깨달음의 빛도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안식 없이 방황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처럼 울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통은 - 비록 더 이상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 지상의 육신으로 겪던 것보다 무한히 더 큼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제 심판자이자 양심인 자신 앞에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49. 영혼의 미약한 힘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영역에서, 그들은 궁핍한 존재가 되어 비참함, 고독, 버림받음, 그리고 궁핍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슬픈 삶 속에서 오직 한 가닥의 작은 희망, 즉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하고 있다.

50. 차라리 지상에서 가난하게 지내되,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차라리 궁핍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무의미하게 지내라 -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고향에서는 그러지 말라. 영적 세계의 고통은 물질적 삶에서 겪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51.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평화의 왕국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52. 비록 소박한 물질적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너희는 궁핍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넘어 위대해질 수 있도록 이를 깨달아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겪는 고난이 너희에게 무슨 근심이 되겠느냐? 영적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강하지도 위대하지도 못한 것이 천 배나 더 슬픈 일이다. 위대한 영혼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시련 앞에서도 평정심을 지키며, 빛과 평화로 가득 찬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

53.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오직 마음속으로 순수하고 겸손한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54.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내게, 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그들이 여전히 타락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골고다로 향한 길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죽음, 내가 행한 기적들, 나의 사랑의 가르침, 나의 연민, 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나를 박해한 자들과 처형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구였던 나의 마지막 숨결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고 나에게 말합니다.

55.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러나 심연 위로 몸을 일으켜,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의 영혼은 태양의 빛보다 더 밝게 빛난다.

56. 그 모든 삶과 고통, 그리고 사역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나는 때가 되면 그 빛을 받지 못하고 그 빛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노라.

57.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혀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를 향해 마음을 돌리고 더듬거리는 기도로 내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주님, 주님 앞에서 회개를 느꼈던 그 죄인이 주님께 구원을 얻었다면 - 왜 제가 마지막 순간에 디마스처럼 주님께서 제게 손을 내밀어 어둠에서 끌어내시어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못하겠습니까?”

58. 육신 속에 품고 있는 어둠의 군주를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들이,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회개, 그리고 희망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세에서 다시 찾아올, 더 큰 형벌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며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를 선호하는가!

59. 이들은 바로 너희가 사회의 쓰레기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보라, 그들이 진리를 직감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그러나 세상에서 자유와 인정, 신뢰를 누리며,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하고 의견을 피력하느라 종종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너희는, 진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 줄 깨달음의 순간조차 없다. - 오히려 너희는 의심과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리고 있다.

60. 내가 나의 말씀과 수난, 그리고 피로 영혼들에 뿌린 씨앗은, 한 사람이나 한 민족, 혹은 한 세상의 삶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항상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 씨앗은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삶을 예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꽃을 피우곤 한다 - 자신의 힘에 취해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가 갑자기 낙담하고 패배한 채 고통의 침상에 쓰러질 때 말이다. 그곳에서 그는 나를 생각하며 성찰하고, 정화되며, 고귀해지며, 나의 모범을 따라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그러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변화하는데, 이는 진리가 순식간에 그에게 닿았기 때문이다.

61. 교만한 민족들이 물질적 권력의 광채 속에서 살았고, 그 백성들이 영광적으로 자신의 정욕에 몰두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종교적 의식을 통해 그릇되고 위선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야심 찬 목표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배와 파멸이 닥치고, 위대함에 대한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하며, 현실이 그들을 깨우러 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을 나를 향해 돌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평화는 오직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는 분명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62. 내 씨앗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아느냐? 이를 의심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고통이 너희를 진리와 마주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깊이 성찰하며 그 씨앗을 찾아야 한다.

63. 이 세상은 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흔적이 지워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나에게 대한 표징과 양심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치는 나의 목소리의 울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4. 나는 어디에나 계시며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나는 아직 너희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65. 내 백성아, 왜 너희는 때때로 여전히 너희 스승을 시험하려 하는가?

66.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왜 박해자들에게 항복하셨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희생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찾는 자들에게 넘겨지지 않기 위해 사라지는 것은 나에게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라짐을 목격하고 경악했을 것이며,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전하러 온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는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행하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는 그분과 하나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67. 너희는 이 모든 설명을 이해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올 일을 파악하거나 예견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약속과 예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미리 몇 가지 계시를 주려 한다.

68. 나, 스승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위대하고 높임을 받고, 진정으로 영과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룬다면, 오늘날 그의 존재를 나누고 있는 두 가지 삶, 즉 지상의 인간적인 삶과 우주적이며 무한한 영의 세계에서의 영적인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69. 그때 그는 오직 하나의 존재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의 본성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와 양심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우주적 생명과 하나가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가 영적인 세계에 살든 지상에 살든 –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머무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어디에서나 그는 주님의 임재를 기뻐할 것이며, 어디서나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때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70. 그날 밤 내가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넘겨주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고 너희에게 말했더니,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주님, 그렇다면 유다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정죄하지 말라.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를 판단하려면, 너희 마음속에 연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미성숙하고 인간적이었으며,

그의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부추겨 스승을 배반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71. 너희는 그 제자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자로서 스승을 배반하러 왔다고 믿느냐? 아니, 내 백성아, 아무도 나를 배반할 필요가 없었다. 그 시간이 다가왔고, 박해자들은 나의 발걸음을 노리고 있었으며, 피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72. 그 남자는 나를 따르던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도록 선택받았던 자였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분께 등을 돌리고 스승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편에 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고,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부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73. 유다가 양심 속에서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느꼈던 회한은 얼마나 컸던가!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그의 고통은 얼마나 컸던가!

74.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만일 이 시기에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배반한다 해도, ‘어쩌면 그것이 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75. 배반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모두는 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76. 십자가에서 죽고, 그 후 무덤 속에서 다시 피어나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운명 지어진 분은 바로 나였다.

77. 오늘 나는 나의 새로운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명에 부응하는 일이라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영혼의 거짓 화폐이며, 그 가치는 부정적이고 영생에 있어 잘못된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돈은 나의 모든 사도가 걸어야 할 참된 자비와 겸손의 길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7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유다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으며,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를 증명하였다. - 그 제자들 각자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바쳤고, 그들 각자는 내가 세상에 선사한 연주에서 하나의 음과 같았다.

79. 어떤 이는 순결과 고양의 음색을 더했고, 또 다른 이는 믿음과 힘의 음색을, 또 다른 이는 웅변과 설득의 음색을, 또 다른 이는 겸손과 온유함의 음색을 더했다. 이처럼 각자는 자신이 지닌

것, 스승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자신이 느낀 바를 바쳤다. 단 한 사람만이 연약했으나, 그의 연약함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 되었을 뿐, 그를 심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80. 제자들아, 오늘 밤 너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성찬식 때 나와 함께 하도록 하라. 나의 빛으로 양식을 삼고, 나의 말씀의 포도주를 마시라. 그 안에서 너희는 읽을 수 있는 열린 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 있게 될 것이다.

81. 신성한 사랑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 식탁으로 오라. 그러나 그곳에서는 두려움도 느껴지며, 희망의 달콤함이 이별의 쓰라림과 배신의 입맞춤이 뒤섞여 있는 곳이다.

82. 바로 이곳에서 너희는 양심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너희도 배신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사랑 없이 입맞춤을 했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83. 식탁에 앉기 전에, 기도의 맑은 물로 몸을 씻으십시오. 이성 & 마음을 정화하여, 영혼이 이 영적인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84.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주위에 둘러앉아 마음속 가장 깊은 고요와 경건함 속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85.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여러분은 이 잔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단장도 마쳤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영적 식탁의 식탁보 못지않게 순수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86. 물질적 삶의 소용돌이와 인간의 비참함과 궁핍은 밖에 두고 오라. 이리 오라, 육신을 입은 영혼들이여,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사는 너희도. 사람들아, 이 땅에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러 이리로 오라. 왜냐하면 스승과 영과 영으로 대화하는 자는 '육신'과 세상, 무지의 어둠, 그리고 모든 멍에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87. 내 말씀의 빵을 신중히 먹으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투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88.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고요와 영성화의 동산에서 기도하여, 너희의 온 존재가 힘으로 충만해지고, 산 정상까지 십자가의 짐을 견딜 수 있게 하라.

89. 기도하여, 너희 내면의 하늘 사다리, 곧 영적 완성을 향한 사다리가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90. 기쁜 마음을 품고 너희의 사명 길을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옷이 찢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고발하기 위해 너희에게서 죄나 잘못을 찾아내어 박해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91. 너희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을 잊고, 영의 기쁨을 입으라.

92.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법을 아는 이는 적고, 기도한 뒤 울게 되는 이는 더 많다. 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노래로 바꾸되, 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희망으로 그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갑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93.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기쁨에 대해 말하지만, 너희는 마음속에서 다가오고 앞으로도 추모에 바쳐질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94. 그렇다, 백성아, 내일 오후 3시가 되면 너희는 흐려진 태양을 보게 될 것이며,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나를 기억하는 모든 이가 슬퍼할 것이다.

95. 해는 애도용 검은 리본 사이로 숨을 것이니, 마치 그날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을 목격하지 않기 위해 어두운 구름 뒤에 숨었던 것처럼 말이다.

96. 온갖 종류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마주하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97.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했는가? 스승께서는 그 조롱을 받아들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묘하게 질문했는가? 그분은 사랑과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배신했는가? 그분은 그 배신 앞에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목숨을 요구했습니까? 그분은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구원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98.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게 말해 보아라. 너희가 동료들에게 배신당한다면, 그에 맞서 반항하지 않겠느냐, 저항하지 않겠느냐? 알아두어라.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배신을 당해야 할 때도 있다. 영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다.

99. 나의 제자들아: 이 책은 이 시대를 위해 펼쳐진 채로 남아 있다. 이 순간들에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가 고요한 시간과 추억 속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나의 수난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고양되고 영적인 방식으로 나를 기억하는 자는 빛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빛은 영감으로서 너희로 하여금 많은 알려지지 않은 교훈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100. 내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너희 생각의 길을 걷게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잊으시고, 자녀들과 그들이 가한 모욕을 잊은 채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게 하라. 너희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보게 될 때까지,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101. 오,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친구로서, 제자로서인가? 아니면 내 십자가가 되고자 하는가? 너희는 내 손과 발을 꿰뚫은 못과 같으려 하는가? 너희는 내 '가시관'의 가시들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되고자 하는가?

102. 백성아, 너는 울고 있으며,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에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 스승의 발치에 엎드려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도 너희가 그 제자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마리아의 사랑의 망토 아래에서 너희를 그녀의 자녀들로 남겨두었을 때, 너희 모두가 그 제자 안에서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103.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과 축복을 남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2

1.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 스승을 찾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내 곁에서 그를 인도할 빛과 죄의 용서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스승께서는 이 기념의 날에 사랑으로 너희를 맞이하신다. 그분이 인류에게 남기신 수난의 흔적은 오늘 이 날 다시 새겨진다.

3. 비록 그 육신의 피는 증발해 버렸지만, 그 본질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영 속에서 지워질 수

없으니, 너희가 잠시나마 십자가의 무게나 갈보리 산의 험난한 오르막길을 느낄 때면 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4. 예수님께서 사랑의 피로 길을 열어 놓으신 이래, 구원을 갈망하거나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남긴 발자취를 찾아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길이며, 여러분이 어둠도 고통도 없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5. 기독교 세계는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으로서 죽으시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는 신성한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들 사이의 이념적 투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희생의 죽음 이후 한 시대가 지난 오늘날,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임재하고 있다 - 더 이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십자가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어깨에 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피투성이가 되어 가시관을 쓴 랍비를, 채찍질당한 몸을 하고 길가의 돌들에 피를 흘리며 걷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고통으로 눈을 꼭 감은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곤 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분이 산 정상에 도착하여 악인들 사이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6. 그 위에 죽으신 분에게 수치와 치욕이었던 십자가는, 사랑을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자신들의 잔혹함을 채우기 위해 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자들조차도 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도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위로, 용서 그 자체이셨던 그분을 고발하고 정죄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심연 속에 빠져 있어, 내가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들 앞에 보여준 선함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7. 그 시절에 나는 인간으로 오지 않았으며, 십자가의 무게가 내게 얹히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가 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너희 마음 위에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는 이는 바로 나이다.

8. 너희는 이미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느꼈고, 고통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 때 육신이 채찍질당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 또한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미 느꼈다. 너희 삶의 고통은 채찍질과 같았고, 너희가 나를 찾는 방식 때문에

예수님처럼 미쳤다고 여겨진 조롱은 구세주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과 같았다.

9. 보라, 제자들아, 너희의 삶은 골고다와 같다.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나를 따르며, 내게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담즙과 식초가 섞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10. 너희는 이 땅을 마땅히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너희는 선과 악을 알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지식과 공로에서 완전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허락하였으니, 너희 영혼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1. 그러나 나쁜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 길 위에서 고통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기가 은총과 빛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회개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힘을 얻어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 갱신을 추구할수록 더욱 거세지는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이의 노력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공로가 되는가.

13. 내 희생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노라, 백성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든, 나를 부인하는 자든 모두 내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역사의 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영원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14. 너희는 왜 너희 십자가의 짐, 즉 책임과 고통이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가벼운지 알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너희 모두는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며, 누구도 자신의 영혼이 빛을 받은 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라. 나를 그렇게 따르는 자는 죽음조차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15. 오늘 내 목소리는 율법과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시나이 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이다. 오늘도 그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많은 이들의 불신을 보고 있다. 나는 그 당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모세가 너희의 우상 숭배와 연약함을 보고 분노하여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것을 너희 양심에 새겨 주는데,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의 사자인 엘리야가 너희에게 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너희는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16.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우리의 배은망덕함으로 인해 모세의 분노로 주님의 율법 석판이

부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제2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율법을 전하러 오셨으나, 너희는 그분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게 하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7. 내가 너희 백성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묻노라. 시나이 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 후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신 영생의 양식은 어디에 있느냐? - 너희는 고개를 숙이고 내 질문을 듣고 있으니, 너희가 길을 벗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18. 태초에 너희는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버렸다. 오늘날 너희는 다시 이 땅에 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파 출신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족이 있고, 부부 또한 열두 지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민족이나 지파로 나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계획을 이해했는가? 바로 너희를 선택하고 하나로 모은 나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도 이유를 모른 채 떨게 되는 이유이다. 그들은 과거에도 나를 들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19.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제3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는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의 피, 성령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정화가 필요할 때, 너희의 보편적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사랑의 눈물로 너희를 씻어 주시고 자비의 망토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20. 아버지께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가 되어라. 왜냐하면 나는 어떤 이들은 내 계명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분열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유혹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내 말씀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나, 듣는 이들 중에는 내가 교육받지 못하고 서툴며 소박한 지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생기는 의심에 사로잡혀 내 목소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들도 있다.

21. 과거에 나를 박해하고 조롱했던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나의 사랑의 증거로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영혼의 평안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내 계시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저하며 찾아왔다.

그리고 나를 듣게 되자, 내 목소리에 부름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아 크게 흔들렸다.

22. 이들은 내가 열방에게 빛과 평화를 전하도록 택한 백성이며, 인류 가운데 흩어져 숨어 있던 자들이다. 그러나 나의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시선은 나의 모든 종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름을 보내고, 내가 여전히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사명을 알려 주었다.

23. 세상은 마리아의 지상 생애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희는 자장가이자 위로, 희망, 그리고 치유제가 되는 그녀의 모성적인 목소리,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부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우주 위에 신성한 망토를 펼쳐 놓고, 그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온기와 보호를 베푼다. 그녀 또한 구원하고 해방시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를 품고 있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한 여인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이 안겨 있던 성소였던 그녀의 몸이라면, 그녀의 영혼은 모든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겠습니까!

24. 세상이 그분의 어머니의 마음에 뚫어 놓은 상처는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오직 미소의 사랑스러움과 어루만짐의 다정함만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눈물을 감추시는지! 나의 무자비한 정의와 인간의 죄 사이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하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중보와 모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5. 나는 “구름” 위에서 너희에게 말하며, 내게로 오라고 초대한다.

26. 나는 여전히 너희가 그 책의 첫 페이지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내가 가르침을 주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7. 내가 너희가 내게 도착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 이것이 제가 거둔 열매입니다. 제 모범을 통해 몇몇 동료 인간들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내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나는 세 차례에 걸쳐 너희에게 영혼의 구원을 제안했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 말을 경청하고 겸손을 입으며, 높은 받침대에서 내려와 너희 마음속의 모든 증오를 몰아내라.

29. 나의 말솜은 화려하지 않고 간결하니, 이는 너희 모두가 이해하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0. 내 백성 중에 무지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었기 때문이다.

31. 모든 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본다. 그러나 후자의 열매는 내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게 바칠 맛있는 열매만을 골라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모든 의무를 잘 알고 있다. 예전에는 어두운 장막이 너희 눈을 가리고 있었기에, 너희는 비틀거리며 세상을 헤매곤 했다. 그러나 나는 밤의 번개처럼 내려와 너희의 길을 밝혀 주었다. 그 이후로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

32. 너희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양심에 물어보는 법을 배웠다.

33. 오늘,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34. 스승이 다시 한 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며, 평화의 입맞춤을 전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저에게 무엇을 바치는지 묻기 위해 왔습니다.

35.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일에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품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러 왔다.

36. 나는 언제나 너희를 위해 내 피를 흘려왔다 - 때로는 사람들의 육안 앞에서,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저 세상에서 너희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나는 이 시기에 흰 “구름”에서 내려와 나의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리며, 너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37. 너희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 이미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내 책의 첫 페이지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깊이 탐구하며, 용기 있게 길을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8. 너희는 나를 울게 하고 내 피를 흘리게 했으니, 이제 나는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스승님, 여기 가르침이 있고, 여기 수확이 있으며, 여기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저기에 새롭게 태어난 인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회심시킨 그 남자와 여자를 내 앞에 데려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내 감추어진 지혜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세 번이나 내려왔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씀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며,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새겨주는 바를 실천해야 한다. 곧 겸손을 입으며, 거짓된 위대함의 단상에서 내려오고, 이웃에 대한 악의와 증오를 뿌리 뽑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 정의의 지팡이가 인류에게 내리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39. 너희는 더 이상 무지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풍성히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묻노라. 어찌하여 내 제자들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말씀과 지시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가? 내가 너희 모두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언어로, 쉬운 말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어떤 이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똑같이 말씀한다. 그러므로 내일 너희가 내게 “스승님, 우리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의 지시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따르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 아니, 이스라엘아, 네가 현재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을 뿌리 뽑아야 한다. 너는 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율법은 네 죄의 원인이 아니며, 이러한 실수들에 대해 내 사역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율법을 눈발처럼 맑고 순수하게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가?

40. 깨어 기도하라.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내 율법에서 떠나려 하는 것을 본다. 어떤 이들은 율법에 등을 돌리고, 다른 이들은 자기 길을 가며 비틀거리며, 내가 너희에게 정해 놓은 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차라리 가시덤불에 빠지기를 더 선호한다. 사방에서 나무들이 높이 자라나, 인류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과는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좋은 열매들도 섞여 있는 것을 보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쁜 열매는 제거하고 좋은 것만

남겨 두라. 그것들을 가려내어 오직 순수한 씨앗과 황금빛 밀만을 내게 바치라.

너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밝은 번개처럼 나타나 너희의 길을 비추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었고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그러나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만연한 악에 유혹당하지도 않으면서, 확고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말이다.

41. 오늘 너희는 더 이상 무지한 아이들이 아니다. 오늘 너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 그리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이요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과 양심을 준 것은, 너희가 그것들에게 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랫동안 너희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형제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 양날의 칼을 뽑지 말라고,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하나였던 내 율법의 순수함과 완전함을 깨닫고, 내 하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이해와 선의로 높아지기를 간청해 왔다. 온 땅에 평화가 깃들고, 더 이상 파멸이 생명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입에 쓴맛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나의 신성한 자비를 베풀겠다.

42. 준비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자신의 길에서 평화를 보게 될 것이며, 영혼과 육신으로 내 자비가 넘쳐흐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시기에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으로부터 수정처럼 맑은 물을 쏟아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강물처럼 쏟아 부어,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일 너희가 모든 물질주의와 허영을 버리고 오직 선한 행실만을 실천함으로써, 이 인류가 자신을 비취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어 나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노라.

43. 나는 언제나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왔다. 내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나, 너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용감한 군인으로서 남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44. 오늘 아침, 나는 현존과 권능과 본질로 너희 가운데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치유의 향유를 준다. 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슬픔에 잠긴 어머니들, 노인들을 축복한다. 모든  
이에게 나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빛을 준다.

45.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그분의 입술을 움직이게 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으니, 바로 그 음성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46.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정화시키는 불이며, 깨끗하게 하는 은총의 물이기도 합니다.

47.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더라도, 오늘은 믿다가  
내일은 믿지 않는 제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시간이 있고 의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48. 나는 너희 안에서 인간적인 삶에 지치고 지나치게 바쁜  
백성을 보는데, 그 결과 비록 영적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일들에 크게 치우쳐 사는 백성이 되어 버렸다.

4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진리에 눈을 뜨고, 그릇을  
겉만 씻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또한 선행을  
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바치면 가난해져서 먹을 빵이 없어질까 봐  
모든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

50. 아, 그런 생각을 하는 너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방황해야만 하겠느냐!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너희는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51. 나는 너희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 백성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는 자신의 길에서 자비의 행실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왜 나는 여전히 너희가 속이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가? 왜 너희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지 않는가? 설령  
베풀다 해도, 단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행하는가?

52.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때로는 믿음이 식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곤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가 자선과 충실함, 그리고 진실함에서도 차가워졌음을 보게  
된다.

5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충실함을 배우지 않는 자는  
누구도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54.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로 내가 너희에게 엄한 말로 말할지라도, 그 말들은 너희의 행실에 비추어 볼 때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엄한 심판은 아니다.

55. 나는 오직 내 말씀으로 너희의 불완전함을 씻어 주려 할 뿐이다. 이 잔치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준비했어야 할 ‘흰 옷’은 어디에 있느냐?

56. 나는 너희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내 성소를 바라보고자 한다. 오, 너희 인간 영혼들아, 너희는 마치 방금 태어난 것처럼 여기지만, 실은 오래전에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품고 계신 분에게서 이미 나왔도다! 모든 종류의 완전한 사랑은 그분에게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57. 너희가 인간의 육체가 발달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영이 펼쳐진다. 그러나 육체는 발달에 한계에 부딪히는 반면, 영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물질과 영원을 필요로 한다.

58. 이것이 바로 너희가 환생하는 이유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적·어머니적 창조 영으로부터 순수하고 단순하며 깨끗한 씨앗과 같이 태어났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것과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 이를 갖 태어난 아이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 많은 어른에 비유할 수 있다.

60.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이 발달하는 대로, 모든 삶의 단계에서 너희의 사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은 얼마나 더디게 발전하는가!

61. 내가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지 벌써 거의 2000년이 지났다.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다. 너희는 육신을 가졌든 없든, 이 “계곡”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여러 번 살아왔다. 그러나 너희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62. 그 숭고한 가르침이 너희 영혼 속에서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63. 이 세상은 그 주민들과 함께 영성화되어, 고통과 운명의 시련에 종지부를 찍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64. 내 사랑의 불꽃이 너희 마음의 눈을 녹일 것이며, 비록 수세기가 지나간다 해도 나는 계속 가르칠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배우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65. 마리아 막달레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66. 인간의 이성 은 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비 앞에서 멈춰 서서 상징에 만족할 뿐이다.

67. 상징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들로, 빛의 시대에 접어든 인류의 신 숭배 속에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68. 마리아 막달레나—세상이 ‘죄인’이라 불렀던 그녀—는 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69. 그녀는 곧 구원을 얻었으나, 죄 사함을 반쪽짜리로만 구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을 곧 찾았으나, 다른 이들은 그것을 얻지 못한다.

70. 막달라는 자신의 회개를 자랑하지 않았음에도 용서받았다. 그녀는 너희가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행동에서 실수를 저지룰 수도 있지만, 사랑은 마음에서 넘쳐흐르는 다정함이다. 너희가—너희처럼—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시선을 나를 향해 두어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잘못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71.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서 넘쳐흐르던 사랑을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에 바쳤다.

72.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용서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화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죄인이 받은 용서 덕분에 그녀는 단 한 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내 제자들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순간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 천대받던 마리아는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를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73.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내 십자가 아래와 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특권이 주어졌다. 그녀의 영혼은 많은 사랑을 했기에 곧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사도의 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심은 진리의 빛처럼 빛납니다. 그녀는 내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죄에서 해방되겠습니다.”

74. 반면에 너희는—얼마나 자주 긴 기도로 너희의 잘못을 가리며, 너희가 무죄하다고 나를 설득하려 하는가.

75. 아니요, 제자들아, 그녀에게서 배우고, 너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많이 사랑하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진리를 너희 마음속에 꽃피우면,  
너희는 위대해질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3

1. 내 영의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는 너희 영 위에 계시니, 그분은 인간의 입을 통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로 이끄는 길로 계시하신다.

2. 너희 성소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존재의 가장 순수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라.

3. 너희는 이 날을 “부활 주일”이라 부르니, 이는 너희가 이 날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걸으신 여정에서 겪으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4. 마침내 신비의 베일을 걷어내어 진리의 성소에 들어가라. 이 가르침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심오한 진리를 계시하리니, 너희가 예전에 나의 빛을 가리던 신비의 어두운 베일이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하리라. 들어라: 오직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 너희는 예수께서 그 당시 “죽으셨다”고 믿는가? 너희는 너희 스승이 “죽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가?

5. “죽음”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죽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만 존재한다. 그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공포의 상징이며, 그 뒤에는 신비나 무(無)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뜨고 너희도 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는 육신과 분리될 것이나, 이것이 너희가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스승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누린다.

6. 내가 육신을 떠났을 때, 나의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신성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삶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의 영은 무덤 속에는 단 한 순간도 머물지 않았으니, 다른 생명 세계에서 행해야 할 많은 사랑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무한한 영은 그들에게 - 너희에게와 마찬가지로 - 많은 계시를 전해야 했다.

8. 영적 존재들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세계들도 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며 빛을 갈망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어둠이 있으며, 전쟁과 정욕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의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임을 알고 있다.

9. 반면 사랑은 진리인 빛의 왕국을 여는 열쇠이다.

10. 이곳에서는 내가 인간의 육신을 통해 나를 드러냈고, 저곳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과 직접 소통 하여, 그들이 나의 영감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11. 이 높고 빛나는 존재들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12. 이제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내가 저 세계들을 방문한 이유를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13. 나는 영적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육신으로 속죄하기 전에, 너희 영혼을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정화하여, 환생했을 때 타오르는 횃불과 같아야 한다.”

14. 내 성령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타오르는 횃불과 같다.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내 지혜의 불꽃에 불이 붙지 않아 타오르지 않는 꺼진 횃불과 같다.

15. 나는 너희가 꺼진 횃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소명, 즉 너희 영혼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비추는 그 순간마다, 이곳에는 수천, 수만 명의 육신을 벗은 존재들이 내 계시를 지켜보며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의 수는 육신으로 현존하는 자들보다 언제나 더 많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둠에서 서서히 떠오르며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17. 너희는 불멸하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너희 몸의 세포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까지 죽는 것은 아니다.

18. 이 기억과 추모의 날은 영혼의 영광, 부활, 그리고 너희 등불의 빛을 상징한다.

19. 나는 이 기념의 날들에 너희 가운데서 내 존재를 드러내어, 너희 마음속에 믿음과 연민, 영성화의 감정을 일깨우고자 했다. 나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너희 마음을 씻어내고 정화했다.

20. 너희는 왜 스스로를 더럽혔느냐? 너희는 성령의 권능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힘을 인간의 의지, 허영, 변덕과 혼동해 버렸다.

21. 너희는 너희 마음속,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양심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타오르는 햇불인지, 아니면 꺼진 햇불인지 알게 될 것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사랑에 비례하여 너희가 지닌 힘과 선함, 그리고 빛도 그러할 것이다.

23. 여러분도 해방의 날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24. 지구는 싸움터이며, 그곳에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행성에서 몇 년의 삶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며, 여러분은 거듭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움과 물질주의가 달라붙은 자신의 몸보다 영혼에게 더 암울하고 어두운 무덤은 없습니다.

25. 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 후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어 평화와 영적 빛의 영역으로 날아오르게 합니다.

26. 너희 영혼이 어둠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만큼, 그 안에 빛이 비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27. 영적 진보의 발자취를 따르며, 지상에서의 삶과 시대를 거치며 빛과 경험, 그리고 상향 발전을 이룩하는 자는 위대할 것이다.

28. 이러한 투쟁과 노력, 눈물을 겪은 후, 너희는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천국—즉, 영의 빛을 통해 온전히 빛나며 승천하는 그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9. 천국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발전해 가는 과정의 최종 목적지이다. 이 천국이 특정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마치 끝인 양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한다.

30. 자신의 믿음과 종교적 실천을 물질적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제한된 형태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는다.

31. 영성가는 전능자가 모든 것에 계시며, 세상과 우주, 그리고 무한함이 나의 본질과 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안다.

32.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더 이상 상징이나 형상을 통해 영의 계시를 물질화하지 않을 것이다.

33.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단 하나뿐이며, 그것들이 특정 장소라고 말하지 마라. 수십억 개의 세계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라 :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34. 너희가 물질적 삶에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법칙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35. 나는 다시 겸손한 이들에게 왔으니,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부활의 날이라 부르는 이 날, 영적으로 깨어나 “나는 성전이며 등불이고, 나는 제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 백성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축복받은 백성들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영혼들아, 인류의 방패가 되기 위해 이 시대에 육신을 입은 자들아 – 나는 너희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시켜, 너희를 기꺼이 순종하는 도구로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길로 인도하여, 너희의 모범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남기게 하리라.

36. 너희 가운데에는 르우벤, 단, 유다, 레위, 이싸카르, 스불론 및 모든 지파의 조상들의 후손들이 있으니, 너희가 가진 강한 영혼으로서 이 힘과 너희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

37.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워질 수 없으며, 비록 이 백성이 시기받고, 시련을 겪고,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러 세대의 뿌리와 생명이 되었던 너희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이 민족이 영혼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자만하여 타락하고 심히 퇴보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속에 환생하게 한 것은, 너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8. 영성화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영감을 주어 온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정성껏 가꾸도록 주어진 씨앗이며, 나는 너희에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이를 전하는 임무를 맡겼다. 오늘날, 시대의 절정에 이르러, 나는 이 씨앗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39. 너희 인간은 모두 이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너희가 육신을 입기 전에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이며, 영성화는 너희가 완전해져야 할, 너희에게 정해진 길이다.

40. 너희는 가장 은총을 받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 나의 뜻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영혼의 활력, 성장, 그리고 축복을 위해 마련해 둔 이 세상을, 마치 너희의 영원한 고향이인 양 사랑하며 그곳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 너희는 영적인 삶을 잊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계곡'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41. 보라, 그 세상은 영성화나 준비가 부족하여 공덕이 거의 없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후회가 그곳을 사로잡고 있는가. 너희는 무지 때문이든 반항심 때문이든, 승천을 이루지 못한 그 영혼들이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돕지 않고서는 그 세상에 거할 수 없다.

42. 인류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들에게는 진보가 아니다. 만일 그들이 고양되었다면, 그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했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와 조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오직 그들의 영적 궁핍과 무지만을 바칠 뿐이다.

43. 사람들이 선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너희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갱신을 말할 때, 너희는 내 말씀을 불쾌하게 여긴다. 너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침묵하기를 바라는가?

44. 이스라엘아, 강해져라. 악과 싸워라. 너희 안에 악의 흔적이 있다면, 너희 자신과도 맞서라. 너희가 숨 쉬는 공기를 정화하고, 모든 외부의 영향을 극복하며, 너희의 능력과 가능성을 활용하고, 깨어 기도하라.

45.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으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우되,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게 하라.

46. 너희의 기도와 영적인 행실로 파괴적인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있다. 1950년 이후에는 오늘날보다 더 큰 힘으로 그 힘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화될 것이며, 큰 고통을 겪은 뒤 평화의 무지개가 빛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도록 초대하는 나의 부르심을 느낄 것이다.

47. 오늘, 너희가 지상으로 돌아온 지금, 너희는 나의 현존을 증언하고 있다. 이는 너희가 예로부터 항상 지녀온 사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할 때 놀라곤 하는데, 이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너무나 깊어서, 너희도 시간도 너희 삶의 역사를 지울 수 없다.

48. 나는 너희가 훗날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를 가르친다. 너희의 말을 듣게 될 이들은 너희의 말에 놀라 너희를 새로운 예언자들과 사도들로 여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나의 사역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 지혜롭게 행동하여 너희에게 청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 주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49. 내 말씀은 너희의 온 생각 속에 메아리쳤으며, 스승이신 내 영은 나의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기뻐하십니다.

50.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었으며, 나의 메시지가 첫 계시 때부터 사람들을 영성화의 길로 인도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 영혼들이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만큼,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계시의 내용을 담은 가르침을 전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51. 모든 시대에 걸쳐 율법의 해설이 되어 온 나의 가르침은, 빛으로 향하는 길로서, 영혼을 위한 안전한 통로로서 너희에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삶의 길을 갈망하는 가운데, 항상 물질화로 향하는 쉬운 길을 선택해 왔으며, 그중 일부는 언제나 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양심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길을 확고하게 걷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각종 숭배와 의식을 만들어 냈으나, 실상은 내 이름과 내 말씀을 삶에서 배제해 버린 자들만큼이나 이기적입니다.

52. 만약 너희가 이곳에서 물질화된 존재들, 즉 이 생을 마친 후 영적 여정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거주하는 “영적 계곡”을 볼 수 있다면, 너희는 경악할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그 대신 너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무정하고,

불공평하며, 잔인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영혼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고, 얼마나 냉담했는가!”라고 외칠 것이다.

53.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 존재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어둡고 평온하지 못한 삶에 대한 고통스럽고 답답한 소식을 전해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 고향의 찬란한 빛도, 그들이 살았던 지구의 아름다움도 없는 세계의 주민들입니다.

54. 혼란과 후회, 고통, 슬픔, 절망으로 가득 찬 그 광활한 “계곡”은 양심의 빛에 의해서만 밝혀지는데, 그 빛은 그 존재들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깨우게 됩니다. 마침내 이 빛이 영혼 전체를 관통하면, 영혼은 자신의 길을 깨닫고, 아직 몸에 걸치고 있던 물질화의 외투를 벗어던지며, 다시 살아 있음을, 부활했음을, 무한한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태초부터 빛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해 주신 아버지의 목소리임을 알게 된다.

55. 너희 중 누구도 혼란의 어둠 속에 머물거나, 회한의 눈물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56. 그 끝없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하라.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겉치레의 행위는 하지 말라.

57. 나의 가르침은 영성을 전하며, 영성이란 진실함, 순수함, 빛, 성실함,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

58. 이것이 바로 나의 길, 유일무이한 길이니, 이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정해져 있었고 모든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길이다.

59.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나의 목소리는, 너희가 잃어버린 길, 잊혀진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고 있다. 이는 너희 영혼이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드리워진 안개 장막을 통과해야 할 때, 빛과 만족, 그리고 고양일 될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60. 내가 이 장막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미약한 영적 발달 수준으로는 아직 존재하는 모든 생명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형제애의 결여로 인해 너희가 민족과 국가로 나뉘어 있듯이, 우주에서도 미성숙한 존재들은 세계와 고향 행성, 그리고 우주 공간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61.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영성화를 통해 세계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62. 그때까지 양심과 자유 의지 사이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인간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63. 이 두 힘 사이의 투쟁은 절정에 달할 것이며, 승리는 영의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영은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헌신 속에서 그분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는 제 자유 의지를 포기하오니, 오직 저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소서.”

64. 내가 것처럼 내 앞에 나아오는 자를 축복하고 내 빛으로 감싸 주리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에게 주어진 그 축복받은 자유를 결코 다시 빼앗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진실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65. 너희는 내가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한 것을 이해했느냐?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너희의 가르침과 지침과는 달리, 영적인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지 보아라.

66. 제자들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67. 나의 비밀 보물창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어떤 것을 나는 대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68. 1866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 별과 같은 별이 빛났다. 세상이 잠들어 있었기에 그것을 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69. 그 별은 엘리야였으며, 로케 로하스의 지성을 통해 전해진 그의 선포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렸다. 그는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길을 밝히고, 그들에게 위대한 계시의 시기를 알렸다. 그러나 엘리야는 나의 예언자이자 나의 선구자이므로, 나는 그의 영을 통해 나의 계시가 내려질 시기를 같은 방식으로 예언하였다.

70. 그 계시의 첫 청중이자 첫 증인들은 로케 로하스가 말한 말들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온 것이며, 그것이 위로와 약속,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말씀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71. 소수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나 큰 무리가 되었으며, 훗날 새로운 대변자들을 통해 스승의 현존을 접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신성한 맛과 영적 정수를 지닌 열매를 알아차렸고, 오직 그 말씀만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72. 이 공동체 안에서,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녔으나 나를 따르기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도 무리가 생겨났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내 존재를 믿기 위해 직접 봐야만

했던 새로운 도마도 있었고, 나를 믿었음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나를 부인했던 새로운 베드로, 그리고 돈과 아침을 위해 내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며 나를 배신할 새로운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었다.

73. 이 백성을 이루는 무리는 끊임없이 늘어났고, 도시와 지방,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 백성 가운데서 진리와 의의 사도들,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일꾼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74. 나는 그들을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식탁에 앉혀, 그들이 나의 하늘의 떡을 먹고 영원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결코 힘이 부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 말을 들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남아 있지만,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내가 왜 이런 형태로 인류에게 나타나는지, 왜 엘리야가 먼저 왔는지, 엘리야가 누구이며 로케 로하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일곱 봉인을 풀었는지 나에게 묻는다.

75. 나는 완전한 스승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대답하고 가르친다. 어떤 이들은 내가 화려한 제단이나 거창한 의식 가운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영성 덕분에 예수께서 결코 호화나 허영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을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6. 나는 언제나 너희의 육체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갈망하며 왔노라. 육체의 물질은 땅에 속해 있으며, 땅의 품은 그것을 갈망하지만, 영혼은 양심을 통해 언제나 자신을 부르는 신성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7. 나의 이번, 마지막 오심에 따른 설교 기간은 길고도 길다. 이는 1866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을 아우른다.

78. 내 가르침의 첫 열매는, 너희가 우상 숭배와 광신, 미신, 잘못된 해석은 물론 이기심, 악의, 악덕, 그리고 모든 흠을 제거함으로써 너희 영혼과 육체의 갱신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누구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내 법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가르침에 너희의 오류를 덧씌우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을 오직 너희 자신에게만 국한시켜 숨기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79. 더 온전한 종교적 실천을 통해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덕스러운 삶을 통해 너희 마음을 고양시키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제3시대의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 영성화의 토대 위에 일어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의 시작과 같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4

1. 너희는 내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야만 했던 이유이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필요로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2. 나의 자비로운 법은 오직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길에서 가시 하나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온 것이다.
3. 아버지께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 그 자체를 나의 계시를 위한 도구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너희에게 내 사랑을 증명해 주었고, 너희의 불완전함을 용서하며 너희의 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는 보잘것없는 지성과 불순하고 서툰 입술을 통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신성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함으로써, 내 능력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4. 너희는 모두 그 기적을 목격했다. 목소리의 주체인 육신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스승의 현존을 감지했을 때 말이다. 그때 너희는 신성한 말씀을 기뻐하며, 빛의 세계로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황홀경에 빠진 영적 평화를 누렸다.

5. 스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양된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습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해 있었기에,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6. 그 후, 가르침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제 집으로 돌아가 제 말씀을 되새기고 싶은 끝없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길에서 여러분을 모욕했던 사람을 만나 그에게 용서해 주고 싶다는 고귀한 소망을 품었으며, 혹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 제 임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품었습니다.

7. 마침내 들은 내용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신성한 가르침을 되풀이하기에는 여러분의 입술이 너무 서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참으로 심오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활동하는 방식 또한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8. 스승께서는 신성한 말씀을 표현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서툴다고 생각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차 여러분의 은사가 꽃피어, 마침내 그 대변자들을 통한 전언조차 필요하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완벽한 교감을 통해 너희가 직접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너희가 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면 -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들어라: 그때 삶은 너희의 영혼과 감각, 그리고 이성을 위해 지혜의 흐름과도 같고, 사랑의 노래와도 같으며, 너희를 창조주께로 이끌어 올리는 사다리라고 할 것이다.

10. 백성들아, 속히 이 경지에 이르러, 높은 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11. 현재 너희는 권능과 지혜가 무한한 가르침을 배우는 어린 제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너희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은 모든 스승의 스승이시다. 기꺼이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길 위의 가시덤불과 걸림돌을 모두 치워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2. 이 제3의 시대에 내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공허를 채우고자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부,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식과 숭배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공허이다.

13. 이제 너희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지가 전해졌으니, 이를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잠들어 있던 자들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의 메시지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이 메시지가 하나하나 모든 마음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해지는 그 시간에 모든 이가 이를 알게 될 것이다.

14. 나의 말씀은 이 인류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리와 정의의 빛이다. 그것은 너희 영혼에게 말하며, 너희가 내 오신 이유와 모든 신비의 해명을 깨닫도록 생각하게 한다.

15. 인간이 평화의 찬가를 부를 수 있으려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더 이상 이기심이나 원한, 증오, 또는 맹목적인 집착을 키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 사이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너희에게 오고자 하는 나의 영을 막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그렇다, 백성아 - 비록 너희는 인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너희는 현재 존재하는 도덕적·물질적 파탄을 알고 있다. 너희는 그들의 비참함과 궁핍함, 슬픔과 절망을 보고 있다. 이 비참함과 고통은 육체뿐만 아니라, 공덕의 부족으로 약해진 영혼도 겪고 있다.

17.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길을 닦는 자들이 되어라. 나의 사랑을 느끼고, 조건 없이 그리고 이타적으로 사랑하라. 깨달음을 얻고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라. 진리에서 영감을 얻고, 내가 시대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위대한 계시들에 깊이 몰입하며, 너희보다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이 지식을 전하라.

18. 이 빛으로 너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너희 영혼에 부여한 능력을 발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은사의 가치를 활용할 때, 삶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사랑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19. 너희가 나의 사도라고 자칭하고 싶다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하라. 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모욕하더라도 아픔을 느끼지 마라. 축복하고 너희의 일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용서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용서가 너희 구원의 대가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행동을 통해 너희는 너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영혼을 비출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20. 모든 것을 사랑하라. 심지어 너희가 숨 쉬는 공기조차도 사랑하라. 그 안에는 온 창조물 속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순간을 사랑하라. 모든 것에 나의 영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둘러싼 자연이 평화와 사랑을 간구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느냐? 나는 모든 자연의 힘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파괴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겪어야 할 것이다.

21.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빵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양식이며, 인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다. 사랑을 담아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강해져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라.

22. 너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강해지면, 너희의 도시가 돌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는 신성한 힘이 있으니, 그것은 내 영의 일부로서, 너희가 이웃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고, 눈물을 닦아 주며, 낙담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그 일은 위대하고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23. 내 사랑이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라. 눈을 뜨고, 내가 모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창조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라. 나의 축복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미친다. 나는 너희 발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가시밭길을 치우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며 언제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리라.

24. 내 말씀 안에서 나는 너희의 고통에 대한 치유를 주며, 너희의 말씀 속에 병자들을 위한 연고를 담는다. 그러나 백성아, 이 연고가 단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라. 이 세상에 사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5. 때때로 내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운 영적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은 너희의 의지를 지배하고, 너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희의 몸을 병들게 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영의 언어로 말씀하시며, 너희의 길에서 그들을 제거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스승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 나는 너희가, 이 존재들, 즉 너희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왜 너희의 지상 삶에 침입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동시에 너희의 연민을 받을 만한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26.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속하지 않는 그 영혼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제2시대에, 몇몇 귀신 들린 자들을 내게 데려온 사례들을 통해 너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그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 계시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악한 생각에 따라 나를 판단했다.

27. 이제 나는 너희가 이 지식을 갖도록, 그리고 너희가 혼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기 위해 나의 가르침을 확장한다.

28. 제자: 평화도 빛도 없는 혼란스러운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말, 저급한 정욕, 나쁜 풍속, 그리고 악덕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화되지 못해 불결한 ‘거처’를 찾아 그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모든 존재들을 끌어당기는 힘과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육신을 벗은 존재들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을 표현할 타인의 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란과 간섭으로 인해 그들이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화를 방해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자신들이 접근하는 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29. 그 영들은 질병 그 자체이며,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림자 왕국의 주민들이다.

30. 영의 빛이신 나는, 영적 삶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 한 명 한 명,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고, 이해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화를 느끼게 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스승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 존재들에게 빛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들은 비록 너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준비할 줄 아는 이의 감수성으로는 감지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

31. 너희 세계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저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올바른 방법은 기도하고, 내 가르침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선을 향한 끈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로 싸우는

자는 자신만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형제자매들도 구원하고 해방시킨다.

32. 이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영적 수행자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사실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행하신 치유의 방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겠느냐?

33.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내 가르침을 과학으로 만들려 하지 말며,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너희를 당황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용하려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4. 언제쯤 너희는 선한 행실을 통해 이 땅을, 이곳을 혼란스럽게 살아가던 모든 이가 나중에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느냐? 언제쯤 너희는 마침내 그 악한 영향들의 세상이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니게 되겠느냐?

35. 너희가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수많은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 어떤 이들이든 마찬가지로 - 끊임없이 서로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병자들이 될 것이다.

36. 그러니 내 가르침의 목적과, 내가 다시 온 의미, 그리고 내 말씀이 그 빛 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여, 더 이상 이 세상의 유일한 주민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라.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라.

37.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기의 스승의 제자가 될 것임을 내가 장담하노라.

38.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모든 시대에 걸쳐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단련되었고, 노예 생활과 박해, 긴 방랑의 고난을 겪어왔다. 이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일시적인 거처로 주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 시기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사마리아로 향하지도 않을 것이니, 대신 나의 영적 왕국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의 지혜의 빛에 휩싸이며, 잃어버린 힘을 되찾도록 초대하는 이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계곡”에 이르게 될 것이다.

39. 너희 영혼을 펼치라. 너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인류 가운데 너희에게 어울리는 이 영성화의 단계를 열었기 때문이다.

40. 너희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말을 듣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의 말씀은 교과서이며, 그 교훈을 이해했다면 동료 인간들에게 나아가 설교하고, 말에 행동을 더하라. 기도하며 나와 너희의 수호천사들과 교감하여, 너희의 영감이 결실을 맺게 하라. 내가 너희를 내면의 묵상 생활로 초대하노니, 너희가 사명을 수행할 때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는 머지않아 너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며, 동료 인간들의 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될 것이다.

41.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이며, 모든 것을 정의롭게 마련해 두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게서 영감을 받고, 너희의 영에 이끌려 병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너희는 참된 지식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너희는 또한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도 나아가,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곧 사람들의 조연자, 인도자, 그리고 옹호자로 변모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42. 너희 동료 인간들이 빠진 파멸이 클수록, 그들에 대한 너희의 인내와 연민도 그만큼 커야 한다.

43. 너희는 모두 본래 순수했음을, 그리고 결국 다시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의 근원을 잊지 말고, 서둘러 그 길을 걸어가서 빨리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44. 인류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구는 이 씨앗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태초에 내가 그에게 준 계명을 이행했다. 그러나 그가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한 법칙들도 많다. 그를 움직여 위대한 업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가 고생하며 애쓴 것은 이성이다. 그들의 영혼은 크게 타락하였고, 그 타락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붙잡아, 그들에게 마땅한 한 차원으로 돌아가게 한다. 내가 영혼 속에 심어 놓은 미덕은 너무나 커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며,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여 괴로워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45. 너희는 아직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왔으며, 너희가 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베풀어 주고 있다.

46. 인류여, 내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의 은총의 선물은 그치지 않았으니, 그 샘은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은총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리라.

47. 영감의 샘으로 오라. 그곳에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하고 피로가 사라질 것이다. 나 안에는 영혼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있다.

48. 이 시대에 너희의 삶의 길은 위험해졌고, 매일의 수고는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인 내 말씀의 빛으로 너희의 순례길을 비추기 위해 왔다. 나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너희가 계속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며, 너희 존재의 덧없음을 잊지 말라고 늘 상기시켜 준다. 그 덧없음을 지나면, 너를 평화로 감싸줄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49. 너희는 참으로 내 말씀의 본질로 양분을 얻는 사막의 순례자들이며, 너희 영혼의 믿음에 힘입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50. 믿음은 고양시키고, 변화시키며, 깨우치는 힘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께로 날아올 수 있다. 그분의 빛이 바로 아버지께 이르는 율법의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51.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며, 영혼과 육신의 온전한 동의 아래 이 시대가 안겨주는 함정과 운명의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방식, 너희가 나를 듣고 보았던 방식, 그리고 너희가 나의 영감을 받은 방식에 대해 증언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성화의 가르침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오늘날 너희는 스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으니, 사람들은 너희를 믿지 않고 미쳤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52. 물질주의에 가려진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들이 언제나 오해를 받아왔다는 역사를 살펴보라.

53. 너희가 나의 사역을 말할 때, 광신과 무지,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과 마주치게 되면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설명할 것이며, 각자는 자신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진리는 빛을 발할 것이니,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54. 사람들이 일단 평화를 얻게 되면, 스승께서 너희에게 영혼을 위한 위대한 가르침을 계시해 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 계시는 더 큰 발전을 이룰 미래 세대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55. 너희는 내 곁에 있어 씨를 뿌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비록 너희가 마주했던 장애물들을 겪지는 않겠지만, 그 열매는 너희 뒤에 올 자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너희의 행실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 위에 사랑과 자비의 흔적을 남기라. 그래야 너희가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율법을 이행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하라. 그동안 너희의 삶과 행실을 바로잡아라.

56. 너희 동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아차리기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의 고귀함을 통해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행동에 겸손이 드러나게 하라. 마음속으로 온유한 자는 영혼 또한 온유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고 허영심 많은 자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이 가난하다.

57. 영성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영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관습과 전통을 파괴한다. 영성주의는 영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통해 정화되고 완성되어 마침내 창조주께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과정이다. 영성주의는 영이 주님을 표현하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여준다. 영성주의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그 잠재력을 꽃피우게 한다.

58. 영적인 것은 만물에 내재하며 모든 이의 것인 보편적인 힘이자 보편적인 빛이다. 내 가르침은 누구에게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59. 영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니, 이는 나의 신성에서 비롯된 미덕이자 영원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에 따라,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함의 정도는 더 크거나 작아질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60. 너희가 영혼의 순수함에 오점을 남겼을 때, 양심의 질책을 듣는 영혼은 정화와 구원, 용서의 근원이신 신성을 두려워하게 된다.

61. 나의 가르침은 이 인류 앞에 다시금 책처럼 펼쳐지니, 그들이 이 가르침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삶을 변화시키며, 물질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영생을 갈망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려 함이라.

62. 일단 더 높은 삶을 알게 되면, 너희는 - 현재 살고 있는 삶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 그 삶을 모든 허영보다 우선시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모든 불필요하고 무익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영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63. 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삶에 대한 더 완전한 관념이 자리 잡게 할 것이다.

64. 너희가 이 세상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에게는 운명의 십자가인 사명이 지워져 있으며, 이를 통해 너희는 산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65. 나를 이해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곧 전파하게 될 가르침은 환상이 아니니, 모든 사람 안에 영적인 것이 진동하고 있으며, 모든 이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이 지상에서 지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참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67. 너희는 그 시대를 이 땅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시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너희 영혼 속에도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될 것이다

68.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2의 시대에, 이미 제1의 시대에 준비된 밭에 뿌리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될 것이다.

69. 오늘날 밭은 아직 잡초와 섞여 있다. 그러나 잡초가 제거되고 황금 이삭을 맺은 밭이 솟아오르면, 인류가 기다려 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70. 나는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5

1. 나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내려앉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이슬방울과 같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을 시들어진 채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삶에 있어 죽은 듯이 느꼈기 때문이다.

2. 너희 희망의 희미한 불꽃이 꺼졌을 때, 너희는 마음의 문에서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나를 보았을 때,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희가 문 앞에서 노크하던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내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라고 말해 줄 필요가 있었다.

3. 너희는 내가 곁에 있었음에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순례자들과 같다. 너희는 내 상처를 보고 만져본 후에야 비로소 믿었던 도마와 같다.

4. 너희가 내 존재에 대한 증거를 구했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고, 소박한 신앙 생활로, 교묘한 논리 따위가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왔음을 알라.

5. 나는 너희가 귀머거리이고, 눈먼, 움직이지 않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오늘날 너희가 가진 영적 성숙도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의식을 행하고, 내가 결코 정립한 적이 없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6.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너희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너희의 오류에 대한 진실을 말해 줄 수 없었고, 동시에 너희 마음의 공허함을 즉시 채워 줄 빛과 양식, 그리고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도 나뿐이었다.

7. 너희는 다시는 거짓되고 실속 없는 영광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성만을 자극할 뿐 결코 영혼 깊숙이 스며들 수 없는 말들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 말씀의 본질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신성한 빵 외에는 다른 어떤 빵으로도 더 이상 양육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8. 내 목소리를 전하는 이 소박한 사람들을 통해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과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영성화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한

계시를 확인해 주는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9. 나의 말씀은 울리는 종소리처럼 사람들을 모임으로 부르며,  
그들은 긴 행렬을 이루고 무리 지어 모여든다.

10.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는 시간은 짧으니,  
나는 많은 이들이 내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래야  
1950년이 끝날 때, 온 백성이 내 계명을 깨닫고 기꺼이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11. 백성이 이 날을 준비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그 후 백성이  
모일 때,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내 영감을 느끼며,  
확신에 차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12.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이렇다. 훌륭한  
제자들로서 말이다.

13. 내가 가르침을 시작할 때, 너희에게 말했듯이, 나는 단순한  
예배를 도입했다. 그것은 의식도 예식도 없지만, 그럼에도 향의  
연기와 찬송의 소리를 초월하는 예배, 곧 사랑과 자비와 형제애의  
예배이다.

14. 너희는 너희의 예배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광신, 미신, 그리고 이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적  
신념의 흔적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15.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모든 행적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붙여넣는 이 단순함과 영성이, 내가  
제2시대에 말과 행동으로 설교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영성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단순함에서 등을 돌렸는가?

16. 보라,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졌는지. 그러나  
새로운 날의 빛이 밝아왔으니, 그 빛과 함께 더 이상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어둠에 가려질 수 없을 것이다.

17. 이것이 바로 내가 현재 지상의 모든 길을 뚫어 놓는  
이유이니, 영성주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  
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8.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로 보내기 전에, 이 가르침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삶과 행실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증언이 진실되고, 따라서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 너희가 영성화에 이르면 그 길은 쉬워진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이상에 불타고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이다. 유혹이 더 이상 너희를 파멸의 심연으로 떨어뜨려 후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허용된 것,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것만 취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너희 영혼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자유를 얻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하게 될 것이다.

20. 나의 빛은 너희 영혼을 감싸며, 너희가 가는 모든 길의 인도자이다. 이 빛은 인종이나 신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21.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돌아와 영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은 더 오래된 민족이자 장자이므로, 나와 의 교감을 가장 먼저 맺는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영혼은 모든 영혼이 지상으로 보내질 때 부여받은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다.

22. 첫 번째 시대, 내가 처음 오셨을 때, 나는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낮은 도덕적 수준에서 살고 있었으며, 나는 그들에게 첫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산 정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2의 시대에는, 너희 영혼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내 율법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증거를 베풀어 준 긴 시대가 지난 후, 내가 내려왔으나, 너희는 더 깨어 있고 발전한 모습을 보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던 진정한 율법 준수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영혼을 섬기는 데 바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3. 그 시절에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여 지켜야 하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 온 영혼이 나를 감지하고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내 말씀을 통해 너희를 준비된 상태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 후 나는 너희 영혼이 나의 가르침을 활용하고 나를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너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더욱 깨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승화를 이루기 위해, 너희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너희의 빛은 희미하고, 믿음은 연약하며, 너희는 나의 세 번째 오심이 이미 가까워졌음을 짐작하지 못했다.

1866년, 바로 내 말씀과 예언들이 나를 예고했던 그 시점에, 나는 너희에게 와서, 이 시대를 위해 너희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가르침 속에 지혜의 보물을 너희 영혼에 남기기 위해 왔노라.

24. 내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기대하던 이들은 얼마나 적었는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인류는 잠들어 있었다.

25. 내 뜻은 너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언제나 깨어 살아가서, 내가 오실 때마다 놀라지 않도록 하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발전과 깨달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26. 너희는 나를 찾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길을 걸었으나, 그 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목자가 나타나 양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하나의 우리로 모으는 것이 필요했다. 땅 위에는 내가 이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준비된 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7. 나는 현재 모든 나라에서 선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준비시키고 있으니, 그들이 내 영적 재림과 이제 다가오는 은혜의 시기에 대해 말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각자에게는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으며, 나는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이상을 일깨우고 있다. 나는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며, 인류의 구원과 영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내 율법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28. 내 가르침을 이유로 민족들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라.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서로 우월감을 느끼지 말라. 나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존중인 영성을 동등하게 불어넣는다. 종교적 광신을 버리고, 예배 의식을 완성하며, 동료들의 종교 실천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나를 증거하라.

29.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너희 영혼을 순종하게 하고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이 빛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들은 단지 내가 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너희의 이성을 초월하여, 너희 영혼으로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

30. 1866년에 시작되어 1950년에 끝날 이 위대한 계시의 현 단계를 실현하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를 가르쳐 온 이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분이 아버지이자 스승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시므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있음을 또한 느껴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사명 수행은 너희가 지상에 거하는 지금 이 시기에 해당한다. 나중에 너희가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투쟁은 위대하고 불멸의 것이니,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육신의 껍데기가 가진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어떻게 완전해져서, 평화롭게 안식하기 위해 내게로 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각 영혼이 가꾸어야 할 일터가 이토록 넓은데 말이다. 우선 너희의 속죄의 집에서 벗어나라. 너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율법에 대한 너희의 옛 죄를 갚기에 충분한 공덕을 쌓아라.

31.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대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항상 겸손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힘을 넘어서는 시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내를 드러내라. 내 사역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위로자 영으로서 내가 오실 것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 그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살며 영적 순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고양되도록 노력하게 하라. 그들의 마음은 너희가 신성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다.

32. 너희가 준비가 되면,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져 모든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너희는 알지 못한다. 겉보기에는 물질적인 이유로 떠나는 것처럼 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뜻이 너희를 예정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33. 각 지방에 빛과 축복, 치유의 향유와 평화를 전하여, 너희가 나의 사자이자 사랑과 자비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게 하라. 너희의 발걸음을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4.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고 드러내 주리라. 너희의 행실로 내 일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 영혼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말라.

35. 산을 오르고 영성화의 정점에 도달하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곳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나의 제자인 너희도 이곳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육신을 초월하여 내면으로 깊이 잠기라. 그래야 너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6.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 후 인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시련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너희 영혼 속의 직관은 선명하지 않으며, 너희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힘으로 휘몰아칠 자연의 힘에 맞설 준비를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악과 죄, 질병, 그리고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었으나, 너희는 오늘까지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37. 오, 나를 이해하지 못한 제3시대의 토마스들아! 너희의 영적 은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을 어디에 묻어 두었느냐? 왜 그것들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은사들은 숨겨져 있다. 그것들은 너희 안에서 진동하고 있으나, 너희는 물질에 얽매어 있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너희는 무위도식하며 살지 말고, 모든 형태로 그 은사들을 드러내며 그것들로 큰 기적을 행하여,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증거를 보여야 한다.

38. 이스라엘아, 너를 기다리고 있는 평화의 땅, 곧 영적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일하라.

39. 오늘, 너희가 영적 은사의 확증을 받는 이 날, 나는 너희의 고백과 감사를 받아들인다. 준비하라. 그리고 들어라. 1950년 이후로는 너희가 나와 오직 영적으로만 교감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자녀들과 앞으로 다가올 후손들도 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전달자가 없겠지만, 너희의 믿음은 내가 모든 내 자녀들을 맞이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온전히 내려왔음을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40. 다가올 시대에 너희 모두는 나에 의해 준비되고 인도될 것이며, 오늘 내가 전하는 가르침은 너희가 이를 기억하거나 기록된 성경을 훑어볼 때 상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41. 오,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성령의 빛이 항상 너희에게 넘쳐 흐르니, 이 빛이 너희 믿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리라.

42. 성령의 은사가 필요함을 느끼고, 회개와 갱신의 물로 너희의 삶과 이성과 마음을 정화하려 애쓰는 너희,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너희여, 너희가 나의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너희에게 어루만짐처럼 다가오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시대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고 환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진리이자 영혼의 양식인 나의 신성한 본질을 주노라.

43. 너희가 나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할수록, 육체의 감각과 유사한 너희 영혼의 능력이 펼쳐짐에 따라 너희의 발전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너희 영혼이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 즉 교묘한 논리나 의식, 숭배 형식이 없는 소박한 가르침에 도달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가르침은 위대하고 빛나며,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이다. 그 견고한 기초는 시간이 갈아먹을 수 없으니, 그 밑바탕에는 나의 뜻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예로부터 그래왔듯이 - 사랑과 지혜,  
그리고 정의의 가르침이 될 것이다.

44.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 자녀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원자 형태로 너희  
안에도 존재하는 그분의 지혜가 펼쳐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단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 주는  
비밀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이다.

45. 과거에 나는 내 본보기를 통해 너희 세상에 사랑의 가르침을  
남겼다. 이제 나는 세상을 비추고, 이성의 무지를 없애며, 길을  
평탄하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혼란, 눈물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영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며 이를 이어가고 있다. 그토록  
크게 쌓인 괴로움에는 내 가르침의 달콤함이, 전쟁과 비참함의  
그토록 깊은 어둠에는 내 계시의 빛이 있다.

46. 우주의 성전은 나의 가르침을 기둥과 버팀목으로 삼고  
있으니, 그 안에는 가르치고, 구원하고, 확신시키며, 생명을 주는  
신성하고 창조적인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47. 나는 인간의 입을 통해 말하지만, 나의 사랑은 너희가 나를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준다. 나는 이 사랑의 학교의 스승이며,  
발전하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모든 사람을 어린 제자로, 그다음에는 제자로, 나중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만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많은 길을 잃은  
영혼들의 길을 비추는 강한 빛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뜻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성화가 클수록, 너희는 아버지의  
뜻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8. 너희는 자유 의지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았음을 알기를 바란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우회로를 택하지 마라. 진리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의 문을 열면 진리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소박한 진리를 사랑하고, 이론과 교묘한 논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빛이 여러분 삶의 사막에 있는 길을 비춰 줄 것이며,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것이며, 너무 늦게 도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빛이자 지혜이며 계시이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입니다.

49. 물질주의자들, 즉 골수까지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념과 책, 과학으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지혜로 그들의 이성을 어둡게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50. 무한 속에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바람의 휘몰아치는 소리처럼 들어라. 무지를 깨달음과 영혼의 평화,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들어라. 삶과 죽음, 위대한 신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 영원, 그리고 빛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사랑의 다정한 위로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들어라!

51. 너희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믿기 위해 탐구하는 자들이냐? 아직 그 누구도 나의 말씀이나 나의 일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적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철학자들과 학자들, 교사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아버지이신가?”라고 묻는 영원한 회의론자들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 내 말씀은 앞으로도 철학자들과 무식한 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너희는 내가 누구이며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니, 사랑을 통해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저하지 말고, 영원에 대한 질문들로 머리를 썩이지 마라. 사랑 안에서 너희는 답을 찾게 될 것이며, 진리의 넓은 지평선에서 너희는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2. 이 길을 가라. 그러면 하늘이 기뻐할 것이며, 너희 존재 속에 빛이 비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마음의 슬픔을 달콤하고 건강한 삶의 기쁨으로 대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53. 너희는 내가 세상과 그 주민들이 처한 타락의 절정을 보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들이 나를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54. 나는 타락한 죄인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깨우치며,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구세주이자 스승이다.

55. 세상은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율법을 알고 따를 때 변화될 것이다.

56. 영혼을 위한 가르침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된 위로자가 너희의 영적 발전을 위해 주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너희는 영과 영으로 너희 주님과 교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57. 나를 들었다는 기쁨이 사라진 후에도 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58.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너희를 맞이한다.

59. 아버지의 팔이 너희를 안아 주고, 너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펼쳐진다. 근심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이 말씀을 들어라.

60. 내 영은 너희의 죄를 심판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내려오는지라. 나는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하노니, 이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어떤 오점이라도 있는 자는 정화되고, 죄인은 구원받으며, 잠든 자는 깨어날 것이다.

61. 영원의 시계는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온 지구상에 울려 퍼뜨려, 인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62.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찾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므로 너희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빛의 불꽃이며,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사하는 것은 영원이며, 너희가 그 영광의 전모를 경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3. 내가 너희에게 명확하고 쉬운 말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뜻을 이해하고 나중에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말했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4. 제2시대에 내가 비유로 가르침을 주었을 때, 너희는 그중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성령의 찬란한 빛을 통해 모든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너희에게 준다.

65.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쓰라린 잔을 건네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가 추락과 파멸,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로서 율법을 계시해 주었다.

66. 모든 이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린 법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순간이 올 것이다.

67. 너희는 각자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의무와 고통의 십자가를, 또 다른 이들은 죄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68.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면 즉시 너희의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상쾌한 기운이 너희의 나른함을 달래 줄 것이다.

69. 눈을 뜨고, 영적인 시선으로 들어와 내 영광을 바라보라. 내가 인류에게 맡긴 일곱 영이 통과해야 할 문이 열리는 것을 보라. 그것들은 내 뜻에 따라 너희 안에서 항상 작용해야 할 일곱 가지 미덕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 겸손, 인내, 질서 사랑, 명랑함, 끈기,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미덕들을 너희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70.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영은 너희의 영에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빛으로 채우고 이렇게 말하리라. “오늘 너희가 일시적인 옷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육체는, 너희가 큰 평화와 영적 고양을 얻게 될 수단이다.”

71. 너희의 길에 나병 환자가 나타난다면, 너희는 공포에 질려 물러서겠느냐? 너희는 그를 손으로 만질 수 없겠느냐? 혹시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요, 나의 제자들아. 그 육체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대신, 너희는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영혼은 너희의 형제이며, 나의 자녀로서 너희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자이다. 너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72. 자신의 약점을 뉘우치고 개선할 결심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복이 있다. 그에게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빛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죄인들을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7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내 안에서 너희는 평화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74. 내 성령의 빛이 온 우주에 쏟아져 내렸다. 직관, 계시,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75. 나의 영은 의로움으로 가득 차 진동하며, 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잡초를 다발로 묶어 불 속에 던져버리도록 돕는다.

76. 너희가 세상에 “보라,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너희는 아직 스스로를 다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7. 많은 나라들이 굶주림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는 굶주림입니다.

78.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종파를 통해 나를 찾고 있다. 그것들은 언젠가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길들이다.

79. 내 마음으로 곧장 이어지는 바른 길을 걷는 한, 비록 먼 거리를 헤쳐 나가고 산을 오르고 심연을 극복해야 할지라도, 너희는 걸음마다 영적인 길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그곳에서 약속의 땅의 실루엣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6

1. 제자들아,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내 명령을 이행하라. 너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 뒤에 올 자들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 말씀의 연구에 깊이 몰두하라.

2. 나는 학자들보다 먼저 너희, 겸손한 자들에게 이 영적인 사역을 계시하였으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진실함과 순수함, 믿음,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의지—즉 이 씨앗을 너희 이웃들의 마음에 전하려는 기꺼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고난을 겪은 가난한 자들이며, 이 땅에서 안락함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상 너머에 진정한 영적 평화와 선함,

그리고 기쁨이 존재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허황된 위대함에 속지 않았으며, 잠시뿐인 즐거움인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갈망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고향으로, 너희가 나온 그 품으로, 그리고 너희가 나의 왕국을 누리게 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임을 믿으라.

3. 이 희망은 너희를 환난 속에서 강하게 하고, 너희의 싸움에서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 준다.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계속 충실하다면, 너희는 곧 영이 육신을 이기는 승리를 거둘 것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역사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 속에서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며, 다른 이들이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며, 이제 그 무엇도 너희를 나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 너희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행복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너희 기쁨의 근원이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2시대의 제자들과 나를 따랐던 모든 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나 조롱이 너희를 상처 입히지 않는다. 영혼을 시험하는 시련인 고통도 너희를 물려서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자신이 덧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너희가 알고 있듯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공덕을 쌓으려 노력한다.

5.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인류의 수호자로 남겨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은사는 너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잠재되어 있다. 너희 모두는 1950년의 마지막 날, 너희의 행실과 은사를 가지고 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으로, 또 다른 이들은 육신을 입고 내 곁에 있어 내 마지막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시대에 내가 오셨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흠어질 길이 열릴 것이다.

6.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힘을 넘어서는 희생이나 행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너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겸손과 인내를 구할 뿐이다.

7. 나의 계시는 1950년의 마지막 날에 끝날 것이며, 그때 내가 은총의 선물을 베풀 제자들을 선발할 것이다. 스승님께서 너희의 행실을 지켜보실 것이며,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도록 이끄는 데 있어 열정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다.

8.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과학자들이 이 일을 얼마나 자주 거부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너희의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나는 너희가 너희의 영을 통해 사람들이 온갖 과학을 동원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놀라게 할 것이다.

9.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제자”라고 부른다. 이는 너희가 투쟁 속에서 용기를 얻고, 가난과 모욕이 너희 마음에 남긴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를 영적 깨달음 안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너희가 사람들을 더 높은 삶, 즉 영의 법칙이 물질적 삶을 지배하는 법칙들과 조화롭게 결합되는 완전한 삶으로 깨우치게 하려 한다.

10. 너희만이 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니며, 영적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들도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허영심이 결코 싹트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너희가 그러한 감정이 너희 내면에서 솟아오르게 내버려 둔다면, 너희는 이미 얻은 은총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11. 사람들아, 너희의 열정과 사랑이 너희를 성령의 은사를 영원히 소유하는 자들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항상 겸손하고, 선과 율법과 진리에 열심이며, 마음의 선함보다 더 높은 성령의 선하심으로 자비롭기를 원한다.

12. 나의 가르침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계시와 과학이 비롯되는 빛이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을 소박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일단 영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순간, 여러분은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와 큰 희생과 고생을 거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영적 고양과 기도, 하나님 안에서의 명상, 그리고 선에 대한 영감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이며, 다른 수단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숨겨진 보물 창고들이 열릴 것입니다.

13.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중 많은 부분은 때로는 가까운 미래를, 때로는 먼 미래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성한 메시지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가올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은 그 안에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정확하고 완전한 위대한 계시들을 인식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14.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시한 이유이다. 그래야 너희가 이 생에서 다른 생으로 넘어가거나, 이 백성이 내 가르침을 점차 잊어버릴 때에도, 그 말씀이 책 속에 충실하고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 백성아, 이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 준 은사들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나설 적기이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준 그 시절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다가, 그때서야 일어나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예언된 바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니요, 백성아, 너희는 반드시 이를 미리 알리고, 예언하며,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지상에서 영성화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세상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례 없는 사건들을 통해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의 영이 상상조차 못했던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든 신조와 이론, 규범, 제도, 과학이 뒤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류는 겸손하게 겹보기에는 낯선 가르침을 전파했던 이들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실현되면서 그 진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때 너희는 지상의 민족들이 영적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로운 계시들과 비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인 것에 대해 늘 무관심했던 많은 이들이 현재와 과거의 계시들을 하게 연구하는 데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8. 오늘날 너희는 원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모든 일의 성취를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의 꿈과 환상, 그리고 영감은 너희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19. 깊은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면, 너희가 기록으로 남겨 둔 내 말씀을 사랑으로 모아,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증언으로 후세에 남기도록 하라.

20. 내 말씀을 씨앗으로 여기고, 그 속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

21. 인류의 마음이 곧 발이 되어 곧 정화되고 파종할 준비가 될 것이니, 마음이 깨끗한데 씨앗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이 옳겠느냐?

22.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이를 통해 너희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점차 변화되고 정화될 것이다.

23. 이제 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시련 속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돌아왔다.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1950년 이후 내가 영광 중에 오시는 징조를 보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러한 계시를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니, 그때는 기뻐하라.

24. 내가 희생의 죽음 이후 제2시대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영으로 나타나자, 그녀가 놀라면서도 기쁨에 차서 “주님, 영원히 찬양받고 영광 받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너희가 스승이 자리를 비우셨거나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믿었을 때 내가 너희 곁에 나타났으나, 너희는 놀라움 끝에 나를 축복하였다. 너희는 영혼 속에 나의 빛을 받아들였으며, 그토록 큰 은총을 받은 후, 너희는 이웃들을 떠올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나는 모든 민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 영을 드러내었다. 준비된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와 정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의 임재를 느꼈다.

25.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녀처럼 내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26. 다른 시대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본받을 만한 모범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행적은 마치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 너희의 모범도 글로 남기를 원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행적 중에서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들만을 골라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아직 육신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명성이나 숭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이들이 너희의 행적을 평가하게 하라.

27.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위대한 일에서, 내가 너희의 키레네우스\*가 되어 주리라. 나의 가르침은 세상에 큰 격변을 일으킬 것이다. 풍속과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내가 머지않아 지상으로

보내게 될 영들은 이 세상의 회복과 발전적 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모든 예언들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해설하고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할 것이다.

*\*키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마가복음 15:21).*

28. 와서 나를 경청하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집중하라.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내 임재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느낄 것이다.

29. 나는 너희의 믿음 부족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한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광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주의에 눈이 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30.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고했으니, 나를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었느냐? 너희 부모였느냐? 아니면 너희 신부들이었느냐? 누가 너희를 깨어 있게 했느냐?

31. 소수만이 그 사건들을 기대하며, 내 약속의 상징적인 ‘구름’이 지평선에 나타나 너희 영혼을 비추고, 너희 몸을 강하게 하며, 내 재림이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기를 갈망하며 살았다.

32.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나의 현존을 이해하기 위한 너희의 투쟁은 컸으며, 나에게 이르기 위해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나는 이를 너희의 공로로 인정하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길을 따라 나를 따르기 위해 너희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괴로움도 보상 없이 남지 않을 것이다.

33. 너희 가족 내부에서조차 조롱과 경멸을 참아낸 너희의 인내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너희 가족들의 회심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무지를 참아낼 만큼의 인내를 가졌으니, 그들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그 순간을 기다릴 인내도 가지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실과 말, 기도, 그리고 선한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그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4. 나는 너희에게 내 재림을 동료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겠다. 나는 인류와의 영적 교감을 담은 메시지, 즉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말킨다. 너희가 그토록 귀중한 메시지의

전령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투쟁의 길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가 되게 하라.

35. 어떤 이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말씀을 전하러 왔으며, 그들의 소박한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겸손한 헌사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대한 증거를 갈망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집집마다 건강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던 병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탐구하고, 질문하며, 시험하려 왔는데, 그들은 진리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낼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으며, 그들 모두에게 애정 어린 위로와 나의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나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주었다.

36.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내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내게 따르기 위해 남았으니,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져 진리를 뿌리고 가꾸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37. 내 첫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던 소수의 무리에서, 너희는 이미 공동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로 성장했다. 그러나 당장은 모든 이가 이 영성화의 메시지에 대한 진정한 사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8.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온갖 기질과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발전 단계가 각기 다른 영혼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말씀을 통해 전한 이 신성한 계시, 이 메시지가 내 설교를 경청한 백성들 사이에서 마침내 명확히 이해되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고, 수많은 내적 투쟁을 이겨내야 하며, 수많은 ‘시련의 용광로’를 겪어야만 비로소 영성주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9. 사람들이 신성한 계시를 해석하거나, 그들의 눈에는 신비로 보이는 어떤 사안에 대해 명확성을 얻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미 “제2의 시대”에, 내가 세상에서 설교 활동을 펼친 후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에 대해 의논하며, 그가 신성한 존재인지 아닌지, 아버지와의 하나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인격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평가하고 탐구했습니다.

40. 이제 나는 다시 한번 해석과 토론, 논쟁, 그리고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41.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 영이 아버지의 영과 독립적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한 분이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성령이셨다고 말할 것이다.

42.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며, 너희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두 번째 시대”의 가르침을 활용할 때, 혹은 “첫 번째 시대”의 율법과 계시를 생각할 때, 너희가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의 빛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라.

43. 이제 너희가 이 계시를 깊이 연구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 너희가 질문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참 빛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고, 내 말씀의 정수와 너희 해석의 빛을 담는 모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44. 내 백성아,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 잠시만이라도 너희 곁에 있게 해 주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45. 왜 너희는 고통에 짓눌릴 때만 나를 찾느냐? 너희의 기쁨과 승리, 그리고 만족감도 나에게 바치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46.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가 두려움 없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랑과 신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데도 왜 때때로 내 사랑이나 용서를 의심하는가? 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잃어버린 아들들”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무한한 사랑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찾아 나서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을 - 너희가 나를 다시 한 번 인간으로서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면을,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7. 옛날 제자들처럼 다시 내 주위에 모여라. 수많은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의 천상의 교향곡을 들려줄 것이며, 동시에 너희가 기적이라 부르는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48. 나는 아버지로서 오니, 이 세상에서 사랑과 애정, 다정함을 누리지 못한 모든 이들이 나에게서 신성한 온기를 찾게 하리라.

49. 나는 의사로서 오니, 너희의 병과 근심, 그리고 너희의 영혼과 몸을 동시에 병들게 한 모든 숨겨진 고통을 나에게 맡기게 하리라.

50. 나는 친구로서 오니, 너희가 나에게 가장 깊은 비밀과 투쟁, 그리고 갈망을 털어놓고, 내가 너희 곁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라.

51. 나는 스승으로서 오니, 이는 너희 앞에서 지혜와 생명의 책을 펼쳐 보이고자 함이라.

52. 나는 심판자로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내가 말하는 대로 육신을 입은 자와 육신을 벗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며, 내 정의는 너희의 가장 사소한 행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53. 나를 듣기 위해 소박한 모임 장소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투쟁과 시련, 경험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고통의 힘든 시기를 겪으며 정화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며, 세속적인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지식의 책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며, 스승께서는 오직 그들이 영혼 속에 품고 있는 빛을 경험과 가르침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가르침만을 기대할 뿐이다.

54. 여기에는 긴 여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말씀을 길로 삼을 이들도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이 겪을 무한한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55.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단 하나의 기도, 즉 고통의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자신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마셔야 할 잔이 너무나 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의 고독과 실망, 고난, 약점, 비참함, 질병, 슬픔,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온 인류에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정화의 시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영혼과 사람들은 자신의 오점을 씻어내고, 그 후에 산 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오점들이 지워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의 순간을 단 한 순간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면 갱신의 치유 연고가, 주님께서 그분의 품에서 피조물들이 태어날 때 그들에게 심어주신 그 건강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7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집에서 쉬고 내 식탁에 앉아라 -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때에. 이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장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새로운 시대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2. 너희는 아직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사는 어린아이들이다. 아버지는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넘어지거나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너희는 강해지고, 모든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될 것이다.

3. 너희 마음을 보물 상자로 삼아, 내 말씀을 보석처럼 간직하라.

4. 나는 사람들의 불신을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 수난을 너희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되살려 준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스승이 아버지 곁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신성한 보좌로 승천하셨던 그 순간을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후, 온순한 어린 양처럼 영원하신 분의 임재 앞에 이르셨을 때의 일이었다.

5. 하느님께서 아주 초창기부터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원시적인 피조물들에게 인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양심, 즉 신성한 지혜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은 평화를 느꼈고, 악을 행할 때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첫 교훈이자 첫 표현이었습니다.

6.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자, 나는 미덕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말과 모범을 통해 사람들이 선한 길을 따르도록 이끌게 하였다.

7. 가장 초창기에 내가 의로운 자 아벨을 보냈음을 기억하라. 그의 제물은 나의 신성에 대한 사랑으로 드린 것이었으며, 이는 기도와 완전한 예배의 선구자였다.

8. 나는 너희에게 경건한 노아를 보냈으니, 그는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성한 명령, 즉 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9. 너희 가운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가지와 잎사귀, 열매가 돌아나는 나무의 뿌리를 이루었다. 그 조상들의 모범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삭의 순종, 그리고 야곱의 충성과 영적 강인함이 그것이다. 이 나무의 열매 중 하나는 나의 율법을 대변하고 나의 의를 구현한 모세였다. 너희는 그 안에서 나의 위엄의 형상을 볼 수 있었다.

10.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감정 세계 속으로 들어갔고,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도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나를 예고하는 것이 필요했다.

11.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내 삶을 본보기와 교과서로 삼았다. 나는 모든 고통과 유혹, 투쟁, 가난, 노동, 박해를 겪었다. 나는 가족들의 배척과 배은망덕함, 배신을 경험했고, 긴 하루의 노동과 굶주림, 목마름, 조롱, 고독, 그리고 죽음을 겪었다. 나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내게 얹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말씀과 찢린 내 몸, 심지어 내 마지막 갈비뼈까지 볼 수 있는 곳에서 내 영을 탐구하도록 허락했다. 비록 하나님이었으나, 나는 조롱받는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벗겨진 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강도들이 죽은 언덕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고, 이는 내가 단지 말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12. 1866년에 나의 자비는 새로운 시대, 즉 성령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 과연 온 인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알고 있는가? 이를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현재 “이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모으고 있는 영적 백성들뿐이다. 내 사역은 이 세상에서 거대한 전투와 사건들, 즉 교리와 세계관에 대한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인정받을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어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13. 이 시대에 내가 처음으로 나를 드러내게 한 그분이 이 땅을 떠난 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바로 선구자 엘리야의 영이 그 발걸음을 인도했던 사자, 로케 로하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여섯 번째 봉인을 풀었고, 이를 통해 영성주의를 위한 무한히 큰 돌파구를 열었다.

14. 오, 삼위일체-마리아주의 영성주의자들이여, 로케 로하스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는 싸워왔으며, 이 싸움 속에서 나를 따르고 이 사역을 기리기 위해 너희의 힘과 청춘, 생명,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을 바쳤다. 너희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15. 나의 “말씀”은 다시는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구름 위”에 계시니, 이는 저 세상의 상징이며, 그곳에서 내 광선이 발산되어 목소리의 전달자의 이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16. 나는 인간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나의 결심은 완전하다. 나는 인간을 알고 있다. 내가 그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합당하다고 여긴다. 그는 나의 자녀이며,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이용할 수 있다. 내가 그를 그 목적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17. 인간! 그는 지성과 생명, 의식을 지닌 존재이며, 나의 모든 속성을 일부 지니고 있고 그의 영은 영원에 속해 있기에, 나의 형상이다.

18. 종종 너희는 너희가 믿었던 것보다 더 하찮을 때가 있고, 또 다른 때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할 때가 있다.

19. 교만한 자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음과 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의 불필요한 부에 만족하는 자는 비참하다. 그의 소망과 탐욕, 이상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는 얼마나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가!

20. 그러나 사는 법을 아는 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드리는 법을 배운 자이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품에서 활력을 얻는 법을 아는 자가 바로 사는 법을 아는 자이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소유할 길 위에 서 있다.

21.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과거의 시대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약이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 집 문을 두드리며 너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끈질긴 순례자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이다. 너희는 더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사랑은 무한하다.

22. 이미 나의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시기에 내가 머문 시간은 길었다: 1866년부터 1950년까지.

2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누군가 내 말씀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음을 알라. 그러나 너희가 기생식물처럼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오직 악만을 행하는 자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악이 자신의 영적 발달 단계에 맞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24. 내가 너희를 이 길로 부르신 것은, 너희 영혼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양한 예배 형식을 통해 나의 빛을 찾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갈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길을 가로막고 만족했는지 묻자, 너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25. 그 동안 생명나무는 여행자에게 열매를 선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수정처럼 맑은 물의 샘은 평화의 약속처럼 목마른 순례자를 넘쳐흐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슬픔에 잠겨 기다리며 밭에서 사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던 신성한 정원사이다.

26. 이제 사랑과 평화, 진리와 노동을 갈망하던 수많은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맛보았고,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한 뒤, 정원사가 되기 위해 농기구를 집어 들었습니다.

27. 이제 너희 가운데는 덧없는 부가 더 이상 없다. 너희의 재물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잃어버렸다고 한탄하지도 않는다. 오늘 너희는 내 말씀 속에 담긴, 내 진리의 영적 보물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한 겸손한 아이를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 말이다. 만일 내가 학자나 철학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했더라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의 차이는 스승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나를 듣기 위해 온 모든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른 것은 아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많은 사람이 아직 올 것이나, 모두가 나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말씀을 뿌렸으며, 그리스도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다. 나의 씨앗은 헛되지 않으며, 잠시 동안 불모였던 사람의 마음도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29. 눈물로 이 세상의 길을 적시고, 피로 이 생의 길을 새겨가는 여인들아: 내 곁에서 휴식을 취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화로의 불꽃, 내가 너희에게 지상에서 맡긴 집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앞으로도 남편과 자녀들을 날개로 감싸 안는 종달새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30. 나는 남자를 높이시고, 여자가 남자의 오른편에 서는 자리를 높여 주노라. 나는 결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노라.

31. 이 시대에 나는 사랑의 칼을 들고 오니, 이전에 사람들에게 의해 뒤틀려 버린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

32. 나의 신성을 따르는 제자들아: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으며, 내 가르침의 책에 담긴 또 다른 면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33.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먹고 있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시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바로 그 물이다.

34.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으니, 너희의 참된 조국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길을 제시하노니,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길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를 진보의 길로 인도한다.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스승으로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나의 신성과 완전한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35. 오늘, 사랑의 말씀이라는 끈이 너희의 마음을 다듬고 매끄럽게 하고 있다.

36. 태초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현재 시련의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너희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바위처럼 굳어진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회개와 사랑의 수정처럼 맑은 물을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닥칠 때, 내 말씀은 사막의 만나처럼 너희에게 내려와  
너희가 그것으로 양식을 얻게 할 것이다.

37. 너희 모두가 내게로 돌아오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곁에 머물러,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라. 너희는 나를 신뢰하며 두 번째 여행 가방을 챙기지 않은  
채, 각기 다른 길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조용히,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일할 것이며, 너희가 밤잠을 자는  
구석에서든 나무 그늘 아래에서든 나를 부르든, 나는 너희의  
싸움에서 곁에서 돕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 힘을 실어 주리라.  
너희가 내게서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38. 너희는 내 이별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마음을 열고 영혼을 들어 올려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39. 너희가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나는 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었다. 나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생활 환경,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선택하였다. 내 말씀이 멎었을 때 너희가  
고아처럼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나는 그들 모두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유산을 주었다.

40.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한다면, 너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진 모든 '잃어버린 아들들'을 맞이하는 잔치의 나무가 되고,  
샘이 되며, 상이 될 것이다. 그때 열방은 비록 너희 앞에 절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를 인정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41. 모든 시대에 너희는 내 율법이 지키기에는 너무 엄격하다고  
여겼기에, 너희의 영적 이해력에 맞도록 교파와 의식을 만들어  
냈다.

42. 너희가 첫 번째 시대의 내 계명을 따랐더라면, 너희는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가 두 번째  
시대의 내 가르침대로 살았더라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의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43. 너희가 열방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열방과 종교 공동체를 심판하리라.  
이 백성은 열정, 순결, 영성화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44. 인류의 탄식이 내게로 올라왔다. 그것은 아이들의 울음이며,  
정의를 외치는 청년들이며, 평화를 간구하는 노인들이다.

45.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의 씨앗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가장 순수한 곳에 그 씨앗을 품고  
있으나, 너무 깊은 곳에 있어 스스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46. 사랑의 씨앗은 증오와 허영, 그리고 저급한 정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 그리하여 고통의 잔은 다시 한 번 가득 차, 거품이 일 정도로 마셔지게 될 것이다.

47. 세상이 폭풍우 속에서 난파당하는 동안, 너희는 구명보트 위에서 태연하게 그 재앙을 지켜보고 있다.

48. 너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 있으며, 울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의 시련 한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비록 그 예배가 광신과 우상 숭배로 뒤덮여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이기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이 완전한 숭배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49.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며 제단에서 제단으로, 의식에서 의식으로, 종파에서 종파로 떠돌지만, 그것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실망 속에서 그들은 신성모독자가 되어 목적 없는 길을 걷게 되며, 하나님도 법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백성아, 그들 가운데 위대한 영들이 있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예언자들과 제자들을 발견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50.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빛의 영들은 이제 평원과 바다, 산과 사막을 가로질러 길을 닦고 있으니, 그 민족들과 백성들이 의행렬과 거대한 무리를 지어, 내 말씀이 울려 퍼지고 내 기적들이 목격된 이 나라로 향하게 하려 함이라.

51. 그때 그 사람들이 너희의 문을 두드릴 때, 너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들에게 불완전한 것들을 제공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지쳐 있다. 그들은 진리와 자비와 사랑을 갈망하며 온다. 그들은 꽃향기처럼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올 것이다.

52.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후손들에게 내 율법의 성취를 가르쳐야 한다. 그 안에는 세 시대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53. 이를 위해 기도할 영감을 받으라.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54.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 한, 나로 향하는 길은 막혀 있을 것이며, 나는 수많은 무리에게 부르심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55. 나는 너희의 불화, 불순종, 그리고 무지 속에서 너희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56. 나는 너희가 내가 떠날 때를 대비해 이미 나의 십자가, 즉 배은망덕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57. 아직 시간이 있으니, 너희의 노력을 배가하여 그 시간이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목소리의 매개자’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하게 되어 “아버지가 떠나셨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함께 있을 것이며, 예언자들이 이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는 영감을 통해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가정과 각 지방에서 가르칠 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입술이 아니라 나일 것이다.

58. 그 시절에 영과 영 사이의 대화는 절정에 달할 것이며,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내 임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질 것이다.

59. 이러한 계시들을 고려할 때, 아무도 내 말씀이 없음을 한탄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양심이 내가 너희 가운데 계셨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책망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길을 계속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고 서툴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60.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증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즉, 내가 너희에게 편찬하도록 허락한 “금으로 된 책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61. 이 백성 가운데는 사제도, 성직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섬기는 자들만 있을 것이다. 이 모임 장소들은 교제와 학문의 장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공동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사명을 완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62. 수많은 가르침의 지배는 매우 짧을 것이다. 진리와 정의, 사랑의 씨앗을 품지 않은 가르침은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63. 그러나 나의 사랑의 사역은 인정받을 것이다. 이방인이 와서 너희 문에 두드릴 것이다. 그를 들여보내고, 그가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 하지만 그가 먼저 무엇을 먹고 싶어 한다면, 그에게 주어라. 그가 배불리 먹고 잠들면, 그의 잠을 지켜주어라. 그러면 그가 깨어나 햇빛을 보게 될 때, 그가 저지른 행실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갈 것이며, 그는 눈물로 스스로 마지막 오점까지 씻어낼 것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흰 옷을 입혀 주고,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 곁에 앉혀 주리라.

64. 나는 제3의 시대에 있으며 인류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사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65. 인간들이 나의 신성,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논하고 있는 동안,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세계들이 있다.

66. 어떤 이들은 지극한 영적 순수함에 도달한 바로 그 시기에, 너희 행성은 도덕적, 영적으로 큰 타락의 시기를 겪고 있다.

67. 그러나 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간들 가운데 보내어 내 법에 대한 겸손과 순종의 본보기를 보이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은총으로 옷 입히고, 내 빛으로 감싸며, 양심 속에 법을 품게 한 너희의 영혼을 보냈다.

68. 너희가 잠시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약함에 굴복하더라도, 나는 나의 음성으로 너희를 일으켜 세우고, 이를 통해 인류에게 내가 제자들을 오물 속에서도 직접 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리라.

69. 나는 걸음걸음마다 드러나는 신성한 자비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찾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머물러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선호한다면, 너희는 자연 속에서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명과 온기를 주는 빗줄기를 비추는 왕의 별은 나를 말해 주고 있다. 너희에게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는 바로 나의 숨결이다.

70. 그러나 너희가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 영적으로 나를 향해 올라간다면, 너희는 내세에 존재하는 은총과, 아버지의 천상 보물창고에서 기적과 계시를 약속하는 빛으로 향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71. 너희는 내세 삶이 품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알고 있기에,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72. 나는 일꾼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

73. 내가 너희 어깨에 짊어지게 한 짐은 무겁지 않으며, 너희 영혼에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너희가 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너희의 걸음에 있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보게 될 것이며,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나에게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74. 나는 충분히 준비된 모든 “일꾼”을 지상의 여러 나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75. 오늘 너희의 영혼은 육신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혼은 유혹에 맞서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으며, 내 이름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18

1. 축복받은 백성들아: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를 모임으로 부르시는 스승님을 만나러 온다. 스승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양식을 주시고, 시련의 때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려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온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떠나고, 어머니는 요람 속의 젖먹이를 떠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위로를 갈망한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시련의 짐을 잊으며, 모든 이는 인간의 비참함과 질병,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내 곁으로 나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영혼을 드높였고, 우리의 목자 엘리야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신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2. 너희는 내가 선택한 이 민족의 경계까지 가지를 뺐은 이 나무의 그늘 아래서 하나가 되며, 그 다양한 가지들 사이에서 같은 말씀과 같은 뜻을 듣고, 내가 오랫동안 너희에게 주어 온 그 동일한 열매를 받는다.

3. 나는 너희 모두를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만아들이자, 모든 시대에 걸쳐 선택받은 백성을 만들었으나,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백성은 아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며, 언제나 사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백성, 곧 나의 선택받은 백성은 나를 독보적인 방식으로 사랑했으며,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그들은 탐욕스러운 부자로 변질시켜 버렸고,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가장 사랑받는 자요, 선택받은 자요, 다른 이들 위에서 있는 자요, 주님의 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다. 나머지 자들은 내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분의 법과 은혜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만하지 말라. 나는 세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선물을 베푸는 것을 기뻐했다. 세 번의 긴 시대를 통해 나는 너희가 소유했던 다양한 육신을 통해 너희 영혼에 영향을 주어,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나의 은사를 나누며, 모든 여행자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려 했다.

4.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내 영으로 깨달음을 얻은 너희는, 아버지가 옛날에 너희에게 주신 것과, 예수께서 제2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는 부유한 구두쇠처럼 되지 말고,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바치는 이 스승처럼 되라. 다른 형제적 공동체들을 만날 때,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지 말고, 오직 너희만이 세 성서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너희가 언약궤와 성막, 그리고 상징물들을 소유했다고 말하지도 마라. 아니요,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다른 인종의 형제자매들에게, 너희 모두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축복받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단 하나의 영, 단 한 분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5.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며, 세상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고양되는 법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 속에서 영과 영이 소통하며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보좌에 머무르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물질주의와 죄로 인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제3시대에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야 했으며, 아버지의 제자인 이 백성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미덕을 부어 주셨습니다. 인류를 책임질 우리를 남겨 두소서.”

6. 너희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여겨졌으며, 그로 인해 태초부터 다양한 종교를 창시하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실천해 왔다. 만일 너희가 제1시대에 모세를 통해 전해진 내 율법을 따랐더라면,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스승께서는 왜 고통을 겪으셨는가? 유대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분을 자신들의 가운데서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7. 그 백성은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았고, 신성한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율법과 계명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독자적인 법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스승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그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수난을 통해 신성한 지혜의 책에 또 다른 한 페이지를 기록하셨는데, 그 페이지의 모든 말씀은 강력한 행적과 말씀, 그리고 피로 인치신 업적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제2의 성서를 받게 되었으니, 만일 너희가 이 두 성서를 따랐더라면 - 내가 이 시대에 인간의 전달을 통해, 불완전하고 덧없는 이성의 기관을 통해 나를 드러내야만 했겠느냐?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준 계명과 가르침을 실천했더라면, 너희는 오늘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고 해서 나를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세 가지 유언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 말씀을 왜곡하거나 신비화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인류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내 영의 빛이 너희와 너희 영혼을 비추리니, 그 영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내가 이 시대에 온 이유도 알고,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9.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세 시대에 걸쳐 주어졌으며, 인간의 종교와 관념을 초월하는 내 사역의 순수함과 완전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모든 영혼의 길이자 생명이며, 시작이자 끝이다. 바로 이것이 내 지혜의 책에 담긴 내용이다.

10. 왜 종파들과 주요 교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토록 큰 무지를 드러내는가? 나를 듣는 너희는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 공동체를 심판할 것이다.

11. 너희가 겸손하게 너희의 사명을 다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믿을 것이다. 말과 의식에 지친 이 세상은 본보기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한 씨앗을 받아왔으니, 누구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겠느냐? 생겨난 종교 공동체들 중, 내 모든 계명을 따르는 데 주의를 기울인 곳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사랑을 발견하면 그들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들 안에서 나를 향한 경외심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본받아 덕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을 인정하도록 하라. 그러나 결코 불완전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을 본보기로 삼지 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비난받을 만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내 말씀을 경청하며 너희 양심의 조언을 따르라.

12. 인류의 탄식이 내게 닿고, 어린이와 청소년, 중년의 남녀, 그리고 노인들의 두려움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는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며,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와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탄원이다. 이 세상의 사랑의 씨앗은 썩어버렸으니, 지금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인간의 마음 깊은 곳, 너무나 깊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발견할 수조차 없는 곳에 있습니다. 증오와 권력욕, 과학과 허영이 그 씨앗을 짓누르고 있어 영성이나 자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잔은 점점 더 가득 차고, 세상은 그 잔을 찌꺼기까지 다 비워 마시고 있습니다.

13. 그러나 너희 백성은 구명정 위에서 평온하게, 아버지께 대한 확신을 품고, 몰아친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다. 그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 중 일부는 내 영을 모독하고, 다른 이들은 불완전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이 시련의 시기에 깨어나, 마침내 사랑과 영적 깨달음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이다.

14. 제자들아,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며 기꺼이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싶으며, 너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바란다. 떠나 있던 자녀는 내 품으로 돌아와야 하며, 이해 부족이나 무지 때문에 나에게서 등을 돌렸더라도, 내가 그 행동을 책망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것이 잃어버린 것—평화와

기쁨, 그리고 희망—을 되돌려 주고자 한다. 너희가 이 삶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역경도 받아들이는 법을 알며, 온유하고 인내심 있게 살아가며,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나는 바란다. 누가 나를 너희에게서 떼어 놓을 수 있겠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겠느냐?

15. 반면 너희는 스스로 나를 멀리하고 ‘탕자’처럼 행동할 수 있으며, 고통이 너희 마음을 찢어야 비로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곁에 있어 주며,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 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

16. 나는 너희가 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충실한 친구,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볼 수 있도록 항상 너희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17.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라 – 큰 잘못의 짐을 지고 있는 너희여, 내가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 그 자체임을 명심하라. 너희는 완전해지고, 결점 없이, 순수하게 나에게로 나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너희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위대한 영적 업적을 이룰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유배’의 날들을 단축해야 한다.

18. 너희는 이미 지난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속죄의 법칙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너희의 길에서 큰 한 걸음을 내딛는 대신, 과거의 잘못에 다시 빠지려 하는가?

19. 인류가 지금 어떻게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고 오점을 씻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라. 인류는 자신을 더럽혔던 모든 것을 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해 큰 격변을 겪고 있다.

20. 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너희는 믿지 않는 눈앞에서 내 예언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른 많은 예언들도 곧 보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내가 이 시대를 위해 예고했던 대로, 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21. 혼란이 열방을 뒤덮고 있다. 어떤 이들은 깨어 있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잠들어 있으며, 이 모든 시련의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데 만족하고 있다.

비록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지혜의 책을 읽었으며, 내 말씀이 너희를 준비시켰지만, 아무것도 너희를 놀라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기에는 아직 미숙하다. 너희는 아직 강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령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서로 갈라지고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들을 마치 견딜 수 없는 짐처럼 느끼고 있다.

내가 묻노라. 내가 진리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었음에도, 어찌하여 너희는 이 가르침의 핵심에까지 이르지 못했느냐? 굶주린 자에게 생명을 주기에는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한 이 영생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여 주었음에도, 어찌하여 너희는 강해지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씀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은 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너희는 그것으로 배부르지만, 그것을 받아 양식으로 삼기를 갈망하는 굶주린 이들이 많이 있다.

22. 이 말씀이 끝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이 말씀은 내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하며, 인류에게 알려지기 위해 책에 기록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1950년 이후에도 예배 행위에서 지극한 순결을 지키고, 나의 지시와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3.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는 너희의 능력과 힘에 맞춰 주어졌으니, 이는 내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라. 내 가르침의 핵심을 바라보라. 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드러난다.

24.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 동안,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어떤 행복을 발견하는가! 나는 너희가 온전히 싸움을 위해 일어설 그 순간을 기다리는 무한한 인내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미래를 밝혀 주었다.

25. 내가 떠난 후 너희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거대해질지! 너희는 아직 그조차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 때를 위해, 너희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비밀을 너희에게 밝혀 주리라.

26. 나는 제2시대의 그 어부들처럼 너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그들이 일하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고, 말씀의 은사를 주었으며, 나의 계시로 그들을 깨우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이 준비되고 힘을 얻자마자, 나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여러

지역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나의 구원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였다.

27. 그 당시 너희는 열두 명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었다. 너희는 내가 여러 나무 그늘 아래에 모아 가르친 수많은 무리였다. 너희는 세상을 위협하는 큰 시련 속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자들이 되어야 한다.

28. 머지않아 영적 세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니, 그때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너희의 은사를 꽃피우기를 원한다.

29. 나는 너희가 깨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직관적으로나 꿈속에서 저 세상의 목소리가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질병이나 자연의 거센 힘이 휩쓸고 지나간 뒤 황폐함이 남겨진 집들과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만약 먼 나라로 가야 한다면, 너희에게 시기를 알려주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라.

30. 교회와 종파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권위를 시험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너희의 은사에 확신을 가지고,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너희를 이용하기 위해 돈으로 유혹할 것이다. 내 일을 장사로 만드는 모든 자들은 내 은총을 잃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

31. 이제 곧 나는 인간의 매개를 통해 너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기록된 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내 임재를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너희의 선한 양심은 그 시간이 너희 몸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32. 내 가르침이 순수하게 실천되지 않는 모든 기도처와 모임의 집은 사라질 것이며,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피난처이자 구명정이 되어 주는 곳들만이 남을 것이다.

33. 내가 떠난 후, 이 백성에게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세속적인 투쟁과 분쟁의 시기가 한창일 것이나, 그 후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비참함은 사라질 것이다.

34. 굳건히 버티라.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너희가 박해받고 적대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일과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내리라. 너희는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얼굴이 흥해지지 않을 것이며, 궁핍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 영혼은 첫 번째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사막의 여정을 떠올리며, 너희가 목마를 때 바위가 갈라져 시원한 물을

내어주었던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의 태양이 너희를 태울 때, 구름이 보호하는 망토처럼 너희를 덮어 주었고, 굶주림과 궁핍이 닥칠 때, 만나가 너희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로 내려왔다.

35. 무엇보다도, 내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이에 대비시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36. 너희가 유혹에 빠지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나는 내 가르침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37. 나는 너희가 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준비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이며,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내려온 바로 그 증거들을 스스로 체험했으니, 너희 뒤를 이을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 기원과 의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알아야만, 너희 영혼을 지키고 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38. 여러분이 여러 번 다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성장해 온 동안, 지나간 세월 동안 나의 사역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품을 드러내며, 나의 아버지의 사랑과 한없는 인내, 구원의 업적을 느끼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깨어나,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 동안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너희가 저 세상으로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시점에 내게로 와서 너희의 수확을 바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수확은 “기도를 통해 가꿔진 씨앗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너희의 영혼은 최상의 회개와 고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39. 명심하라: 너희는 내 영의 일부이므로, 나처럼 생명과 은총을 지니고 있다. 너희는 기원에 있어 순수하며, 돌아올 때도 나게로 돌아올 때 그와 같은 순수함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너희는 본래의 순수함과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40. 형제자매들과 너희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라. 너희는 모두 하나의 가족, 하나의 영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위에는 너희의 구원과 승화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은 너희의 수호자로서 우주를 가로지르며 자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내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고, 매 순간 오류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41. 너희의 영적 수호자들이 치르는 투쟁을 기억하고, 그들의 일이 덜 고통스러워지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지지하라. 그들의 길에 가시덤불을 뿌리지 말고, 항상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경고하는 그들의 목소리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들의 조언, 그리고 너희를 이끄는 그들의 빛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너희는 나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42. 너희는 어떤 표식이나 물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동료 인간들과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행실로 구별되라. 그러면 바로 너희 동료 인간들이 그 행실을 증언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게 될 것이다.

43. 너희 모두가 깨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각 모임 장소에서 단 한 명의 준비된 마음을 사용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그리하여 부름의 시간, 주님의 공의의 시간에 너희 모두가 나에게 단 하나의 열매를 바치게 하리니, 그 열매는 나의 모든 일꾼들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부르심을 내리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내가 글로 남기는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의 본보기도 받아들이러 오게 하려 함이라.

44. 그리하여 내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길을 뚫고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르침은 다른 모든 가르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45. 행동과 모범으로 입증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행동으로 입증되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제2시대에 제가 보여주신 제 모범과 희생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말씀을 피와 목숨으로 인치하는 자는 진실함과 강인한 영혼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6.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말을 피로나 목숨으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너희의 목숨을 갈망하지도, 너희의 피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갈망한다. 너희가 어떤 광신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나의 신성한 법과 인간의 법을 진심으로 따를 때, 너희는 세상에

구원의 비밀, 즉 모든 길에서 평화와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될 것이다.

47. 내 사역은 과학이나 인간의 제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가족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다. 정의와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대항하지 않는다.

4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의 신성을 섬기는 자로서 과학에 대항하여 일어났을 때, 그 섬기는 자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나를 이해하지도 않았으며, 나를 따르지도 않았다. 내가 모든 영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모든 과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종 ‘아버지께서 인간의 과학을 혐오하신다’는 말을 들어왔을지라도, 이는 과학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에 부여한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인류를 파멸로 이끈 악한 과학들, 즉 인간이 생명과 생명의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 악의 도구로 삼은 과학들을 혐오한다. 이것이 내 눈에는 과학의 혐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인류의 은인이 된 모든 과학자에게는, 비록 너희가 그를 성자로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영적 차원에서 내가 마련해 둔 특별한 자리가 있다.

49. 오늘 스승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로 너희 또한 과학의 결실을 누리고 있으니, 이는 내가 내 빛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자신의 길에서 생명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과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내 뜻이 아니었다면, 나는 자연의 힘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지구의 내부와 생명 영역에 인간이 자신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사용해 온 모든 것을 담아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혼과 육신의 활력, 복지, 그리고 상향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다.

50. 아주 초창기부터 나는 지구를 최초의 거주자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지구를 너희의 보살핌에 맡긴다. 이곳은 너희의 보물이며, 너희의 정원이고, 너희의 거처이자 너희의 집이다. 번성하고 번식하라!” 그러나 이 말씀을 나는 너희가 단지 인간으로서 인류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지성체로서도 번성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영역과 진리 안에서, 모든 길과 모든 분야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1. 이 시대에 나는 모든 과잉과 불필요한 것, 모든 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 모든 악한 씨앗에 맞서고 있다. 나의 영적 가르침으로 나는 과학을 악의 도구로 삼은 모든 자들과 싸워왔다. 나는 인간이 나의 진리에 눈을 뜰 때까지 모든 악한 과학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마치 대낮의 빛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가 모든 이를 깨울 것이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너희의 사명과 임무, 그리고 책임을 깨달아라.

52. 내 사역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를 깨달아라. 내 가르침과 내 말씀이 너희에게 열어 주는 지평을 바라보라.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깊이 생각해 보라. 사랑으로 기도하며 형제의 고통을 느낀 자는 스스로를 해방시켜 이곳에서 먼 곳으로 떠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치유의 연고, 그리고 다정함을 남기고 왔다.

53. 모든 예배 장소에서 나에게 닿아 오르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이 기도를 위하여, 나는 이 땅의 세상을 축복하고, 내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빛과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어루만짐을 베푼다. 나는 나의 사랑의 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하여, 그들이 모두 나를 느끼고, 나의 진리로 향하는 길, 그 길을 찾는 여정을 떠나게 하리라. 이는 내가 이제 그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모두를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19

1. 나는 이 순간 너희에게 나의 치유의 향유와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어루만짐을 준다.
2. 나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이다. 땅 위에서 내 십자가의 짐이 짓누르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연민을 품고 내 짐을 나와 함께 나누어 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길에서 쓰러질 때, 너희 영혼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
4.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땅에서의 삶 속 ‘골고다’에 다가가고 있다. 그곳에서 너희 영혼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5. 그 시간이 와서 이 말을 할 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평화와 행복은 클 것이니라.
6. 나는 너희 모두가 그 정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비록 누더기 차림에 세속적인 재물 하나 없이 도착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나의 임재와 자비를 느끼게 될 것이다.
7. 그곳에서 나는 남자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나는 여자를, 부모를, 어머니들을 -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사명을 안고 온 모든 이들을 기다린다.
8. 정상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너희의 운명이신 나를 신뢰하십시오.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무엇이든 미소를 띠며, 믿음과 순종을 품고 내 뜻에 순종하십시오.
9. 내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심을 잊지 마라. 그래야 의심이나 연약함이 너희를 유혹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10. 때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울며, 내가 온통 영적 행복으로 가득한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너희는 아버지가 지상에서 수백만 명의 피조물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동안에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내 사랑을 의심하곤 한다. 그 이유는, 내 자녀 중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 행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에, 자녀들이 느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함께 아파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 너희 각자가 고통받으며 자신의 아픔을 느끼는 동안 — 신성한 영께서 그 모든 자녀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2. 이 진리의 증거로, 나는 세상에 내려와 인간이 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의 불완전함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너희의 모든 고통을 느꼈다면, 하물며 신으로서 내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보고도 무감각할 수 있겠느냐?

13. 내 영 안에는 아직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찬양의 노래가 존재하느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도 그 노래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통과 비참함, 어둠과 죄가 사라질 때, 그 노래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이니라. 그 신성한 음색은 모든 영혼 속에서 메아리를 일으킬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들은 이 조화와 행복의 합창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조화가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비추게 될 때, 돌돌조차도 말할 것이다.

14. 계속해서 너희 영혼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하되, 항상 너희 안에 지워지지 않는 불꽃처럼 믿음을 간직하라.

1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곳에서의 삶을 가능한 한 즐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좋다. 내세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울고, 고통받고, “피 흘릴” 필요는 없다.

16. 만일 너희가 이 지구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내 율법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행복의 세계로 바꿀 수 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삶은 내 눈에는 아무리 큰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과 불행, 눈물로 가득 찬 삶을 견뎌낸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될 것이다. 언제쯤 너희는 영적인 삶과 인간적인 삶을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경계 없는 하나로 통합할 준비가 될 것인가? 언제 너희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희의 존재를 하나의 삶으로 통합하게 될 것인가? 이 깨달음의 빛은 세상에 영성이 꽃피울 때 비로소 사람 안에 비칠 것이다.

17. 이 시대에 내 말씀의 빛은 영혼들이 묻혀 있는 물질주의의 어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다. 그 어둠은 진리가 가까이 있고, 심지어 그들 안에 그 진리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다.

18. 제3의 시대가 여러분 곁에 왔으며, 이에 대한 증거와 징조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깨우기 위해 거대한 종을 울리는 것처럼 더 큰 징조들이 뒤따를 것이다.

19. 기도하고, 관찰하고, 명상하며, 나의 영감이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너희는 그것을 언제나 알아차릴 것이니, 너희 영혼이 창조주를 맞이할 때 선과 고양을 향한 열망을 느끼기 때문이다.

20.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땅 위에서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21. 축복받은, 나의 자비로 선택받은 백성들아: 나는 타락과 혼란,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에 너희를 선택하여 한 가족으로 연합시키고,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평화의 백성을 이루게 하려 한다.

22. 너희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오직 이 시련의 시기에 영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자들만이 고통과 혼란, 다가오는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다. 오직 모든 세속적인 허무와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는 자들만이 전 세계적인 혼돈을 평정심과 평온함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마치 대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 생존자들이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한 조각의 나무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 믿음을 붙잡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3. 나는 너희를 이 시기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오직 너희뿐이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마음의 미덕과 말과 행실이, 이 시기에 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에게로 와야 할 모든 마음을 끌어당기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인류 가운데서 그 백성의 수와 힘, 그리고 위상이 배가되기를 원한다.

24.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그 혼돈과 폭풍, 그 시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은 인류가 아직 마시지 않은 고통의 잔에 담긴 누룩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실로 그 잔을 만들어

온 인간은, 자신의 업적과 그 결실을 깨닫기 위해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야 한다.

25. 축복받은 백성아: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 속에서 오만과 권력욕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그 사람들은, 권능을 지닌 위대한 영혼들이며 위대한 사명을 띤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신성을 섬기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한 재능과 능력을 사랑과 자비의 봉사에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 법, 왕좌, 신하들, 지배 영역, 그리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그들의 왕좌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거나, 강력한 적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거나, 그들의 보물과 명성이 위험에 처했다고 여길 때, 그들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과대망상과 세속적인 허영, 증오와 악의에 휩싸여, 자신들의 업적과 이념이 고통과 파괴, 악의 흔적만을 남길지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에게 달려든다. 그들은 오직 적을 파멸시키고, 민족과 부, 일용할 양식,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왕좌를 세우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26. 나는 너희가 나의 군사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파괴나 악을 일으키는 군사가 아니라, 증오와 타락, 어둠과 탐욕의 군사가 아니라, 영성, 형제애, 사랑, 온유, 자비의 군사가 되도록 말이다. 너희는 너희의 본보기가신 나를 향한 힘과 신뢰로, 진리와 정의인 너희의 무기에 대한 확신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 나는 너희가 지금 당장, 너희만큼이나 강력하지만 너희보다 더 강하지는 않은 그 적과 싸울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27. 너희가 영성화에 눈을 뜨는 그날, 너희는 어둠이 빛에 비하면 약하다는 것, 증오가 사랑의 거역할 수 없는 힘 앞에서는 단지 한 원자에 불과하며, 이 원자는 참된 자비와 접촉하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물질주의가 영의 은사들 앞에서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덧없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28. 여러분은 세상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영적인 백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범과, 이미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선한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세상을 물질주의와 광신주의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9.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나에게서 듣지 못했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가르침에 대해 묻는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며, 학자들과 신학자들, 권력자들과 권한을 가진 자들, 재판관들, 즉 이 땅의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30. 나는 나의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의 가르침이 공기가 사방으로 흐르듯,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듯, 온 세상에 스며들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사역도 퍼져 나갈 것이며, 나의 가르침도 널리 전파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 공동체와 모든 기관, 모든 인간 공동체, 모든 마음과 모든 가정에 스며들 것이다. 그것은 먼 길을 헤쳐 나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니, 이는 온 인류를 위한 제3의 시대, 빛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31.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계시를 인간적인 형태로 나타내어 왔다. 첫 번째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모세를 택했음을 기억하라. 그는 나의 대변자이자 나의 사자였다. 나는 그를 산 위로 불러 올려 그에게 말하였다. “모세여, 네 얼굴을 숙여라. 너는 나를 쳐다볼 수 없으니.” 가서 네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주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임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내 계명과 법, 규례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내적·외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을 알리라.” 나는 모세를 통해 아버지로서, 법으로서, 의로서 나를 드러내셨다. 그를 매개로 하여 나는 나의 택한 백성에게 나를 드러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의 계명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기게 했다.

32.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와 더 가까워지고자 했다. 백성이 나를 오직 무자비한 재판관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나의 신성한 뜻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피조물인 내 자녀들의 애정을 느끼고 싶었다. 사랑과 온유함의 행위로, 아버지는 인간이 되셨다. 이는 영혼의 위대함인 겸손, 율법의 진정한 성취, 사랑 속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고 영원하며 참된 이상을 위해 싸우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33. 인류가 연구할 수 있도록 지침이자 열린 책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세대, 그 어떤 인종에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계명이나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나선 이들은, 나에게 의해 지상에 선구자이자 사자로 보내졌을 뿐, 신으로 보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으로서 너희에게 오셨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 중 가장 명확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하셨다.

34.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그 ‘두 번째 시대’ 때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였다. 심지어 ‘영적 계곡’과 끝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나의 신성한 임재를 느꼈다. 왜냐하면 완전함에 이르는 사다리에는 많은 계단이 있고, ‘영적 계곡’과 끝없는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나를 드러내었으며, 그들이 처한 세계의 영적 단계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나의 계시가 이루어져 왔다.

35.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고, 부정하며, 내면에 저급한 정욕을 품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나의 축복받은 광선은 온전히 순수함과 완전함 그 자체이며, 비록 아버지가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지는 않으시지만, 부정함과 접촉하실 수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나는 “발받침”의 영에게로 가며, 바로 그 영이 나의 빛과 말씀, 그리고 가르침을 목소리의 주인의 이성적 능력에 전달하는 것이다. “발받침”은 이미 미리 사랑과 경외, 그리고 준비의 행위로 나를 향해 높아져, 저급한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나의 가르침의 완전함과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36. 그러나 머지않아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영과 영 사이에서 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 신성한 광선이 너희의 영에도 닿을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영감과 예언, 그리고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37.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용서하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계시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죄와 악함이 얼마나 컸는지요. 우리는 제때에 이를 깨달았고, 내면과 외면—우리의 영적 삶과 인간적 삶에서—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하나의 몸과 하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한 자비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38. 너희가 1950년까지 그곳에 도달한다면, 죄인과 경건한 자 모두의 눈이 나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때야말로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율법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9. 백성아, 그 길에서 굳건히 버텨라. 너희의 영혼은 지금 이 행성에서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사랑을 통해 정화되고, 나의 율법을 따르는 자만이 더 이상 이 행성에 환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환생에서 피의 흔적이나 악행을 남긴 자는, 실수를 만회하고, 파괴된 것을 재건하며, 생명이 없는 채로 남겨둔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용서하지 않았던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마디로, 속죄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나의 무한한 사랑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오, 지칠 줄 모르는 지상의 순례자여, 오랫동안 마음속에 쓴맛을 품고 길을 걸어온 자여! 너를 위로하고 힘을 주려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리하여 네가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리라.”

40. 오래전에 너희는 이 여정을 시작했고, 내가 너희 길에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의 자비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 나의 아버지의 음성은 잠든 자를 깨웠다.

41. 내 영이 너희에게 비추는 빛으로 너희 영혼이 밝아지면, 너희는 과거를 영적 속죄와 영적 성숙을 위한 긴 여정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스승인 나에 대해, 내 가르침의 충실한 증인이 되겠다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와 종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여러분을 심문하고 조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으니, 나는 그들이 여러분을 어색한 모습으로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여러분을 겸손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나, 그 겸손함 속에서 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바란다.

42. 인류는 너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영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은사를 숨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펼쳐 놓은 그 책을 가리켜야 한다.

43. 창세 이래로 언제나,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어 왔다. 내가 약속한 것은 성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백성은 항상 그 서약을 어겨 왔다!

44.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여섯 번이나 너희와 갱신하였다.

45. 내가 제2시대에 택한 열두 제자 안에는 인간의 미덕과 약점이 모두 담겨 있다. 나는 인류를 위한 본보기와 자극제로

그들의 미덕을 활용했고, 너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 그들의 불완전함을 이용했다. 도마의 불신은 오직 만지고 보는 것만 믿는 사실주의자를 상징한다.

46. 베드로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자를, 유다는 영혼의 재물을 팔아넘기는 자를 상징한다.

47. 이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부를 주지 않겠다. 나는 이미 다른 때에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지혜로 풍요롭게 하리라.

48. 모든 시대에 걸쳐 학자들은 나의 계시와 영적 가르침을 부정하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나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으니, 내가 곧 과학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익과 위안을 위해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가 바로 나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과학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는 나에게서 영감을 받은 자가 아니다.

49. 내 말씀의 의미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라.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그 나무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50.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이제 나는 너희 마음속에 성소를 세워 영원히 거기 머무를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던 나의 말씀은 머지않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는 오직 너희 영혼만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그 울림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51.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며, 비록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길을 걷더라도 이 인류에게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줄 자들이 될 것이니라.

52. 나의 우주적 광선이 너희의 이해력을 비추며, 너희를 관통하는 이 빛 속에서 너희는 나의 임재로 충만함을 느낀다. 선지자들은 모든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빛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체험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이 담긴 큰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은 여섯 번째 장이 펼쳐져 있다.

53. 너희는 내 말씀을 들으며 너희에게 약속된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꼈고, 이미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예감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회개와 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큰 결심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54. 내가 다시 오실 때, 큰 빛을 지닌 영혼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지금 너희에게 내 왕국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존재들이다.

55. 너희의 세상은 나의 현존으로 인해 밝아졌다. 머지않아 너희는 영적 재탄생의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너희에게 모든 미덕의 재탄생을 가져다주고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영혼이 투쟁하고, 완전해지며, 고통 속에서 속죄하는 다른 생명 세계들에도 찾아갔다. 이 생명 세계들과 너희의 세계 사이에 나는 동맹과 우정을 맺고자 한다. 나는 너희가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기를, 너희 형제자매들의 슬픔에 잠긴 영혼을 위로하고 깨우쳐 줄 기도를 그들에게 바치기를 원한다.

56.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의 사명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직접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7. 오늘날 여러분의 고향이 되어, 내 분명한 계시가 전해진 이 세상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 존재들을 위해 간구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58. 모든 시대에 나는 지혜와 본질,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를 드러내어 왔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세상이 시작된 첫날부터 세상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나는 인류가, 내가 오늘 영원한 지혜의 책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말씀과 모든 비밀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59.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여정에서 너희는 나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너희는 영원한 순례자이며, 너희를 기다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폭풍우가 언제 다가올지, 평화의 무지개가 언제 나타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를 지켜보시는 나만이, 너희가 준비되었을 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드릴 것이다. 때로는 너희에게 즐겁고 사랑스러웠던 이 지상의 골짜기는, 또한 너희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와 너희로 하여금 눈물을 강처럼 흘리게 했으며, 그 눈물로 너희는 영혼을 정화하고 정련해 왔다.

60. 내게로 오라, 너희는 이 여정에 지쳐 있다. 모든 자녀를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 나무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가 휴식을 취하고 모든 고통이 누그러졌을 때,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나서라. 비록 내가 너희의 중재 없이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자녀 안에서 사랑과 연민, 자비가 드러나고, 형제자매의 고통이나 행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뻐한다.

61. 너희의 존재에는 한계가 없으며, 육신의 끝이 영혼의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남으며, 새로운 삶 속에서 노력하고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한 무한한 자극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때 영혼은 자신을 억압하던 육체에서 해방되어, 자신이 지닌 능력과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광활한 활동의 장을 마주하게 된다.

62.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너희는 너희의 상상 속에서 인간의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나를 모든 세계에 침투하여 내 사랑으로 우주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무한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63. 너희는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고 형제처럼 사랑하라. 1950년 이후에는 너희 가운데서 “직분”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도자도, 대변인도, “기둥”도, 예언자도, “은사자”나 “황금 깃털”도, “초석”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차별도 없을 것이다.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비록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준비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을 통해 내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그 뜻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이다.

64. 이러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만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 대의에 봉사하기를 원하며, 너희 각자가 모든 직분을 내면에 지니고 있어, 너희 모두가 나의 사역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를 원한다.

65. 내 말씀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는 더 큰 영성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생각을 높이 들어 올려 무한한 곳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공덕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려 할 것이며, 이것이 너희에게 더 큰 영적 진보를 가져다줄 것이다.

66. 나는 너희가 진정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서로 더 가까워지고, 그리하여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한다. 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너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가르쳐라.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를 지켜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20

1.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2. 여기 제2시대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3. 나 곁에는 한때 의심하고 나를 모독했던 자들이 있지만, 오늘날 그들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나의 종이 되기 위해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4.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너희 곁에 있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다주었으며, 곧 나인 은혜와 지혜의 근원에 너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
5. 나는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음식을 맛보게 하려고 내 식탁에 앉게 하였다.
6. 나는 너희가 다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영적으로 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고 있다.
7.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넘쳐 흐르나, 너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그 사랑을 느끼지만, 다른 이들은 무감각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도 나의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니, 영적인 부활이 나의 모든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8. 이 계시를 통해 나의 임재를 진정으로 느낀 이들은,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들의 마음에 나의 말씀이 준 위로를 위해 나에게 감사한다.
9. 이 모임의 장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니, 나의 제단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위해 밝혀진 촛불이며, 너희의 양심은 너희의 길 위에 빛나는 그 높은 빛이다. 그 빛은 너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심연 앞에서 경고하며, 선을 행하도록 격려한다.
10. 너희는 내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것처럼 빛도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낮’이라 부르는 그 빛이 너희에게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가 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11. 나는 너희를 “나를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으며, 내가 삼위일체이시므로 너희 안에도 이 삼위일체가 존재한다.
12. 너희의 육체는 그 형상과 완전한 조화를 통해 창조를 나타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너희의 영혼은 인간 세상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 되신 “말씀”의 형상이며, 너희의 영은 성령의 신성한 빛에서 나온 찬란한 불꽃입니다.
13. 사람이 내 율법에서 등을 돌리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마다, 그는 유혹과 어둠, 그리고 죄의 밤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나는 그의 행위를 심판해야만 했고, 나의 심판 앞에서 그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고, 속죄할 시간을 주었다: 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의 용서와 은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너희에게 속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의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사람이 되셨고, 우주 어머니께서는 너희를 모성애로 구원하기 위해 여인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14. 영적으로 너희는 이미 먼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 너희는 새로운 세대들이 가장 어린 시절부터 드러내는 직관과 성장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경험을 한 영혼들이며, 이제 인류를 위해 앞장서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의 길로, 다른 이들은 세상의 길로, 각자의 능력과 사명에 따라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서 사람들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존재들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15. 이제 사막을 건너거나 쓸데없는 일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의 인류를 준비하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의 치유의 향유를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묻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그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누가 너희에게 병을 고치는 그토록 비범한 능력을 주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일꾼들”이 행하는 사랑의 행적을 통해 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16. 영혼에게는 발전과 완성, 진보와 속죄를 위해 여러 환생에 걸친 일곱 단계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영혼에게는 과거의 지상 삶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육체의 물질은 영혼을 가리는 짙은 베일과 같다. 오직 양심만이 너희에게 완전함으로 이끄는 빛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직관을 준다.

17. 이 길은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 사다리이며, 이 사다리는 영혼을 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곳에서 영혼은 머물며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히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18. 이것이 바로 나의 신성하고 영원한 계획이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이며, 물질주의의 사슬을 끊어내면 마침내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19. 서둘러라!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큰 혼돈 속에서도 너희는 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천사처럼 너희 영혼 위에 맴돌게 될 것이다.

21. 나는 너희가 이 계시의 시기에 내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이성을 비추고 있다. 이 시기는

후손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기어,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2. 나는 너희 영혼을 비추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 등대처럼 왔으며, 나를 듣고 믿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더 높은 삶의 평화를 알게 되자, 마음을 다잡고 개선할 결심을 세우며 불필요한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들은 선의를 지닌 나의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의 세계에 맞서게 될 것이며, 그곳은 내가 창조한 것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곳은 사막으로 변해버린 세상으로, 타는 듯한 뜨거운 모래가 방랑자의 발바닥을 태워버린다. 이 무자비한 사막에서 사람들은 이념적 폭풍에 의해 가차 없이 채찍질당할 것이다.

23. 내 말을 들어라: 준비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일을 이상으로 삼는다면, 너희는 삶의 여정에서 너희를 지탱해 줄 지팡이로서 나의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 너희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이 입증되도록 허락하라. 이는 바로 그것들로부터 너희를 모욕한 자를 향한 용서가 솟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벽 앞에서 악은 언제나 멈춰 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매우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25. 내가 떠난 후, 즉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의 조연자가 되지 않고, 너희가 내가 남길 경전에서만 내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될 때, 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26. 나의 말씀은 이전에 너희에게 비밀이었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너희가 시련을 침착하고 용감하게 맞설 수 있게 하려 함이다.

27.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지울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 숭고한 기쁨을 갈망하던 너희의 영혼은 만족감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계시의 의미를 통해, 너희를 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리의 빛과 영혼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아무것도 제한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한 삶이며, 그 빛의 반사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너희 영혼을 정화할 수 있었다.

28. 그 존재를 미리 예감하며, 너희 영혼은 영원의 행복을 느끼고, 너희 육신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 곧게 솟아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투쟁, 그리고 희생이

영혼을 위한 정당한 보상, 즉 평화를 얻게 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29. 여러분이 현재 얻고 있는 것은 영성화이며, 영성화는 곧 영생에 대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창조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형태의 영성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은 나의 법칙 안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쇠퇴가 여러분에게 여정의 끝을 의미했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그때야말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는 단지 덧없는 옷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단지 실체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기도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끝나는 곳이 영혼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0. 그러나 너희는 묻는다. “스승님, 그렇다면 본질이 물질적인 것과 섞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다, 나의 자녀들아.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 안에 계셔서, 그것들이 생명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31. 항상 진리를 경청하라. 진리는 마치 수정처럼 맑은 물과 같아서, 그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너희 자신의 영감 속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라.

32. 내가 위대한 계시에 대해 말하더라도, 내 말씨는 단순하다. 내가 참된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 어떠한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 시대에 나는 내 말씨를 통해 사람들이 종교와 그릇된 해석을 통해 만들어낸 지옥을 없애겠다고 너희에게 말씀한다. 그 지옥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무지의 눈가리개를 씌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33. 나의 말씨는 마치 책처럼 그 페이지를 너희 앞에 펼쳐 놓아, 저 세상에 대한 단순한 그림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다. 사람들이 종교를 교회적 형식으로 실천하면서 그 법을 잊어버리던 시대는 지나갈 것이니, 이는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34. 나는 너희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불어넣기 위해 왔다.

35.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거니와,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으며, 오직 너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할 뿐이다. 그 열매가 달콤하면 너희의 행복과 구원이 될 것이며, 쓰면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온전해지려는 열망을 품게 할 것이다.

36. 너희의 투쟁을 돕기 위해, 나는 빛과 은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을 마련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아, 내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

37. 너희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성년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를 찾았다. 너희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내게로 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를 보고 있다.

38. 노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은혜,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말씀하신다. “노인이여, 내 곁에 머물라. 다시는 나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영적 계곡’의 문턱, 즉 새로운 삶에 도달할 때, 너는 더 이상 늙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젊고 강할 것이다.

네 몸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내 가르침의 빛을 알게 되었다고 한탄하지 마라. 내가 내 사역의 품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불러 모았으나, 오늘날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되어 내 말씀에 실증을 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면서, 내 조언과 애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모두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 머무는 모든 삶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39. 사람이 기도와 선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는 도덕적 힘과 영성을 잃고 유혹에 노출되며, 그 악함 속에서 죄를 용납하게 되고, 이 죄들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나는 의사로서 병자의 곁에 다가가 그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었다. 나의 빛은 열로 달아오른 입술에 닿는 시원한 물과 같았고, 그가 이마에 내 향유를 느끼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 영혼은 매우 병들었고, 죽음이 곧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신 내가 왔으니,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네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40. 너희의 의무를 다하고, 너희가 저지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위대한 갱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큰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다.

41. 이것이 바로 내가 제3의 시대에 너희를 만나는 방식이다. 나는 너희의 고통과 두려움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치유될 것이니, 너희 안에는 영생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42. 너희는 내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여, 내 말을 담을 수 있는 안팎으로 깨끗한 그릇으로서 너희 마음을 내게 바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빛으로 너희는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말씀” 하나하나를 문장으로 엮어, 그것들로 거대한 책들을 만들어라. 나는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말하여 인류가 느끼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도록 너희의 이해력을 단련시키고 있다.

43.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야 내가 떠날 때 “내가 누렸던 특권이 얼마나 컸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44. 나는 너희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두고도 그를 경멸하다가, 그분이 이 세상의 눈을 감으시고 내가 그분을 ‘영적 계곡’에서 덕을 쌓아 특권을 얻은 자녀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었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부족을 후회하며 울고, 너희가 누렸던 선함을 너무 늦게 깨닫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선함을 깨닫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5.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 세상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증명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힘쓰라. 나를 찾는 자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은 믿게 될 것이다. 내일은 너희 이웃들을 설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46. 매 순간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이 닥치면, 너희는 내게 말하리라. “스승님, 평화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러한 시련 덕분에 영혼이 깨어 있기 때문이다. 안락함 속에서는 너희 믿음의 빛이 꺼지지만, 너희가 투쟁과 완성의 길 위에서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너희 육신이 아프거나 고통이 너희 마음을 슬프게 하더라도, 안심하라. 오늘 너희는 나의 사역 안에서 영혼의 평화와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47. 너희가 잘 준비된 상태로, 열린 눈과 발달된 직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고통과 영적 빈곤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48. 너희가 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준비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사명과 나의 뜻을 다하게 될 것이다.

49. 나는 각 교회에 특정한 사명을 주었다. 어떤 교회들은 영적 은사를 펼치는 데 있어 동료들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준비시켰고, 다른 교회들은 내가 내 지혜를 부어 넣은 빛의 원천으로 삼았다.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내가 그들을 진심과 자비로 가득 채워줌으로써 사랑 그 자체로 드러났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일꾼들”이 나타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제 “마지막 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첫 번째 자들”을 위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 나의 제자가 될 것이며, 훗날 새로운 세대의 스승이 될 것이다.

50. 인정받기 위해서는 덕을 실천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나의 사역 안에서 너희는 모두 평등하며, “첫 번째”와 “마지막”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속한 이들은 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했다.

51. “일꾼”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의 지성 능력을 통해 영적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고,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맑고 영적인 본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라. 내 영감이 너희의 이성을 거치며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책임이 크므로, 너희의 보상도 클 것이다. 너희는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얻게 될 기쁨과 평화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너희의 은사는 매우 귀중하며, 너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52. 각기 다른 성품을 지닌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자비를 갈망하며 “일꾼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이 너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지 않았을 때, 너희의 뇌는 지쳐버렸고, 그 불쌍한 영혼들은 고통과 불안의 흔적을 너희 가운데 남기고 떠났다.

53. 사명 완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빛과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완수하지 않는 한, 의 의무라는 무거운 십자가가 여러분을 짓누를 것이며, 여러분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짐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54. 나는 너희에게 귀중한 상으로 나의 평화를 약속한다.

55. 너희는 생각이 정화되어 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너희 곁에 머물며 나의 신성한 계시를 반복하여 전하고 있다.

56. 나는 나의 현존과 본질을 드러내어,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였다.

57. 내가 대변자를 통해 흘려보내는 지혜는 책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며, 인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습득할 수 있었던 지식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또한 나는 인류가 그러하듯 여러분에게 역사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58. 나는 너희와 닮은, 너희와 같은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나의 빛을 드러낸다. 내가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잠시 동안 신성의 도구이자 대변자가 되는 자의 순수한 이성과 맑은 영혼, 그리고 나를 듣게 될 자들의 영적 준비와 마음의 집중이다. 이러한 사고와 의지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내 영의 빛이 너희에게 임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희 영혼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고, 너희 마음은 선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의 온 존재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 도움 없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59. 너희는 의심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안고 내게로 왔으니,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고, 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믿음이 생겼고, 너희는 자신의 육체와 물질적 삶 외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너희는 그 영적 은사들을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지금 너희가 가진 육신은 땅 속에서 죽은 채로 남겠지만, 너희 영혼은 계속 살아갈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너희는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60.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 영혼은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영혼은 다른 영적 존재들, 심지어 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61. 여러분은 이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바로 그 호기심이 나중에는 점점 더 영적인 필요성으로 변해갔고, 여러분은 그 목소리의 주인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62. 너희는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왔으며, 속아서 온 것도 아니다. 너희를 현혹시킨 것은 허세나 과시도 아니었으니, 너희는 이곳들이 초라하고 소박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 말씀이 발산하는 찬란한 빛이었다.

63. 내가 이미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슬퍼하지 말라. 사실 택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이를 부르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려는 자들만이 내 곁에 머무르게 된다. 부름받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속하고자 한다면, 인내하며 견고히 버티라.

64. 나의 말씀과 계시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빨리 깨닫고, 어떤 이들은 더 늦게 깨닫겠지만, 결국 모두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65. 인간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이해하는 길이나 따르기 가장 쉬운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나는 모든 이에게 부름을 보내지만, 가장 잘 준비된 자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자,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고 나의 가르침을 들으며 전율했던 자도 그러하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찾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사람들이 지은 교회의 과시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을 자들이니,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경건함이나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이 영성을 얻게 되는 순간, 이러한 교회들이 불필요해질 것임을 알고 있다. 그의 준비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이 될 것이며, 그 완전함 곧 나의 신성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정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의 마음에 거하며, 그와 나의 영 사이에 참된 영적 교제를 이루어낼 것이다.

66. 만약 너희가 잠시나마 물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너희 영혼은 저 세상의 빛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며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로 이 빛이 나의 신성한 광선을 통해 제한된 형태로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현존을 실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제한한다. 나는 우주적 힘이자 창조, 권능, 빛,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모든 위엄을 다한 채로 너희에게 다가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67. 여러분을 비추는 태양으로부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광선만을 취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만일 여러분이 이 힘을 남용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해를 입게 될

것이니, 그 힘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에게는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68.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신성함으로부터 너희 영혼에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해야 하며, 너희가 받는 그 작은 불꽃 속에 너희 마음의 현을 울리는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온전한 힘이 담겨 있음을, 즉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성과 이해력을 주는 빛이 담겨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그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9.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 계시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너희가 영혼의 본질을 고양시키고, 너희의 지성이 저 너머의 영감과, 너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가르쳐 주는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가장 작은 부분이 너희가 겉옷으로 삼고 있는 육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70. 나는 태양과 같고, 너희는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과 같다. 너희는 작게 창조되었으니, 너희의 능력을 펼치며 공덕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본래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련과 죄로 인해 그 순수함이 더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지의 노력을 통해 위쪽으로 발전하여, 그 길에서 공덕을 쌓고 결실을 거두도록 정해진 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희가 항상 하늘 높은 곳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을까? 처음부터 컸더라면, 어떻게 너희 안에 자신을 펼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만약 너희가 항상 완전했더라면, 내가 어떤 공로로 너희를 보상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왔고, 이곳에서 너희는 완전함과 선에 정반대되는 감정을 발견했다. 너희는 악으로 유혹하는 유혹과, 육체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을 경험했다. 그때부터 영혼은 자신과는 본성이 다른 육체의 껍질 안에서 고군분투하기 시작했다. 영혼은 - 처음에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자연에 혼란을 느끼며 - 무기력함에 빠졌고, 육체가 세속적인 조건과 육체적 욕망에 따라 성장하고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71. 그러자 영혼이 지구로 내려와야만 했다.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육신을 입고, 그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하고, 다른 것보다 수명이 더 길며, 모두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닌 육신을 통해, 영혼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지식과 고양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점차 현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에 영혼은 인류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삶도 알게 되었다. 존재의 투쟁 속에서 심오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영적 삶의 세계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단계별로 서서히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를 올라가, 마침내 내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72. 너희의 소명이 이토록 위대하고, 너희의 영적 영혼이 나와 닮았는데 -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너희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서 나를 숭배할 수 있겠느냐? 왜 차라리 자연 속에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가? - 너희가 영적인 영역까지 파고들 줄 모르니 - 자연의 영광을 관조하며, 너희가 내딛는 매 걸음마다 솟아나고 움직이는 생명에서, 내가 너희 세상을 장식한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움과 기적들에서, 수천 개의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들이 빛나고 있는 창공에서, 그곳의 생명과 법칙, 그리고 순종이 너희에게 말을 걸어,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사랑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얻지 않는가?

73. 오, 영혼들이여! 지금이 바로 너희의 때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게로 오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 가르침 221

1. 백성들아, 이제 나는 너희 마음속 가장 감수성 깊은 현을 어루만지며,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려 한다.

2. 이제 나는 제2의 시대에 높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신 그 영, 곧 신성한 어머니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리라.

3. 마리아는 그녀의德行과 모범,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어졌습니다. 그녀는 인간들 중 다른 모든 여성들과 같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다른 성품을 지닌 여성이었으며, 세상은 그녀의 삶을 바라보고, 그녀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녀의 영혼과 육신의 순결과 우아함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소박함, 겸손, 이타심, 그리고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당시 세상과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德行과 동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동정이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불신하며, 깨어 있는 영으로 신성한 업적을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마리아의 성육신과 그녀의 조상들의 삶을 깊이 탐구한다면,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4. 마리아는 본질적으로 신성하며, 그녀의 영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다. 그녀는 태초부터 인류에게 “신성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순수한 피조물로 예고되었던 선택받은 딸이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는가?

5. 그런데도 왜 인간은 모독하며 내 권능을 의심하고, 경외심 없이 내 행적을 파헤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신성한 가르침에 깊이 몰입하지 않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내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오늘날, “제3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은 마리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녀는 내 신성한 영 안에 거하는 가장 다정한 사랑의 화신이므로, 나의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

7. 나는 너희에게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주었으며,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이 마리아를 ‘보편적 어머니’로 증언하도록 허락하였다. 오늘날 이 은사를 지닌 이들도 마찬가지로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모성적 영향력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분의 격려와 위로를 간접적으로 느꼈으며, 또한 그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 과학에 이끌려 숨 가쁜 속도로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주의와 허영, 쾌락이 사람들을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한 이 시기에 말입니다.

8. 그러므로 나는 내 백성의 마음을 부르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 후 이 기쁜 소식의 사자로 보내고자 한다.

9. 나의 사자들은 언제나 배척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의 종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저 그분을 예언자나 깨달은 자로만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10. 나는 내 삶과 초인적인 행적, 그리고 초인적인 죽음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마주한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불타는 믿음을 품고 나서, 나의 가르침을 증언하였다.

11. 비록 내가 죽었으나,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희생의 죽음 이후, 나는 생명이 충만한 영적인 모습으로 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인 골짜기”에서 내 백성에게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내 빛으로 감싸며, 순결의 흰 옷을 입혀 다시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여러 지파를 하나로 모을 때가 이르렀기에, 나는 그들을 이 땅의 한 구석으로 불러 모았다. 너희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영원한 고향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12. 너희의 왕이자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함에 대한 겸손과 사랑으로 내려오시어, 제3의 시대의 빛을 잃은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을 보라.

13. 더 이상 우상 숭배 속에서 나를 찾지 마라. 이제 나를 광신적으로 사랑할 때가 아니다. 태초부터 나는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악한 성향을 물리쳐 왔으며, 기도를 통해 내 영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14. 과거의 경전들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시 반복하는 바를 너희에게 밝혀줄 수도 있었겠지만, 인간은 내 진리를 왜곡하여 그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려고 감히 시도했다. 그리하여 이제 너희는 영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고립된 인류를 마주하고 있다.

15.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대변자를 통해 나의 각성 호소가 들려오는 것이다.

16.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는 내가 과거에 가르쳐 주었던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이자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17.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 자비와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무관심 때문에 비틀거리며 넘어진다. 그러나 제3의 시대에 이 목소리를 들은 이들은 나의 현존을 느꼈으며, 나의 영적 본질을 통해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고통을 달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시를 목격한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불신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신성의 가장 순수한 빛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흐려지지 않으니, 나의 빛은 사람들의 선행이나 악행보다 무한히 높으며, 게다가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18. 죄인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며, 영생의 양식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게 하는 것은 신성한 기쁨이다.

19. 나를 듣고, 너희가 주님의 백성임을 아는 너희여,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다하지 못했으며, 율법을 숨기고 고통으로 길을 가득 채웠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괴로움과 역경은 너희가 너희의 자매인 인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고통을 알게 해 주었다.

20. 내 말씀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온 세상이 이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마치 어두운 눈가리개처럼 가리는 물질주의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영적 청각이 신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21. 위험한 시기가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 슬픔을 동반한 전쟁이 다시 한번 인류를 뒤흔들 것이다. 생각과 감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나의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대한 순종 부족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인 나는 그 혼돈에 맞서서, 평화와 구원의 여명처럼 하늘에 나의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22. 나는 너희가 내일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 이웃들에게 생명과 양식, 자비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23. 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 의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4. 영혼에게 빛과 평화가 되는 나의 말씀이 이 순간 너희의 마음에 내려오고 있다. 나의 빛은 “세 시대”에 걸쳐 나의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 백성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25. 이스라엘은 잠들어 있었으나, 갑자기 내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이 그들을 깨우고 불안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다.

26. 나는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과거의 시대보다 더 포괄적인 교리를 전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의 이성 기관에 더 큰 수용력이 있고 영혼들이 더 크게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다.

27. 내가 다른 민족들 중에서 지상의 한 민족을 택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받아들이지 말라.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이 이룬 민족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28. 모든 민족은 지상에 사명을 안고 오며, “이스라엘”이 가져온 소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자이자, 믿음의 등대이며,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29.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예언과 계시들은, 인류가 그것을 이해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다.

30.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지상의 한 민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영혼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신성한 가족을 형성할 것입니다.

31. 나의 말씀은 인간을 미지의, 더 높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지혜의 책이다. 인간은 그 본질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영을 통해 이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보였던 계시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때가 되면 그 계시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

32. 너희는 영적인 가르침을 찾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 이상을 추구함에 따라 지상에서 너희의 삶의 여정이 더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때 시간, 지나가는 때 날과 매 해는 너희를 이 시대의 절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다.

33. 나는 내 말씀을 풍성히 베풀고 있으니,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너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날이 “첫 번째 자들”과 “마지막 자들”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덮치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줄 안다면, 그 후 너희는 얼마나 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사명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34.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삶과 예배를 어둡게 하는 많은 관습들을 버려야 한다.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너희의 존재를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 나는 마음보다 영에게 더 많이 말하노니, 영이야말로 고양과 영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그 안에서 명성과 영예,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노라. 고통에 뒤흔들리고, 비탄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기적이고 허영심에 찬 과학의 기만적인 빛에 비취진 너희의 세상을 보라!

36. 사람들의 온 생애와 모든 행적은 바로 이 순간들에 심판받게 된다. 심지어 자연조차도 그 요소들을 통해 영혼들을 찾아와 마음속에 말을 건넨다.

37. 나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임무의 결실이 어떠한지 물을 것이다. 영원한 분께 드릴 그들의 대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시대에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사명을 받았음을 아는 너희 인간들아, 그 시간이 왔을 때 너희는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3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리니, 그들이 벌거벗거나, 더럽혀지거나,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너희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자 하니, 그래야 너희가 역경과 삶의 큰 교훈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내면의 영적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40. 너희는 갈등을 해결하고, 어둠을 몰아내며 빛을 비추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끌어당길 수 있다.

41. 무기를 집어 들고 그것으로 모든 적대감을 물리치는 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인이라 불릴 것이다. 더 성숙한 영혼들은 저절로 더 약한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며, 그들 역시 어떤 마음 곁에 있으면 더 안전함을 느낄지 직감하게 될 것이다.

42. 사람의 위대함은 더 이상 세속적인 소유물이나 직함, 옷차림으로 측정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 속에도 발전과 영성화를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른 영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 중에는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를 계시할 이들이 많을 것이다.

43.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은, 너희가 나의 말씀의 영감과 나의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적 황홀의 순간이다. 너희의 영혼은 이 가르침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정화되었다.

44. 너희 중 어떤 이들은 기꺼이 나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다른 이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나는 이 제자들이 깨어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전사로 와서, 그들이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반항을 이겨내는 것은 엄격함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인내일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서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너희가 내가 깨어 지켜보는 우주 안에 살고 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둔 의의 길을 따라야 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45.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너희 양심이 말하는 바에 근거하여 너희가 그 율법을 따르기를 기대했다. 나는 너희를 나와 닮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자신의 의지와 자유 의지, 능력을 주었으므로, 내 뜻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소망을 알고자 한다면, 나는 너희가 이제 정의의 법칙 안에서 실수 없이

신중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고 말하노니, 그리하여 너희가 후손들에게 좋은 씨앗과 뚜렷한 본보기, 빛나는 길을 남기게 하려 함이라.

46. 오늘 내가 너희의 완성을 위해 남기는 이 가르침은, 내 지혜가 담겨 있는 내 말씀의 책의 일부를 이루며, 이는 그 지혜가 이성이나 마음보다는 영으로 더 깊이 연구되고 체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7. 사람들의 영혼에는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결핍이 있다. 그곳에서 슬픔과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굶주림이 비롯된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인류는 지혜와 순수한 본질로 양분을 얻어야 하며, 오직 신성한 말씀만이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인류가 나를 들은 백성의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와 헌신을 기다려야 한다.

48. 나는 너희의 일이 선행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영으로 활동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에게, 거리가 너무 멀어 너희의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도 너희의 영이 그곳까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한 민족과 국가들, 고통이 닥친 가정들, 또는 자비를 구하는 병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내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더 큰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9. 영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기도나 선한 소망을 보낼 수 있으며, 타인에게 선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50. 너희의 영은 이제 더 큰 고양의 시기로 접어들 때가 가까워졌음을 예감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이르러 자신의 은사가 지닌 온전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51.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줄 마지막 교훈을 나 자신도 받지 않은 채로 너희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기에 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니, 너희가 사랑의 행실로 인류 앞에 내 말씀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리라.

52.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은, 너희가 나와 교감하는 법을 배우고, 시련의 순간에 너희를 비추어 줄 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53. 나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다. 너희는 순종과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아니면 불순종과 반항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선호하는가?

54. 여러분 중 많은 이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지구로 다시 돌아올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가지고 있으며 의지하고 있는 그 도구, 즉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영혼에게 특권이지 결코 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총을 활용해야 합니다.

55. 이 생을 마친 후, 너희는 새로운 교훈을 얻기 위해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고 완전해지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너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56. 이 시대에 내가 너희를 보내신 것은 단지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존재들과 더 이상 육신을 입지 않은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너희에게 맡겼기 때문이며, 너희는 그들을 위한 인도자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7. 너희는 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 같은 순수함으로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한다. 겉모습은 단순하지만, 그 핵심은 깊고 풍요로우며, 학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를 위한 계시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진리를 찾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논쟁이 끝난 후, 나의 가르침이 승리할 것이며, 단 하나의 세계관이 자리 잡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은 단순해져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희는 모든 길을 알게 될 것이며, 나에게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58. 나의 사역은 나의 재림을 기대하며 희생할 준비가 되어 살아온 모든 이들의 노력을 결실로 맺어 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비밀들을 밝혀 줄 것이며, 선과 정의를 사랑하는 이들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59. 너희는 위대한 “군주”들이 나의 가르침에 회심하여, 영의 통치, 즉 결코 사라지지 않는 통치를 얻기 위해 그들의 지배와 세속적인 권력을 포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전에 오만과 허영으로 빛나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후 나의 겸손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굶주린 자들은 내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진리의 영, 위로자,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실 스승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60.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기만과 거짓은 낙인이 찍힐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왜곡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은 책들은 사라지고, 오직 내가 사람들에게 맡긴 그 한 권의 책만이 남을 것이며, 그 책은 태초부터 그들의 영혼 속에 기록되어 왔다.

61. 인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오늘날 나는 내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이 수많은 투쟁에 휘말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혼돈에 빠진 이 인류의 보루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련이 지나가면, 평화의 무지개가 빛날 것이다.

62. 너희 중 누가 그 때에 땅 위에 있을 것인가? 누가 이 평화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은 더 이상 멀지 않았으며, 그때 이 세상은 내세에 존재하는 약속의 땅을 닮은 모습이 될 것이다.

63. 너희의 근원이자 존재의 목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 것이며, 그곳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하느님 숭배가 솟아올라 나에게 닿을 것이다.

64. 너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스승께서 그분의 사역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나의 사역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인간의 적들을 향해 맞서 왔으나, 그 적들은 바로 인간의 허영심, 이기심, 세상에 대한 사랑, 물질주의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 싸움에서 무적의 전사가 되어, 오늘날 너희 안에 깃든 악을 막아내고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65. 정화하는 물과 같은 회개가 이제 영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빛, 즉 내 계명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 안에 스며들고 있다. 선한 결심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66. 나는 내 자녀들의 모든 행실과 선한 생각을 축복한다.

67.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기 위해 온다. 너희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 피조물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비록 그들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의 형상이며 내 미덕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들은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 그들을 단지 내가 인간과 맺은 이 계시의 형태를 위한 나의 도구로만 여기라.

68. “이스라엘”의 영혼은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영성화에 이르지 못한 탓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말로 내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다.

69. 나의 육신화된 “말씀”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시대는 지났다. 그분은 이제 오늘날의 대변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시며, 그들이 그분을 본받으면 큰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며, 수많은 군중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70. 시대를 초월하여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기록된 나의 사역을 모두가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과거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현재의 계시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백성아, 자유로워져라. 더 이상 어떤 속박이나 포로 상태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워져 사랑하고, 믿고, 생각하며, 온 세상의 복지를 위해 일하라.

71. 너희 안에 있는 나와 닮은 점을 찾고 깨달아,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실을 통해 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라. 반대로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내 영이 너희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방향을 잃고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언제 내게로 돌아올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72. 사람의 영은 굶주려 있으며, 종교나 세계관, 또는 가르침 속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양식을 찾으려 한다. 그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가 위쪽으로 발전하는 법을 배우고, 내 영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도록 산 위에서 그의 영에게 말하였다.

73. 나는 모든 이를 나의 거처로 초대하며, 나를 찾는 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으므로, 나의 현현을 직접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선한 목자로서, 나는 내 품인 울타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그 안에서 영혼들이 안식을 누리게 한다.

74.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위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 주리라. 내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필요한 지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75. 누구도 배제하지 마라. 모든 길에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곧,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영혼들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을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2

1. 너희는 스승의 이별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보고, 내 사랑 어린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내 가르침을 전할 때 서툴지 않을 것이다.
2. 고통으로 가득 찬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괴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너희의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사역에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나의 지시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과오와 불순종이 황금책에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3. 이 시기에 부름받은 자들의 수는 많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의 대열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마음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마치 무덤과 같으니, 그 내면에는 죽은 자, 곧 그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고통은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육신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임무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삶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5. 나는 너희가 갱신되도록 돕는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너희의 잘못을 속죄할 필요 없이, 모든 흠에서 깨끗해진 채 지극히 높으신 재판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6. 너희가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곧 나에게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는 모두 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모든 이웃 속에서 너희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7. 사람들은 결국 고통을 주는 데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만간 회한이 무자비한 재판관으로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화하러 올 것입니다.

8. 이 시기에 너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고귀한 사명을 완수한다면, 내일 너희의 이름과 내 백성의 이름은 가장 먼 곳에서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9. 내가 떠난 후에도 당당히 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만족스러운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각 지방과 도시, 마을에 나아가 나의 제3의 성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선한 행실로 이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이 시대에 겉보기에는 몇몇 인간의 교리가 승리했고,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합되는, 단 하나의 세계관이 지배하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영성주의일 것이다.

11. 자연의 힘들이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나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할 때마다 그 힘들은 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12. 나의 업적은 성직자들과 지상의 왕들, 통치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너희는 그들이 나의 신성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책들이 불길 속에 사라지고, 내 “황금 깃펜”들이

나의 지시에 따라 후세들을 위해 기록한 그 책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13. 그들은 이 책을 연구할 것이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자 간절히 바라며 그 책을 쟁취하려 할 것이다. 인류는 곧 닥칠 거대한 혼돈을 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흔들림 없이 희망을 굳게 붙잡으라. 이 혼돈이 지나간 뒤에는 평화가 크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번영은 매우 클 것이다. 때로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자연조차도, 여러분은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랑스럽게 보게 될 것이다. 산과 계곡, 언덕은 화려한 꽃과 아름다움을 뽐낼 것이다. 나무들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고, 건강과 안녕, 평화가 인간의 삶을 감싸게 될 것이다.

15. 오늘 지구는 새로운 순결함을 되찾을 때까지 모든 불순물을 정화하고 있다.

16. 재앙이 닥치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에 대한 예감을 주고 꿈속에서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가 경고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리라.

17. 너희는 아직 내 사역에 대한 싸움의 시작을 목격하지 못했으니, 깨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더 이상 육체의 필요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온 인류의 영적 미래를 생각하라.

19. 나의 가르침은 온 땅에 퍼질 것이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 그것을 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창조주의 자비와 사랑을 그들의 행실로 증거하는, 겸손과 영성화를 실천하는 나의 새로운 사도들이 될 것이다.

20. 인류가 너희가 악하고 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두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라.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면서도, 시련의 순간에 반항하고 심지어 나에게 불완전함을 씌우기까지 감히 하는 자들처럼 되지 마라.

21. 나는 아무것도 비밀에 싸여 있게 하고 싶지 않으므로, 너희의 언어로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나는 너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오, 지칠 줄 모르는 순례자처럼 광야를 가로지르는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잠시 멈춰 서서 내 말씀을 들어라. 내 집은 겸손히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나그네에게 그 문을 열어 놓는다.

너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22. 너희는 지금 시련의 날들, 정화와 속죄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있어, 시련 속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너희를 돕겠다. 너희가 과거의 백성과 다른없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라. 강하고 용감한 백성, 난파당한 자를 위한 구명정, 좋은 여행 동반자, 친구, 형제, 그리고 본보기인 백성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너희 안에 뿌려 놓은 씨앗이니, 이는 사랑이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자 기초이기 때문이다.

23. 내가 지혜 그 자체임을 생각해 보라. 그 지혜는 사랑에서 솟아난다. 나를 심판자로 인식한다면, 그 심판은 사랑에 기초한다. 나를 전능한 분으로 여긴다면, 나의 권능은 사랑에 달려 있다. 내가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면, 내 영원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며, 생명은 영혼을 불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랑은 빛이며, 생명이며, 지식이다. 그리고 나는 태초부터 이 씨앗을 너희에게 주었다. 완벽한 농부로서 너희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린 유일한 씨앗이다.

24. 오늘,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주님의 밭으로 다시 길을 떠나, 너희가 발견한 그 씨앗을 뿌리려 한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밭에 씨를 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어떤 밭은 곧 열매를 맺는 반면 다른 밭은 늦게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보았다. 어떤 밭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고, 어떤 밭은 엉겅퀴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으며, 깨끗하고 준비된 밭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밭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씨를 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물로 그 밭들을 적셔 주었을 때, 이전에는 불모지였던 밭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듯했던 그 밭들은 오늘날 여러분의 친구이자 희망이 되었으며,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열정, 헌신이 담겨 있어, 이제 더 이상 그곳과 헤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5. 그 들판을 위해 계속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두는 열매로 영원히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여러분의 입맛에 맞고 참된 생명을 가져다주려면, 여러분은 그 열매를 성실하게 가꾸어 씨앗이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이 넓은 가지가 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여행자에게

환영받는 그들을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씨앗은  
대지의 심장부로 돌아가, 그곳에서 세상의 끝까지 계속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6. 내가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이 진정한 영적 교제의  
순간들에 내 기쁨은 얼마나 큰지. 이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시고, 자녀들이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는 행복한 순간이다. 이는 너희가 도착한 후 나에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찬  
어린이들처럼 아버지께 나아가, 현재 우리가 뿌린 씨앗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스승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주님의 자비로 준비된 후, 어떤 공로도 더하거나  
빼 것 없이 인류에게 이 일을 소개할 수 있게 하소서.”

27.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나를 신뢰하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는 너희가 사형 집행자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과 가르침 그 자체이신  
아버지 곁에 있음을 알고 있다.

28.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노니, 너희가 스스로를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말씀을 활용하여, 1950년 이후에도  
인류의 스승이자 인도자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하라.

29. 세상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은 그들에게 닥친  
나의 공의의 온전한 무게를 느끼고 있고, 너희를 부르는 나의 빛과  
목소리가 온 인류에게 느껴지고 있다.

사람들은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내려와 그들 위에 머무는 나의  
보편적인 광선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이 사역\*을 알지 못하고,  
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도 나를 예감하며, 나에게 묻기  
위해 영혼을 나에게 드높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뒤흔친 이 재앙과 고통들은 -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의 탄식을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앙 집단과 종교  
공동체에서 내 자녀들의 영이 일어나, 그들은 나를 찾고,  
간구하고, 묻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여 나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혼란에 빠지며,  
신성모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사자들이 이미 너희  
나라의 국경을 넘어, 내 가르침의 선구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인류가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와 혼란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노라.

*\*1866년 멕시코에서 선구자 엘리야를 통해 시작된, 말씀과  
영적인 형태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계시.*

30. 너희 백성은 잠들어 있었고,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오직 내 말씀의 따뜻함을 누리고, 내 기적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너희를 어루만져 주던 내 용서를 듣는  
데에만 머물렀을 뿐, 너희가 평화를 누리던 바로 그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동료 인간들이 삶의 길을 잃고 믿음을 잃어가며,  
하나님과 율법 없이 길을 걷고, 일용할 양식과 영적 양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31. 너희가 형제자매, 자녀, 아내나 남편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즐기는 동안, 인간의 정욕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촉발한 전쟁으로 인해 집이 파괴된 채 흩어진 수천 가정이 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잃었고, 많은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줄  
먹을 것이 없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한  
고아들이 수없이 많고, 고통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과부들, 포로로  
잡혀가 고통의 잔을 비우며 몸을 지탱하기에도 부족한 빵 한  
조각만을 먹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32. 비록 여러 나라가 겪는 육체적 고통이 피비린내 나는  
것이지만, 지금 영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보다 얼마나 더 큰지  
생각해 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지금 가장 쓰라린  
잔의 독을 마시고 있다.

33. 오, 백성아, 일어나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생각이 평화의 비둘기처럼 그 나라들에 닿아, 그 민족들에게 빛과  
이성, 그리고 정의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게 하라. 나는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나, 그 전에 너희를 정화하고자 했다.  
기억하라: 내게로 나아가기 위해 - 너희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어떤 쓰라림이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채찍질했는지! 어떤 이에게는 병이었고, 다른 이에게는  
궁핍이었으며, 가족의 배척, 방치, 혹은 이별이었다. 모든 형태의  
고통은 마침내 너희를 정화하기 위해, 마치 매우 쓴 잔처럼 너희가

마셔야만 했던 것이었도다. 너희의 마음은 너희를 정화하여 나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열렸도다.

34. 선한 목자 엘리야의 인도를 받아 내게로 왔을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룰지 묻기 위해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 뜻을 이루시기를 겸손히  
간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뜻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용서,  
자비를 그 모든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 능력, 그리고 은총의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35. 너희가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그 위대함의 전모를 아직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너희는 아직 싸움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는  
1950년 말까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36. 이 가르침은 내가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을 모든 속박과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무지나 광신주의의 포로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다. 그들이 완전한 해방을 이루면, 비로소 동료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너희는 아직 너희의  
관습과 예배 행위들—영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을  
정화하고 있다. 그 후에는 인류 가운데서도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적 고양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즉 너희 행실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을 통해 너희 의도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온유함으로 이를 행해야 함을 지적해야겠다.

37. 확고한 신념과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며, 과거에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행하여 너희의 사역을  
완성된 상태로 남기고, 마침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38. 이 세상이 지금까지 눈물의 골짜기였던 것은, 인간이 나의  
율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낙원을  
창조하였고, 많은 초기 영들이 천사의 본질을 잃지 않은 채 최초의  
육신에 환생하도록 하셨다. 나는 그들이 지상에 왔을 때 그  
우아함을 잃지 않고 평화와 순종 속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그의 약함과 배은망덕함, 영성  
부족이 고통과 투쟁의 세상을 만들게 된 토대가 되었다.

39. 남자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고생해 왔고, 여자는 그가  
고통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곁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수많은 시대 동안 눈물의 골짜기였던 이 세상은, 너희,

나의 첫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곳곳으로 나가 선한 행실로 나를 증거할 때, 평화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40.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영혼들을 받아들여 왔고, 그중 대다수가 뒤쳐져 있던 이 행성은, 앞으로 그 품에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높은 발전 단계에 이른 존재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모든 세대는 하늘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점점 더 순수하게 살아갈 것이다.

41.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가정에서 싸워야 할 것이니, 그곳을 사랑의 성전이자 내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곳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지상에서 나의 대리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큰 가치를 지닌 보석, 즉 사랑으로 가꿔야 할 연약한 식물이 되어야 한다. 남자는 밭을 일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며, 깃발처럼 용감하게 자신의 사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스러운 동반자이자 희생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두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빵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가르침의 빵을 전하고 겸손하게 설교하기를 바란다. 어떤 이들은 너희의 삶을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많은 사랑과 소박함으로 사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 조각의 빵으로도 행복해하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조연이나 건강을 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누가 너희를 가르쳤는지 묻는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과거에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제3의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영’안의 신성한 스승이시다.”

나는 너희가 행동으로 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인류는 말에 지쳐 있기 때문이다. 너희 동료들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많으나, - 비록 그것이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준 말씀이긴 하지만 - 선한 행실과 모범적인 삶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3시대의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바로 이 말씀들을 위해 나의 사도들은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나를 본보기로 삼는 것을 잘 이해했고, 그들의 사명 완수를 피로 인치었다.

43. 오늘 나는 너희가 목숨을 바치라고 너희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 진실함, 성실함, 이타심이다.

44.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를 통해 너희를 지도하며, 이 제3의 시대에 내 신성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세상의 흐름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그토록 많은 비참함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큰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나는 왕이라고 자칭하기 위해 왕관만 부족한 주인들을 보며, 진정한 노예인 피지배자들을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투쟁이 불붙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된 그 주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들은 내 이름을 거의 알지 못한다.

45. 이웃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쌓아 올리며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연민을 알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투쟁이 닥칠 것이며, 인류는 이 대립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승리가 오기 위해 인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겠는가!

46. 교리와 세계관에 대한 이러한 논쟁 한가운데서, 내 가르침은 마치 폭풍우 한가운데 등대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내 말씀을 바탕으로 인류를 짓누를 상황을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더 나은 분별력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방관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47. 너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영적 보물은 바로 내 율법임을 깨달아라. 너희는 더 완전한 관념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예전에 나를 숭배하던 상징물들을 희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보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 과거에 내가 현현했던 그 땅과 그 장소들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비록 내가 많은 상징들을 사라지게 했으나,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의 이유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가올 세대들이 오늘날의 우상들 앞에 절하기 전에, 나의 정의가 그것들을 파괴할 것이며, 나의 정의의 권능을 견뎌낼 유일한 기둥은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세워진 성소들, 즉 믿음과 평화와 형제애의 성소를 품고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영적인 것은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48. 그때 지구가 준비되면, 제3시대에 내 영적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것이며, 그 승리는 피나 모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성주의는 상호 이해를

통해 자리 잡을 것이다. 내 가르침을 폭력으로 강요하려는 자는 누구도 진리의 전사가 될 수 없으니, 내 가르침은 물질적 정복의 길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제2시대에,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던 때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 오늘날, 너희 영혼을 들어 올려 그 안에서 다스리려는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그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의 가르침은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잊어버렸기에, 나는 너희에게 잊혀진 율법, 즉 너희의 선조들이 사랑했고, 많은 순교자와 사도들이 너희를 생각하며 목숨을 바쳤던 그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 내가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49. 그 당시 나의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나는 다시 이곳에 너희 곁에 와 있다. 새로운 사도들이 필요하며, 곧 내가 그들을 신성한 씨앗과 함께 파송하리라. 땅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불어오는 바람처럼, 나의 가르침도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나의 사자들은 홀로 가지 않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세계가 빛의 군대로서 그들을 호위하여 그들의 여정을 더욱 경이롭게 만들 것이며, 그들은 진실로 모든 이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50. 제자들아,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올 때까지, 나에게서 배우라. 이미 지금부터 알아 두라. 1950년이 지나면, 너희는 더 이상 그 황홀경에 빠져 말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준비로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로 드높이기만 하면, 너희 입술에서 빛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영적 은사를 펼치라.

51. 내가 너희에게 이 지침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내일 너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3

1. 나는 오랫동안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참된 길을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너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왔다.
2. 스승으로서의 나의 임재가 너희에게 부족했기에, 나는 너희 곁에 머물며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힘, 그리고 믿음을 주려 한다.
3. 큰 영적 무지가 인류를 뒤덮고 있으며, 인류는 지상에서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4.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양되고 고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영혼이 지닌 능력들은 간과해 왔습니다.
5. 사람이 어떻게 자신 안에 지닌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6. 너희가 빠져 있던 깊은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하고, 너희가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며, 무의미한 존재도 아니고, 더구나 천민도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내가 너희 마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다.
7.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에 차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주님, 우리 존재 안에 그토록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가 누구이며,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
8. 때때로 너희는 내가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은사들을 의심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너희의 의심은 너희가 그 은사들을 꽃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라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라.

9. 비록 믿음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직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0. 영혼의 능력을 꽃피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를 위해 단 하나의 육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지상 삶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내재하는 나의 섭리는 각 영혼이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육체를 제공하며, 그 영혼이 예정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전해지는 과정을 돕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전해 들은 것에 비해 이론 것이 매우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낙담이 너희를 사로잡는다.

11.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을 통해, 너희는 이제 너희 영혼이 지닌 은사를 온전히 펼치는 것이 너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영원에 속하고 무한함의 일부인 존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인간의 삶처럼 짧은 생애 동안에는 여러분의 능력 중 일부가 온전히 꽃피는 것을 경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현재의 생애에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더 높은 차원의 발전을 이루려는 열정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가 설명해 주어야겠다. 오히려 - 단 한 번의 생애에서 영적 재능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다면, 그 재능은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할 것임을 명심하라.

13.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매번 환생할 때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되, 그 한 걸음이 완전함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은, 그때그때 맡겨진 육체를 통해 점점 더 큰 지혜로 드러나면서, 스스로의 진전을 깨닫게 될 것이다.

14. 지금 여러분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닌 모든 은사가 드러났으며, 영적 발전의 여정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도 알려졌습니다.

15. 너희는 이미 영혼이 메시지나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을 겪었다. 이제 남은 것은, 너희의 길이 양심의 빛으로 밝혀질 것이며, 그 빛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성장을 시작하는 것뿐이다.

16. 너희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교감이 완전해지기를, 예언의 은사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치유의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그리고 (내면의) 말씀의 은사가 너희 입술에서 꽃피어 위로와 지혜, 예언으로 넘쳐흐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슬퍼지고, 침묵하며, 우울해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제자들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17. 제자들은 자신의 영성화의 열매로 활력을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준비, 이웃을 섬길 준비, 유혹을 이겨낼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힘과 은사가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 간구했던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면 너희는 예언자들과 사자들이 오랫동안 예고해 온 그 위대한 날의 첫 빛줄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영으로 내려와,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 나는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내 빛이 너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나 장애물은 내게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20.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혼의 의무와 사명을 돌보지 않은 채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각자에게 부름이 닥쳤을 때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지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2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이 땅에서 영혼의 길을 막았으니, 적어도 영혼이 더 이상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그 시점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22. 너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존재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느냐? 내 법과 가르침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비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아, 나는 신성한 법을 너희 육신을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법으로 너희 영혼을 비추었노라.

23.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은 군중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24.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은 보지 못하는 유물론자들로서, 그들의 이성과 감각 너머에 영원, 진리,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25. 이미 자신의 행실과 생각, 그리고 삶 전체를 영적 영혼이 다스리게 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얻매는 모든 것에서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 또한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비물질화된 모습으로 왔으나, 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였으며, 나 또한 그들이 삶에서 가장 사랑하던 것 속에서 그들을 찾아갔다.

26. 영의 왕국은 무한하다. 그러나 그 왕국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고양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올라갈 길을 알고 빛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상 삶을 경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직접 준비해 둔 삶을 내가 어찌 경시하겠느냐! 물질 세계에서의 삶 또한 영적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왕국에서의 삶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27. 엄밀히 말해,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너희가 영성화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야 할 확실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영적 삶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단지 육체를 벗은 영혼들의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 삶에서 비롯되므로 영적 삶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29. 오직 그 생명의 빛만이 너희에게 진리를 드러내 줄 수 있으며, 오직 그 빛 안에서만 사람들은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0. 영혼의 삶을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단지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며 비틀거리다 넘어질 뿐인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이며, 자신들의 존재 깊은 곳에 영원의 문으로 통하는 열쇠와 평화와 지혜, 그리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밝혀 줄 등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31. 그러나 나의 자비는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고, “마지막 자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이 이 시대의 물질주의에 맞선 “첫 번째

자들”의 투쟁을 돕게 하리라 - 그들/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

32. 세상은 고통을 통해 준비되고 정화되었으며, 신성한 스승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류는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다.

33. 너희 사명의 위대함을 깨달아라.

34. 너희의 빛이 잠시 어두워질 때, 나는 너희의 길을 밝혀 줄 것이니, 이는 너희 영혼이 비틀거리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평화의 사자이며, 영원한 계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35. 너희의 예배 방식은 더 이상 외부의 영향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며, 너희가 다시 영적 속박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36. 사람들은 너희 눈앞에 주님의 형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 진정한 형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실 그 형상은 그들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

37. 모든 사람 안에는 저 세상, 비밀스러운 보물창고, 무한한 무엇, 신비가 있다. 그곳은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소인데, 너희가 너희 내면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 문은 닫혀 있다. 인간은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진정한 성소를 발견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바깥만을 바라보고 겉모습만을 느낍니다. 그것은 육체와 육체적 감각입니다.

38. 지금은 온 인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때이다. 자기의 하느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종교 공동체는 단 하나도 없다. 너희는 내 말씀을 전하고, 너희의 모범으로 나를 증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너희 입술에 담긴 내 가르침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39. 내가 너희가 준비된 것을 보고, 너희 영혼과 너희 “육체” 안에 진실함이 있을 때, 너희를 열방으로 보내리라. 그때 너희는 큰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휩쓸리지 않고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폭풍우를 견뎌내고 짙은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그 어떤 인간 과학보다도 더 높은 빛을 향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다.

40. 너희는 겸손하므로, 철학자들과 학자들 앞에서 많은 장막을 걷어낼 운명에 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위로, 구원이 되어야 한다.

41. 나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직관과 꿈을 통해 나의 새로운 계시의 징조를 주고 있다. 나의 발자취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미 가까워서 들리고 있다.

42.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라. 그런데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나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다.

43. 너희는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너희 양심이 너희가 아직 완전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44. 너희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감사의 빛을 갹으라. 그러면 너희는 모두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45. 어떤 이들은 서툰 점이나, 공부 부족, 영성 부족, 혹은 무지 때문에 그 길에서 멈춰 서더라도, 다른 이들은 함께 멈춰 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넘어진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잠든 자를 깨워라.

4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너희도 비록 그 길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후 다른 이들이 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그들 뒤를 이어 또 다른 이들이 나타나 더 멀리 나아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발전해 나가는 동안, 너희는 영적 존재로서 이미 영적으로 승천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47. 머지않아 여러분은 이 육신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때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영성주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이 육신을 떠날 때 영혼의 날개를 펴서 아버지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48. 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라. 그러면 지금 이 눈물과 피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겪는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49. 너희 이웃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마지막 사람’이 나의 말씀을 즉시 이해하는 것을 보라. 그에게 나쁜 열매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50. 인류는 이제 내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적 성숙에 도달하고 있다.

51. 1950년 이후 이 가르침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꽃을 피울 것이다. 사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황금 책들이 열려 그로부터 지혜가 흘러나올 것이니, 너희는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원칙과 비유가 담긴 경전들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집에서 집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것이다.

52. 그때 너희는 많은 이들이 너희를 따듯하게 맞이하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줄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영혼이 참된 제단 위에서 아버지를 뵙기를 간절히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53.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모세의 교훈과 계명을 활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계시한 바를 떠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해야 한다.

54. 세상에서는 세계관과 가르침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움직임이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겠다.

55. 나의 빛은 온 땅에 비치고 있다. 땅의 곳곳에서 나는 나를 드러낼 남녀들을 깨울 것이다.

56.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가장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 나라는 견고한 보루가 되어 빛과 평화를 베풀며 다른 민족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마음은 이기심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형제애 넘치는 마음으로 변모할 것이다.

57. 모든 종교 공동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가장 강력한 공동체일수록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 중 누가 영광의 왕좌를 어깨에 메고, 나의 공의로부터 도망쳐 다른 나라로 옮겨갈지 알지 못한다.

58. 오늘 나는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물질적인 교회나 광신주의의 제단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의식과 전통은 사라질 것이다. 너희 앞에서 사제나 성직자가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된다.

59. 너희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성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할 권한이나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할 것이다.

60. 나의 신성과 강한 영적 유대감을 얻는 이들은 가장 겸손한 자들이 될 것이다.

61. 불완전한 숭배의 흔적이 둘 하나 남지 않을 때가 왔으니, 이제 유일한 교회는 사람의 내면에 있으며, 제단은 그의 마음속에, 제물은 그의 행실 속에, 촛대는 그의 믿음 속에, 그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종소리는 그의 외침 속에 있다.

62.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이 사랑을 통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63. 너희는 내가 영적 상승의 길로 인도하는 작은 피조물들이며,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도록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들이다.

64. 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헤아려,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람들 가운데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게 하라.

65. 나는 너희에게 내 빛을 주었으니, 그 빛으로 너희 형제자매들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권능으로 너희는 예수님처럼, 묶여 있고 혼란에 빠져 지구를 가득 메운 어둠 속의 영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66. 내 빛은 모든 것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내 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것이며,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67. 내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록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율법과 사명, 지침을 주어, 인류를 가르쳐야 할 나의 제자로 삼았고, 맹인의 눈, 절름발이의 지팡이, 나병 환자의 치유 연고가 되어야 할 자들로 삼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오직 형제자매로서만 남겨 두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들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영혼의 맹목과 영적 유연성이나 자유의 결핍, 그리고 악덕과 죄인 나병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너희도 이해하기를 바란다. 비록 너희의 육체도 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임을 알아두라. 그러나 육체에도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리라.

68. 너희 영혼 안에는 큰 치유의 힘이 존재하지만, 이 은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여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69. 영혼은 나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 영혼과 육신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 힘쓰라.

70. 나의 말씀은 너희를 상쾌하게 해주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71. 인류는 각자의 종교 공동체와 종파 안에서 나를 찾고 사랑하며, 나의 어루만짐과 빛을 받고 있다.

72. 영혼들은 사다리의 각기 다른 단계에 있지만, 나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그들에게 준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웃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73. 나는 너희가 마음을 온전히 열어 그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횃불을 밝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느끼도록 가르치고자 한다.

74. 이 “백성”의 “지파들”은 예고된 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75. 너희는 이제 세상이 그 길을 따라 빛을 얻도록,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기심과 증오에 영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공덕을 쌓아야 한다.

76. 나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나의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니라.

77. 너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리 잡게 하라. 그리하여 너희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깃들게 하고, 길 위에서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하며, 멈춰 서지 않게 하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서 자비의 행위를 행하게 하라.

78.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항상 맡겨 온 씨앗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한 행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직 길의 절반밖에 오지 못했고, 너희 육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끝없는 인내로 너희를 찾고 있다.

79. 그러므로 나는 지금 - 교훈 하나하나를 통해 - 지혜의 책을 만들고 있으며, 내가 내 말씀을 거두어 들일 때 너희 눈앞에 남겨 둘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는 희망에 차서 너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좁은 길을 계속 따라가도록 격려해 줄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제안한 땅, 곧 나의 품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4

1. 나는 너희의 모든 행적을 영적 성장의 책에 기록한다. 그리고 너희가 지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알 수 있도록, 태초부터 너희에게 맡겨 온 영적 은사를 깨우쳐 주었다.

2. 너희는 나로부터 나왔으며, 그 순간부터 준비되어 왔고, 내가 너희를 투쟁과 완성의 장소인 이 땅으로 보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라”고 말하는 율법을 주었다. 내 눈에는 너희 모두가 위대하고 존귀하다. 나는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창조하였으며, 나에게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3. 나는 오랫동안 자녀들의 귀환을 기다려 왔다. 내 말씀을 듣고도 너희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깨어 있지 않았고,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영적·물질적 은혜를 베풀기 위해 왔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인 나의 말씀은 너희의 굶주림을 채워 줄 것이다. 나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리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나의 계명을 따랐기에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상이다.

4.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나의 신성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나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쏟아 부을 것이다.

5.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무지함으로 죄를 지었으며 자신이 나를 얼마나 거역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나는 악의 씨앗을 제거하고, 너희로 하여금 갱신과 사명 완수의 은혜를 알게 하리라.

6. 너희의 선한 행실 하나하나마다 나는 축복을, 너희의 문제마다 해결책을, 너희의 고통마다 치유의 연고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너희가 건강하고 강해지면,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며 본보기가 되어라. 그래야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이며 나를 본보기로 삼고 있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7. 나는 기독교 세계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즉 모세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나의 빛과 나의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이 빛은 오류와 무지를 없애 줄 것이며, 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영혼을 하나로 묶어 서로 동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8. 큰 투쟁 끝에 평화가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믿음과 영성, 그리고 선한 행실 앞에서 적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지배적인 분위기가 불결하고, 너희가 악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는 이 세상이 잃어버린 건강과 평화, 그리고 믿음을 되돌려줌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위임받은 자들이다.

9. 너희는 이 싸움에서 혼자야 아닐 것이다. 그 전에 너희의 하느님께서 싸우실 것이며, 그분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은 결박당할 것이며, 인간은 자유로워져 삶을 회복할 것이며, 믿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돌아올 것이다.

10. 너희가 은사를 행사하며 큰 승리를 경험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고, 단지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칭송하게 두지 마라.

11.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고 너희의 불완전함을 제거해 주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 훈련시킨, 더 소박하고, 교육받지 못하며, 무지한 지성들을 사용해 왔다.

12. 내 말씀은 글로 기록되어 보존될 것이다. 이 책은 백성들에게 길잡이와 교훈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새로운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내 말씀을 연구하라. 나는 이 책을 편집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나의 본질과 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류에게 남길 유산이 될 것이다. 나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법칙을 제정하고, 세상이 알게 될 지혜로운 계명과 사상, 원칙을 남길 것이다. 내 말씀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전쟁의 고난을 겪어 온 그 나라들은, 내가 다시 돌아와 인간의 영 안에 내 왕국을 세우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과 사랑과 정의의 언약을 맺으리라는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줄 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14. 나는 너희 오른편에 너희의 삶을 잘 아는 수호천사를 두었다. 그 천사의 임무는 너희를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다. 바로 ‘영적 세계’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대한 사랑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너희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든 아니든,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희생적인 목자 엘리야가 있다.

15. 그의 이름은 온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의 사명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인류는 그가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선구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성애 그 자체이며, 영혼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중재하시며,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곁에 머물러 시련 속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분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스승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으며, 내가 떠날 때 너희를 나의 제자로 준비시켜 남겨두기 위해 오셨습니다.

16. 인류여,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돌아와, 내 가르침을 너희의 영에 심고 내 본질을 너희의 마음에 심으려 한다. 나는 천상의 빛의 햇불로서 너희에게 돌아와, 사람들을 영성화의 길, 곧 영생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하려 한다.

17. 내 가르침의 빛이 너희를 비추어,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리라.

18.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분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9. 슬픔에 잠긴 사람들아, 고통에 지친 사람들아, 환영하노라. 오라, 내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나는 평화이자 영혼의 평온이며, 바로 그 평온을 너희 영혼에 남기고자 한다. 나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이요, 너희의 희망이다. 기뻐하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0. 내 말씀을 듣는 순간, 너희는 행복함을 느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음을 느낄 때, 내 신성한 영 안에는 평화가 깃들며, 나는 이 감정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너희는 오랫동안 나의 재림을 기다려 왔다.

21. 황금 같은 밀과 같은 내 말씀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이웃 사랑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 중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영혼이 느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너희가 고통받는 이의 육신이든 영혼이든, 위로하고, 사랑하며,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쓰라리게 하는 증오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파괴하고 영혼을 슬프게 하는 원한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눈빛, 그리고 행동에 선함을 지니며, 그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죽음도 평온할 것입니다.

22. 내 영은 아버지 같은 말씀으로 너희의 영을 영원히 위로한다. 그러나 너희가 깊은 고통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나를 부를 때, 너희는 너희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너희는 나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한다. 너희는 내 안에 나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 너희가 나를 들을 수만 있다면 - 그때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모든 사람은 내 발의 씨 뿌리는 자가 되고, 내

과수원의 나무 가꾸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의 씨앗은 내가 물을 주리라.

23. 너희는 물질에 얽매어 있기에 길을 잃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혜와 계시의 근원에 더 가까이 이끄는 영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매일 내 복음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도 내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 마음과 감정의 길로 나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스승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24.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의 사다리를 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이를 시작하여 너희의 고통을 끝내고, 울음을 그치며, 너희가 빠져든 그 잠에서 깨어나라.

25. 나를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나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고통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믿음은 신성한 선물이므로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과 결합될 때, 믿음은 이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다. 선한 행실 없이 너희 삶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 삶을 잘 활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건강을 알 수 없을 것이니, 영혼은 오직 선함에서만 힘을 얻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각이 백합처럼 순수하고, 너희의 행실이 꽃향기를 풍기도록 하라.

26. 일어나라, 사람들아,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의 길을 따라 오라. 그러면 그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며, 설령 수세기가 지나간다 해도 나는 계속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27. 날기를 배우기도 전에 둥지에서 죽어버리는 어린 새들처럼 되지 마라.

28.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내적 준비가 된 시점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생각들이 를 통해 인간의 입술을 통해 표현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나의 임재가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를 어루만지고 깨우노라. 그러니 너희를 기다리는 이들을 어루만지기 위해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내일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보살핌 아래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는 나의 사랑하는 씨앗이다.

29. 저 영원의 세계에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로 위대했던 이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하나가 되며,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을 떠도는 연약한 인간들과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인류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곳에는 너희 세상과 같은 분열이나 소외가 없다. 너희 세상에서는 신앙 고백과 종교적 교리가 사람들을 갈라놓아 서로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영혼을 빛으로 이끄는 일시적인 길일 뿐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이가 사랑의 법칙으로 하나 되어 동등하게 빛을 발할 것임을 알아두라.

3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은 모든 종교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이 빛은 그 어떤 이론이나 과학, 철학을 초월하며, 모든 인간이 느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의식과 예식, 숭배 형식을 피하는, 강하고 성숙한 영혼을 가진 이들이 있다. 그들은 물질보다 더 숭배하는 사랑이자 지혜로서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오며, 일단 자유로워지면 사제도, 스승도, 교사도 필요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횃불과 같습니다.

32. 오늘날 ‘영적 계곡’에 사는 많은 이들은 믿음과 자비, 지혜와 사랑의 지울 수 없는 발자취로 여러분에게 발전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 만나게 될 이들은 고귀하고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모든 종교 공동체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존재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마치 하얀 새처럼 날아와, 사랑과 영감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생각과 영감, 메시지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지 못해 저 세상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는가. 그곳, 나의 품 안에서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사랑의 숨결처럼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보내질 날을 기다릴 것이다.

33. 오, 인간들이여, 준비하라! 파도가 되돌아오듯, 새들의 노래가 새벽과 함께 되돌아오듯, 고통과 기다림에 지친 마음속으로 희망이 되돌아오듯, 그 메시지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 더 이상 너희 마음을 닫지 말라.

34.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다. 바로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슬픔이다.

35.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이며, 그분의 신성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한 문장에 요약되어 있다.

36.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의 원한과 편견에서 벗어나, 내게로 와서 내 곁에서 안식을 취하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 무한한 온유함이 담긴 나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나의 힘과 지혜, 그리고 진리가 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사다리와 같아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인간부터 완전함에 이른 가장 높은 영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만의 방식일지라도, 항상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은 죽음의 꼬리를 끌고 다니는 반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원한을 잊게 됩니다.

37.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나는 너희가 성령의 은사, 사랑,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

38.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라. 그 감정들은 사랑이 불어넣는 심오한 가르침과 숭고한 사상을 담은 말로 변한다.

39. 나는 너희의 삶이 고양되고 변화되도록, 또 이 빛을 병든 자와 아이들, 궁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 빛을 너희에게 준다. 이 길은 너희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0. 선의 사도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의 영적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져, 그것이 너희의 행실 속에 비쳐 나타날 것이다.

41.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천국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러 종교 공동체의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영혼이 필요한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단호히 말하노니: 아니오! 양심이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을 때만 영혼은 평화를 얻는다.

42. 나의 사랑은 언제나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를 찾는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한 백성에게 헌신하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 그 백성은 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진리를 들었음에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맹목은 어린 양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데서 절정에 달했다.

43.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내 설교와 희생이 끝난 땅이여. 고통과 전쟁 속에 있는 곳은 너만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며,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은 파멸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44.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왜 너희는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는가? 너희는 내가 나를 희생시킨 자들을, 나를 위해 울었던 자들보다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너희의 사랑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너희가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알라.

45. 예루살렘은 이제 고통의 장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나의 사자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배척하는 사람 하나하나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며, 너희가 고통을 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형벌이 아니라, 너희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것이다.

46. 사랑할 줄 모르는 너희 사람들아, 울어라. 용서할 줄 모르는 너희들아, 울어라.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의 쓰라림으로 울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울고 마음속 깊이 감동하라. 너희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 있어 회개의 눈물로 스스로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7. 모든 시대에 걸쳐 나는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아버지께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죄의 길로 벗어나 버린 이 인류 가운데서 그들이 나의 평화의 사자들임을 말해 주었다.

48. 나의 빛은 “이스라엘”의 길을 항상 비추어, 그들이 그 길 위에서 주님의 눈에 기쁘게 여겨지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9. 내 신성의 빛은 언제나 그 백성 위에 비추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여길 때면, 그들은 영성과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에 빠지곤 했다.

50.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발전은 더뎠다. 만일 이 백성이 태초부터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가 그들에게 주고 계시해 준 모든 것을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했더라면, 내 율법과 내 가르침은 온 인류가 존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법 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라. 세상은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며 굶주림과 고통을 겪고 있다.

51. 내 백성은 땅이 인간의 피로 물들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평화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평화를 전하는 사자들이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이 기적을 이룰 능력이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제자도마와 같다. 그는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며, 내 진리를 의심했던 나의 사도로서 너희 앞에 나타났던 자이다. 너희 가운데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52. 이 백성 중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들이 지상에서 절대적인 주인인 양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물질주의와 마음속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지배당하는 영혼들이다.

53. 그들은 나의 의로움과 영혼의 불멸을 잊어버린 자들이며, 어두운 눈가리개를 씌워 내 빛의 명료함을 보지 못하게 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의 정의와 사랑은, 내 뜻에 따라 다시 지상에 환생하여 사람들에게 인류 가운데서 나의 평화와 축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전하기 위해 온 이 백성의 구성자들에게 내려오고 있다.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내가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나의 새로운 계시를 증언하고, 나중에 너희 동료 인간들에게 그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신 이들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며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54. 이 시기에 너희는 나를 인간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계시를 믿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영적으로 처해 있는 시기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5. 이 책임의 시기가 너희에게 무겁게 얹혀 있다. 싸움에서 나아가기 위해, 먼저 마치 강가에서 스승의 말씀을 듣는 듯한 마음으로 내 말씀을 깊이 음미하라. 이 시기에 너희 영혼은 갱신을 통해 큰 순결을 얻게 될 것이며, 은사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에 합당해지고, 내 면전에 서기에 합당해질 것이다.

56. 세상이 너희 가운데 나를 모시고 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백성 안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미덕과 본보기, 가르침을 찾게 될 것이다.

57.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는 바로 나이다. 그리고 영감이  
예민한 너희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58.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길에 가시를  
놓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너희 스스로  
그 길에 뿌린 것만을 마주하게 될 뿐이며, 그것이 고통이든,  
역경이든, 눈물이든, 너희의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59. 너희 모두가 내 왕국의 상속자임을 깨달아라. 그러나 그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큰 공로를 세워야 한다.

60. 너희 삶에서 내 율법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빛나는  
별과 같이 너희를 ‘약속의 땅’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61.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지식이 되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식탁으로 이웃들을 초대하라. 그곳에서  
너희는 영생의 양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62.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먹으라. 이 잔치는 너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나 이 잔치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서로 어울려야 한다.

63.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라. 머지않아 너희는 더 이상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4. 내가 이 계시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할 때,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이 계시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한히 계속되도록  
허락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건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계시의 형태도 영원했던 적은 없었다. 너희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취해야만 했으며, 너희가  
그분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계시는 결코 주님과 소통하는 가장 높고 완전한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65. 너희가 영성화를 통해 삶의 고양을 이루고, 내 가르침에  
담긴 정의와 사랑, 빛이 너희 행위의 기준이 되며,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경배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 될 때, 너희는 영과 영이  
대화하는 시기, 즉 완전한 교감의 시기에 있게 될 것이다 –  
아버지께서 더 이상 자신을 알리고 순종을 얻기 위해 돌에 율법을  
새기실 필요가 없을 때 – 그분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더 이상 신성한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게  
하실 필요가 없을 때 – 그분이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내 목소리를

허락해 준 대변자들의 서툰 이성을 더 이상 이용하실 필요가 없을 때.

66. 돌에 새겨진 나의 법은 그 의미상으로는 영원하지만, 그 외형적 형태는 덧없는 것이다. 나는 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사라지게 하였다.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속된 자요, 기름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행적, 그리고 모범적인 삶은 비록 썩지 않고 영원의 본질을 지녔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와 사랑, 자비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후, 모범적인 사역을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한 순간이라도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것은 울려 퍼졌고 모든 영혼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67. 백성들아,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영이 음성 전달자들의 뇌를 통해 너희에게 드러나는 이러한 방식은 곧 끝을 맞이할 것이니,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성 전달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 드러나는 의미는 영원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말씀의 본질과 동일하며, 내가 첫 시대에 너희에게 전해 준 율법에 담긴 본질과도 같기 때문이다.

68. 훌륭한 제자들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모든 계시에 담긴 외형적 형태, 즉 인간화된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정체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결코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상승하고, 성취하고, 정복하고, 아는 것이 너희의 영적 소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69. 시나이 산에서 아버지가 계시하신 것의 외적인 부분은, 그 안에 신성한 율법을 새기는 수단이 된 돌이었습니다.

70.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의 외적인 부분은 육신의 외피, 즉 그리스도의 인간적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의 계시의 외적인 부분은 ‘목소리 전달자’였으므로, 이 계시의 형태는 과거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71. 너희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양육받아야 하는 영적 백성의 자녀들임을 깨달아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외적인 예배 의식이나

형식,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72. 너희는 모든 면에서 물질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가 그 생명이 떠난 육신을 붙잡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거나 그를 붙잡아 두려는 갈망에 사로잡혀, 여러분이 계속 연결되어야 할 대상은 그 육체나 형상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더 밝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여러분을 혼동하거나 잊지 않으며, 여러분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유대를 끊지 않습니다.

73. 육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속에서 사랑하는 존재의 종말을 보는 것으로 여기는 자는, 다른 죽은 자를 애도하는 ‘죽은 자’이며, 빛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분께 마음을 단아버린, 무지하고 빛이 없는 사람이다.

74. 만일 인간이 복잡한 종교 대신 내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 세상에는 더 많은 빛이 비추고 영혼들 속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75.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맡기신 유언은 위대하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 행성은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이다.

76. 사람들이 율법석이 들어 있던 언약궤를 발견하겠다는 꿈을 꾸거나, 다양한 초상화를 통해 신성한 스승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려 하기보다, 신성한 율법과 가르침의 진의를 깊이 탐구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77.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위대한 계시 중 하나를 받은 너희가 겉모습, 즉 형식에 집착하여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려 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죽은 자’가 되어 죽은 자들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니, 모든 형상은 사라지고 오직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만이 남기 때문이다.

78. 이해하기 위해 너희의 이성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너희의 의지를 발휘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5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랑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는 나의 신성한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세상의 재물을 잊도록 가르치노니, 이는 너희 영혼이 해방되어 저 세상에서 스승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2. 모든 마음속에는 너희가 나의 시선 앞에서 숨기려 하는 근심과 탄식이 하나씩 있다.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기 위해 오면서도, 나에게 너희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너희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나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있다.

3.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너희의 상처에 나의 치유의 기름을 바르고, 너희 영혼을 평화로 채워 주리라. 나는 너희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곁에 있음을 느끼고 싶다. 너희와 아버지 사이에 맺어진 유대가 날마다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 마음을 이 땅에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고, 너희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 법칙과 인간적 법칙을 따르도록 가르쳤으니, 이를 통해 너희는 물질주의에도, 영적 광신주의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4. 너희는 나의 세 번째 계시를 목격하고 다시금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여러분 중에는 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내심 많고 사랑이 넘치는 스승으로서, 초보자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삶의 시련은 나의 가르침의 일부이며, 이는 다가올 새로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을 다듬고 단련시킵니다. 고통은 너희가 나에게로 나아오게 한 수단이었습니다.

제2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들, 나병 환자들, 마비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귀머거리들 –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굼아가는 상처를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증거했습니다.

5.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사랑과 자비의 일들, 곧 너희가 기적이라 불렀던 것들은 그 마음들에 믿음을 불태웠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내게로 나아왔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은,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현을 떨리게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로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분, 과학과 과거 시대에 주님의 사자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아직 때가 다 이르지 않았기에, 영이신 아버지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 감추어지신 채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으니, 이는 그분의 모든 행적이 눈에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려 하심이었다.

6. 그러므로 나는 가장 믿음이 없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자들의 눈에도 증거가 드러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었다. 만일 내가 그 기적들을 오직 영혼에게만 행했다면,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도 믿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시대가 변했다. 너희가 그때와 같지 않다면, 나는 나에게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너희 가운데서 그 기적들을 다시 행하겠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 당시 나의 증인들이었다. 너희는 나의 자비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다정한 어루만짐과, 너희 머리에 얹은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는가.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치유의 힘과 사랑으로 너희의 몸과 영혼을 가득 채웠던 그 말씀의 울림을 들었는가.

8. 오늘 나는 너희의 영혼에게 직접 다가간다. 어떤 이들의 영혼은 눈이 멀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민감함을 잃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몇몇은 죄와 악덕으로 인해 마치 나병 환자처럼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기꺼이, 평화롭게 내게로 오도록 너희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고통이 매우 심해져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를 찾아 나섰다.

그 전에는 영혼의 평화와 건강, 혹은 위로를 갈망하며 이 문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찾지 못하자, 내 면전에 나아오기 위해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은 마음이나 영혼은 단 하나도 내게 온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고통을 통해 이 길을 찾았음을 다시 한번 말하노라.

9. 어떤 이들은 불신 속에서 믿기 위해 나에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요구한 기적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결코 아버지께 조건을 내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르침을 계속 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굴복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을 뜨자, 건강과 평화를 되찾았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내 말씀을 듣는 데 꾸준히 매진하며 육체의 고통을 잊고 영혼을 고양시켜, 마침내 자신들이 겪는 고통마저 축복으로 여겼으니, 그들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0.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했음을 깨달았고,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나의 자비와 은총을 얻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11. 나는 스승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의사였고, 재판관이었습니다. 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항상 나를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찾으십시오. 나를 의사로서 찾지 않도록 병들지 말고, 내가 재판관으로서 너희 곁에 서지 않도록 나의 공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12. 도덕과 미덕, 영성을 실천하면 너희는 육체의 질병과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될 것이다.

13.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나는 오늘 인류에게 제2시대의 기적을 반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갈망하며 왔으나, 너희의 육신을 잊지 않았으니, 그것 또한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평화로 채우고, 이 시대의 우여곡절과 고통 속에서도 너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려고 다가왔다.

14. 나는 너희의 마음을 하나의 이상이라는 빛으로 불태워 주었으니, 그 이상은 실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바로 나, 곧 너희가 언제나 나의 임재와 도우심을 누리는 그 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너희를 깨우는 자, 친구, 의사, 그리고 너희의 잠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15. 너희 영혼은 비록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 이제 너희 영혼은 자신의 성소를 알게 되었고, 길을 찾았으며, 그 길에서 지평선 너머로 진정한 조국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누가 그분께 이르게 될지 나에게 묻고,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모두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고통이 너희를 이끄는 것도, 시련이 너희를 강요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너희를 나에게로 이끄는 것은 바로 너희의 사랑, 그 빛일 것이다. 이 여정에서의 시련은 오직 너희를 물질주의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16. 폭풍우와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너희 마음에는 평온과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합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제 너희는 준비되었다.” 이제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이제 너희는 이웃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새 예루살렘”이 그 문을 열 것이다. 그곳에는 수호자들이 머물 것이며, 그곳에서 사자들이 열방으로 떠나 행복과 증언을 전할 것이다.

18. 너희의 말씀은 우상들을 받침대에서 쓰러뜨릴 것이며, 너희에게서 발산되는 빛은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19. 비록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큰 책임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너희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성장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0. 태초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간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설교하실 때, 그분은 유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사도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게 하셨다.

21. 오늘 나는 성령으로 오며, 나의 보편적 가르침은 인종, 학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포용한다. 이 가르침 안에서 무수한 세계에 거주하는 우주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22. 이 “백성”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거하실 영적 성전이 우뚝 솟아오를 것이다. 곧, 나의 신성을 향한 사랑의 제단이 세워진 내면의 성전,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와 자비의 행실, 그리고 참된 간증으로 세워질 성소이다. 이 성전에는 나의 형상이 있을 것이다 –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닮은 형상”으로 창조한 것, 즉 영혼을 부여받고 영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은 인간 존재이다.

23. 너희 안에는 신성의 반사가 있으며, 나는 진실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지닌 지성, 의지, 능력, 감각, 그리고 미덕들은 너희가 속한 더 높은 본성을 증언하며, 너희가 나온 아버지께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다.

24. 때때로 너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너희 존재 속에 지니고 있는 나의 형상을 더럽히고 훼손한다. 그럴 때 너희는 나와 닮지 않는다. 창조주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진정으로 닮은 점은 너희의 빛과 모든 이웃을 향한 너희의 사랑에 있다.

25. “번성하고 번창하라”고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너희 영혼에게 말하노니, 이는 내가 인류의 조상들에게 지구를 인간으로 채우라고 명했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과 같다. 번성하고 번창하라, 사랑하는 백성아. 그러나 영성에서 성장하고 덕을 쌓아 번창하라.

26. 이 시대에 만연한 그토록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라. 기도와 만나가 되고, 치유제와 위로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숭배하는 영혼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27. 땅 위에는 너희의 안식처이자 집인 곳이 있다. 바로 우주를 닮은 그 기관으로, 너희가 그 품 안에서 삶의 투쟁을 위한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8. 너희의 집이 그 자체로 성소와 같은 분위기를 갖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 삶의 메마르고 적대적인 사막 속의 작은 왕국이자 오아시스가 되게 하라. 너희 집의 미덕을 지키되, 지나친 야망으로 인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환대, 사랑, 자비가 결여되어 더 이상 우주와 닮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붕 아래는 환대하는 곳이 되고, 식탁 위는 형제애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라.

29. 오직 사랑의 길을 통해서만 너희는 내게 이르러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는 그 가르침이 너희에게 참된 사랑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30. 내 말씀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그 안에 나의 지침이 담겨 있기에 장애물과 “심연”과 “어둠”을 뚫고 너희를 위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31. 오직 나만이 너희의 구원이심을 기억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나의 율법은 너희 영혼의 길이자 인도자가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32. 내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갈림길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33.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그 길 위에서 내딛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축복하며, 이를 통해 너희 영혼을 평화와 신뢰로 채워 주리니, 이는 너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멈춰 서거나 잠들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34.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마라. 목표는 아직 멀었음을 명심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여정'을 걸어야 하며, 새로운 공로를 쌓고, 너희의 승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35. 영혼의 완성은 지상의 시간 단위, 즉 수세기나 시대 단위로 측정될 수 없다. 영혼의 완성과 발전은 영원을 그 활동의 무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영원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지상의 삶에서 보내는 날들이나 순간들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발전의 길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놓치거나, "순간"만큼이라도 뒤처졌을 때 어떤 고통을 겪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는 삶을 살며, 육체적·영적 향상을 위해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매 순간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6. 나는 너희 모두가 이 길에서 같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미 확고하고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이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뒤를 따르는 이들을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은 지쳐 오고, 어떤 이들은 멈춰 서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잠시 믿음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37. 나는 너희에게 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이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형제애를 실천하고, 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하려 함이다.

38. 만일 누군가가 다른 이들이 자신이 이룬 것을 이용하고 기뻐할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깨달음과 믿음, 은사를 혼자만 간직하려 한다면, 그는 홀로 빈손으로 내게 올 것이다. 그는 나에게 씨앗을 바칠지언정 수확물은 바치지 못할 것이니, 그는 씨앗을 받는 데 만족하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을 뿐, 결코 직접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9. 자신의 영혼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자신을 잊고, 이웃이 영적 목표가 있는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자는, 영적 형제자매들의 축복을 받으며, 사명을 완수한 빛으로 가득 찬 영혼을 지니고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도착할 것이다.

40. 제자들아, 배우는 자들아, 뒤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제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제3의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의 영혼이 아버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승하여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계시한 그 순간부터 나의 가르침을 연구해 온 너희 중의 자들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자라고 여기는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것이 너희가 나로부터 받는 첫 번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 전, 다른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고, 그때부터 너희는 그 법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때부터 나는 너희가 그 법을 실천하기를 기대해 왔다. 내가 뒤쳐진 자라고 부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놀라지 말라. 내가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미리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41.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너희 영혼을 준비하라.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누룩 없는 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빵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내 영의 정수와 사랑이니, 오직 나로부터만 이를 받을 수 있다. 오늘부터 이 빵으로 양육받으라. 그리하여 내 자녀 중 누구도 이 양식을 결핍하지 않도록 하라. 굶주림으로 죽지 말라. 아버지인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지금처럼 나를 가까이 모신 적이 결코 없었다.

42.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기에, 내가 너희를 지켜 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굶주림을 느끼거나 이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며, 너희가 처한 어떤 단계에서든 나의 임재를 느껴라.

43. 너희가 속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열매의 맛을 알기를 원한다. 내 계시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간이 지나면 선택받은 백성에게 위험과 함정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는 가르침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만이 오류에서 벗어나 순수한 씨앗을 맺고, 그것을 동료들에게 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44. 나는 세 시대에 걸친 나의 계시의 시기를 구분해 두었다. 첫 번째 인간부터 예수의 탄생까지의 시기는 인류의 첫 번째 시대를 아우르는 시기였다. 그것은 온전히 성장해 가던 너희 영혼에게 시련과 투쟁, 그리고 경험으로 가득 찬 긴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대의 시작을 알리셨고, 인간은 그분이 모범을 통해 주신 교훈을 배웠으며, ‘말씀’이시자 아버지의 사자이신 그분을 가까이 느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체류는 짧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자신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선택받은 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후, 오셨던 곳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부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난 1866년까지, 제2시대가 품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주기, 즉 세 번째 주기가 열렸으며,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나의 영은 너희가 한 시기를 지나 다음 시기로 나아가, 이 시대 에 상응하는 씨앗과 빛과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왔으니, 이는 너희가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에 도달했는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성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5. 내가 한 사람을 매개로 하여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나의 모든 명령이 그러하듯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너희의 믿음과 직관,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내가 너희 곁에 있음을 알려 줄 것이며, 너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항상 산 정상을 가리키며, 내 자녀들이 영혼들이 기다리는 목표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46. 축복받은 여성들아, 너희 또한 나의 사도 무리에 속해 있다. 육체적으로는 다르지만, 남자의 영과 너희의 영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양측의 사명 또한 서로 다르다.

47. 너희 영혼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랑이 그려 놓은 길을 따라가라. 그분의 말씀을 너희 것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를 품에 안아라.

48. 나는 너희의 영에게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영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 너희 여성의 마음이 본받을 모범을 찾고, 삶 속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버팀목이 될 완벽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면, 마리아를 떠올리고, 그녀가 지상에서 보낸 온 생애를 유심히 살펴보라.

49. 아버지의 뜻은, 마리아의 겸손한 삶을 그녀의 사역 기간 내내 그녀를 알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던 내 제자들이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50. 그 삶은 – 아는 이에게는 겸손해 보이지만 –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빛나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겸손한 마음과 끝없는 섬세함, 순수한 마음,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페이지에 걸친 사랑 어린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51. 마리아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발현된 모성에 그 자체였으며, 인류에게 겸손과 순종, 온유함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을 걸어간 발자취는 빛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소박하고 위엄 있으며 순수했습니다. 그녀 안에서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52. 오직 그녀만이 자궁에 하느님의 씨앗을 품을 수 있었으며, 오직 그녀만이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완수한 후 인류의 영적 어머니로서 남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53. 그러므로 마리아는 여성 여러분에게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그녀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녀의 침묵과 겸손의 행실, 궁핍한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끝없는 자기 부정의 행실, 조용한 고통,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연민, 그리고 중보와 위로, 달콤한 도움이 되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54. 처녀들이여, 아내들이여, 어머니들이여, 부모를 잃은 소녀들이나 과부들이여, 외로운 여성들이여,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계신 여러분- 마리아를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보살피 주시는 어머니라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분을 부르시고, 영으로 그분을 영접하며, 마음속으로 그분을 느껴 보십시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6

1. 스승이 너희를 축복하노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니, 내 임재 안에서 활력을 얻고, 너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영적, 도덕적, 물질적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으라.

2. 나는 이 시대에 세상을 휩쓸게 될 시련들에 대해 너희에게 자주 말해 왔다. 너희가 눈을 뜨면, 그것들이 이미 닥쳤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에는 더 큰 시련들이 닥칠 것이다. 그에 대한 해독제를 가진 너희는 존경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내 지시를 따를 때, 너희는 자연의 힘에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힘은 멈춰 서서 너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순종하는 종들처럼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의 권능은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과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니, 그럴 경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너희 영혼에 무겁게 짓눌릴 것이며, 너희는 역경에 맞설 힘이 없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3. 이 성찰과 사명 완수의 시기에, 너희는 과거에 시작했던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실수를 바로잡고, 사랑으로 너희 영혼의 순수함을 되찾아라. 너희가 나의 사자로서, 인류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의심은 크다.

4.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겠지만, 나에게 와서 이 귀중한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도 나는 축복을 내린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나는 너희에게 늘 말해 왔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큰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고 신뢰하는 모든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때때로 절망과 희망 상실의 심연에 빠지는가? 활기찬 믿음이 없다면, 너희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너희의 길을 밝히기 위해 등불처럼 지니고 다니라. 그러면 너희는 강해지고 인내하며, 너희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5.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너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시간에도 나를 부르곤 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는 나와 함께 너희의 잘못을 눈물로 씻어내며 영혼을 달래기 위해 나의 임재를 찾았다. 나의 사랑과 인내는 무한하며, 너희에게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6. 나의 작별이 정해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내 말씀은 끝이 나겠지만, 나는 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머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 존재의 내적 성전에서 나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성전의 영광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너희 영혼의 고양에 기초를 둘 것이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성소를 세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 영혼에게 맡겨 온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가르침에 꾸준히 머물러라.

7. 너희 영혼의 감수성으로 무한한 곳에서 나를 찾되, 나를 보기를 갈망하지는 말라. 너희의 눈으로는 나의 영을 볼 수 없다. 제2시대의 제자인 요한은 그의 위대한 환상 속에서 나의 영을 온전한 영광 그대로 보지 못했다. 나는 그의 영적인 눈앞에 오직 큰 신비를 담고 있는 상징들만을 보여주었으나, 그는 그 모든

고양된 상태 속에서도 그 신비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허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위대한 환상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후세들을 위해 기록해 두었다.

8. 이 시대의 예언자들아: 경외심을 가지고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 닥칠 사건들을 예고하는 아름다운 환상을 허락하리라.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위대한 환상을 허락하리라. 내 지혜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리라.

9. 이 시대에 스승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을 계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은총은 동시에 내 계시를 통해 영혼이 제3시대에 도달한 발전 단계를 이해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10. 나의 빛은 너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였으며, 이 진리는 너희 존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 진리는 지친 영혼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다. 마음에게는 이 진리가, 여러분이 날마다 맞서야 하는 비참함과 유혹과의 싸움 속에서 용기를 주는 힘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힘이며, 나의 제자들을 새롭게 하는 은총입니다.

11. 영혼과 여러분을 둘러싼 삶에 대해 조금 더 깨닫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 번의 지상 생을 거치며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를 통해 제 가르침의 한 교훈들을 더 이상 여러분이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 그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은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이 빛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계시를 알게 될 것이며, 과거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이제야말로 각성의 시간이며, 정신과 사상의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2. 인간이 사슬처럼 묶여지고 다니던 모든 불필요한 관습들은, 새로운 준비를 통해 물질주의에서 해방될 때 그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13. 너희는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 귀로 듣고 이성으로 받아들인 바를 설명할 줄 아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14. 지금까지 너희의 행위에 완전함이 없었던 것은,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의지와 자기 부인과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높이 비상하고자 한다.

15.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의 위대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그들이 그 학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업적에 대해 말할 수 있으려면, 너희도 그 진리에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안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

16. 깨달아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오류에 빠질까 두려워하여 말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 안에 깨달음과 깊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진리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17. 내 가르침은 너희의 상상이나 이해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의 신성한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내가 그에게 계시하기 전에는, 누구도 나의 계시 중 어떤 것도 알거나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18. 과학자들이 물질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겸손한 이들에게 영적인 삶,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 근원, 그리고 설명이 담겨 있는 진정한 삶을 계시한다.

19. 너희가 전하는 지식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의 사역에 대해 갖는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해가 부족하여, 너희의 소박함에 따라 나의 가르침을 평가할 것이니, 마치 '제2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한 외모와 소박한 옷차림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도 소박하게 차려입었기 때문에 평가받았던 것과 같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누더기로 몸을 감싼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내 가르침을 통해 영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세상의 허영을 경멸했을 뿐이다.

20.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내 사역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너희를 찾아와 질문할 때,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지식 때문에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더 겸손하게 행동할수록, 그들은 너희를 더 고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21.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광신을 해소하고 영혼을 해방시키는 빛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점차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던 자들은 이 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영적 삶에 대한 고양된 관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2. 제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를 형제라 부르셨던 분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일하시다.

23. 제자들을 스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비밀 보물창고가 제자들 앞에 열리고 있다.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각 지방과 민족들에게 보내어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 시대에 나는 나의 “보좌”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며, 나의 목소리는 내가 은총을 내린 한 사람을 통해 너희 세상에서 들리고 있다.

25. 첫 번째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나 또한 너희에게 나의 재림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다!

26. 1866년에 선지자이자 길 닳이인 엘리야의 영이 나타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밝히며, 그들에게 나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고, 나의 성령이 계시될 문맹인 남녀인 대변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27. 나는 이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었으니, 이는 땅 위에서 임명된 하나님의 종들 또한 내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율법을 어기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향한 참된 길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2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일어나, 이제 너희 안에서 나를 심판하고 시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겸손함으로 겸손하라.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9.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영 안에서”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반면, 다른 이들은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 되어 준비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30. 나를 듣고 그 백성의 일원이 된 너희는, 마치 아름다운 종소리와 같은 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중 하나이다. 너희의 순종과 선한 의지에 대한 보상은, 너희가 “신성한 말씀”을 들을 때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갈릴리의 랍비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다.

31. 나는 너희에게, 다양한 종교 공동체에 속한 동료들의 신앙적 신념과 예배 행위를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모든 신앙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너희는 내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깨끗한 자 안에도, 죄로 더럽혀진 자 안에도 말이다.

32. 나는 모든 이를 사랑하며 누구도 별하지 않는다. 영혼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정의이다.

33. 신성한 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만일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욕과 잘못을 보시고 잠시라도 분노를 느끼신다면, 그 순간만으로도 여러분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34. 그러므로 나는 “하얀 구름 위”에서 내려와 너희에게 내 말씀을 들려주고, 너희의 악을 없애며,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너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고, 너희 삶의 광야에서 너희가 그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했던 야자수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35. 나는 너희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지 않았으니, 만일 너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면,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것은 보석 그 이상이다. 그것은 보물이다.

36.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가? 너희 마음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 세계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영혼이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영적 성숙을 향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37. 새로운 삶,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 일어나라. 인류에게 멸망의 위협이 닥치고 있으니, 나는 너희가 지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38. 어떤 이들은 이 모임 장소들의 초라함과 소박함,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매개자들의 평범함을 이유로 내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연구한다면, 그분이 결코 화려한 외형이나 찬사, 부를 추구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9. 이 장소들은 내가 그 당시 태어나셨던 마구간과 짚더미만큼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다.

40.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하늘의 식탁에 앉아, 그곳에서 나의 사랑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41. 나는 나의 “보좌”에서 너희에게 나의 말씀의 선물을 들려주어 기쁨을 주기 위해 빛을 비추고 있다.
42.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오기를 기다려 왔다.
43. 내 식탁에 앉아 나를 둘러싸라. 배고프거나 목마르다면 – 여기 음식이 있으니, 마음껏 드라. 슬프거나 아플 때 – 여기 내 임재가 있어 너희에게 건강과 위로를 줄 것이다.
44.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항상 간직하라. 내가 세상에 관한 약속들을 이루었으니, 영적 삶에 관한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리라.
45. 이 땅에서 공덕을 쌓으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향한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46. 이 시기에 너희는 새로운 광야를 건너가고 있다. 그곳에서 너희는 굶주림으로 죽지 않았으니, 그곳에서 너희 영혼을 양육해 준 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치 너희가 광야의 황무지에서 만나로 양식을 얻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 그것 또한 광야에서였다.
47. 오늘 너희가 건너고 있는 곳은 뜨거운 모래 사막이 아니며,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것도 땅의 빵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영생의 빵이 너희를 양육하고 있다. 너희 영혼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유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의 성장이 너희로 하여금 내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어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48. 너희는 이제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고 있다. 지칠 때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곧 스승이 너희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동반자로서 너희의 짐을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속죄의 길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과 의무가 있기에, 나는 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모든 이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운명을 정해 주고 십자가를 맡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49. 그 누구도 자신의 영적 발달 단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동료 인간이 처한 존재의 차원도 판단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50. 나는 너희를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고, 진리인 빛을 갈망하며 너희가 고양될 수 있도록 영적 자유를 주기 위해 왔노라.

51. 아무도 마지막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너희 모두는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공로를 쌓고, 일하라. 사랑으로 밭에 물을 주고, 비옥하게 가꾸며, 그 위에 스승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너희 뒤를 이을 세대들은 너희의 발자취를 통해 너희가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52. 유혹이 너희의 씨앗을 망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의 검으로 너희 밭을 지켜라.

53. 나는 너희의 영적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약속해 주었다. 그곳에서 너희는 이 시대에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깨우쳐 주시는 창조주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르침이니,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사랑과 진실함, 정의, 그리고 너희를 지혜로 인도하고자 하는 나의 조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54. 나는 인간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소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 왔으며, 항상 너희의 이성과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왔다. 나는 너희의 보잘것없는 삶으로 몸을 낮추어 너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너희에게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너희에게 내려왔다.

55. 내가 너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너희는 내가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더라도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여, 나의 계시를 더 잘 해석하고, 이를 통해 참된 사랑의 행실로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다.

56.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빛을 가져다주었고, 위로 이끄는 길을 보여 주었다. 오늘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더 큰 황홀경에 빠져, 가까이서 영적인 삶을 바라보고, 피조물들 위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57. 내 영은 지금 너희가 굶주려 있기에, 모든 영혼과 모든 이성과 마음을 불러내어 나에게서 양식을 얻으라고 하고 있다. 너희는 내 말씀으로 양식을 얻는 법을 알지 못했고,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활용하지 않았다. 율법과 계명이 담긴 생명의 책은 현재 세상에서 잊혀진 채 보관되어 있다.

58. 나는 영으로 오셨고, 나의 임재는 너희를 뒤흔들었다. 나의 빛이 너희에게 닿았고, 너희 양심은 너희의 모든 행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59. 나는 너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고 더 큰 영적 고양을 이루도록 초대한다. 나는 너희가 오늘날 나의 계시를 이해하고, 나를 들은 후 너희 영혼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사랑으로 너희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의 영적 성장을 허락해 왔다.

60. 이토록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영적 혼란이 극심한 시대에, 어떻게 인류로 하여금 영성을 얻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사명이 어렵다는 것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 속에서 강인하고 인내심 있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는 내 율법에 대해 내려진 잘못된 해석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숭배의 불완전한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상과 예배의 형태를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선의를 갖추고, 여러분의 행실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1. 태초에는 너희의 제물이 물질적인 것이었다. 너희의 제물은 무고한 생명체, 즉 어린 양이나 새,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었던 씨앗과 농작물이었다. 너희는 아직 매우 미숙하여 너희의 세계를 넘어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너희가 깨어날 것을 기대하며, 한 시기를 또 다른 시기로 이어가며 너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62. 제2의 시대에 너희는 예수를 통해 나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분은 자녀가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영혼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셨고, 너희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지혜의 보물을 남겨 주셨다.

오늘,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위해 생명의 책을 열어, 내 영의 가까움에서, 즉 인간이 정화되고 영적으로 고양된 후에 맞이하게 될 평화의 시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주는 새로운 교훈들을 보여준다.

63. 이 모든 교훈은 너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내일 새로운 세대의 인도자이자 스승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돌보며, 그들 안에 쓸모없는 전통이나 그릇된 지식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 영혼 속에 율법과 나의 말씀을 간직하라. 이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인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라.

64.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모세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준비시키고, 영적 길에서 결정적인 걸음을 내딛게 하려 한다.

65. 깨어 기도하고, 항상 침착하며, 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여, 제3시대의 이 계시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7

1.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기에, 나를 위로해 달라고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다시금 듣노라.

2. 나는 나이에 비해 일찍 굵은 몸과, 이르게 희어진 관자놀이,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늙어버린 얼굴을 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영혼 속에는 평화도 보이지 않는다.

3.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조차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투쟁과 속죄, 시련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보다 더 높은 다른 세상들에서는 평화가 지배하고 있고, 승천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4. 나는 이 인류가 투쟁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잠시나마 그들의 여정에서 쉴 수 있도록 작은 휴식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5. 인간은 헛되이 안녕과 평화, 지배, 그리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한다. 그는 모든 시대에 걸쳐 오직 비틀거리고 실망, 고통만을 경험해 왔다.

6. 아, 그가 겸손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힘과 권능을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의 삶의 투쟁은 달라지고 얻는 바는 실체가 될 것이며, 그의 열망은 고상해지고 그의 승리는 진실해질 것이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때문에, 너희가 그 일부인 이 인류가 심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빛과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내 오른편에 거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내가 그들의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8. 이 인류는 깨달음과 영성을 갈망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땅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대신 선이 다스리고 땅 위에 평화가 세워질 것이다.

9. 사람들의 영혼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정화되었으며, 이제 나를 듣고, 보고,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10. 너희 중 많은 이에게 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너희가 물질주의에 빠져 오류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중 겸손한 자들, 고통이 자신을 다듬게 내버려 둔 자들,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자들, 그리고 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기쁨으로 그들이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보았다.

11. 너희는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이곳에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계급이나 직함,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 모두는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나는 너희 가운데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겉모습 아래 숨겨진 위대한 영혼들을 발견한다. 그들이 알아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겸손하고 학문적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증언하며, 나를 이해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로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를 이루고자 하며, 인류에게 나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며, 나의 교훈이 영원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12. ‘제2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미 선지자들이 전한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민족의 품에 내가 나타났을 때, 선지자들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왕들과 압제자들을 굴복시키며, 그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재산과 세상의 재물을 베풀어 줄 분으로 기대했던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13.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 가난하고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몸은 단순한 옷 한 벌로만 가려져 있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중엔 평범한 장인으로 일하고 계셨기에,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곧 약속된 분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스승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신성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과 행적을 행하셔야만 했다.

1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려온 것은 단지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주거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거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나의 사역은 지혜와 영원하심을 지닌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니, 잠든 인간의 영혼을 갈망하시며 그들을 참된 영적 삶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

15. 그 기적들은 단지 내가 이론 일이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영혼들을 깨워 불러내기 위함이었다.

16. 그 당시 누가 나를 알아보았는가? 내가 용서해 준 죄인들, 의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찾는 자들, 진리와 영성, 그리고 영원을 갈망하는 자들이었다.

17.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권력자들,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고, 믿지 않던 많은 이들에게 내 말씀은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18.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열두 사람이 나를 직접 따르며 내게서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며 가르쳐라. 나는 곧 세상을 떠나겠지만, 멀리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나를 품게 될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나에 대한 증거를 남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이웃에게 행하라.”

19. 선지자들을 통해 준비된 그 백성은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씨앗은 이제 뿌려졌고, 그 열두 제자를 통해 여러 나라와 지방으로 전해졌다. 선택받은 백성이 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동안,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은 나의 씨앗을 받아들였고, 그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

20. 이방인 로마는 내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내 가르침의 씨앗도 받아들였다. 고통으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되었고 쾌락에 싫증을 느낀 그 나라는 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여 영적으로 강해졌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나 내 가르침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했다.

21. 나를 따르지 못했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민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다시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얻어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내 곁에서 나의 새로운

계시의 증인으로 있고, 나머지 이들은 다시 한 번 육신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22. 너희는 병든 자, 죄인, 의를 갈망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나를 따랐던 그 백성을 대표한다.

23. 오늘 나는 단지 '제2의 시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반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려고 왔다. 내가 너희 안에 뿌린 씨앗을 가꾸어, 나중 그 열매를 거두려 한다.

24. 영성을 충만히 채우고 계속해서 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그래야 너희가 인류에게 내 가르침의 열매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임재를 느껴라. 나는 빛의 광선처럼 너희에게 다가오며, 그 빛이 너희 마음속에 스며들면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며, 어루만짐이 된다.

25. 나는 너희 형제자매들 앞에서 너희의 잘못을 폭로하기 위해 심판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의 말씀은 마음을 바로잡고 다듬기 위한 것이다.

26. 이 땅에는 내가 계시한 그대로의 진실함으로 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숨겨 온 자들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가 다시금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표류하는 자들이 구명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27. 나는 천민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고, 병자들을 치유한 뒤 그들을 치유자로 삼아, 그들이 세상에 나의 능력을 보여 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적을 목격하면 과학자조차도 깨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자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몸을 다스리고, 그것을 너희의 영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순종하는 동반자로 만들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 영혼이 육신의 껍질이 지쳤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벗어던지고 날개를 펼치며, 속박에서 해방되어 사랑으로 가득 찬 '영적 계곡'에서 활동하고, 돌아올 때 마음에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가르친다.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영성주의의 사도들이기에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5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 나는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칠 것이며, 아직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노라.

30. 계시들과 예언들, 은사들로 이루어진 이 제3시대의 나의 법과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이 융합되고 하나 될 '새 언약의

성막'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성막은 거부당하고 대적받게 될 것입니다.

31. 너희는 새로운 성막을 수호할 자들이며, 내 대의를 위한 새로운 전사들이 될 것이니, 내 임재와 내 말씀이 너희를 강하게 하였으므로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32. 시련의 날들에 너희는 숨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부족한자들 앞에서 너희의 은사를 숨긴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스승을 다시 한번 보라. 나는 지혜로 나 자신을 드러내며, 너희 영혼은 떨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겪게 한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빛으로 채워지고 힘을 얻고 싶은 갈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의 뇌리에 닿는 내 빛의 한 줄기이며, 내가 너희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는 영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너희에게 영적 삶을 계시하며, 예수께서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신 길을 다시금 밝혀 준다.

34. 너희가 점차 내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너희 존재는 더욱 밝아지고 의에 대한 갈망은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양심이 그 길을 밝혀 줄 것이며, 너희는 내 법에 부합하는 행실을 내게 바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다.

35. 너희가 내게 다가올 때, 너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구하며, 아버지께서 너희의 노력을 보시면 그분의 뜻에 따라 이쪽이나 저쪽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36. 영혼은 너희 존재의 일부로서, 그 생명에는 한계가 없다. 영혼은 너희의 육신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나는 너희의 영혼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다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에게도 말하며 그것을 어루만진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평화와 평온이 깃들면, 사람은 나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 너희가 육체적 욕구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너희는 영혼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영혼을 그 의무에서 멀어지게 한다.

38. 여전히 나를 들을 때면 “스승께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사실인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한 사람의 뇌를 통해,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모임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하나님을 상상하기 위해 이 모임

장소의 호화로운 시설이나 초라함을 바라보지 말라. 내 임재를 믿기 위해 항상 의식의 허울 좋은 화려함을 갈망해야만 하는가?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부터 죽으신 곳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물질적 가난의 본보기를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 즉 낮음 속에 여러분의 스승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권력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정한 위대함과 겸손, 자비를 깨달아, 너희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 - 물질적 의미가 없는 모임의 장소에서 -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하라. 오늘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해서 이 사역의 중요성을 평가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것은 때가 되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며,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3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삶과 행실이 바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증언할 것이다.

40.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인류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어 왔다. 왜 내 작품 속에서 나를 찾지 않는가? 나는 너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기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의 창조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피조물부터 위엄 있는 왕 같은 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러나 내가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또한 태양이 나의 신성한 영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창조주의 작품 속에서 고작 원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1. 만일 너희가 너희의 이성을 그러한 믿음의 관념들로만 제한한다면, 너희는 태양을 숭배했던 너희 조상들을 흉내 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조상들을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인간은 그 자연의 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알아볼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따뜻함과 빛, 그리고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2. 내가 인간의 매개를 통해 나를 드러낼 때, 나는 그 사람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표현 방식은 달라지더라도 모든 대변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 말씀의 본질을 들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제한해야만 한다. 단 하나의 지성만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에는 부족하다.

43. 나는 너희가 너희 영혼이 갈망하는 평화와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을 찾도록, 이처럼 단순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주었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허영과 나쁜 성향을 버리라고 권고한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형제애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가르친다.

44.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오직 영혼만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다. 영혼은 이 생을 마친 후, 그 공덕이 이끄는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서 영혼은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완전함에 가까워지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는 곧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

45. 이를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나를 찾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도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너희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46. 내가 너희의 불완전함을 정죄하지 않았듯이, 너희도 이웃의 불완전함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란다.

47. 그들에게 오직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만을 보여 주라. 준비된 사람은 너희를 이해할 것이다.

48. 비록 이곳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씨를 뿌려라.

49. 내 자녀들아, 내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너희가 아직 나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지막 3년 동안, 너희는 제자에서 사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0. 너희는 너희의 구세주께로 이끄는 완전한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인류 앞에 나설 것이다. 너희는 영적 삶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51. 안일함과 나태함은 이제 끝났다. 너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어섰으며,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단았다.

52. 너희는 새로운 환생, 즉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이는 너희 영혼이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정화되어 내게로 와서 내가 저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3. 너희는 새로운 제자들이며, 제2시대의 그 열두 제자들과 같다. 그들은 때때로 스승 곁을 떠나 받은 은사와 가르침을 증명하려 했으나, 믿음이나 이웃 사랑이 부족하여 기적을 행하지 못했기에 슬퍼하며 돌아오곤 했다.

54. 그 당시 나는 그들에게 거자씨 비유를 가르치며,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혼란스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며, 불치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스승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어, 배운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55. 너희도 지금 나의 작별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후 길을 떠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56. 내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가 곧 사랑의 행실로 성령을 증거하는 훌륭한 사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57. 나는 산 정상에 있다.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하며,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 너희가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물리치고, 완전한 나의 뜻을 의식적으로 행하기를 기대하며 말이다.

58. 지성만으로 내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 과정에서 비밀의 보물창고에 담긴 지혜가 드러나는 너희 영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라.

59. 나는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덕이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었다. 스승으로서 나의 임무는 영혼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많은 동료들이 여러분이 나의 제자임을 알기에, 여러분을 따르고 본보기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서 배웠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오직 영적 및 세속적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의 제자라고 자칭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60. 인류의 갱신을 위해 일할 때, 너희는 마침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목격하고 나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61. 내 말씀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가 자신의 행동의 주인임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이행하여 너희의 공로가 진실하게 되도록 자유의지를 주었다.

62. 다시 한번 지구는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전쟁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슬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 한가운데서 내가 나타나, 어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들리게 했습니다.

세상이 겪는 고통으로 나의 잔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너희가 내게 바치는 것이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63. 나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에 빛을 비춘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화와 화합을 심어준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인 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

64. 내 말씀을 간직하라. 이미 1950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기에 내 가르침이 인쇄되어 너희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 글들을 읽게 할 준비를 해야 하며, 스승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험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65. 제3시대의 투사들이여, 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아: 지치지 말고 힘내라. 내가 내 말씀 없이 너희를 남겨두고 떠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너희는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점차 내 가르침에 담긴 힘으로 충만해졌다.

66. 제2시대에 나를 들었던 모든 이가 나를 믿은 것은 아니었다. 너희에게 새로운 증거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오늘날에도 내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나를 믿은 것은 아니다. 육체는 마치 짙은 장막처럼 영혼이 신성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면 이 장막은 사라지며, 영혼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주께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내 말을 듣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나, 나는 그들에게 그 빛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노라. 나를 믿음으로 경청하는 다른 이들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적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67.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발전이 멈춰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신념 속에 깃든 우상 숭배에 빠져 오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이해력을 퇴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고상한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내 저서를 통해 여러분은 더 높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평화의 분위기로 감싸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여러분의 육체조차도 누렸습니니다. 육체 역시 완전함 속에서 창조된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자와 세포 속에서도 신의 전능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연구하면, 그 안에서 더 높은 생명의 원자라는 단순한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8. 나의 창조물 속의 모든 것은 완전함으로 이끄는 움직임과 조화, 질서입니다. 인간이 깨어날 수 있고, 자신의 영의 목소리가 그를 실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는 창조물을 단지 겉모습만으로 바라보며 그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만을 유일한 삶으로 여길 것이기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쾌락에 실증을 느끼거나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다면 - 그때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이들은 정신적 균형을 잃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해칠 것이다.

69.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걸음걸음마다 기적을 발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불완전하다고 여긴다. 어떤 이들은 평화가 세상의 영성화와 도덕의 정점이라고 꿈꾸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70.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쟁은 세상의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야망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조장하는 자들이 처한 물질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영적인 삶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존재만을 믿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학자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71.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혀 내세에서 오직 지옥의 형벌만을 기대하는 자들이 그 견해를 고수하는 한,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혼란은 인간의 이성의 혼란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묻습니다. “스승님,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구원은 모두에게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평화와 빛이 닿는 것은 오직 망상의 어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성으로 인해 실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을 향해 한 번이라도 연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세상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상상 속의 지옥을 바라보는 존재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클까요!

72. 육체의 죽음과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겠는가?

73. 완전한 사랑과 지혜에 관한 나의 가르침은 단지 이 시대나 제2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말해 왔다. 그러나 계시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사람들은 광신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74. 일단 물질주의로 인한 고통이 혼란에 빠진 영혼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그 고통이 그 영혼을 빛으로 깨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될 것이다.

75. 이 가르침을 너희 이웃들에게 전파하여, 사람들이 영혼의 완성을 통해 아버지의 품에 이르는 완전한 세상을 갈망하도록 하라.

76. 나는 너희 모두를 내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는 빛이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나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로도 없는 너희 중 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그 속에서 나의 사랑과 자비를 보아라.

77. 1950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해가 끝날 무렵에 나는 너희와 작별을 고할 것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글로 남을 것이며, 거기서 모든 이가 스승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은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가!”

그 때를 위해 나는 영감을 통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의 도구와 입술을 준비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낭독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받았던 그 힘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의 영혼과 지성 속에, 조화와 형제애의 한가운데에 함께 있을 것이다.

78. 나는 너희 모두에게 삶을 위한 더 많은 빛을 주었다. 너희가 걸음마다 가시를 마주친다면, 그것은 인간의 길이 가시가 무성한 길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8

1. 스승께서 계신 산 정상에는 '제2의 시대'에 '신성한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기적이 실현되도록 여인이 되신, 만물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계십니다.
2. 인간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방식을 수없이 판단하고 파헤쳐 왔으며, 이러한 판단들은 세상에 그분의 피를 쏟아부으신 모성적 영의 순결한 옷을 찢어 놓았습니다.
3. 나는 이 시대에 불신자의 의심을 없애고 그에게 영적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 미지의 베일을 걷어냈다.
4. 사람들은 길과 같은 나의 진리에서 수많은 샛길을 만들어냈고, 그 길에서 대개 길을 잃곤 한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어머니의 중재를 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를 오해하지만, 그녀의 사랑과 자애로움의 망토는 모든 이를 영원히 감싸 안는다.
5. 태초부터 나는 예언자들이 그녀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말했던 영적 어머니의 존재를 계시해 왔습니다.
6. 때때로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를 꾸짖지만, 그 꾸짖음 속에는 빛이 담겨 있다, 백성아. 내가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한 스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언제 길에서 벗어났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7. 나는 너희 영혼이 더럽혀지거나 참된 생명에 있어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해로운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나의 공의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희 영혼은 내 품에서 솟아났던 그대로, 순수하게 내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8. 육신을 땅에 남겨두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이들은, 영을 비추는 영원의 빛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현존을 마주할 때, 쓰라린 눈물과 자기 비난의 절망 속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하는 동안, 아버지 또한 고통을 겪는다.
9.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야 "마지막 사람들"이 종소리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들에게 구원을 줄 성령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 나는 이 시대에 교회도 회당도 찾지 않았다. 제2의 시대에 마구간이라는 보호 아래 태어났듯이, 오늘날 나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낸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수단은 가난과 겸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고, 심지어 옷차림에서도 나의 겸손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 놀라지 말라.

11. 나를 찾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길을 잃은 이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나의 사랑 안에서 - 너희를 사랑해야 하는 나의 신성한 사명 안에서, 나는 너희가 나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다.

12. 오늘 나는 한때 너희를 모았던 곳들, 즉 강가, 산, 혹은 사막을 상징하는 이 집들의 소박한 지붕 아래에서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다.

13. 그러나 그 사건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 너희는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리아의 심장을 일곱 번의 단검으로 고통스럽게 꿰뚫어야만 하는가?

14.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잠시 동안 어둠과 끝없는 버림받은 느낌에 휩싸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버림받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 아들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5. 인류여, 내게로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스승이다. 병들고 지친 인류여,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축복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동안,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16. 어린아이 같은 신뢰로 내게 와서 쉬며, 너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 너희를 맞이하는 이이다. 우주는 탄식과 고통의 비명, 그리고 옛날과 새로운 고통들로 가득 차 있다.

17. 이 말씀을 듣고 있거나 내일 이를 되새길 여러분 -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다면, 모든 문제와 약점, 욕망을 뒤로 한 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신성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18. 영혼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너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너희 안에 지혜가 스며들게 함으로써 - 그 씨앗은 나의 보살핌과 너희의 노력으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 마침내 영생의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좋은 열매를 세상에 선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질 나의 사역이다.

19.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 영혼에게 간단한 말로 이를 전하며, 진정한 낙원, 즉 영원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었다.

20. 나는 너희를 슬픈 무기력함에서 끌어내어, 영혼을 위해 정해진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나아가 그것을 소유하도록 가르치고자 한다. 수년, 수세, 수시대가 이 행성을 지나갔으나, 인류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나아가며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육체와 형상의 겉으로 드러난 삶만이 존재하며, 오직 그것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인데, 그들은 영혼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1.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에게 최우선이어야 할 영혼의 삶의 의미를 잊고 오직 인간적인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물질 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 만족과 열정을 찾는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영혼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결국 이러한 가르침이 수많은 것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길에서 무감각한 상태로 머무르는 이유이다.

22. 반면 영성을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과 이성을 정화하고, 회개의 물로 자신을 씻으며, 야심 찬 물질적 목표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 사람은 영혼 속에서 위대함을 이룬 이들이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재탄생하여, 지상에서 인류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영적 영역에서 깨달음을 얻은 존재, 인류의 수호자, 영감의 원천이자 수호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 영혼들은 사랑을 통해 인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선 아름다운 영적 삶의 창공에서 빛을 발하며, 결코 인류를 저버리지 않고 그 빛으로 이 인류를 비추고 있다.

23. 너희 영혼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 너희의 행실을 통해 영혼의 발전 단계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아두라. 다른 이들의 약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길을 지나지 못한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이해해 주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며, 여러분의 경험에서 얻은 빛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2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형제자매들은, 지상에 있을 때 자선가, 의사, 교사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영적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영혼의 이끌림에 순종했더라면 더 나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영적 세계에서 너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과 신뢰로 내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25.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다. 너희 이웃이 고통받고 울며 너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서 - 왜 그를 섬기지 않는가? 그 이유는 너희 스스로가 가장 고귀하고 섬세한 감정을 물질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26. 너희의 본성과 삶을 변화시키고, 물질화해 버린 것들을 다시 비물질화하라. 너희의 감정과 생각, 행실을 영적으로 승화시켜라. 영적 영혼의 사명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하라.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 너희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은 나의 진리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 모든 이에게 영혼이 육체를 이기고, 이기심을 무너뜨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유산으로 물려받은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타오르는 열망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영혼이 인간 안에서 진정한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닮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랑과 능력, 지혜, 진리, 그리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28. 그러나 인류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는 아직 몇 세대가 더 지나갈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라지셨고, 육체를 벗은 승리하는 영으로서 온전히 사랑 그 자체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인류에 대한 신성한 자비의 끊임없는 계시이시다.

29. 너희가 이웃에게 유익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됨을 알라. 내가 너희가 병자의 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내 가르침의 씨앗을 뿌리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뻐한다. 기억하라: 내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신성한 최상의 계명에 기초를 둔 내 가르침을 남겼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가 이 계명을 마음속 깊이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다.

30. 너희의 마음과 이성과 영혼을 준비하라. 너희는 지금 바로 나의 천상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31. 너희는 어떤 오류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내가 완전한 명료함으로,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나는 또한 너희의 마음을 살피러 오니, 너희가 나의 가르침 중에서 무엇을 이해했는지 살펴보려 함이라. 나는 너희 믿음의 빛을 찾고 있노라.

33. 너희 영의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서약한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묵상하라.

34. 내 법은 이 땅에서 더럽혀졌으나, 나는 너희에게 항상 그 법을 지키고 수호하라고 명해 왔다.

35. 율법을 더럽히지 말고, 잠들지 말고, 너희 영혼을 물질화하지 말라. 일하라!

36. 너희의 영혼은 옛날에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바로 그 영혼과 같으며, 오늘날 너희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을 명심하라.

37.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2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 조롱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 이스카리옷이 숨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하는 나의 계시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여섯 번째 봉인을 풀었던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38. 내가 너희 가운데 오신 것은, 너희를 갱신과 개선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너희를 더러움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39. 스스로를 정화하고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시련 속에서 승리할 것이니라.

40. 전쟁과 파멸의 요소들이 풀려났다.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그로 인한 알려지지 않은 불치병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그러면 시련은 지나갈 것이다.

41. 나는 그리스도니, 바로 제2의 시대에 예수로 나타나신 그분이다.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내 뜻이었다.

42. 이 시대에 지상의 모든 민족이 나를 느껴야 한다.

43. 나의 말씀은 내가 너희가 연구하도록 너희 손에 맡긴 가르침의 책이다. 종파는 종파와 대립하고, 종교는 다른 종교와

전쟁을 벌이며, 교리는 교리와 맞서게 될 것이다. 영혼들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나는 너희가 본보기가 되고 방패가 되기를 원한다.

44. 너희가 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이 책임을 맡은 이상,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뒤로 남겨둔 심연으로 다시 추락하게 될 것이며, 그 길에서 비참함과 고통이 닥쳤을 때 너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 중 하나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하는가?’”

45. 나의 모범적인 행적을 기억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너희 영혼의 안녕을 진정으로 돌보아라. 지금부터 영혼을 위해 빛과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일구어 나가라. 지금까지 너희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가고 옷이 찢어진 영혼보다, 육체의 안락과 허영, 그리고 옷차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46. 착각하지 마라. 육체는 영혼의 옷이며, 내게로 올라가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이다. 육체는 흙먼지일 뿐이며, 그 세속적인 소유물들과 함께 다시 흙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영혼이 영적인 보화를 얻도록 허락하라. 왜냐하면 영혼은 그 보화를 영원 속으로 확실히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47. 세속적인 재물에 풍족한 자들에게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부는 전부이다.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세상의 비참함과 고통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라? 남의 슬픔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라? 그들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으니, 그 목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의 권능을 전하고 있다.

4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의 공의를 도발하고 있다.

49.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관용은 끝이 날 것이고, 내가 특정 사람들에게 인류를 위해 선을 베풀거나 악을 행하도록 허락했던 그 권능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50. 너희가 나서서 고통받는 이들을 초대하여 내 식탁의 빵을 먹게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미 나의 일을 알게 되었겠느냐!

51.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 이웃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52. “서로 사랑하라”고 나는 이미 그 당시 너희에게 가르쳤다. 수세기가 지났으나,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 숭고한 계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53.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대답하기를 위함이다. 누가 이기적인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지도, 뽕 한 조각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위로 베풀지 않는 자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 오직 나만이 그들의 성격적 결함을 이해하므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54. 너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경험을 쌓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신성한 법을 실천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순간, 너희는 이 삶의 조화( )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나의 계시를 통해, 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혼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5. 너희는 시간과 폭풍에 맞서 싸운 흔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균열을 지닌 천 년 된 나무와 같으나, 인간의 내면에서는 영혼의 빛이 온전히 빛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은 인류를 계속해서 채찍질할 것이니, 인류가 그 힘을 도발했기 때문이며, 그 영향은 파괴적일 것이다.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인간이 일으킬 전쟁이며, 이 전쟁은 쓰라린 눈물을 흘릴 민족들에게 황폐함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들으라: 인류는 연이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풀려난 자연의 요소들이 행성을 덮쳐와 광대한 지역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영적인 일에 부응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온 기독교 세계에 말하고 있다.

56. 사람들은 너희의 마음가짐을 보고 울게 될 것이니, 그것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묘비처럼 차갑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57. 너희가 비옥한 땅이었다면, 씨앗은 이미 너희 안에서 싹틔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다. 인류는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경멸과 비난, 그리고 냉혹함만을 뿜어내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 어린 격려를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슴 아파하며 사람들의 애통한 울부짖음을 들어줄 것입니까? 누가 고통받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은 나의 대변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 세계에 말하노니, 마음을 열어

적어도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라. 전쟁과 불행이 초래한 결과를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라. 실로 오늘까지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비하면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고통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나서서 너희의 사명을 다할 생각인가?

58. 우주에는 너희 동료 인간들의 절망적인 고통의 비명이 메아리치고 있다. 만약 너희가 그 상황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목격한다면, 너희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다.

영적 세계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이들을 간절히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에 몰아칠 폭풍우가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치유의 향유와 어루만짐, 빛, 그리고 연민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인류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관심을 마음에서 떨쳐내고, 이 세상을 휩쓸며 그 주민 대다수를 쓸어버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영혼과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약으로 치유되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육체도 있습니다.

59. 제자들아, 너희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너희의 활동을 시작할 것인가? 언제 너희의 물질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언제 영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60. 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을 느끼며, 나의 미덕을 실천하라. 그러면 빛이 너희 영혼에 비칠 것이며, 그리스도가 너희의 길에 나타나실 것이다.

61. 나의 메시지는 대지를 생동감 있게 하는 힘이며, 온기와 생명을 주는 태양과 같고, 물을 주는 물과 같다. 나는 나의 끊임없는 계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모의 땅으로 남아 있는 너희 마음의 대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62. “사람들아, 사람들아, 일어나라. 시간이 촉박하니, 이 ‘날’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지상 생활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들어 있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죽음이 너희를 깨우게 하기를 원하느냐? - 물질 없는 너희 영혼을 태우는 회개의 불길과 함께?”

63. 진실하라. 영적 삶 속에, 진리의 면전 앞에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그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너희의 물질주의를 변명할 수 없으며, 너희는 진정으로 누더기 - 더럽고, 지저분하며, 찢어진 - 를 입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니, 바로 그 누더기가 너희 영혼의 옷이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곳에서 너희는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지대한 수치심을 느낄 때, 가장 깊은 회개의 물로 자신을 씻어내고 싶은 해아릴 수 없는 갈망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오직 깨끗해진 상태에서만 성령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 너희의 자부심이자 만족감인, 온갖 결함을 지닌 인간적 이기심을 넘어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게 말하라. 너희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는지, 너희 마음속에 여성들의 흐느낌이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지. 그러니 내게 말하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느냐?”

64. 양심의 빛 속에서 자기 성찰을 마친 후, 내 신성한 영이 나타나 너희가 실수로 만들어낸 사슬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기를 준비되지 않았느냐? 영혼의 누더기가 벗겨지도록 영성화를 얻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65. 그러나 내 말씀의 정수를 전할 경전을 큰 관심으로 읽게 될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마음 깊이 감동받을 것이다.

66. 스승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삶의 길에서 너희를 기다려 오셨으며, 설령 또 다른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도 나는 계속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길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나 지금, 비록 너희가 더럽혀지고, 누더기처럼 낡고, 지저분하더라도 이리 오라. 내가 너희의 이성과 마음을 정화해 주고, 너희의 ‘옷’을 새롭게 하며, 내가 영적인 잔치를 베푸는 ‘저택’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곳에서 너희는 지혜와 사랑의 정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온 우주가 나에게 울려 보내는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67.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이 연민으로 변하여 너희를 병든 자들에게로 이끌고, 믿음을 잃은

자들을 찾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축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영성화와 완전함을 통해 점차 숭고한 것을 이해하는 데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68. 인류의 대다수를 장악한 것은 물질주의적 이기심이며, 영혼은 수세기 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기다려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허락만 된다면 내 말씀의 본질에 뒤흔들린 돌들이 움직여 너희의 영성 부족을 드러낼 것이며, 너희는 그 돌들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옳다”고 외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사랑을 통해 너희를 이길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부끄러워하더라도, 나는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무자비하게 정죄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변호하고, 너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69. 여러분 안에는 땅에서 온 물질적인 부분과 하늘에서 온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을 물질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을 떠나 영적인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므로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높은 영역으로 날아올라,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며 영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70.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울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덧붙이노니, “긴 문장 속에 숨겨져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니라.”

71.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유해질 것이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되라. 사랑은 사소한 일들 위에 있다.

72. 내가 너희 가운데서 고통받기 위해 올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랑은 너희의 운명과 떨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너희에게 왔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73. 어떤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바로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의 십자가를 내게 맡기고, 너희의 슬픔을 내게 맡기고, 무너진 희망을 내게 맡기고, 너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나는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 집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사랑의 성소에 들어서서 우주의 제단 앞에서 고요히 머물러, 너희 영혼이 아버지께 가장 아름다운 언어, 곧 사랑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29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의 성소, 곧 너희 영혼이 고양됨으로써 열린 스승의 거처에 나타나노라.
2.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이미 여러 번 내 말씀을 들었으나, 다른 이들은 내 말씀을 처음 듣고 놀라워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다른 시대에 이미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3. 나는 고통받는 자, 즉 혼란에 빠진 자, 울고 있는 자, 죄인, 그리고 나를 찾았던 자에게 위로를 주는 사랑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생명의 강이다. 또한 그것은 안식과 평화가 있는 영원한 고향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4. 어떻게 너희는 삶의 투쟁 - 그 희생과 역경, 시련 - 이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 속에서 정당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 법과 가르침, 그리고 그 계시와 약속들은 너희 마음속에서 하루의 노고를 이겨내는 원동력이자, 위로이며, 치유제이다. 오직 내 가르침에서 멀어질 때만, 너희는 굶주리고 약해진 기분을 느끼게 된다.

5.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양육하여, 너희가 그 사랑으로 배부름을 느끼고, 그것을 완벽한 씨앗으로 삼아 잠든 마음들과 그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6.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평화의 영임을 기억하라.

7. 영적으로 너희는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시대에 걸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제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웃들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 오, 백성아, 네가 짊어진 십자가의 짐은 무겁다. 예전에는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제 너희는 영적인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나는 낮선 이처럼 끊임없이 너희의 문을 두드리며, 너희가 너희의 소명을 다하고, 내가 너희만큼이나 사랑하는 인류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8. 너희는 지상의 민족들 중에서 맡아들이니, 곧 가장 먼저 성령의 빛으로 깨어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제자들이다.

9. 너희의 책임 앞에서 두려움도 의심도 느끼지 말라. 너희는 영적으로 풍요롭지만,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결핍된 존재라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이 시대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너희를 통해 나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를 통해 나는 다른 이들에게 길을 드러내 보였으며, 내일 그 길을 따라 모든 종파와 종교 공동체가 차례로 모여들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니,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시고, 너희 모두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사람들은 각기 다른 영적 수준에 있다. 그러나 각자의 발전 단계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12. 모든 이는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고, 공덕을 통해 승화를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하므로, 모든 이를 위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오늘 너희는 오아시스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지 못한다.

14. 다시는 분열하지 마라.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너희 백성을 나오게 하였음을 기억하라. 내가 경건함을 발견한 그 사람은 야곱이었으며, 나는 그를 “강한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신성을 모시는 성소가 있었으며, 나는 그에게 주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열두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보상해 주었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나를 따르던 그 백성의 뿌리였다.

15. 나는 너희가 더 이상 길을 잃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내 빛을 마치 인장처럼 너희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것은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 곧 언제나 내 빛을 따르고 나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이다.

16. 여기 내 식탁이 있으니, 나는 족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이 자리에 앉힌다. 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빵을 대접한다.

17. 이와 같이 나는 너희를 나사로처럼 깨우리라. 내가 그에게 “일어나, 더 이상 잠들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18. 이것이 바로 너희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되는 진보의 길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십자가 짐이 너희를 짓누를 때, 신성한 십자가 지시는 분이 너희를 도우시며 “멈추지 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19. 내가 너희 영혼에게 나를 드러내듯이, 나는 너희 육신이 자연 속에서 나의 현존을 느끼게 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

20. 너희는 나로부터 나왔으며,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며,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21. 너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서 영적 위대함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인간으로서의 처지가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22. 곤경에 처한 이에게 손을 닫지 말고, 그가 신을 믿지 않을지도 너희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 말라. 이 시기에 나의 식탁을 보라. 예전에는 진흙 속에서 뒹굴던 많은 이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그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23. 오늘 스승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축복한다.

24. 내 지혜의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위로이자 치유제인 내 사랑의 수정처럼 맑은 물로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리라.

나는 용서 그 자체이다. 개선을 위한 확고한 결심을 품는 자는 자신의 양심과 화해하는 순간, 내 용서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영적 지식에 목말라 있다. 그 증거로 인류는 창조의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영혼은 아직 불완전하다. 그렇기에 영혼은 하나님 곁에서 정화되기 위해 그분의 임재를 찾는다.

25. 깨어난 영혼은 종종 인간의 본성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빛과 길을 찾는다. 그러면 영혼의 물질적 본성이 이를 방해하며, 영적 발전으로 향하는 길에 저항한다. 그렇기에 나는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그 비밀들을 설명하고, 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직접 인간의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인간 존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빛처럼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종종 거부한다.

26. 영혼은 육체의 반항에 맞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가! 인간은 종종 과학과 인간 생활에서 큰 발전과 진보를 이루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종교는 그를 이러한 영적 무기력에서 깨우지 못하며, 그곳에서 그는 오직 신비주의와 광신주의만을 마주할 뿐이다.

27. 그러자 이성은 자신의 영적 낙후함의 원인을 드러낼 비밀을 밝혀낼까 두려워하여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은 법을 자신의 편의와 신념, 삶에 맞추어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온함을 느끼며 정당화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웃 사랑, 연민, 자비를 실제로는 전혀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제단 앞에 서서,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을 가장할 수 있다.

28. 나는 세상에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제3의 시대에 오겠다. 그러나 제자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에 대해 광신적으로 굴지 말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오래된 전통에서 해방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음을 깨달아라. 동료들의 오류를 바로잡을 책임을 지십시오. 마음과 입술로 어떤 비판도 삼가서,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분노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29. 너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의 신성함을 믿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조차 신성하게 여기며, 그들의 대표자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고 의로운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3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생생한 음성을 들었고,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과연 너희가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인가? 너희가 동료 인간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가? 지금까지 너희는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너희의 지성을 깨우쳤을 뿐이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너희 이웃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공로가 되며, 너희 영혼의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깨닫고, 너희 영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31. 나의 가르침은 너희 안에 있는, 완전함과 지혜로 창조된 그 빛의 존재, 즉 영혼을 영원히 꽃피우도록 너희를 단련하는 것이다. 이는 세속적인 정욕이 영혼에 남긴 얼룩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정화하여, 본래의 순수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의 마음속에 그토록 많은 빛이 비추어질 것이니, 이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의 깨달음과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며,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킴으로써 너희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때때로 내게 “스승님, 저는 준비도 하고 기도도 드렸으며, 고통받는 이에게 치유의 향유를 바르기도 했지만, 제가 구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던 것처럼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의심하느냐? 너희를 구원할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물질적 본성조차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적 본성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 영혼이 성장하고, 속죄하며, 완전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알겠느냐?

33.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단순화하노니,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간구한 다음, 내게 내 뜻을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미 너희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전에 너희의 건강이나 믿음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조차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34. 순종만이 너희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마음도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에 따라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때, 기뻐하며  
너희의 믿음을 더욱 불태우라.

35. 나는 옛날부터 너희를 새롭게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혼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시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의  
죽음을 감내하셨기에,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비의 본보기이시다. 그분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들이신  
그 겸손함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6.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준비의 시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내 말씀이 이러한 형태로 끝나는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라.

37. 스승께서는 잠들지 않으시니, 너희도 잠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뇌를 통해 내 계시의 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영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는  
영성화를 통해 나를 더욱 가까이 느낄 것이다.

38. 준비하지 않고 내 가르침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채 지나쳐  
버리는 자는, 내가 떠난 후 고아처럼 느껴질 것이며, 나를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것이다.

39. 선한 제자들은 슬퍼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지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때 그들의 영  
앞에서 무한한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영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영감은 더 이상 음성 전달자를 통한 것과는 달리 제한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40. 내 신성이 정하신 날이 지나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희의 영과 마음, 그리고 책  
속에 깊이 새겨져 남을 것이다.

41. 그때 목소리의 매개자로 나서서 나의 광선을 부르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심판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너희가 거짓 예언자, 거짓 대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깨우는 것은, 너희가 혼란의 시기를 피하고  
너희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깨어  
있으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 너희는 이 가르침들에 대해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2. 지금부터 이에 마음을 준비하는 자는 큰 영감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길 나의 가르침을 읽으며 나를 듣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의 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그에게 쉬울 것이며, 시련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43. 이를 통해 나는 너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44. 이는 너희가 내 가르침의 순수함과 고귀함을 증명하기 시작할 때, 즉 너희 가운데서 외형적인 숭배나 광신,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45. 너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영적 사역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46.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기쁜 소식의 전령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며, 너희는 발걸음 앞에 너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가 나의 사역을 실천하며 그 사역을 영혼 깊이 느낀다면, 나는 길을 열어 주고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순례자들을 그에게 이끌어, 그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47. 기뻐하라. 너희를 깨우는 그 목소리는 나의 사랑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를 깨우는 것이 다른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목소리가 내일 지상에 대한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

48. 사람들은 너희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사법 및 법률가들, 신학자들과 신지학자들, 과학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의도를 품고 다가오겠지만, 너희를 조사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들에게 오직 나의 법만 보여줌으로써 너희의 삶과 행실을 숨기지 말라. 너희의 책에 기록된 나의 말씀의 완전함으로 너희의 불완전함을 가리지 말라.

49. 인류 역사에 나쁜 본보기가 있다면,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50. 과거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대에는 율법이 인간의 영을 깨우쳤다. 두 번째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빛으로 인간의 마음을 깨우쳤다. 오늘날 성령의 빛이 너희의 영을 깨우쳐, 그것을 모든 인간적인 것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51. 너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 모든 메시지 사이에는 한 시대가 흘렀다. 이는 영이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발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52.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성령의 제자라고 부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3. 원자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가장 뒤쳐진 인간 피조물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나를 경배한다. 너희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정통한 너희는, 모든 존재와 모든 육체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운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라. 이러한 수행 속에서 그들은 나를 경배한다. 이는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헌사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기뻐하느니라. 심지어 그 단단함과 움직이지 않음 때문에 너희에게 무감각하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위조차도 그러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54. 왕의 별이 그 권능이 닿는 곳까지 에너지이자 생명이며 온기인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라. 바로 그 온기 덕분에 바다의 물이 솟아올라 구름으로 변한 뒤, 바람을 타고 날아가 메마른 들판에 비옥한 비로 내려오게 되며, 그 들판은 곧 초록빛과 꽃, 열매와 잎사귀로 가득 찬 나무들로 뒤덮이게 된다. 그 가지들은 새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 주며, 새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노래를 지극한 곳까지 울려 보낸다. 모든 것이 싹트고, 자라나며, 번성하고, 아버지를 향한 끊임없는 찬사로 단장하는 동안,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작품을 기뻐하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55. 그러나 너희는 -창조의 한가운데서 너희는 무엇이나? 너희 역시 한 가지 사명을 수행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물질적 자연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직관, 지성, 계시, 의지, 자유, 이성, 감정을 지닌 영혼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는 이 행성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서, 영적·인간적 발전을 위한 도구, 종, 양식, 활력, 그리고 요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56. 너희의 영혼이 그 발전 과정에서 너희를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므로, 너희의 종교적 실천 또한 더 높은 차원이어야 함을 명심하라.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실천이다. 나는 이를 언제나 너희에게 계시해 왔다.

57. 인류는 태초부터 나에게 영적인 경배를 드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직관적 인식은 그들을 나를 찾고

내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 안에서 그 불안함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나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드러낸 것은 영혼을 완전함으로 이끄는 영적 길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성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나는 너희가 중대한 과오와 큰 혼란을 겪게 하고, 고통과 시련의 긴 여정을 지나게 하며, 빛의 시기와 어둠의 시기를 겪게 하여, 마침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의 시대’의 문턱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해야만 했다.

58. 너희 영혼이 고귀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나에게 바쳐야 할 경배는, 너희 육신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꾸며 입술로 그것을 읊조릴 때, 너희 마음속에서 물질화되어 버렸다; 마치 그것이 너희의 업적인 양 자연의 열매를 나에게 바쳤을 때; 너희의 영혼이 내 앞에서 벌거벗고, 굶주리고, 더럽고, 어리석게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감각을 의식의 화려함으로 달래주었을 때, 너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육신이 가로챈 탓이었다.

59. 제3의 시대에는 나의 영적 가르침이 영에게 날개를 펼칠 자유를 줄 것이며,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분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60. 그러나 인간으로서도 창조주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헌사는 지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데 있으며, 인간의 법을 따르고, 행동에서 도덕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보이며, 아버지, 자녀, 형제, 친구, 주인, 그리고 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

61.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지상에서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62. 영혼의 사랑은 너희 자녀와 세상의 형제자매들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사랑은 사회 계급이나 영적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어야 한다.

63. 영혼은 자신을 광신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물질적 본성의 약점 앞에서 강해야 한다. 영혼은 편견과 정욕에서 벗어나, 이성을 지닌 이에게 그 이성을 인정하고,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64. 그러면 너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께”라는 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며, 세상에 속한 것을 아버지께 바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세상에 바치지도 않으며, 모든 율법을 조화롭게 만들어 올바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신성한 사랑과 정의의 율법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65. 제2의 시대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지극한 완전함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지극한 명료함과 간결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많은 것들 중, 그 당시에는 너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에 너희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66. 나의 가르침을 듣도록 부름받고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이에게, 이는 그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너희 영혼이 이 행성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신성한 계시의 빛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성의 과거는 현재 물질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다. 너희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 자신이 정말로 먼 곳에서, 길고도 아주 긴 여정을 거쳐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음을 느낀다.

67.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너희는 오랫동안 “방황”해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늙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노화와 쇠퇴, 죽음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발전과 경험, 그리고 성장은 투쟁을 의미하며, 시련은 영혼에게 성숙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한다.

68. 여러분은 안락과 기쁨,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기도 했고, 불행과 실패가 따르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삶은 속죄를 위해, 어떤 삶은 경험을 위해, 어떤 삶은 지성의 개화를 위해, 또 어떤 삶은 감정의 개화를 위해 있었으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영혼의 고양을 위한 것입니다.

69. 너희는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소유해 왔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부도, 화려한 생활 환경도,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면, 이를 한탄하지 말고, 이 시대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영성을 성취하기 위해, 영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과잉과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0. 너희는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므로, 이를 외형적인 숭배 형식을 통해 세상에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순된 모습으로 인해 불신과 조롱만을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71. 평화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으며, 비록 너희가 그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도덕적·영적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때가 되면, 지금까지 속죄와 눈물의  
골짜기였던 이 세상은 성숙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72. 용기를 내라. 나는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아직  
스스로를 그다지 신뢰할 수 없으니, 나를 신뢰하라.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영적  
준비를 갖추게 될 때까지 인내하라.

73. 머지않아 너희는 사람들이 영적 은사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74.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애정과 치유의 향유를 베풁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30

1. 나는 너희가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노라. 너희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위안을 얻기 위해 온다. 너희가 모였기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단 두 마음만이라도 화해한다면, 나는 잔치를 베풀기 때문이다.

2. 너희는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너희가 낭비해서는 안 될 보물인 만큼, 나는 스승으로서 너희의 소명과 사명을 알려줌으로써 그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온다.

3. 이 순간들을 잘 활용하라. 곧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년 동안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 온 나의 신성한 말씀은 그때 영원히 끝날 것이다.

4.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나의 모든 책을 기록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나는 서둘러 너희 마음의 문 앞으로 나아가, 내 말씀에 너무 익숙해진 그 아이에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썩어빠진 것을 들어 밭을 갈고 경작하며, 그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자신의 발과 물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려 한다; 그 눈빛이 자비로워야 하며, 우정의 표시로 오른손을 내밀고, 마음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주님의 발에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6.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지상에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일어나서 일하라!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 한쪽의 패배와 다른 쪽의 승리를 바라지 마라. 승리해야 할 것은 정의와 형제애, 사랑이다.

7. 지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한 영적 준비를 갖추게 될 때, 평화는 내 왕국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8. 이 시기에 너희를 비추는 빛은 여섯 번째 봉인의 빛이며, 만약 누군가 다른 봉인이 풀렸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등대는 이제 꺼지지 않는 빛으로 타오르고 있으며, 그 계시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를 비추고, 새로운 예언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있다. 그러나 이 빛이 오직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을 비춘다고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과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이 빛 아래에 있다.

9. 왜 너희는 내 가르침을 연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래야만 스승이 너희가 해석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육신으로 나타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10. 과학의 결실을 영혼의 사랑의 결실과 결합하라. 그러면 너희 입안에 좋은 맛이 퍼질 것이다.
11. 여행자여, 쉬어 가라. 이 나무의 시원한 그늘을 만끽하고 그 열매를 먹어라.
12. 너희의 길에서 끊임없이 그 존재를 드러내 오신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13. 나는 너희를 온 인류의 대표자로 맞이하며, 너희가 나의 영적 현존을 받아들이고 느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14. 너희는 언제나 나의 신성을 찾아왔다. 나를 찾지 못했다고 느낄 때면, 나를 가까이 느끼기 위해 너희 손으로 만든 형상들 곁으로 달려갔다. 오늘날 인류의 상당수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 계시의 절정에 이르러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형상 속에서 나를 찾고 숭배하고 있다.
15. 나는 현재 꿈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꿈들인데, 사람들은 믿음과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주목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으므로, 그것이 신성한 메시지임을 알지 못한 채 그 꿈의 환상을 잊어버린다.
16. 인류는 참된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세상은 자유 의지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쾌락과 세속적인 정욕을 좇고 있다.
17. 영혼은 잠들어 있고, 지성은 진리인 빛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며, 참된 삶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18.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양심이 말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마음속에 어둠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19.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런 삶에 지쳐 있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길을 보여주고, 그들의 영혼을 빛으로 채우며, 그들의 오류와 잃어버린 시간을 깨닫게 하고, 사람의 내면에서 빛과 어둠의 싸움을 일으키고자 한다.
20. 나는 내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끝없는 사랑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니, 이는 그들의 영혼이 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1. 너희가 이 소박한 기도처에 들어온 것은 너희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영적 양식을 주고, 너희가 내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나의 자비였다. 너희는 낙담하거나 오만하게 오지 말고, 품위 있고 겸손하게 와야 한다.

22.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선사하노니, 마치 옛날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 길은 내 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피는 진리이며, 사랑이며, 영원이다. 깨어 있으라. 내 가르침 속에 드러난 진리가 사람들에게 의해 왜곡되었고, 어떤 계시들은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23. 나를 따르려 했던 모든 이가 나와 내 사도들의 본을 본받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종이 되어야 할 대신 주인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우월감과 오만함으로 마음을 채웠으며, 오직 부와 화려함, 명예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난한 이들의 궁핍을 잊어버렸고, 타인의 비참함과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찾기 위해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는 그들의 영적 욕구가 비롯된 이유입니다.

24. 과거에 성자나 반신으로 여겨졌던 이들은 오늘날 실망한 인류에게 배척받고 있다.

25. 사람들은 더 이상 고해 신부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 하지 않는데, 이는 스스로를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공포에 떨게 하지 못한다.

26. 이러한 영적 방황을 틈타, 늑대가 울타리 뒤에 숨어 있다.

27. 나의 신성을 섬기는 모든 종과 모든 대표자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반대이다. 누구나 자신을 첫 번째라고 여기고, 누구나 가장 강해지기를 원하며, 오직 나, 곧 모든 이 안에 계신 분만이 유일한 강자이심을 잊고 있다.

28. 이제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는 이유도 명백해졌을 것이다. 오직 나의 말씀만이 영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수 있고, 오직 나의 사랑만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너희는 내 재림에 대한 믿음과, 내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본보기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온 자들이 내 율법을 잘 이행하는 본보기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때가 되면 너희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씀의 사자로서 길을 떠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자신의 태만과 배은망덕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30.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나는 너희가 과거에는 부족 간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배척했더라도, 오늘날에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31. 이것이 나의 분명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32. 나는 너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세상 또한 준비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싹트고, 너희는 그 씨앗을 온 땅 구석구석에 뿌린 자로서, 너희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될 때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온 너희는 선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고,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이다.

33. 모든 나라에서 화해와 형제애,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이것이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다.

34. 나는 너희를 준비시켰고, 이미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너희 동료 인간들에게로 나아가, 내가 말씀의 영감으로 너희에게 준 지혜를 보여주고, 그들의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하기 위해 말이다. 누구에게도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지식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명심하라.

35. 내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너희가 ‘이방’이라 부르는 모든 나라를 직접 찾아갈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로 너희의 생각을 높이 들어 올리고 마음을 정화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빛의 존재들에 의해 깨어날 것이다.

36. 너희는 영적 세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고통을 막아줄 방어벽을 함께 세워야 한다. 또한 폭력을 통해 영적 지배를 쟁취하려는 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이 폭력이 이성, 형제애, 정의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며 세상도 놀라게 될 것이다.

37.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한 채 겉으로만 자선을 행하는 일을 조심하라. 어떤 사리사욕도 없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선행을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법인 사랑으로 행한다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대로 전하라. 그것은 내가 다른 때에 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38.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을 변형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의 사역은 완전하며, 세속적인 말에 그 뿌리를 두지 않는다.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내 씨앗을 주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도 그 씨앗을 같은 방식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39. 너희는 의식이나 겉치레적인 예배 형식을 통해 누군가를 감동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 마음의 성전이 드러날 것이며, 그 안에서 너희 이웃들은 너희의 등대와 제단을 보게 될 것이다.

40. 지금부터 너희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 더러움을 떨쳐내려고 애쓸 때에도 나를 느끼도록 배우라.

41. 나는 너희에게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가르쳤다. 스스로 꾸며낸 복잡한 교리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는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한심한가. 나를 자신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멀리서 나를 찾으려 하는가?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영과 지성, 의지와 같은 신성한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42. 나는 제2시대에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너희의 빵과 지분을 너희와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그분의 겸손에 뿌리를 두고 있다.

43.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스스로를 정화해야 한다. 너희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칙이며, 모든 것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칙이므로, 앞으로 닥칠 사건들로 인해 너희가 동요해서는 안 된다. 그때 너희의 눈이 보게 될 것은, 모든 것이 지극히 완전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오늘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임을 깨닫게 될 때, 오직 기쁨으로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44. 인류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곳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서도 인류의 구원과 진보를 위해 간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큰 투쟁이 끝난 후 모든 종교 공동체의 품 안에서 영적인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이 불화를 조장하는 새로운 종교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영성주의가 가르침이며, 영혼을 다스려 온 최초이자 유일한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희 감정이 뿌리내린 너희 마음속에서 나와야 한다. 너희가 타인의 고통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또한 이웃의 기쁨을 위해 울 때, 그 감정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가르쳐 온 바이기 때문이다.

45.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며, 나의 빛과 은총이 그 이성 속으로 흘러들어와 말로 변한다. 바로 나에게로 오는 유일한 길, 즉 완전함과 감정의 순수함을 향한 길을 가리키는 그 말이다.

46.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류여, 너희의 믿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고 희망이 굳건해지려면 영성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너희가 처해 있는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필요하다. 나의 신성한 영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며, 진리의 왕국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다.

47. 이 사랑의 증거를 보고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생각은 빛이며, 그 빛은 꺼져가는 너희 등불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려쬰고 있다. 스승은 너희에게, 영성화된 인간을 통해 우주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온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고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주는 교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상에서 더 높고 더 위대한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의 투쟁 속에서 얻은 빛을 바탕으로, 영혼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삶의 모든 기쁨이 단지 내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경험과 교훈에 불과했다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깨닫는가. 한 고통들이 나를 짓누르던 동안, 그 삶의 여정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영원을 마주하니 그 여정은 얼마나 짧고 덧없이 보이는가.”

48.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더 위대하게 만들도록 부름받았으며, 완전함에 대한 열망으로 더 높이 비상할수록 자신의 존재를 점점 더 영성화하도록 부름받았다.

49. 너희가 지닌 육체 또한 영성화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변화할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영적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50. 너희는 희망을 되살려 주는 이 가르침, 즉 너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이 무궁무진하고 참된 지혜의 원천이 필요하다. 나의 빛은 영혼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의 어두워진 마음에 내려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허영심을 어루만져 주는 물질적 부와 육체적 아름다움,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지성, 명성과 직함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실체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육체도, 그 부도 아니다. 인간은 오직 영혼을 통해서만 가치를 지니며 존재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인간은 우주와 하늘, 그리고 세계들의 진리를 표현하는 존재가 되도록 소명받았다. 오늘날 그는 아직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물질주의가 영의 미묘한 은사를 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질주의가 사라지는 날이 오면, 그는 영적 삶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뻐할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는 사울이 바울로 개종한 것, 즉 이름까지 바뀌야 할 정도로 극적인 인간의 변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옛 이름과 함께 그의 정욕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고, 그의 기질과 그가 저지른 과격한 행적들은 재가 되어버렸다.

영혼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고양이 부족함을, 혹은 물질 세계에서 배워야 하고 펼쳐야 했던 것들이 이제 끝날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신성의 빛과 하나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51. 기뻐하라, 사람들아, 눈물과 비참함,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마치 철새와 같다고 생각하라! 기뻐하라, 이곳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니, 더 나은 세상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십시오. 그러면 고통의 한숨과 고생, 눈물은 이곳에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하고, 하늘 높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구를 우주 속의 한 점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곳을 사랑으로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52.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던 빛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곳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53.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행복해라.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냐?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은총을 얻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5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오늘날 사람들이 영보다 물질에 더 치우쳐 있더라도, 내일은 물질보다 영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을 완전히 물질화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그 완전한 물질화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영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설령 진흙 속에 떨어졌더라도 결코 다이아몬드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55. 사람은 완전함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영혼의 행복을 알지 못한다. 만일 그가 마음을 정화하고, 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영혼 속에 간직한다면,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계시된 첫 번째 비유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삶이며, 그 나무의 익은 열매는 영혼의 굵주림을 채워 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타인의 배은망덕함이나 무지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56.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로, 또한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영적 어머니 마리아께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적 형제자매들에게로 이끄는 사다리입니다.

57. 신성한 영으로부터 메시지의 흐름이 뿜어져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만큼 그 메시지들을 간직하십시오.

58. 너희 고통의 어둠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평화의 빛으로 바꿔 주겠다. 너희의 흐느낌과 눈물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고요함 속에서 너희 마음을 찾아갈 때, 마치 햇살처럼 스며들어 그 마음을 밝게 비추리라.

59.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마음속에서 그 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너희의 모든 고통 위에 쏟아져 내리고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나의 위로의 연고가 있다.

60. 준비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복이 있도다. 그때 내 말씀은 너희 믿음의 불꽃을 되살리는 치유의 향유와 어루만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 내 왕국이 고통받는 인류에게 임하고 있으며, 내 말씀은 이 시대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울려 퍼지니, 나를 듣는 이들이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 함이라.

62. 모든 시대에 나는 사람들과 나의 신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을 두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었으며, 내가 그들을 사용하였다. 이제 나는 내 가르침의 새로운 사자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기쁜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 삶으로의 각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63. 고귀한 영적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지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잠들어 있는가! 그들은 깨어날 것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때 그들의 영적 성장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겸손할 것이며, 결코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64. 허영심 - 첫 번째 인간에게서 이미 드러난 약점 - 은 영성화를 통해 극복될 것이다. 이는 영과 물질 사이에서 예로부터 계속되어 온 투쟁이다. 왜냐하면 영은 아버지의 본질을 갈망하며 영원하고 고귀한 것을 향하는 반면, 육신은 비록 그것이 영에게 해가 되더라도 오직 자신을 만족시키고 아첨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이 투쟁은 세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결과로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은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영이 그 힘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면, 영은 자신의 본성 안에서 두 본성을 조화롭게 통합한 것이며, 그로써 진보와 승화를 이룰 것이다. 반대로 영이 물질의 힘에 지배당한다면, 악으로 유혹당하게 될 것이며, 폭풍우 한가운데서 키를 잃은 배와 같을 것이다.

65. 나를 듣는 너희는, 너희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갈망을 느낀다. 너희는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때가 오게 하라. 오늘날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며,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낀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완성의 시대를 예감하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66.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자들만이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종교적 광신에 빠진 자들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며, 물질적 연구에 시간을 바치는 자들은 오직 물질적인 결과만을 얻을 뿐이다.

67. 영성화가야말로 인간을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와의 유대감이자 사랑과 자비, 내적 경배를 통해 그분께 다가가는 진정한 영성 수양을, 사람들이 저승의 존재들을 모독하고 물질적으로 감지 가능하게 만드는 그 “과학”들의 실천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리고 있는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는 나의 가르침이다.

68. 나의 사랑의 가르침은 이 시기에 너희 가운데 내 영적 세계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켰으니, 이는 그 임재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31

1. 나의 꿰뚫는 시선이 너희 안으로 스며들고, 나는 너희가 마음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나의 신성께 바치는 것을 봅니다.

2. 나는 너희의 고통을 보고, 아버지의 애정 어린 어루만짐으로 그 고통을 달래주니, 너희가 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시련 속에서 강인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3. 너희가 자신의 약점을 나에게 털어놓거나,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게로 올 때마다 –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다 쓰러질 위기에 처해 내게로 돌아섰을 때마다, 나는 너희의 짐과 고통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고, 너희를 강인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앞으로 나아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너희 영혼이 과거를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4. 나는 너희를 파멸에서 구해내어, 너희가 지금 있는 이곳, 이 빵을 누리고 있는 구원의 항구로 데려왔다. 너희는 나의 평화의 품에서 안식을 취했다. 나는 너희가 비틀거리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너희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의 광선이 되어 주었다.

5. 내가 나를 드러내는 대변자나 대변인들이 스스로의 뜻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이 빛의 말씀을 내뱉는 것은, 내가 그들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며, 나는 너희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해 주었다.

6. 너희는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에 놀라워하며,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랍비이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에 ‘말씀’이 돌아오신 것이 확실한지 의문을 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7.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내가 이것을 약속했음을 알고 있으며, 내가 용서 그 자체임을 알고, 또한 ‘죽은 자’를 깨우고, 병든 자를 고치며, 눈먼 자에게 시력을 되돌려줌으로써 나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돌아온 이유와 내가 온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의심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8. 내가 왜 학자나 신학자, 과학자에게 다가가지 않고, 교육받지 못한 자들과 소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었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소박한 사람들의 증언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9. 너희가 깊이 탐구해 본다면,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 인류와 소통해 왔으며, 그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10. 나는 너희가 이러한 계시를 증언하고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여러 번의 삶을 허락해 주었다.

11.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저 세상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가르침을 활용해야 한다. 나의 비밀스러운 보물창고는 너희의 시선에서 숨겨져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는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깊이 연구하고 숙고하라. 너희의 영이 나의 신성의 일부라면, 어떻게 그 영이 고통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영의 빛이 성령의 빛에서 나온 불꽃이라면, 어떻게 그 빛이 때때로 어둠에

가려질 수 있겠느냐? 이 발전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공덕을 쌓아, 너희의 영을 무지하고 미성숙한 영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위대한 빛의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라.

13. 내게로 와서, 너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내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라.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 준 이 말씀은, 내 신성이 진리와 가르침으로 드러날 때 너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열정과 믿음으로 내 신성 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은 세속적인 가르침에 지쳐 있었고, 너희 발은 평화와 사랑, 진리를 찾아 먼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손 또한 너희 영혼에 만족을 줄 만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채 발을 일구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14. 오, 백성아,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었다. 너희가 이 길을 걸으며 그 열매를 맛보기를; 여러 문에 두드리며 다양한 인종과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책 속에서 다양한 철학, 가르침, 이론을 배우기를;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체험하기를; 이 세상의 허황된 부와 그 쾌락, 그리고 기만적인 영광을 직접 체험하기를;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영감을 알아가기를; 시간이 흐르며 그들이 너희에게 안겨줄 선과 악을 받아들이기를. 이 여정을 마친 후, 너희가 ‘로서, 너희 마음의 문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존재로, 너희 길을 가로지르는 마지막 존재로, 너희 곁을 걸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는 자로서, 마지막 지상의 순례자로서, 그분의 곁을 걸으며 묻는 자로서, 그 여정 끝에 나를 만나게 하려 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교만이나 자만심 없이, 고통에 굽혀지고 경험을 통해 강해지며, 투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단련된 채, 나를 즉시 알아보고, 내게 마음을 열고, 너희의 비참함을 고백하며, 오직 나만이 너희의 고통과 실패, 그리고 갈망을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려 함이다.

15. 이것이 바로 내게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내 말씀을 들을 때 그 힘에 사로잡히는 이유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을 감싸는 나의 사랑을 체험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다려 왔기에, 삶의 거대한 투쟁과 큰 전투들, 너희가 살아왔던 그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의 빛이 반드시 밝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너희는 괴로움의 잔을 찌꺼기까지 비워낸 뒤, 그 잔을 달콤함으로 채워 줄 누군가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시절에

너희에게 했던 약속들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너희 영혼 속에서 꺼지지 않았고, 그 불꽃이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가 바로 나임을 부인했던 자들조차도, 그들의 영혼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계시에 대해 무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육신의 본성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이를 알고 있으며, 그 불신자들과 완고한 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육신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야만 나를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제2시대의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될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 나는 너희를 어린 학생들에서 제자로 삼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들은 후, 내가 너희에게 지혜의 책을 맡겨 주리니, 너희는 그 책으로 이웃을 가르치고 너희 민족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너희는 단지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데 그치지도 않을 것이며, 군중을 감동시키기 위해 웅변적인 말로만 말하는 데 그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의 영감과 깨달음, 맑고 심오한 말들은 너희 이해력의 결실이 될 행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나는 이 일들이 단지 너희의 이성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사랑의 씨앗이 뿌려진 너희의 양심을 통해 너희 마음에 지시되기를 원한다.

17.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속 없는 말에 지쳐 있고, 다양한 교리와 세계관의 그릇됨으로 인해 병들고 피곤해졌으므로, 진정한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을 갈망하게 될 것이며, 그 가르침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의 향유를 흘려보내어, 본질적으로 영적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르침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나를 따르고 평화와 화합, 선의의 깃발을 앞세우는 이들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18. 나는 너희가 이 시간을 마땅히 활용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육신의 외피를 지휘하고 자극하여, 그것을 굴복시키고 마침내 자신의 도구이자 기꺼이 따르는 종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영혼이 나에게 바쳐야 할 그 경배를 ‘육신’이 대신 바치지 않도록, 그것이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때야말로

정화가 지속될 것이며, 육신이 느끼는 것이 영혼에게도 전달될 것이니, 영혼은 아직 고통과 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신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큰 평화를 누리게 될지, 너희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될지, 그리고 고통과 노년, 질병이라는 시련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강해질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19.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너희 중 누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대낮의 빛처럼 분명하며, 너희 모두 이 빛을 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를 너희 영혼에 지울 수 없게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내일 시련이 너희를 위협할 때, 이것이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0. 이 땅 위에서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의 투쟁, 전쟁, 다툼, 불화가 존재해 왔다. 태초부터 한쪽의 사상이 다른 쪽의 사상과 대립해 왔다. 그리하여 너희는 미덕에 맞서 악덕이, 정의에 맞서 불의가, 영혼의 목소리에 맞서 ‘육신’의 목소리가, 한 가지 깨달음에 맞서 또 다른 깨달음이 대립해 왔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태초부터 나의 영적 가르침을 널리 알린 이들은 학자들을 적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 제3의 시대에도 나는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투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말을 할 날이 왔습니다.

21. 모든 지혜와 지식, 과학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이 행성이 육신을 입은 영혼들의 거처가 되도록 준비하였으며, 너희를 보내기 전에 은혜와 사랑, 지혜로 이 세상을 돌보았다. 나는 이 행성의 내부와 표면, 그리고 모든 곳에 너희의 삶과 내 자녀들의 보존, 기쁨, 만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두었다.

너희가 이 자연의 품 안에서 모든 생명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 비밀에 싸여 있거나 깊은 보물창고에 간직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재능을 주었고, 너희를 깨우쳐 주었으며, 과학의 은사를 부여하였다. 이는 너희가 이 능력을 통해, 그리고 너희의 필요와 발전, 시련에 따라 생명과 지혜의 무궁무진한 원천을 찾게 하려 함이었다.

22. 너희 모두는 이 과학의 은사를 기뻐해 왔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몇 명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겼으니, 그들이 영혼의 전체를 이루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후 너희에게 이 샘의 마르지 않는 물을 나누어 주며, 너희의 삶과 세상의 행복을 돕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또한 그 선택받은 이들에게 영적 삶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맡겼으니, 바로 과학을 초월하고 이 세속적 자연 위에 있는 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태초부터

나를 숭배해 왔으며, 이 세상을 초월한 더 높은 삶을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우주적 존재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예감해 왔습니다. 그 삶은 영과 사랑, 빛, 이성인 빛나는 삶이며, 이 모든 것은 너희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을 걸어오는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큰 권능을 지닌 영혼들을 보내어 가장 위대한 비밀들을 밝혀주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가장 짧고 안전한 길로 나를 향해 인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과 족장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다.

23.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또 다른 이들은 과학을 알리는 사명을 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 한쪽은 다른 쪽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들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합니다. 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쏟아져 내려, 너희가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경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함이다.

24. 너희가 내가 과학자들의 업적을 질책하고, 과학을 심판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떤 이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생명의 원천과 계시를 인류의 복리와 진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과 파괴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내 뜻대로 그들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 겸손과 고양된 마음, 그리고 경외심으로 연구한 모든 이들에게는 내가 내 빛을 부어 주었으며, 그들 모두는 내게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이루어냈는지.

25. 너희의 지상 생활은 발전해 왔으며,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그리고 너희의 발걸음이 발전의 길로 이끌려 온 만큼, 너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과학의 결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의 사명을 왜곡하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나의 보물창고에 침입하여, 자연의 힘을 오직 파괴와 죽음의 행위에만 이용하려 한 자들-나는 그들을 질책하며 경고한다. 나는 모든 사람과 자연의 힘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왔으며, 모든 것은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26. 인류가 신성한 빛, 곧 내가 허락한 지혜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며, 마침내 내가 모든 존재가 비롯된 근원임을, 내 안에 씨앗과 열매가 있음을, 그리고 너희가 너희 영혼과 나의 신성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와 나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27.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예고하는 그 영성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력을 영혼을 섬기는 데 바칠 것이며, 과학조차도 그 빛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너희는 현재 인류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일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8.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의무와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과학과 힘, 재능, 그리고 마음을 나의 신성한 대의에 바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영과 육체에 유익한 건전한 기쁨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갱신과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타인의 악영향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타락과 뻔뻔함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때 영은 육신의 껍질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얻게 될 것이며, 비록 여전히 물질 속에 거하고 있더라도 사랑과 형제애, 평화의 영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29. 그때야말로 전쟁이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상호 도움이 넘치며, 너희가 더 이상 이웃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생명도, 자녀와 배우자의 생명도, 이 땅도 너희 소유가 아니며, 온 창조물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므로, 내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자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피조물을 죽이거나, 누군가를 해치거나,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이 아닌 자들은 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빼앗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을까요?

30.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 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며, 이 세상은 진보된 영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시기가 지난 후 이 행성에 다시 거주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자들을 정할 것이며, 그들은 다른 시대에는 눈물과 파괴, 죽음의 골짜기였던 이 지상의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토록 많은 고통의 증인이었던 바다와 산, 들판은 그때 평화의 장소로, 저 세상들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싸움이 멈추면 내 왕국이 이미 너희 곁에 다가올 것이며, 그때 너희의 영혼이 미덕으로 꽃피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나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 속에 깃들 것이며, 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31. 영적 은사들이 꽃피게 될 것이다. (내면의) 말씀과 치유, 그리고 영혼과 영혼 사이의 교감이라는 은사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것이 될 것이다.

32. 과학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나, 과학자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며, 나의 계시들에 경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는 인류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진 자와 육신을 갖지 않은 자의 영혼까지 발전시키는 선한 업적을 이룰 것이다.

33. 과거와 현재에 내 영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의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그들의 행실을 바라보셨을 때 - 감수성이나 지성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행실들 - 그때는 소수만이 영혼이 고양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때면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정에서 더 이상 눈물과 슬픔, 고아의 비탄이 없을 것이며, 이 행성을 위해 예정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는 오직 믿음과 건강, 힘, 그리고 조화만이 남을 것이다.

34. 너희는 이 제3시대의 기쁜 소식을 받은 첫 번째 세대이며, 너희는 너희 뒤를 따를 모든 이들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할 자들이다. 심연을 메우고 길에 놓인 돌들을 치워, 선의와 용기, 올바른 원칙을 유산으로 남기도록 하라.

35. 너희가 내 사역을 절정에 이르게 할 것은 아니다. 너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 가르침이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너희는 이 생애 동안 직접 목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만일 너희 가운데서 내 백성의 완고한 목을 꺾고 그들의 영성화를 이룰 누군가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자만하게 되거나 그에게 닥칠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36.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나, 내가 너희를 하나로 연합시킬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연마하고 동일한 영적 이상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시험을 하나씩 차례로 보내줄 것이다.

37. 나는 내 백성이 나를 위해 새로운 십자가나 피의 형틀, 혹은 재판소를 준비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의 내적 성소에 거하기를 원하며, 내 백성의 영혼 속에 내 보좌를 차지하여 매 순간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너희 모두가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공로를 쌓고, 투쟁을 통해 강해지며, 덕을 통해 정화된 후,  
영광스럽게 내게로 와서 너희의 높은 상을 받게 될 때,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32

1. 선택받은 백성아: 너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내 말씀을 듣고, 언제나 인류를 앞서 나가도록 준비되어 왔다. 모든 것이 내 은총으로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려왔으며, 너희와 인류를 위한 계명과 법이 담긴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을 너희에게 맡긴다.

2. 세상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며 방향을 잃었다. 세상은 안전한 길을 찾으려 나서지 않았다. 인간은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만족해 왔고, 내가 매우 고귀한 사명을 맡긴 존재의 핵심인 영혼을 잊어버렸다. 나는 너희 가운데 나타나 혼란 한가운데서 살아 있는 너희를 만났으며, 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였다. “멈추어 서서, 율법을 지키는 길로 돌아가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3. 이 시기에 나는 너희의 이성 속에 내 빛을 물줄기처럼 쏟아 부음으로써 너희를 준비시켰다. 너희는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굳건했으며, 이 믿음과 내 사역에 대한 사랑이 너희를 움직여 내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말하게 한다. 많은 이들이 너희의 말을 듣고, 사랑을 갈망하며 목마르게 나를 찾아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고통의 위로를 갈망하며 다가올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단지 호기심에 이끌려 서둘러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모든 이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이에게 증거를 베풀어 주리니, 이는 내가 그 자녀의 간구를 들었음을 알리는 표징을 주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4.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무지와 잘못된 믿음, 광신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동료 인간들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겸손과 정의, 그리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말이다. 의로운 사람인 척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나의 제자나 추종자로 자신을 드러내라. 너희가 자기 희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마지막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정해 놓은 많은 이웃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줄 것이다.

5.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파들 중에서, 생명나무의 분리된 가지들이며, 영성을 갈망하는 이들 중에서 - 비록 불완전한 방식으로 나를 찾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들 - 경건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사랑과 겸손, 감사의 행위를 바치는 이들을 선택한다. 나는 마음을 갈망하는 선한 어부로서 오며, 비록 오늘날 나를 따르는 이들의 수가 적지만, 내일은 그 수가 배가 될 것이다. 이미 증거들이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왔음을 확신시켜 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너희는 이 계시의 증인으로서 그에 대해 올바르게 전하게 될 것이다.

6. 이웃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마라. 영적 이상 속에서 모든 인종과 계층이 하나가 될 것이다.

7. 이웃들의 곤경을 내게 아뢰어라. 그들이 죄인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 이제 내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일꾼들’이 각지로 나아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내 뜻에 따라, 내가 신성한 씨앗을 품에 받아들일 준비가 된 비옥한 땅으로 마련해 둔 열린 마음들에 내 말씀이 쏟아질 곳에 정착할 것이다. 그곳이 바로 너희의 사역지이다. 내가 너희가 강해지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너희의 보살핌에 맡길 사람들을 너희에게 책임지게 할 것이다.

8. 기쁜 소식은 어떤 교리나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제3의 시대에 성령으로서 오시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들이 완전히 알려지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그 때문에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의 빛은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이 시대의 나의 말씀이 가장 찬란한 광채로 빛날 것이다.

9. 나는 너희를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들로 준비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 너희 입술에 풍성히 있을 것이다. 너희는 종종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르침들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 영으로부터 너희의 받아들이기 준비된 마음으로 전해지는 새로운 영감들이 될 것이다. 너희의 행실은 언제나 너희의 말과 일치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심판할 것이다.

10. 초기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풍습을 기억하고 그로 돌아가라. 그들의 건강과 힘은 내 율법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에서 비롯되었다. 이 백성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들,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왔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는데, 그들은 너희 가문의 조상들이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련을 겪었으나, 그들에게서 힘이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어야 했던 그들은 모든 후손들에게 힘과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만 했다. 여기 있는 너희는 큰 시련의 순간에 너희의 힘과 활동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11. 나는 현재,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영감을 줄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내 사역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지켜 나갈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12. 현재의 시기에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그러면 후세들이 너희의 업적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언제나 높은 경지에 이른 존재들을 지구로 보내어, 그들이 나의 가르침의 법칙과 본질을 지키게 할 것이다.

13. 너희의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나에게 구한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얻지 못한 자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운명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오직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의 속죄를 생각하라.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오늘날 너희에게 영혼의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너희가 영적 삶에 들어섰을 때,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은 내 영혼에 유익한 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면, 나는 길을 잃었거나 당신 곁에 도달하는 것을 늦추었을 테니까요.”

14. 나는 이 시기에 너희에게 내 말씀의 빛을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너희 영혼이 완전함을 향한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 영혼이 지닌 은사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그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의 시간이 속죄의 시간이며, 너희가 순종과 믿음으로 마치 잔을 비우듯 이 시간을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였다.

15. 그리하여 나는 무한한 곳에서 내려와, 너희를 짓누르는 사슬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16.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인류가 나의 축복을 얻도록 내 진리를 알리는 사명을 과거에 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모았다.

17.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

18.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마치 나무처럼 방랑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던 이 모임의 장소를 떠날 때, 그 그늘 아래서 종달새의 지저귀음을 들었던 그곳을 떠날 때, 명상하기 위한 고요함을 찾기보다는 해로운 유흥을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승으로부터 받은 영적 정수가 너희 마음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정욕은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내가 너희에게 입혀 준 은총을 너희 영혼에서 앗아간다. 그리고 너희가 그 정욕을 떨쳐내지 못하면, 약함과 질병이 너희 존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

20. 인류를 둘러싼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의 기도를 무한하신 분께 드리라. 너희 이웃들이 나의 정의의 무게 아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자연의 힘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한 피난처만을 찾지 말라. 환난의 시간에 이웃을 돌보고 자신을 잊는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너희의 기도와 자비로 사람들을 *보호하라*.

21. 기도의 힘을 믿으라. 그러나 기도가 나에게 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2. 너희가 이미 굳건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라. 이 사역에 대한 지식을 세상의 길로 전파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비방으로 인해 근심해서는 안 된다.

23. 너희는 그 길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뒤를 돌아보며 너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라. 물질주의와 오만, 저급한 정욕, 우상 숭배, 무지, 죄는 모두 뒤에 남겨두었다.

24. 그러나 더 큰 영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 길에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속에서 약속의 땅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5. 오늘은 선택받은 백성의 영이 영감을 받고, 그들의 지성이 깨달음을 얻어, '생명의 대서'에 간직되어 있던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며, 내가 과거에 했던 말씀에 따라 그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했던 날이다.

26.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로 오기 위해 세상을 떠나 정화되었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의 보편적 광선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다. 그 광선이 너희 영혼을 감쌌으며, 그 영향 아래에서 너희의 은사가 깨어나고 너희 존재의 가장 섬세한 현들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날까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으며, 그 감정은 너희로 하여금 이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동료 인간들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다. 여러분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더욱 강화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생각으로 빛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영혼 앞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을 펼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27. 너희의 영적 은사는 한계가 없으며, 비록 너희가 모든 풍요를 다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더 많이 줄수록, 너희의 유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언제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세상을 위해 나서는 데에 있었다.

28.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너희를 시험해 왔다. 여러분이 망설였거나, 믿음이 부족했거나, 영혼의 힘을 의심했던 수많은 순간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보내주었고, 이를 통해 여러분은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시험을 하나씩 겪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여러분을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누구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을 안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 나는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너희가 공부하고 나의 가르침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너희 주위에 조성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가 되면, 이 시대에 일어날 백성들 앞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너희의 행적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덕을 통해 강해져야 하며, 인류가 나를 향해 이끄는 안전한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물질주의와 싸워야 한다.

30. 너희는 나와 하나 되어 높이 올라갔을 때 이미 내 영의 평화를 누렸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아직 너희 안에 있지 않다. 너희는 여정의 시작에 서 있으며, 오직 너희의 공로만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열매를 배가시키고 길을 단축하여, 너희가 곧 나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리라.

31. 너희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은 이들 중 하나였으며, 나는 너희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줄 알기를 원한다. 오늘날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인류는 를 믿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었으며, 그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나를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아직 잠시 동안은 귀를 막고 있을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이며, 나의 가르침에 이끌릴 것이며, 이 생이 끝난 후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것이며, 그 답을

내가 모든 이에게 남기는 책, 곧 “생명의 책”에서 찾게 될 것이다. 이 빛은 신성한 유산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가 그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속한 유산이며, 누구에게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이를 가르칠 것이다 - 내 지시를 올바르게 따르고 해석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말이다.

32. 너희가 너희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이룬 열매가 미미함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 너희 영혼은 내가 너희를 위해 정해 놓은 목표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예언을 떠올릴 것이다. 그 예언에서는 이렇게 말했었다: “‘이스라엘’이 연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전쟁을 겪게 될 것이며, 여인은 다시 눈물을 흘리고 남자는 피를 흘릴 것이며, 가정에 슬픔과 궁핍과 굶주림이 닥치고 영혼은 고통받을 것이다.”

3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더 가깝게 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 모두가 나를 너희 아버지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4. 이제 근심의 짐을 뒤로 하고,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내게로 오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내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라. 나는 너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으며, 너희에게 필요한 힘을 주리라.

35. 나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자 목적지이다. 나의 뜻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왔고, 나의 뜻으로 다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36. 나는 너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나의 용서를 베풀기 위해 온다.

37. 이 생은 너희 영혼이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은 나의 사랑과 정의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법이 가리키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기에, 그들에게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의도로 내가 이 시기에 너희와 소통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에 와서 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나의 가르침에 깊이 몰입하고 영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호기심이나 의무감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고 믿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매번 새로운 가르침 속에서 또 다른 계시와 지침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오십시오. 나의

현존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더욱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38. 너희가 육체적으로 건강했든, 만족과 안락함을 누렸든, 아니면 질병과 불운, 가난을 견뎌냈든 간에 - 이 모든 것은 인간 삶이 끝나고 영혼의 삶이 시작되는 이곳, 지구 위에 남겨질 뿐이다. 너희는 영혼의 고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고통을 견디고 육신을 정복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듣고, 더 깊이 해석하며, 스스로를 성찰하여 진리를 발견하라.

39. 그러나 너희가 새로운 교리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너희는 단지 외적인 예배에 속하는 교회 의식을 버렸을 뿐이며, 종교적 광신에서 벗어났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40. 나의 사역은 온 세상에 인정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시대에 내 오심을 알리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는 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 새로운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41. 모든 계시는 인류의 영적 수용 능력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맞춰 이루어졌다. 오늘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왔으나, 내일은 더 높은 차원에서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 계시는 곧 끝날 것이며, 1950년 말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때 내 제자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채 교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나의 신성, 곧 너희 영의 빛 속에서, 내가 말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가르치기 위해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42. 양심이 허용하는 한, 너희의 영혼은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모임 장소조차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말할 것이며, 너희의 삶 자체가 너희가 행위의 순수함으로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성소가 될 것이다.

43. 비록 현재로서는 인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평화가 올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이 영성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노라.

44.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세상은 많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들은 세속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인간들의 악행과 이기심, 쾌락 추구가 무분별하게 팽창해 나가는 것에 대해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계가 될 것이다. 이처럼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악의 세력은 더 이상 선의 세력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화는 항상 가장 연약하고 사랑받는 이들을 덮치기 때문에, 처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길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유익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신이 영원히 살 영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는 사람은 그 같은 고통에서 빛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갱신을 얻게 된다.

45. 너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온전히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이 어떻게 인류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46. 시간은 흘러가고, 언젠가 그 거대한 시련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올 것이며, 세상에서 평화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질 것이다. 인류가 내 율법의 길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느껴라, 그분과 화해하라!”라고 말할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는 평화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47. 그러면 너희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각자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공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사랑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48. 인류가 나의 가르침과 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속히 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라. 인류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예언이었으며, 모든 것을 예견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9. 그 요동치던 바다가 파도를 가라앉히고 바람이 잦아들 때, 민족들을 괴롭히던 전염병이 더 이상 없고 재앙들이 사라졌을 때,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50. 너희는 세상, 곧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되고 가장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51.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불길한 사건들을 목격하고 떨게 될 것인가! 용감하다고 자처하는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게 될 것인가! 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너희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52. 이 시기에 모든 비밀이 너희에게 설명되었으니, 심지어 내 신성의 삼위일체에 관한 계시조차도 그러하다. 이를 몇 마디로 다시 말하리라:

53.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형상이 없으시며, 한계도,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이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빛의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시며, 모든 존재 안에서 뛰는 생명이시다.

54. 그리고 아들은? 아들은 “말씀”이며, 완전한 인간, 즉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 안에 거하게 하려 함이다.

55. 신성한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다. 물질적 본성으로는 사람이셨고, 영적 본성으로는 하나님이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인간 본성에 고유한 특징들을 지니셨다. 즉, 사람으로서 느끼고 고통받으셨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과 영적 힘에 대한 깨달음 덕분에 그분은 육체적 욕구와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 그분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경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롭고 순결한 사람을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56. 예수님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신성한 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삶, 즉 인간으로서 스스로 겪으신 시련의 흔적을 내면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이신 아들은 여러분 각자에게서 무언가를 지니고 계시며,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사셨고, 여러분이 걷는 것과 같은 흙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57. 그러나 아버지와 스승은 바로 그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58. 그리고 성령은 -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 바로 이 존재가, 자신의 영 안에 창조주 자신의 본성의 불꽃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가장 높은 형태이다.

59. 성령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하나이자 동일한 권능이며, 하나의 의지입니다. 세 인격체가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던 단 하나의 신성한 존재입니다.

60. 너희의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깨달아라. 그분은 - 비록 전능하시지만 - 너희가 그분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주저 없이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 그분은 너희에게 자신이 단지 너희의 창조주이자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 친구, 형제, 스승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다중으로 나타내신다.

61.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한다. -  
너희는 아직 미숙한 피조물들이기에, 나는 너희 이성의 수용  
능력에 맞추기 위해 내 설명을 제한하고 있다.

62. 나는 너희를 용서하며 내 축복을 내린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33

1. 내 영의 빛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2. 스스로와 씨름하며 이곳에 온 제자들아, 영적 영원을  
갈망하고 너희의 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아 - 준비하라.  
너희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너희 수고의 열매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지극히 사실일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미 고양과 진보를 이루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에서, 너희는 영적 진보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스승의 사랑이 진정으로 너희 존재 속으로 스며들었음을,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너희 영혼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겪어 온  
여러 환생을 통해 거둔 결실일 것이다.

3. “영적 계곡”에는 선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미덕을 지닌 빛의 영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4.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준비하고 참된 자비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들은, 승리의 함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여전히 물질적인 면이 많고 영적인 면이 적기 때문이다.

5. 내가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게 너희의 소명에 맞는 의미와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는 너희가 육신을 올바르게 이끌어 너희의 완성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라는 뜻이었다. 왜냐하면 내게로 나아가야 할 것은 너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6. 보라, 내 가르침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단순한지.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결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쉽게 만들어 주는지. 그러나 너희가 내 가르침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나는 너희가 그로 인해 떠안게 되는 책임을 실감하게 한다. 내 가르침에 대해 무지할수록, 그 사람의 책임은 더 작아진다.

7. 왜 나 곁에 있다가 나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왜 그들은 나를 그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쾌락과 바꾸어 버리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결국 배은망덕하게도 나를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다고 내게 말한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오신 분을, 시련의 순간과 삶의 기복 속에서 그들에게 곁을 지켜주신 분을, 그 고통받는 마음에 내 어루만짐과 신성한 평화의 천상의 조화를 가져다주신 분을, 그 순간마다 “나에게로 오라, 내 곁에서 쉬어라, 나를 따르라. 나는 네가 찾는 하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을, 벌써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로 오라, 내 곁에서 쉬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하늘이다.” 그 순간, 그 마음은 감정의 파도에 휩싸인 듯한 느낌을 받았으니, 사람이 자신의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스승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 사랑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과연 누군가가 내 사랑의 이러한 증거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군가가 이를 받은 후, 나를 느꼈음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8.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나는 신성한 정의이며, 정의로서 나는 내

신성한 영의 빛인 양심을 통해 너희 각자에게 나를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사람에게는 그 “음성”과 그 “부름” 및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누구도 사랑과 정의의 법칙인 선의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도자이자 심판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나 특성은 무엇일까요? 직관, 이성, 감정입니다.

9.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선한 길을 알아볼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만들어낸 길을 걷기 위해 고의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넘치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너희를 선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왜 그 음성을 침묵시키려 하는가?

11. 종종 ‘육신’은 마치 짙은 베일처럼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미 육신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목소리를 온전한 명료함으로 듣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 영혼에게는 지극한 행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흠을 보게 되어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할 기회로 삼기 위해 새로운 육신을 갈망하게 될 때, 끝없는 고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때 사랑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정의가, 영혼이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육신을 허락함으로써 권능으로 드러납니다.

12. 너희는 내 자녀로서 나에게 속해 있으니, 세상의 끝날에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나는 너희 각자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얼마나 많이 허락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단지 자비와 사랑 때문에 내게로 오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로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사역의 온전한 영광을 소유하고 바라볼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회개한 죄인 한 명이 천국에 들어올 때의 기쁨은, 백 명의 의인이 천국에 들어갈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 어둠에 빠졌던 영혼이 그 위대함을 되찾을 때, 그것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이다.

14.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영적 발전의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과장된 신앙 관념들을 없애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내 가르침이 그 해석자들에 의해 너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백성아, 고통 앞에서 강해져라. 일단 이해에 이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신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16.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17. 이 시기에 내 가르침은 너희를 빛을 갈망하는 무리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루었다.

18. 너희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너희는 스승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 곁에서 너희는 먼 여정에서 지친 몸과 고통을 수확물로 안고 온 피로를 쉬어 갔다.

19. 세상이 갈망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 진리입니다.

20.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합을, 오류가 있는 곳에 빛을, 죄가 깃든 곳에 도덕을,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연고를 가져가라.

21. 그러면 너희는 맑은 거울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의 영인 그 거울에 나의 신성한 가르침이 비치고, 인류가 그 안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게 될 것이다.

22. 인류 가운데서 너희의 소명은 위대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은, 너희가 실족하여 동료 인간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3. 너희 몸을 겸손한 종으로 삼아라. 그 몸은 결코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아는 몸이며, 너희의 영이 나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몸이 되게 하라.

24. 올바르게 이해된 영성화는 너희에게 힘과 건강을 줄 것이다.

25. 태초부터 율법과 영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자들은 과학자들을 적으로 여겨왔다. 양측 사이에는 거대한 투쟁이 벌어져 왔으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대립에 대해 말해 줄 때가 되었다.

26. 나는 육신을 입은 영혼들에게 일시적인 고향이 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영과 이성, 의지의 능력을 부여하였다. 나는 내 피조물들의 운명과 발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지구와 그 내부, 표면, 그리고 대기에 인간 존재의 보존과 유지, 발전, 그리고 활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의 원천인 자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그의 지성이 깨어나게 허락했다.

27. 그리하여 인간에게 과학의 시작이 계시되었으니, 비록 인류의 복리와 기쁨을 위해 자연의 힘과 원소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사명인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이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

28. 또한 나는 위대한 영들을 지구로 보내어, 과학을 초월하여 이 자연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너희에게 계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삶, 즉 영혼의 영생을 마련해 주는, 보편적이고 강력하며 창조적이고 전능하며 편재하는 존재의 존재가 예감되었다.

29.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사명을, 다른 이들은 *과학적인*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모든 시대에 걸쳐 서로를 적대시하며 대립해 왔다.

30.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질과 영은 상반된 힘이 아니며, 둘 사이에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영적 계시는 빛이며, 과학의 계시와 발견 또한 빛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과학자들의 업적을 종종 비판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자연의 요소와 힘을 파괴, 적대감, 증오, 복수, 세속적 지배, 그리고 무분별한 권력 추구의 해로운 목적으로 남용해 왔기 때문이다.

31.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사랑과 선한 의도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한 이들, 즉 경건하고 겸손하게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나의 딸인 인류의 복지를 위해 그들에게 위대한 비밀들을 계시해 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32. 과학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물질적 진보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왔으며, 그 길에서 인간은 매 순간마다 과학의 결실을 마주해 왔으니, 어떤 것은 달콤하고 어떤 것은 쓰디짠다.

33. 이제 너희는 모든 빛이 나의 영에 속해 있으며, 생명인 모든 것이 나의 신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내가 온 창조의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이자 근원이며 시초이기 때문이다.

34.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사이의 그러한 갈등은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 영적인 것과 과학이 하나의 빛으로 통합되어 인간의 길을 무한한 곳까지 비추게 될 것이다.

35. 너희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 영성주의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성주의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삶을 계시할 것이다.

36. 자신의 과학과 재능을 그 목적을 위해 바치고, 과장된 열광이나 우상 숭배 없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리며,

심지어 오락조차 유익하고,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건강한 기쁨을 누리는 인류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새로운 세상과 도덕, 그리고 과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모든 것의 유일한 소유자는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 그 은혜의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눈물의 골짜기였던 곳, 파괴와 죽음의 들판이었던 곳이 평화의 골짜기로 변모할 것이다.

38. 그것은 영적 은사가 펼쳐지고 꽃피기에 유리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때 과학은 영혼의 상향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큰 비밀들을 계시할 내 신비 속으로 과학이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39. 나의 영은 언제나 그랬듯이, 내 자녀들의 선한 행실을 기뻐할 것이니,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이 맺은 열매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40. 이곳의 이 백성이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41. 너희에게서 구원의 외침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외침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를 하나로 모으고 구원할 것은 나의 말씀일 것이다.

42. 1950년에 나의 계시가 끝날 때, 나는 너희의 성소에 임하고자 한다. 그곳, 곧 너희 마음속에, 내 백성이 나를 위해 세워야 할 사랑의 보좌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 위나, 수갑에 묶인 채, 혹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43. 시간이 이 말씀들을 지워버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 말씀들로 너희 아버지의 위대한 지혜의 책을 엮을 수 있을 것이다.

44. 영혼과 대화하며 기도하라. 너희 육신의 목소리는 하늘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45. 어떤 이들은 육신으로 올 수 없어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영혼이 먼 곳에 머물며 물질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있어 오직 육신의 껍질만을 내게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나를 듣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내 빛이 영적인 만나처럼 내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쏟아져 내리기를 원한다.

46. 나는 그날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리니, 땅에 사는 모든 이와 저 세상에서 사는 그 수많은 영들이 그날에 활력을 얻게 하리라.

47. 나는 '일곱 봉인의 책'의 빛 속에서 너희를 맞이한다. 엘리야는 그 시절에 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을 준비시켰다. 그때부터 너희는 나의 사역 속에서 점점 더 새로운 계시를 발견해 왔다. 어떤 이들은 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그 뜻을 왜곡했으며, 백성들이 공동체나 모임 장소로 흠어지게 된 때가 이르렀을 때, 각 공동체는 자신들보다 앞서 간 이들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활동했다.

48. 너희가 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내 청중의 수는 적었다. 그들 중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이 있었다. 그 작은 모임은 점점 커져 한 민족이 되었고, 그때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며, 숨겨져 세상 곳곳에 흠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무리는 몇 배로 늘어났다. 그때 나는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살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일치도 조화도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도록 부르셨다.

49. 나의 말씀은 영광스럽게 드러났고, 나의 마음은 율법과 약속이 흘러나오는 샘처럼 열렸다.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들어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맹세하였으며, 하나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나의 말씀은 백성의 영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고, 이 백성의 서약 또한 신성한 영과의 새 언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0. 그 이후로 너희는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빛과 하나의 예배 형태가 있도록 단합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언약을 존중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이가 단합과 영성화의 이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도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이 백성 위에 회오리바람과 폭풍이 몰아쳐 때로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다. 오늘 나는,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의 순수함과 진실함, 그리고 소박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영성화의 부족으로 인해 그 진실함을 이해하지 못해, 이방 의식과 여러 종교의 영향으로 이를 더럽혀 버렸음을 봅니다.

51. 나는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것, 예수께서 인류에게 흘려주신 것,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하는 것의 정수를 담은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자기 교회에서 주인이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나의 진리를 숨겨 온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오른손에 홀을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형제자매들을 꺾아내리며, 공물과 아침, 찬양을 받는 것을 즐긴다.

52. 사람들은 날마다 나의 모임 장소로 모여든다. 새로운 무리와 마지막 제자들이 이 백성을 늘려가고 있다. 내 자녀들이 내 사역의 선함과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교회에 그들이 오면, 그들은 빛으로 충만해지며 나를 찬양한다. 그러나 허영과 정욕이 등지를 틀고 있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로 길을 계속 나아간다. 어떻게 그들이 군중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 “일꾼들”의 혼란스러운 진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에 이것이 어떤 종파나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함으로 이끄는 영원한 법칙이자 가르침이 된 성령의 빛임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53. 너희가 처음부터 내 가르침의 본질과 그 목적을 이해했더라면, 이 길에 이렇게 많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은사가 세속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닿을 때 그 빛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전도자들은 목이 쉴 때까지 모임 장소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내 말씀을 전하며, 적어도 그들의 목소리 크기라도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고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54. 너희는 교단들이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으면서도, 그 일에 무감각하게 남아 이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때때로 너희는 마음을 다잡아 너희 교단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시를 내리려 한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할 수 있겠느냐?

55. 나는 내 가르침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고통받고 투쟁해 온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안다. 그들은 나에게 용서와 그 틈새에서 견뎌낼 힘을 구하며, 나는 그들 모두에게 용서와 힘과 빛을 베푼다. 나는 겸손한 자들을 축복한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노라. “겸손하라. 내가 너희를 내 비유 속의 ‘탕자’에 비유했음을 잊지 말라. 그는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상속 재산을 탕진한 뒤, 빈손이 되고 몸이 지치고 헐벗은 자신을 보고 나서, 아버지의 품을 갈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이고, 다시 곁에 있게 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었다. 그의 잘못에 대한 아픔이 그의 마음에 빛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시대에 너희를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맞아주었다고 말한 너희는 -내가 너희가 도착했을 때 잔치를 베풀고, 내 식탁에 앉혀 주며, 은혜의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교만해져서 내 집을 장악해掉 된다고 생각하는가?

56. 내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실을 고상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또 다른 이들은 개선하겠다는 결심을 품는다. 이에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화의 때가 왔다. 너희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 각자에게 베풀어 준 은사를 펼치라.” 내 신성이 정한 때가 오기 전에 내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을 원치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불완전함과 신성 모독 이 그치기를 나는 바란다.

57. 내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숙고한 뒤, 너희의 잘못을 고치고, 불완전함을 바로잡으며, 예배 형식을 정화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나서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직은 나쁜 씨앗을 제거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며, 그 열매를 거둘 시간이 남아 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34

1. 너희는 잠시 동안 세상을 뒤로 하고 내 곁에 머물렀다. 너희는 시련을 거둬 겪으며 그 과정에서 영혼에 빛을 얻었다. 왜냐하면 힘든 시간 동안 내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여, 위로와 격려의 내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2. 영성주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인류가 빛과 위로를 찾을 새로운 언약계입니다.
3. 언젠가 이 모임 장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계곡의 초원과 들판, 산 위로 부르겠으며, 그곳에서 너희 가운데 내 영을 드러내 보이리라.
4. 전반적으로 볼 때, 인류는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나태함은 깊기에,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너희는 성령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책임지게 하리라.
6. 이 신성한 가르침은 그 안에 담긴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를 요구한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비추는 별이다.
7. 제3의 시대는 적대감, 죄악, 광신주의의 심연에 빠져 있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상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새벽의 출현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세상은 갱신과 회개가 그 사슬을 끊어내어 도덕적·영적으로 고양될 때까지 한동안 더 그 사슬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8. 내가 오직 너희 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온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종교 공동체가 있으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내가 찾아가 내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영'이다.
9. 나의 사랑은 평화의 약속을 안고 모든 문을 두드립니다.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명성으로 인해 교만해진 자, 지혜를 얻은 자부터 천민이나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간에 이르기까지 - 그들 모두는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10. 나는 이 시대에 온 땅에 울려 퍼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백성을 양성하기 위해 왔다. 나는 그 백성이 농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줌의 밀을 그에게 맡겼다. 그 전에 나는 그를 내 식탁에 앉히고, 그가 힘을 얻어 여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즙을 마시게 했다. 나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들에게 그릇된 길을 분별하여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가르쳤다. 그들에게 참된 성소를 보여

주어 그곳에 들어가 어디서나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이 시대에 그들의 발이나 손이 쇠사슬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를 원했기에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큰 능력과 사명을 준 것은, 그가 눈이 멀어 교만해져 자신을 왕이나 신, 혹은 재판관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영혼에 그토록 많은 것을 베푸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겸손을 입으며 자신의 삶을 동료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류를 섬기는 사명에 바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 나는 그가 언젠가 나의 신성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단지 그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나에게 바치기 위해서만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영적 백성이다. 오늘날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너희가 위쪽으로 발전하는 법을 알지 못해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 슬픈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너희를 구원의 우리로 인도할 목자 엘리야를 너희 앞에 세웠으니, 너희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하서는 안 된다.

13. 부분적으로 너희에게 맡겨진 나의 사역은 책임과 포기, 그리고 희생이라는 십자가처럼 너희 어깨에 무겁게 얹힐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매 걸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온전한 자비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사랑이 가득한 도우미를 갖게 될 것이다.

14. 지금까지 너희의 걸음은 무겁고, 불안하며, 서툴렀으며, 너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쓴맛을 맛보고 눈물을 흘려왔다. 그 이유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장차 내가 너희를 지방으로 향하는 길로 보내게 될 때, 너희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것이다.

15.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과 영혼 속에 평화와 화합, 선의를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져라. 그리하여 너희는 영원하신 분이 1950년을 위해 정하신 것을 기대해야 한다.

16. 이 순간에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너희가 그 짐 없이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나 다시는 죄라는 무거운 짐을 너희 영혼에 짊어지지 말라.

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면, 그것이 어둠 속의 빛이 될 것이다.

18. 제자들아: 비록 너희 모두가 같은 길을 따라 오고 있지만, 너희의 운명은 각기 다르고 너희의 사명 또한 서로 다르다.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의 길을 미리 보았으며, 육신을 입는 순간 그 지식은 경험과 직관적인 지혜로 변모하여, 그로 인해 심연과 추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나는 나의 지혜를 쏟아붓는다. 너희는 내가 인류에게 보내게 될 스승들을 위해 길을 닦는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준비의 길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덩불 속에 숨은 늑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그때 너희는 너희의 적이 건딜 수 없는 사랑의 검을 들어야 하며, 가시덤불과 가시로 뒤덮인 들판은 꽃피는 계곡으로 변할 것이다.

19. 너희가 이 빛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일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옳지 않을 것이다.

20.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딸인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양식을 숨기지 말라.

21.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심을 수 없을 것이다. 각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모든 이가 진리인 빛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육신’은 영혼의 투쟁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

22. 준비하라. 너희가 이 교훈을 배우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자비와 온유를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제자들아,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인 주님의 발에서 일할 일꾼이 되어 가고 있다. 잠잘 시간은 지났으니, 지칠 줄 모르고 각 지방과 가정을 찾아 나서야 한다.

24.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마음이 이미 너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 진정으로 놀라고 기뻐할 것이다.

25.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온 빛의 영들이, 중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길 위에서도 깨어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

26. 지금은 지상에 사는 자들과,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순간이니, 이는 1866년에 처음으로 이 형태로 들렸던 나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27. 나를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내 사역을 마치 나무처럼 다루며, 첫 가지들을 잘라내어 여러 지역으로 옮겨 심었다. 어떤 이들은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했으나, 다른 이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

28. 초라한 모임 장소의 그늘 아래 모여든 무리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무리가 커지자, 나는 그들에게 연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모두가 한 분 스승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가르침을 동일한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씨앗이 “일꾼”\*들의 자의에 따라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인용함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비유.*

29. 새 언약의 영적 성막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순종과 복종, 그리고 선의를 맹세했으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나무 가지들을 휘두르자 어떤 이들은 흔들렸으나, 다른 이들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새로운 “일꾼들”에게 “밭”을 가꾸는 법을 가르쳤다. 이 계시의 위대함을 깨달은 몇몇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 지식과 권능을 얻기 위해, 내 뜻보다 더 깊이 내 비밀 속으로 파고들려 했으나, 곧바로 내 공의 앞에 서게 되었다.

30. 이 사역의 위대함을 그 순수함과 소박함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이들은, 내 계시에 엄숙함을 더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종파와 교회의 의식과 상징, 예식을 차용했다.

31. 나는 너희를 “강한 백성”이라 불렀다.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쓰이지 않은 참된 지혜의 책인 나의 신성한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이다. 그 안의 모든 말씀은 한 페이지이며, 모든 페이지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깊이 탐구하라. 단지 나의 계시를 기억에 새기는 데 그치지 말라. 그러면 이 책은 너희 마음속에 간직될 것이다.

32.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가 다가옴에 따라, 나는 너희의 선조들이 바로잡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다. 나는 제자들 가운데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도, 씨를 뿌리는 법을 모르는 “일꾼”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33.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 오심으로 인해 지상에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다고 말하지 말라. 이 시대에 내가 전하는 계시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제시해 온 길과 동일한 길을 가리키며, 나의 말씀은 너희가 예전에 받았던 율법과 교리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시해 준다.

34. 너희가 ‘이방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일시적으로 너희의 대열을 늘리고 내 신성의 제자가 되기 위해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그들을 모두 진정한 형제로 여기라. 나쁜 본보기를 보이지 말고, 은밀히 임명을 받아들이지도 말며, 성급하게 책임이나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떠맡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꾸어야 할 식물들이 시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35. 준비하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여러 종교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너희의 문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숨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이들은 수많은 비밀에 대한 설명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너희 마음속에서 피난처와 위로를 찾기 위해 올 것이다. 고통받는 이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묻는 이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36. 지위 높은 자와 평민, 학자와 무식한 자 모두가 너희에게로 올 수 있게 하라. 그러나 내 사역 속에 사기 행각이 퍼지거나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신성 모독도 허용하지 말라.

37. 나의 가르침은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정의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갱신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왕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는 전쟁은 용서와 화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악한 정욕은 억제될 것이며,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야수들의 피에 굶주린 욕망과도 같은 그 갈망은 인간애의 감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38. 이곳의 이 백성은 지상의 선한 영, 곧 평화와 축복의 영이 될 것이다.

39.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가르침은 아직 물질적인 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너희와 함께 있다.

40. 나는 이 시기에 단순하고 소박한 지성 기관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너희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 권능으로 학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소박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1. 나를 듣는 너희는, 이 이유로 너희 모두가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혼은, 나태한 자나 자기 욕심에 빠져 그 열매를 누리며 나태해진 자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42. 비록 내가 *너희*의 영혼을 찾고, 곧 나와 직접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더라도, 인류 또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상과 우상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구원을 비추는 빛으로서 나의 율법이 너희에게 결여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법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따르기만 한다면 내 모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낳고,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며, 완전함을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43. 내 율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 증거는 불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모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며, 삶을 즐기는 자가 고통받는 자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라.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들을 모욕한 자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의 말을 입술로 내뱉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천국 보화를 얻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44. 머지않아 나는 너희를 각 지방과 마을, 도시, 그리고 민족들에게로 보내어 자비를 베풀게 할 것이니, 이는 인류가 자신의 오점을 씻어내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속죄의 장소로 남기를 바라는가?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영의 평화를 느끼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가 내 품에서 누리게 될 평화의 선구와도 같은 것이다.

45. 내가 1866년부터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이래, 내가 얼마나 끈기 있고 지칠 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아라. 왜냐하면 나는 나의 말씀 계시가 끝나고, 너희 가운데서 나의 영이 너희의 영에게 직접 계시하는 시기, 즉 하늘이 땅에 계시하는 시기가 시작될 때, 너희가 준비되고 하나 되어 있도록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의 말씀”은 여전히 “구름”을 통해 직관, 영적 환상, 그리고 영감의 형태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46. 그 시대의 신학자들은 나의 말씀과 새로운 경전을 연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마치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반항하며 내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대체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세 가지 계시가 바로 내가 항상 가르치고 따랐던 유일한 율법임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47. 이 시대에 나를 정죄하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제2의 시대”에 의심했던 자들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존하여 다시 지상으로 보내었으니, 그들이 내 율법의 승리를 목격하고 그들의 눈을 빛으로 뜨게 하려 함이다.

48. 제자들아, 너희는 참으로 내 말씀의 젖과 꿀을 마셨다. 너희 스승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 엘리야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며, 너희 영혼이 평화의 영역으로 올라가도록 초대한다. 그는 너희가 내 오른편에 서서 내 말씀을 기뻐할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잊게 해 준다.

49. 나는 너희를 여러 지방과 나라에서 불러 모아, 한 민족으로 연합하게 하였노라.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 소박한 집들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모으노라.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발자취를 따랐노라. 이는 너희가 195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알게 될 이 사역의 충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는 영원토록 준비된 자가 될 것이니라.

50. 나는 너희가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제3의 시대에 내가 오신 이유와 나의 계시를 내 말씀의 본질 속에서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난 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그 시기가 지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형태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 눈에는 너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1. 그때 너희는 오직 영적으로만 나를 찾으며, 너희의 믿음과 행동에서 이론 진전을 나에게 보여 주고,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모임에 새로운 제자들을 끌어모을 것이니, 이 백성은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서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52.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은 사랑과 포기, 그리고 희생의 길이다. 내게로 나아가기 위해 너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쾌락에 얽매어 있는 너희의 마음은, 내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 그 쾌락들로부터 등을 돌려야 할 것이다.

53. 제2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는 열두 명을 택하여 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은 마치 꿀처럼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내 곁에서 살며, 그 신성한 계시의 위대함을 예감했고, 나의 모범적인 행적 속에서 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나의 대의를 위해 고난을 겪었고, 내가 그들을 떠나자 그들은 나의 사도들이 되었다. 그들은 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비방이나 거짓 증언도 그들을 물려서게 하지 못했다. 그들 안에는 오직 사랑과 헌신만이 살아 있었다. 내가 그들의 영혼에

뿌려 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었고, 내가 떠나기 전과 후에 그들은 그 열매를 내게 맛보게 해 주었는데, 나는 그 열매가 달콤함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도 내 말을 경청하라. 훗날 나는 너희 입을 통해 너희 자신조차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시들을 선포할 것이다.” “그 말씀”은 고갈될 줄 모르고, 너희의 전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질 영감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인류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니, 바로 내가 내 진리의 증거로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54. 나의 제자들은 모든 행실에서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인류에게도 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으며, 그들의 모범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55.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는 제3의 시대에 너희를 준비시키며 묻노라. 만일 내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 “예,”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나,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격려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빛이 언제나 너희의 의무를 밝혀 주고, 너희의 행위가 언제나 나의 법 안에 머물게 하리라.

56.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미 영적인 삶을 예감하고 있다. 너희는 잠시나마 너희를 기다리는 왕국의 평화를 느끼고, 의무를 다했을 때의 만족감을 알게 되었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스승님, 우리가 보여 드리는 씨앗을 살펴보고,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사랑과 선한 뜻을 받아들였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시련을 이겨낼 큰 힘과 모든 악에 대항할 해독제가 있다. 너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은사를 활용하라. 나는 너희의 능력을 키워 주고, 성장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 일할 것이다. 너희는 인류에게 큰 열매를 맺어 주어야 하며, 그러면 너희는 나의 은총과 은혜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57. 너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고통받는 이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마라. 자비를 베풀고, 내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게 하며, 내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사랑이 그들에게 닿아 그들에게 온기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게 하라.

58.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 각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59. 가장 겸손한 이들 가운데서도 겸손하라.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이의 종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수없이 너희의 지시를 받고 너희에게 순종해 왔다. 섬기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섬김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 이 땅에는 너희의 수고를 제대로 평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너희의 공로에 따라 공평하게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

60. 너희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리라. 너희의 의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었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는 법을 알았음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너희의 행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너희는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적 유대로 묶여 있는 영적 무리,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이루는 영적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본보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차원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될 씨앗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와 함께 그 열매를 거두어 영원히 그 열매로 양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35

1. 나는 새로운 날처럼 너희에게 다가와, 나의 빛으로 너희의 무지와 의심을 사랑으로 없애 주었다.
2. 내가 마련한 잔치에 오라. 그리하여 너희 입에 힘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줄 좋은 음식을 먹으라.
3. 나는 너희가 요동치는 바다에서 평화와 구원을 누리도록 초대하며, 너희가 미덕과 의무 이행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므로 형제애와 사랑의 길을 다시금 너희에게 알려 준다.
4. 위험이 너희 영혼을 노리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빛이 너희를 깨어 있게 하며, 너희의 기도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너희는 악행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상처 입히고, 그들의 길에 엉덩퀴와 가시를 뿌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이들이 비뚤어진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낍니다. 바로 이곳에 빛과 위로, 평화의 사자들이 필요합니다.
5. 폭풍이 인류를 몰아치는 동안, 나는 너희를 평화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 너희 영 앞에서 생명책을 한 장 한 장 훑어보고 있다.
6. 나의 영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 시대에 “말씀”은 육신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할 수 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서 많은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제자들아, 내 계시의 이 형태가 끝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 1950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유혹이 너희를 덮칠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는 오늘 내게

봉사하다가 내일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말씀이 끝났음을 부인할 “일꾼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형제들의 눈에 어두운 눈가리개를 씌우고, 군중을 고통과 어둠의 길로 이끌며, 영혼들에게 무지의 사슬을 채우고, 그들 앞에 버림받음과 괴로움의 심연을 열어젖힐 것이다. 그러면 이 혼란에 빠진 자들은 신성모독적으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정죄할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때에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다.

8. 그 길을 깨달아라. 성령께서 산 정상에서 그분의 지혜로 너희를 부르시어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함정을 이겨낸 너희 영혼의 도착을 축복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9. 너희 영혼이 내가 건네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계속해서 내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라. 병든 자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며, 눈먼 자는 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음들은 꽃처럼 활짝 피어 그 향기가 아버지께까지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신성한 영의 자비가 너희의 몸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

11.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들처럼 맞아들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교훈을 주려 한다.

12. 내게 가까이 오라,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음미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 너희는 고통과 슬픔, 근심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니라. 잠시나마 과거를 잊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13. 이 숭고한 순간에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바치라. 내가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자 하노라.

14. 너희가 내 말씀을 통해 내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너희 영혼의 능력을 펼치게 되면, 너희 마음은 이 신성한 샘물의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 물로 너희는 궁핍한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5. 내 가르침의 목적은 인류의 도덕적, 영적 구원이다. 너희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 영은 이 빛을 비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메시지의 의미이다.

1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의 갱신은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의 인류가 될 그들의 열매가, 너희를 퇴보로 이끌었던 결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17. 그 후에는 이 회복의 사업에 남성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을 타락시킨 사람은 누구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남자들아, 종종 너희가 덕스러운 여성들의 감수성 예민하고 약한 면을 파고들어, 너희의 그물에 그녀들을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너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나 한때는 맑았으나 오늘날 흐려진 그 거울들이 다시금 그들의 영혼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비추도록 만들어야 한다.

19. 왜 오늘날 너희는 과거에 타락한 삶으로 유혹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가? 왜 여성의 타락을 한탄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녀들을 마음과 영, 존중과 이웃 사랑의 법칙인 나의 법의 길로 인도했더라면, 즉 비하하는 정욕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사랑으로 그녀들을 사랑했더라면, 여러분은 울고 한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그녀들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 남자는 여자에게 미덕과 아름다움을 찾고 기대한다. 그러나 너희는 왜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가? 나는 너희가 가진 공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본다. 너희의 행실과 말과 생각으로 너희가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우고, 명예와 도덕, 미덕에 그 본연의 가치를 부여하라.

21.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것이며, 선한 아내와 존경받는 어머니들로 인해 가정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덕을 잃었던 이들에게 그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기쁨은 클 것입니다.

22.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남자들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의 빛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너희가 파멸로 몰아넣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와 함께 협력하라. 내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이성과 마음에 닿게 하라. 감옥과 병원, 심지어 타락의 소용돌이 속까지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이 유혹으로 그들을 파멸로 끌고 갈 때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서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모든 여자는 한때 아이였고, 모든 여자는 한때 처녀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24. 나는 이러한 미덕을 더럽히지 않은 남자들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행실로 너희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25. 영혼이 세속적인 형상을 통해 말하게 하라.
26. 그러나 내가 그 존재 안에 심어 놓은 사랑의 매력을 존중하려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너희가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닌데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이들이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면서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막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라. 너희가 그 시든 꽃들에게 하는 일을, 너희 어머니나 자매, 혹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에게 한다면 너희 마음은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너희를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너희가 그들에게 입힌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27. 양심의 빛 아래에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지 너희 마음속 깊이 자문해 보아라.
28. 끊임없이 이웃을 상처 입히면서, 너희는 미래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너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정열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많은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니, 어떤 이들은 너희의 현재에 속하고, 다른 이들은 너희의 과거에 속해 있다.
29. 나는 배신과 거짓의 보금자리였던 마음과 입이, 진리와 순결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30. 말씀과 너희의 모범을 통해 이웃들의 길을 밝혀 주어, 너희가 타락한 여성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아, 너희 중 누구라도 적어도 한 명이라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여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그 모욕적인 말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상처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들도 악한 심판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비밀을 존중하라.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넘어졌으나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남성들이, 순결함을 뽐내면서도 죄를 짓는 위선자들보다 내게는 더 사랑스럽다. 나는 거짓된 덕행을 가장하는 것보다, 비록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너희가 자신을 꾸미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실함의 예복이어야 한다.
31. 고결한 품성과 고상한 감정을 지닌 덕망 있는 여인을 만나, 비록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그녀를 모욕하고 경멸했다가, 고통을 겪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뒤 위로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로 돌아선다면, 너희는 헛되이 그녀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32. 각 남자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모든 여성이 그로부터 사랑과 존중, 이해의 말과 마음을 받았더라면, 너희 세상은 지금처럼 죄의 심연에 빠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33. 아내를 나쁘게 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녀는 너희 자신의 일부이다.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노라. 너희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34. 사랑과 평화의 주님은 진심 어린 말솜과 동시에 정의로움으로 너희를 뒤흔들었다. 내가 항상 온유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면, 나의 사역은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는 어루만지는 봄바람이 되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가을 폭풍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때때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허영심에 차 있고 이기적이며 무정하다. 너희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의 미성숙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뿐이다.

35.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라. 인류는 선한 행실의 모범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줄 새로운 남성과 여성을 필요로 한다.

36. 사람들아, 서로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자신의 악함을 부인하고, 너희가 위대함이라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한편, 너희의 수치스러운 점들은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함 속에서 스스로를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다. 그리고 미덕이 부족하여 타인의 결점을 비방하고 남의 잘못을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위선자이며 정의와 진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해야겠다.

37.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비방으로 마음을 찢어 놓는 자들도 살인자이다. 마음의 감정과 믿음, 이상을 죽이는 자들은 영혼의 살인자이다.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옥도, 쇠사슬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38.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나는 너희 가운데 파괴된 가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들의 고통과 버림받은 심정을 돌보지 않은 채 가정

밖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이 타락에 빠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는지.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다정함과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거룩했던 것을 파괴한 자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39. 너희는 악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단 한 순간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새로운 살상 무기를 발명하는 사람들조차 위대하다고 칭송한다. 심지어 그들을 학자라고까지 부른다. 너희의 이성 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오직 영을 통해서만 위대해질 수 있으며, 진리의 길을 걷는 자만이 진정한 학자일 뿐이다.

40.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위대한 천재들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겉으로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위엄을 과시할지라도, 영혼 속에는 오직 악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경의를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시라도 이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목소리는 그들을 받침대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는 자신의 본모습을 직시하기를 원치 않으며, 잠시라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비참한 인간을 마주하게 되면, 차라리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선호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평가하는 것은 그에게 불쾌한 일이다.

41. 아, 이 땅의 사람들아, 너희는 언제쯤 비로소 매 순간마다 너희의 부끄러운 행실을 꾸짖기 위해 울려 퍼지는 양심의 그 내면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인가.

42.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며 동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말할 때,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묵에 빠지기 때문이다.

43. 오늘 나는 너희가 길에서 넘어진 여인을 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한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면, 나는 그녀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꽃 한 송이와 축복, 그리고 지극히 큰 평화를 줄 것이다.

44. 너희가 이 임무를 그렇게 완수한다면,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그 존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45. 그들이 기도 중에 나에게 “아버지, 제 죄는 보지 마시고 오직 제 고통만을 보아 주십시오. 제 타락함을 심판하지 마시고 오직 제 고통만을 바라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순간, 그 고통받는 마음에 나의 위로가 내려와 눈물로 정화될 것이다.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죄인의 기도가 스스로를 의롭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의 기도보다 더 깊이 느껴진다는 것을.

46. 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준 바로 그 여성들도 있다. 내 망토가 너희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그들도 내가 영의 큰 잔치 자리에 앉혀 두었기 때문이다.

47. 나는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과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내 면전에서 그들이 찾아 헤매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하려 했다.

48. 그 슬픔에 잠긴 마음들 위로 나의 다정함이 쏟아져 내려 그들에게 말을 걸 것이며, 그들은 나를 느끼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49. 그러면 너희는 더럽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참된 사랑이 이룩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너희 스스로 파괴한 것을 회복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럽힌 것을 내가 정화하리라. 그러면 그 타락한 작은 꽃들이 그 미덕과 향기로 다시 우주의 제단을 장식하리라.

50. 보라, 나 또한 죄인인 자들의 입을 통해 죄인들을 무죄로 선언하는 것을!

51. 그러나 너희는 상류층에 속한다고 믿으며, 죄를 지은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여인들이여, 너희가 영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에 모욕감을 느낀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 많은 이는 육체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죄를 지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숨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는가!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 왜 분개하는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감을 준 고귀한 이상을 위해, 처녀든 아내든 어머니든 모두가 분투해야 한다고 말하노라.

52. 이것이 바로 스승이 그분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이며, 이 말씀은 너희에게 힘과 사랑을 선사한다. 너희 마음이 내가 산상수훈에서 너희에게 말한 평화와 영적 행복을 얻도록 일하고 사랑하라.

53. 내가 너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름”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54. 제3의 시대에 “신성한 말씀”은 육신을 입지 않았으며, 영적인 형태로 너희에게 오셨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지역은 오늘날 내 약속과 결단의 성취를 받아들이도록 정해진 곳이다. 지금 나는 이곳에서 나의 유언 중 세 번째를 쓰고 있으며, 너희가 나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곳에 너희를 모았다. 너희는 과거 시대의 사람들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너희가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오직 내가 약속한 빛에 의지하여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너희는 첫 번째 시대에 노예의 쇠사슬이 덜거덕거릴 때, 조상들에게 주어진 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고향 없는 고통을 견뎌냈던 것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시험했고, 너희는 인내의 공로를 쌓았으며, 마침내 그 보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55. 너희는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백성은 과거의 노예 생활을 잊었다. 거짓 신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억압과 속박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는 눈을 뜨고 태양이 자신의 것이며, 자녀들이 자신의 것이며, 들판이 자신의 것임을 보았다. 빵이 입에 달았고, 과일이 풍성하게 있었다.

너희는 내 율법의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너희의 영광에 대한 소문이 다른 왕국들에 전해져 그들의 탐욕을 불러일으켰고, 백성 지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덮쳐, 다시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왕국과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백성으로 만들려 했다.

56. 나의 정의는 그 땅을 너희에게서 빼앗았으나, 동시에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여 정화시키고, 너희가 소유했던 곳과 닮은, 그 처녀 같은 품이 너희에게 젖과 꿀을 베풀어 주었고 축복이 풍성했던 이 땅의 한 구석을 찾도록 너희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57. 나는 너희를 그리워하며 이곳에 왔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너희 가운데 내 임재가 너희를 비추고 용기를 북돋아 주니, 너희가 다시는 세상의 노예도, 저급한 정욕의 노예도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끊어 버린 사슬이 다시는 너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 설령 너희의 인간적인 삶이 억압받는다고 느껴지더라도, 너희의 영혼은 사슬에서 자유로워져 너희가 고개를 들고 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58. 너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너희를 정화시키는 도가니나, 너희를 단련시켜 영혼의 승화와 정화의 길에서 강해질 수 있게 하는 모루로 받아들이라.

59. 나는 너희가 고통받고 있음을 안다. 내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쓰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집에 들어가 보았으나 그곳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밤을 보내는 침상의 구석에서 너희를 찾아가면, 울고 있는 너희를 마주한다. 그때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고통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내 힘을 준다. 너희는 온 세상이 내뿜는 두려움에 찬 탄식과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 입술에서는 결코 신성모독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60. 시련의 날들이 지나가면, 너희는 무사히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1. 내가 이 시기에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사명을 완수할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내가 모든 이를 동등하게 사랑하므로, 너희는 모든 이웃이 너희의 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62. “영적 계곡”에서의 싸움이 끝날 때, 너희는 영혼의 완전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현재 너희는 이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니, 잠들어서는 안 된다.

63. 이 영성주의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너희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권력자들은 너희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러나 영성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 사이, 영성주의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싸움은 온 인류에게 내 가르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때 구약성경 이 제2성경과 제3성경과 하나의 본질로 통합될 것이다.

64. 너희 중 많은 이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르며, 완전한 일이다.

65.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 가운데 살았을 때, 모세의 교회는 왕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 도입되고 대표되었는데, 그들은 예언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표적을 보려고 눈을 뜨지도 않았고, 내 임재를 느끼려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영이 자신들이 심판자 앞에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형태의 나의 임재를 이해할 수 없었고,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백성들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66. 나를 느낀 이는 얼마나 적었는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는 얼마나 적었는가!

67. 내가 희생의 죽음을 맞이한 후, 투쟁이 시작되었다. 고통과 비방, 투옥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박해가 컸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들을 떠돌았으며, 그 과정에서 나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비옥한 밭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었다.

68.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굳건해지자, 그들은 “첫 번째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추구하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69. 논쟁은 치열했고 피로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끝날 무렵,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시 시대의 성서가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됨으로써 나의 뜻이 이루어졌다.

7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3시대의 계시가 이전의 성서들과 통합되기 전에, 너희는 예고된 그 위대한 영적 전투를 이겨내야 한다.

71. 세 성약의 통합이 제3시대에 이 계시들을 위해 예정되었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제1성약과 제2성약의 통합 또한 유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또한 내 고향 땅에서는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72. 과거 시대의 기적들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마라. 내 가르침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내가 모든 시대에 오직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73.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전통 때문에 율법을 잊지 말라. 나는 많은 전통을 없애었으나, 율법의 성취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와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내 몸과 피로 변화시켰을 때, 너희가 그것들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나를 간직하기를 원했으니, 오늘날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더 이상 상징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74. 오늘 나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깨우치며, 진리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너희의 마음이 이웃에게 빵과 포도주가 되기를 원한다.

75. 어느 시대에도 나는 성직자로 온 적이 없으며, 너희 앞에서 의식을 거행한 적도 결코 없다. 나는 오직 비유로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한 스승일 뿐이었다.

76. 오늘날 인류는 점차 영적 준비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 고통이 사라질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학과 자연의 힘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 다시금 나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잔은 당분간 계속 마셔야 할 것이다.

77. 인류가 일단 준비가 되면, 나의 목소리가 모든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며, 사람들은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권능도, 다른 어떤 정의도, 다른 어떤 지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78. 이 세상의 역사는 길고, 인류의 여정도 길다. 쇠퇴와 붕괴가 닥친 후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민족들이 고군분투해 온 길이다. 내 자녀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아 땅을 붉게 물들였는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죄와 과실이 있었는가! 그러나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증거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미덕을 보았는가!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와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79. 아직 그 쓰라림이 가득한 “마지막 전투들”과 “마지막 회오리바람들”은 닥치지 않았다. 모든 힘이 소용돌이치고 원자들이 혼돈 속에서 맴돌게 되어, 이 모든 일(이)이 끝난 후 무기력, 피로, 슬픔, 그리고 혐오가 닥쳐와 마치 죽음과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감수성이 예민해진 영혼들 속에서 나팔 소리의 진동하는 메아리가 들릴 것이며, 이는 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생명과 평화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식이 될 것이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아버지는 긴 여정에 지치고 큰 투쟁에 지친 “잃어버린 아들들”을 맞이하시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들의 영혼을 인치실 것이다.

80. 그 “날”부터 인간은 전쟁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마음속의 증오와 원한을 몰아내고, 죄를 척결하며, 속죄와 재건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빛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81. 그것은 은혜의 시대, 평화의 시대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82. 석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과학의 시대도 지나갈 것이며, 그 후 인류 가운데서 영의 시대가 꽃피게 될 것이다.

83. 생명의 샘은 사람들이 선의 과학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 굳건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대한 비밀들을 드러낼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36

1. 지친 자, 슬퍼하는 자, 애도하는 자, 병든 자,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용서하리라. 나는  
열심 있는 자도, 불신자 또한 사랑하노라.

2. 지친 자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리 오라. 내가 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 주리니, 대신 내 사랑으로 미리 정해 놓은 이 길에서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리라.
3. 치유의 희망을 모두 잃은 병자를 내가 고쳐 주고, 그를 참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4. 영혼과 육체여, 이제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니, 내 자비가 모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5. 나는 항상 너희를 찾아왔으며, 시련의 순간마다 나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외로운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사랑의 메시지로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백성들이 목마름에 시달릴 때, 나는 바위가 갈라지게 하여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함으로써, 굳은 마음속에 믿음을 불태우게 했다.
6.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드러내는 이 사랑과 평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 시기에 내 말씀이, 너희의 믿음을 불태우고, 태초의 사막을 떠올리게 하는 이 길 위에서 너희 마음을 복돋우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보낸 만나와 수정처럼 맑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7. 비록 내 사랑의 증거를 직접 체험하더라도, 많은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으므로, 그들에게 있어 여정은 더 길고 힘들다.
8. 깨달아라. 내 자비를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는 자는 그 길을 가며 자비를 남에게 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단지 내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내 자비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9. 자비를 베푸는 중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므로 그들의 영혼은 안식처를 찾게 될 것이다.
10. 너희가 내 면전에 올 때, 낡거나 부러진 칼을 내게 보여준다면, 너희가 용감히 싸웠으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어떤 이들은 일찍, 어떤 이들은 늦게 도착하겠지만, 영혼들의 오고 감은 마지막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11. 현재 나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세상은 여전히 남성, 여성, 노인, 어린이들이 완전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단련하며, 소환될 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12. 내 자비를 느껴라 - 무한한 곳에서 나를 듣기 위해 너희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린 너희여.
13. 다시 한번 내 계시가 너희에게 임한다.
14. 나는 세상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인류를 위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15. 나에게서 배우는 너희를, 나는 이 사랑의 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여정에서 이웃들 사이에 자비와 형제애의 발자취를 남기기 때문이다.
16. 모든 영적 영혼은 신성의 순수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영적 영혼들은 창조주의 완전한 작품이다.
17. 물질적 창조가 완성되고 지구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자, 나는 첫 번째 영혼들을 보내어 인간으로 환생하게 하였다. 영혼이 마치 진주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듯이, 잠시나마 물질 세계의 함정과 심연에 빠져버렸을 때, 그 어떤 자녀에게도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 주십니다.
18.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인류가 심연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나는 너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희망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19. 너희의 말은 내 말과 같아야 한다. 내 말은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는 섬세한 꿀과 같았으니, 그것은 어루만짐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을 더 오래 들을수록, 너희가 점점 더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그 말이 너희에게 잃어버린 광채를 되찾아 준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20. 영적인 것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영성주의’라고 불리는 이 가르침은,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그분께 봉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인간을 위해 미리 그려진 길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웃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책이다. 영성주의는 선하고, 순수하며, 완전한 것을 규정하는 법이다.
21. 이 법을 따를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은 누구에게도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자유 의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래야만 그들의 투쟁과 모든 행위가 심판받을 때 그들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첫 번째 자녀부터 마지막 자녀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자녀들을 비추고 그들에게 온기를 베풀어 온 신성한 사랑의 부르심임을 깨달으라.

23. 너희가 마침내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의 영혼과 이성 모두 이 시대의 나의 계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온전한 명료함을 갖추게 될 때까지 기다려 왔다.

24. 오늘날 너희의 영적 성장은 크며, 마찬가지로 너희 지성의 수용력.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입술에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부여하여, 영적인 지식과 말씀의 영감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25. 내 가르침의 위대함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결코 훼손된 적이 없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대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듯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26. 영혼의 길은 나 안에서 시작되고 나 안에서 끝난다. 이것이 바로 스승이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는 바이다.

27. 끈기와 성장,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일정한 영적 경지에 이른 자는, 비록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영성주의자가 될 것이다.

28.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서 너그러움을 보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지닌 바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29. 회오리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타락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점차 완전함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30. 1950년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 새로운 교리들, 갈등과 재앙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내 말씀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임을 알고 있다. 이 징조들은 나중에 인류에 의해, 스승께서 예고된 때에 사람들 곁에 계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수탁자로 삼은 이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많은 마음속에 스며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진리, 즉 완전함은 무시된 채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에 영적 발전과 중생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31. 만일 인간이 그 시대를 알리기에는 너무 약하다면, 자연이 그 “목소리”로 이를 증언하며 잠든 자들을 깨울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는, 인류가 곧 들어서게 될 새로운 시대를 말해주는 영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32. 그때 세상에서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 여겼던 자들은 약함을 느낄 것이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겼던 자들은 영혼의 용기와 능력, 그리고 통찰력 덕분에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영적인 것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33. 내 말씀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 빛을 주기 때문이다.

34. 나는 엘리야가 마련한 길을 따라 너희에게 오며, 나의 빛으로 인류라는 사랑하는 자녀를 비추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의 잘못을 심판하러 온 것도, 너희의 오점을 들여다보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무지한 자를 나의 제자로, 제자를 나의 문도로 변화시켜, 내일 너희 모두가 스승이 되게 하려고 온 것이다.

35. 너희는 인류 가운데서 이토록 어려운 사명을 맡고 있으므로, 눈먼 자처럼 걸어서는 안 되며, 무지한 채로 남아 있거나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자신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 너희의 영은 아버지께 그 사명의 결실을 보여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을 평온히 하고,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내 말을 경청하라.

36.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너희의 영혼을 땅에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내 율법을 너희 영혼에 지울 수 없게 새겨 넣었고, 또한 너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계시하고 사랑과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 주어, 너희가 이웃을 대하는 법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빛을 나누게 하려 했다.

37. 나의 말씀은 마치 내가 모든 이를 초대하여 먹고 마시게 하는 잔치와 같다. 나에게서는 육신을 입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영적 계곡”의 주민들 또한 나의 가르침이 빚어내는 신성한 하모니를 즐기기 때문이다. 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38.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오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끼며,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러나 내 품에서 이 평화와 상패함을 경험한 후, 너희는 인류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이 인류에게 시선을 돌렸다.

39. 너희가 나의 식탁에서 영생의 빵을 먹으면서,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영적 굶주림을 떠올린다. 너희가 이 나무의 시원함과 그늘을 느끼면서, 너희는 태양과 굶주림, 갈증에 시달리며, 때로는

가짜 오아시스의 환영에 속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들을  
생각했다.

40. 너희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기도하고 일하라. 너희에게는 고통을 덜어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으니 말이다.

41. 너희는 나를 따르겠다고 서약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충실하고, 굳건하며, 순종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서약하고, 그  
결심을 지키라.

42. 내 말씀은 제자에게 이제 떠나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왔음을 깨닫게 하는 위로가 될 것이다.

43. 오, 사랑하는 백성아, 내 말씀이 빛줄기처럼 너희의  
이해력을 밝히고, 너희의 길을 비추게 하리라.

44.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하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내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하는 자의  
목소리는 들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신성한 본질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45. 너희 마음을 맑은 샘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내 지혜인 가장  
맑은 물의 광선을 받아들이라.

46. 오늘은 기억의 날이다. 오늘과 같은 날, 나는 나의 첫 번째  
대변자들을 성별하여 그들을 통해 나의 새로운 지침과 계시를  
선포하게 하였다. 엘리야의 영이 로케 로하스\*를 비추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이 곧 그 길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첫 번째 대변자의 이름은 “로케 로차스”라고 발음합니다.*

47. 그 순간은 엄숙했으며, 참석자들의 영혼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떨렸으니, 마치 시나이 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떨렸던 것처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스승의 오른쪽과 왼쪽에 영적으로 나타났을 때 타보르 산에서  
예수의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이 떨었던 것처럼이었다.

48. 1866년 9월 1일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자, 새로운 날의  
여명이었다. 바로 인류를 위해 밝아온 “제3의 시대”였다.

49.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주신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끊임없이 성취되어 왔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남성과 여성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서  
그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선포되고 그 약속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 중 누가 이 땅에 있었겠습니까? 오직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50. 내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자들이 나를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그 “구름”에 대해 알고 있느냐? 진실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구름 위”에서 다시 오겠다고 하였고, 나는 그것을 성취하였다. 1866년 9월 1일, 내 영은 상징적인 구름을 타고 내려와 너희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다. 그 후, 1884년에 나는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인간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빛의 광선 속에 깃든 영적인 형태로 와서, 그 빛을 인간의 이해력에 엮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 뜻으로 선택된 수단이며, 나는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 갖는 믿음을 너희에게 인정해 주리라. 모세가 너희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구원과 자유로 가는 길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 귀에 닿는 것은 이 피조물들의 인간적인 목소리이며, 내가 현존하는 신성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불완전한 존재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므로, 너희가 이를 믿는 것은 공로가 될 것이다.

51. 그 공로는 제2시대에 나를 믿었던 자들의 공로보다, 혹은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건넌 자들의 공로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완전한 가르침이므로, 너희에게는 단 한 순간도 인도자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시대에 세상을 깨우고, 인간의 영혼이 나의 영적 임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위해 온 엘리야의 영이 항상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52. 축복받은 백성들아: 이 기억의 순간은 너희 영혼에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하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가르침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이성을 단련하고 마음을 열어, 내가 그 안에 내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라. 잠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잊고 영적으로 내게 다가오라.

53. 너희는 지금 또다시 인간의 목소리 전달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사람은 비록 내가 택한 자이긴 하지만, 너희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그 자체에 신성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내 말씀의 대변자일 뿐이며, 비록 그들의 영혼이 고양되어 아버지와의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피조물이다. 교훈의 말씀을 예리한 귀로 경청하여, 그것이 너희

뇌를 흐림 없이 스쳐 지나가게 하라. 그 후, 빛줄기처럼 그 말씀이 너희 마음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신성한 의미가 영생의 양식으로 너희 영혼에 닿을 것이다.

54.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55. 나는 너희가 전통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나,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고 본보기와 가르침을 주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 기억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서 축제를 벌이라. 그러면 그 길 위에서의 너희 발걸음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56. 1866년에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다시금 율법을 선포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영적 시대를 열었고,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약속을 실현하였다. 그때부터 나의 성령은 하늘의 장막에서 내 광선을 통해 내려오고 있으며, 나의 천사들의 목소리도 땅에서 들리고 있다.

57. 지금은 제3의 시대로서,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계명들과, 제2의 시대에 예수로서 너희에게 주었던 사랑의 가르침(이는 이전의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이었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때이다. 이제 이 시대에 나는 너희가 영혼의 상향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등대이자 구명정,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는 사다리로 너희에게 준다.

58. 나는 너희가 훌륭한 영성가로서, 너희가 모세파인지 기독교인인지 묻는 이들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한다.

59. 첫 번째 시대의 율법이 너희에게 계시되기 전, 너희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미덕을 권면하고, 나의 진리와 의를 드러낸 사람들, 즉 내가 선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통해 용기를 얻었도다.

60.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정의와 선하심을 지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켜낸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구체적이고 확립된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아버지께서 - 그들이 이교와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시고 - 자신의 품에서 굳건한 영을 지닌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 살아 있는 바위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 사람은 모세, 즉 해방자이자 율법 제정자였으며, 주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큰 사랑으로 수많은 백성을 적합한 땅으로

이끌어 성소를 세우고, 살아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61.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영성화를 일깨워 주었음을  
깨달아라. 시나이 산에서 율법이 선포됨으로써 인류의 첫 시대는  
절정에 달했다. 그 첫 번째 사자는 마치 사막의 별과 같았으며,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고, 조연자이자 율법 제정자였으며,  
배고픔이 느껴질 때의 양식이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고독 속에서 자비로운 동반자였으며,  
백성을 이끌고 그들이 갈망하던 땅의 문 앞까지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62.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백성 가운데서 인류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 이후로 이미 수 세기가 지났습니다.

63. 그것은 인간들 가운데 태어나 그들에게 ‘생명책’의 두 번째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 사신 신성한 스승의 도래를 기다리던  
백성에게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64. 너희는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어, 그분의 말씀과 행실로 새로운  
시대, 영혼을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러 오셨다. 제2의 시대와, 내  
수난으로 절정에 달할 때까지 내가 내 말씀과 기적, 그리고 모범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쓴 사랑의  
율법 두루마리였다.

65. 이제 제3의 시대에 엘리야는 성령의 사자이자 선구자로서  
자신의 영을 드러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1의 시대의 예언자 엘리야가 있다. 그는 바로 그 후 타보르  
산에서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변모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다.”

66. 엘리야는 제3시대, 즉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열쇠를  
가지고 있다.

67. 이제 너희는 사도들조차도 나의 계시 중 일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68. 엘리야는 하나님의 광선이며, 그 빛으로 너희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속박인 이 시대의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며, 너희 영혼을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69. 너희가 율법과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은 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라.

70.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빛의 시대였으며, 이 시대를 통해 과거의 계시들이 설명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71. 그러나 대변자의 지성을 통해 내가 계시하는 이 시기는 곧 지나갈 것이며, 그 후에는 은혜와 영성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준비된 자는 영적인 방식으로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2. 내 왕국이 일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고, 유혹이 몰아내어지며, 사람이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은 위대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자비로 받아들이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지혜로 채워 줄 줄 알게 될 것이다.

73. 너희는 오늘, 1950년 이후에 내가 온 세상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노니, 너희는 영의 은사와 능력이 육체의 감각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인류는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37

1. 제자들과 학습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끈기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불러 영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겠다고 예고했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1866년에 시작되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의 첫 빛을 경험했다.

2. 1950년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 말씀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더 높은 언어, 즉 영의 언어로 너희를 계속 가르칠 것이다.

3.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면 모범을 남기게 될 것이며, 너희 뒤를 이어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할 이들이 올 것이다. 너희는 참된 기도를 가르치고, 사랑을 설교하며, 너희의 행실로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열방이 너희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은 깊은 성찰과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심각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에게 내려가서 나의 모든 자녀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리라.

4. 오, 인류여, 너희는 내 말씀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 너희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너희 영혼을 비추기 위해 왔으며, 세 번째로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가 마음을 열고 이 ‘방랑자’를 들여보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모든 이에게 남겨주기를 원한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내 말씀이 치유의 연고처럼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나의 빛이 너희의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니, 너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너희 곁에 함께하리라.

6. 나는 모든 내 자녀들을 대(大) 우주 심판에 모을 골짜기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완전함으로 심판할 것이며, 나의 사랑과 자비가 인류를 감싸 안을 것이며, 그날 너희는 모든 악에서 구원과 치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의 잘못을 속죄한다면, 너희 영혼이 정화되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 각자를 위해 마련해 둔 유산을 나로부터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7.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아들로 준비시킨 것은, 그들이 항상 인류에게 나의 신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사자로서, 입술에는 ‘‘를, 마음속에는 나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8. 너희는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며, 왜 넘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 빛이 너희의 존재를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닫혀 있던 너희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그곳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의 흐름이 솟아날 것이다.

9. 나는 저 세상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영혼을 고양시키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아직 성장의 길을 조금 더 걸어야 한다. 너희의 아버지인 나는 너희의 나날을 달콤하게 해 주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리라.

10. 이 시기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 잠들어 있던 자들은 그 사건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언자들의 책, 곧 너희 하나님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든 시대의 내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제자로 삼을 것이다.

11. 인류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모두는 새로운 날의 빛, 곧 그들에게 평화와 이해,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을 가져다줄 새벽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빛은 근본 원리에서 왜곡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힘이다. 그들은 또한 불완전함을 바로잡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죽은 자”에게 부활을 선사할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12.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빛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13. 나는 너희가 훼손해 온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너희를 돕겠다.

14. 내 말씀이 널리 퍼질 그 가까운 시기에,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지 마라.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준비한다면, 너희에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끝없는 빛의 세계를 보여 줄 것이며, 나의 진실함, 지혜, 그리고 성실함 이 반영된 나의 가르침의 단순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15. 너희는 그들에게, 이 시대에 내가 오심으로써 과거에 주어진 예언들과 나의 약속들이 성취된다고 말할 것이다.

16. 엘리야가 내 신성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내 앞에 왔음을.

17. 그가 영혼들을 기도와 모임으로 부르며, 성령의 때가 왔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18. 너희가 익숙해져 온 이 모든 가르침들은 너희 동료 인간들에게 큰 계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존재 속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심금을 울릴 것이다.

19.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내 영의 계시, 엘리야의 도래, 조언자로서 영적 세계의 현존 -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며, 그들도 또 다른 영적 계시들을 목격하여 내 말씀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20. 오늘까지 이론 것에 만족하지 마라. 덕을 실천한다면, 내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 영혼이 발전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르침을 계시해 줄 것이다.

21. 잠시 쉬어 가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스승의 말씀을 경청하고 깊이 음미하라.

22. 너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성적 능력 안에서 내 말씀을 전할 은총을 받은 이들은 기꺼이 그 일을 행한다. 영성주의, 즉 이를 받아들이는 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가르침을 이해한 제자들은 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3. 너희는 여전히 내가 아직 ‘스승’이라 부를 수 없는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나의 가르침을 해석하되, 그 의미와 단순함을 기초로 삼으라. 너희의 해석으로 인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해석이 통일되도록 노력하라.

24. 너희는 가는 길에서, 너희가 진리의 영의 제자임을 알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때 너희는 영혼이 더 이상 인간의 육신에 살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 거하게 될 때 겪는 변화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직 그 삶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언제나 인간을 사로잡아 온 생각이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식과 이해에 대한 그 영적 욕구를 이용해, 선의의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무지에서 이익을 취해 왔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완전히 확신하며 말할 수 없다. 그곳에서 영혼이 어떤 성질을 띠는지, 그리고 다른 삶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5. 인간의 이성만은 아직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오직 고차원적인 영만이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분간은 무한한 빛을 담고 있으며 너희의 영적 미래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는 나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밝혀 준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라. 그 신비들에 대한 설명을 상상력에 맡겨 마음대로 펼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기이한 이론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6. 나는 너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모든 계시를 설명해 준다. 당분간은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 이상으로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 삶에 대해 내가 계시한 것 이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 삶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것이며, 신비주의나 과장된 열광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무익한 명상 속에 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7. 많은 이들이 영혼의 고향을 탐구하려 했으나, 허용된 범위를 넘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어떻게 소통하는가?”라고 묻는 이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너희 자신의 영혼이 그러하듯이, 너희의 이성과 직관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28. 이 시대와 “제2의 시대”에서 나의 가르침은 인류를 뒤흔들 것이다. 위선자들은 진실성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거짓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은 빛을 발할 것이다. 진실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짓을 이겨낼 것이다.

29. 인간은 이성과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나, 비록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믿도록 강요받았던 모든 것은 스스로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은 동료 인간들에게 이 일의 시작과 목적을 드러냄으로써 이 일의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30. 이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보물이며, 너희가 나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책임은 크다. 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자들의 책임은 그보다 덜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한 채 행동하는 반면, 너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완전한 확신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위험을 예감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한 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악하게 행동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

31. 육신이 자기 뜻대로 하려 할 때, 너희 영혼의 힘과 우월성을 증명하라. 지식을 얻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눈앞에는 영혼이 내딛는 매 걸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이기적으로 덮어두고, 자신을 다스리거나 이끄는 데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 여러분의 행실이 가르치려는 것과 정반대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에서 넘어진다면, 어떻게 동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힘조차 없다면, 어떻게 넘어진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동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32. 너희 안에는 언제나 진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3.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낸 이가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34. 내 발에서의 일은 힘들지만, 보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5.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밑에 심연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일단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6. 너희에게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를 모아, 사막을 횡단하는 내내 너희의 양식이 되게 하라.

37. 여기가 오아시스입니다, 여행자여. 이 야자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며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으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38.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을 품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9.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백성이 되어야 하며, 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0. 수많은 유혹과 박해, 그리고 교활한 음모가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가시를 뿌리는 것을 즐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고, 단합을 유지하며,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꾸준히 매진한다면, 이 모든 것을 뚫고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41. 이곳의 이 백성은 날마다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무리가 너희에게 크게 보일지라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증언하는 시기에 내가 떠난 후 모일 자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4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주님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소식은, 너희가 하나됨과 형제애를 통해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준비해 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증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때 비로소 퍼져 나갈 것이다.

43. 나는 너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극한 완전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내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너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약간의 자비만을 기대한다.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한 걸음을 확고히 내디뎠다면, 나는 너희가 광야에 머무르지 않도록 더 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요청할 것이다. 그곳은 너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너희 영혼은 성장해 나가며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축복받은 약속의 땅을 찾게 될 것이다.

44. 결코 “나는 많이 싸웠지만, 아무도 나의 노력과 희생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발걸음을 보고, 너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이웃으로부터의 이해나 완전한 정의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신뢰하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을 결코 그 수준에 그치지 않게 할 것이니라.

45. 또한 너희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어떤 열매들은 이미 이 생에서 인간으로서의 삶 속에서 쌓은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반면 영적인 공로들은 너희가 내세에 도달할 때가 올 때까지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46. 오, 백성들아, 너희의 이성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너희가 신성한 말씀의 영감을 이해하고 나중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

47.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그릇처럼 겉과 속을 깨끗이 씻은 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순수하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고자 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내 말씀의 영적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해한 뒤,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8. 너희의 신앙과 이상, 그리고 정신적 상태가 어떠하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화합을 실천하고 용서도 베풀어라. 남의 일에 간섭하여 판단하려 하지 말라. 그러나 중보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49. 나는 너희의 이웃 사랑을 시험해 보았다. 나는 병든 자, 슬픔에 잠긴 자, 그리고 이 시대의 큰 고통으로 지친 자들을 너희 길에 두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를 갖도록 너희 가족의 품에 무수한 시련을 내려주었다. 너희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부모나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낯선 사람들과 너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를 위해서도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50. 고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위로를 찾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그들은 나를 찾고 있다. 나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적절한 시기를 알고 있다. 아직 나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이 많으니, 나는 그들이 나의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것이다.

51. 나의 사역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안의 모든 것은 영적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질적인 현현을 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일어나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너희를 감싸는 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기를 청했을 뿐이다.

52. 내가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 곧 믿음의 눈을 준비해 두었으며, 너희 마음의 감정을 순수하게 보존하여 이를 통해 나를 섬기게 하였다. 너희의 은사는 아직 감춰져 있으나, 내 말씀이 그것을 깨워 너희가 사명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53. 내가 너희 주변에 두신 모든 것은 완전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행복하지 않고, 너희의 운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삶을 깊이 탐구하지도 않았고, 너희의 진정한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각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너희에게 허락하는 선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54.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순수해지며 내게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어 과오를 만회하게 하였다. 너희는 제2시대의 예수님처럼 가시로 뒤덮인 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아 싸우는 법을 배우고, 너희가 거둔 모든 승리 후에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모든 것은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에 따라 창조되었으니, 나는 아버지이자 자신의 결정에 결코 양보하지 않는 엄격한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55. 사랑하는 백성아, 내 뜻을 이루게 하라. 내 법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평화와 영적 영광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56. 여러분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 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희의 발전 과정은 길기만 한데, 이는 너희가 끊임없이 멈춰 서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자기 부인과 사명 완수를 향한 바른 길을 걷는다면,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며,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 영적 은사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57. 나의 사역은 자유를 기초로 한다. 내가 너희 영혼을 비추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특별한 피조물이며, 너희 안에 내가 나의 은총의 선물을 두었다.

58. 너희가 올라갈 사다리는 거대하며, 너희는 자신이 어느 발전 단계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너희가 걷는 길은 너희의 발전 단계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은 변함없고 영원한 법칙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법칙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59.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는 성전은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나에게 닿을 때까지 높이 치솟고자 하는 인간의 믿음, 곧 사랑의 성전이다. 너희가 놓는 견고한 기초 위에 후세들이 건축할 것이다.

60.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사역과 나의 말씀을 보여 줄 때, 후세 사람들의 기쁨은 클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나를 간절히 찾았는가! 나에게 이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영적인 길을 찾아 영혼을 양육하고 완성할 수 있는 근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 방식에서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룰 것인가! 그들은 내 말씀을 갈망하며 겪은 일들에 대해 증언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기다려 왔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예언으로 미리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사역의 일부를 그 한 완성을 위해 너희에게 맡겼으며, 너희가 이를 일단 완수하고 나면, 너희의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만족감에 미소를 지을 것이다.

61. 쉬어라. 너희 영혼이 양분을 얻도록 허락하라. 내 임재를 느낄 때 너희 심장이 더 빨리 뛰도록 허락하라.

62. 나는 너희가 멈춰 서지 않도록 그 길에서 너희를 격려한다. 나는 누가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했는지, 누가 시간을 낭비했는지, 그리고 누가 영적 발전의 길에서 게으르게 걷고 있는지 아는 분이다.

63.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보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4. 나는 너희가 다시 지상에서 살아갈 이 시기에, 스승이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분을 만나게 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선한 본보기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무지와 우상 숭배, 종교적 광신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그 본보기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5. 나는 너희의 겸손한 입술이 너희 말의 빛과 심오함,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킬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자, 나의 사자이며, 또한 나의 길을 닦는 자들이다.

66. 내가 때때로 너희를 바로잡거나 심지어 꾸짖는 것은, 정열이나 격랑, 혹은 불운이 잠시 동안 너희 이성의 빛을 가리고, 너희를 오도되거나 물질주의에 빠지거나 냉담한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67. 나의 자비는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너희가 이 삶의 여정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너희 눈의 무지의 장막을 모두 걷어내 주었다. 죄를 지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눈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68.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너희는 그 불꽃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69.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말해 주마:

70. 시련의 순간에 마음이 낙담하지 않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평화가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나와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이며, 건강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안식처와 이 등대를 찾는 자는 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71. 이 미덕을 지닌 자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며, 영과 더 높은 삶을 증거한다.

72.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불신자들이 너희를 흔들리게 할 수 없으며, 비방도 너희를 상처 입힐 수 없을 것이다.

73. 나는 너희 안에 믿음을 복돋우고, 시련을 통해 너희를 강하게 하여, 너희의 믿음으로 양육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모으게 하려 했다.

74.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육신들 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불완전함에 거슬림을 느끼고, 그 결점을 나의 사역 탓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입술이 말하는 말씀의 본질을 깊이 헤아려 보라. 그러면 그 의미와 본질 속에서 스승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75.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너희 마음속에서 예전에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나 돌에 새겨진 조각상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그 물질주의와 종교적 광신에 계속 빠져 있게 될 것이다.

76. 말씀의 진의를 간직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 그 말씀은 너희를 고양시키고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38

1. 사랑하는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을 갈망하며,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소를 갈망하며 오리라. 그것을 나를 위해 닫아두었던 자들은 이제 영성화를 위해 그것을

열어야 할 때이다. 그 성소를 파괴한 자는 다시 세우고 견고하게 해야 한다. 그곳이 어둠에 잠겨 있는 자는 믿음의 빛으로 비추어야 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곳에 쏟는 헌신과 우아함, 예술이 너희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라고 생각하며 물질적인 성전을 짓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은, 오직 날씨의 혹독함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소박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오직 너희의 모임을 위해 마련된 이 장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 무지한 자들이 결국 그곳을 마치 거룩한 곳인 양 숭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예배에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도입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비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 즉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에서 멀어질 수 있다.

3. 겉모습과 내면 모두에서 소박함과 단순함을 갖추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 속에 영광으로 충만한 나의 임재를 갖게 될 것이다.

4. 나는 너희 마음속에 계시며 너희 영혼 안에서 살아 계신다.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신성한 현존을 느끼고 있는데, 왜 물질적인 사물로 나를 나타내야 하겠느냐? 만일 내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다면, 마구간이 아니라 시온 성전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마리아가 성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모든 신성한 지시에 충실하고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5. 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가 결코 사람들에게 걸치레의 숭배를 구한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서 오직 그들의 사랑과 고양, 믿음, 그리고 영혼의 열매인 모든 것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6. 한동안은 너희가 모임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이 장소들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남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아직 그곳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를 ‘로’ 가르치는 시간, 즉 너희가 준비되는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그곳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7. 믿음의 불꽃은 내 제자들의 영혼 속에서 점점 더 타오를 것이며, 모든 마음이 나의 제단이 될 것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예배가 될 것이며, 모든 가정에 성소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웃들에게 기도를 통해 그들의 영혼이 모든 해로운 것과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성전이 보편적이고 무한하며, 인간의 영혼과 육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 遍在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피의 제물을 바치던 시대가 지나갔듯이, 의례나 외적인 의식을 통한 신 숭배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성화는 너희의 인간적 환경을 정화할 것이며, 나의 가르침은 이해될 것이다.

8. 참된 기도가 올 것이며, 나의 신성한 시선에 기쁨을 드리는 고귀한 영적 예배, 즉 회개와 개선, 그리고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인 올바르게 이해된 참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마음의 순결을 바탕으로 한 참된 사랑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은 기도에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9. 오, 제자들아, 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라. 그러면 그 핵심에서 말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곁에 머물며 너희를 깨우쳐 주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리라. 이는 말씀을 전한 이의 이성이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오늘 나는 너희를 환영한다. 내 식탁에 앉아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나를 거부하는 자도 모두 받아들인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이므로,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11. 나는 죄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땅에 의인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내 왕국의 선물을 주며,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너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두겠습니다. 너희가 내 천국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너희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통해 그것을 얻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루며 곧 빛의 나라에 가까워질 것이다. 디마스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그의 회개와 믿음, 그리고 겸손함을 보고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나는 그에게 그날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제안했다.

12. 모든 인간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백성을 너희를 대표하는 자들로 여기노라. 언제 너희는

내면적으로 고양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가한 모욕을 용서하게 될 것인가? 언제 비로소 너희 행성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13.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만이 나의 가르침이며,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인을 덕을 갖춘 사람으로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14.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세상에서 평화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용서해야 할 일이 천 번이라도 있다면, 너희는 천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적시에 화해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고통의 잔을 마시는 일을 면하게 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15. 나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 고통을 점점 더 키우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넘쳐흐를 것이다. 나는 결코 내 자녀들에게 그런 잔을 건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의에 따라, 너희가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도록, 너희의 악과 교만, 그리고 경솔함의 열매를 거두게 할 수는 있다.

16.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나의 권능과 공의를 거스르었으니,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무자비할 것이다.

17. 원소의 힘들이 풀려나고, 우주는 뒤흔들리며, 땅은 진동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려 하겠지만, 도망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풀려난 힘을 다스리려 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너무 늦게 후회하며, 형벌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찾게 될 것이다.

18. 너희 백성아, 너희는 이 예언들을 알고 있으며, “성장”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9. 너희의 지팡이와 여행 가방을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예언자와 사자로 보내어 여러 민족을 경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또 다른 이들은 땅의 나머지 방위와 길들로 갈 것이다.

21. 너희가 이 시대에 내가 내 제자로 삼기 위해 임무를 맡긴 특권층이라는 생각에 자만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이 말을 하노니,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라. 선택받은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공로를 쌓아라.

22. 땅의 습기로 부풀어 올랐다가 결국 허무로 사라지는 벌레와  
같지 않도록, 모든 자만심을 떨쳐 버리라.

23.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매우 사랑한다는  
사실에만 안주하며 잠들지 말라. 비록 너희는 지극히 사랑받고  
있지만, 그만큼 큰 시련도 겪고 있다.

24.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사라지고, 혼돈을 살아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 일부만이 남을 것이다. 너희는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5. 너희 백성아, 내 지시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된 것을 이루어 주리라.

26.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사랑을 뿌리고, 빛을 전파하며,  
자비의 흔적을 남기라. 그러면 너희는 양심과 화해하고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27.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래야 나중에 이를 해석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말로 전하고, 본보기를 보이며, 행실을 통해  
가르쳐라. 감수성을 기르라. 그래야 말할 적절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너희의 *행실*이 내 가르침을 증거해야 할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파할 단 하나의 언어를 주리니,  
그 언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다. 이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언어로, 그들이 마음속에 쌓아  
올린 바벨탑을 돌 하나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게 될 것이므로, 나의 심판은 끝날 것이다.

29. 발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비옥하니, 백성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아서 이  
계시의 씨앗을 뿌리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30. 나는 너희 가운데서 살게 될 위대한 빛의 영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지구에 다가와 육신을 입고,  
회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영적  
존재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된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심오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과학자나 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마음에 새기게 할 것이다.

31. 그 품에 이러한 영적 존재 중 한 명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복이 있다. 내 사자들의 사명 수행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젊어지게 될 속죄의 짐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32. 이제 내가 왜 너희가 점점 더 정화되고 갱신되기를 원하는지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의 열매가 대대로 점점 더 순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3. 어쩌면 너희 가정이 바로 그 빛의 존재들을 맞이할 곳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너희를 택할 것이며,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는 적합한 마음을 찾아 그곳으로 보내리라.

34.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나의 예언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계시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며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일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5. 사람들이 부정해 온 모든 신성한 계시는 인정받고 믿게 될 것이다. 교회와 종파들이 잊어버리거나 숨겨 온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36. 너희는 너희의 모범을 통해 세상에, 영성과 존중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가르침을 깊이 헤아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사랑, 겸손, 존중 - 이것이 바로 영적 준비 없이 주님의 신비를 탐구하려만 했던 인류에게 너희가 가르쳐야 할 것이다.

37. 너희는 부모님의 침실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비들을 더욱 존중하라.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고 보여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희가 아직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 신비들을 파헤치기 위해 새로운 신비들을 요구하고 있다.

38. 인간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에 속하는 고등 과학, 즉 지혜를 배우는 제자들인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곧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했으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많은 새로운 계시를 접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9. 신성한 가르침인 나의 말씀은 항상 너희 삶의 시련과 사건들과 함께 찾아올 것이니, 이는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속에서 점점 더 확고히 자리 잡게 하고, 너희가 이론적인 제자가 아니라, 너희의 행실로 나의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40. 너희가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내 말씀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

41. 내가 때때로 영혼의 불멸이나, 너희가 삶과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들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때, 너희는 내 가르침을 들었던 그 순간에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너희 가정에 시련이 닥치고, 너희는 사랑하는 이를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했으며, 그제서야 너희의 눈이 현실과 진리의 빛을 향해 열렸고, 내가 모든 행위에 그토록 많은 완전함을 담아주셨으며, 너희를 무지와 오해에서 구해내 주신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했지.

42. 이성과 영으로 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너희 본질의 핵심에 집중하여, 영과 육체 사이에 오직 하나의 의지만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시련을 더 고귀한 마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43. 세상의 재물로써는 가난하지만, 위대해지려는 열망으로 내 말씀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내 길을 따라가면 그들은 그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내게서 배우기 위해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 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참된 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4. 오늘, 나의 정의에 대한 두려움도,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는 이 시기에, 나의 영이 빛의 광선 속에서 인류에게 내려오고 있다.

45. 너희는 겸손한 백성이며, 나의 현존과 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백성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며, 너희는 나의 계시에 익숙해져 버린 탓에 그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때때로 정의로 가득 찬 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너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이다.

46. 오, 제자들아, 명심하라. 지금 이 신성한 일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다면, 훗날 너희는 의무를 다하는 길 위에서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47. 지금 이 시기는 인류에 대한 시험이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피에 굶주리고 증오에 눈이 먼 야수들처럼 서로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작은 나라들은 슬픔과 파멸을 의미하는 전쟁의 징후를 두려워하고 있다. 가정은 어둠에 휩싸이고, 마음은 공포로

떨며,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이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

48.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진보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환상이 무너지고, 이미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가. 오, 백성들아, 지금이야말로 너희의 일을 시작하고, 세상에 너희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바로 그 때이다.

49.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고, 이 두려움의 시간에 나를 부르며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너희 마음을 하나로 합치라. 영혼의 적극적인 활동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에 대한 욕망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물질적 목표만을 좇아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라.

50. 공간을 순수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라. 그 생각 하나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곳, 즉 사람들의 생각이 진동하는 곳에서, 세상을 장악하려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파멸시키기 위해 싸우는 검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으라. 만일 기도가 무한한 공간 속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 동료들의 마음에 닿을 만한 힘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1. 너희의 생각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언제나 내게 닿으며, 너희가 항상 담아야 할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그 이유는 나의 영이 모든 존재의 진동과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심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오늘날 얽매여 있는 물질주의의 결과로 영적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서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영을 단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비록 그들로부터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혼들에게 “말하라”. 내일, 모든 이가 배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소통의 징후들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52.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간구를 받아들이노라. 반면 세상은 나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이성 속에 나의 신성한 생각이 빛나도록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할 때조차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나의 불꽃인 빛의 영혼과 나의 형상인 영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53. 만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신성한 뜻에서 비롯된 가장 위대한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4. 나는 너희가 영혼이 그 여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빛으로 가득 차 새로운 존재로 승화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55.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계시에서, 나는 단지 미래에 너희가 생각을 통해 아버지와의 소통은 물론 동료 인간들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가르침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처럼 순수한 일에 어울리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분께 다가가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56. 공부하고, 행동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마침내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이룰 것입니다.

57. 오늘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와, 제3의 시대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58. 오늘 너희의 고양은 컸으니, 이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다.

59. 지난 며칠 동안 두려움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았고, 너희는 ‘깨어’ 있었다. 지친 자들은 깨어났고, 연약한 자들은 회오리바람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무’를 갈망하며 일어섰다.

60. 내 자비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 지시를 따르고,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마다 내 말씀이 너희 입에, 내 빛이 너희 이성에서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너희의 불신이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마다, 모든 권세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을 보았음을 잊지 말라.

61. 너희 영혼은 노예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너희는 파라오의 멍에를 지극히 두려워한다. 너희는 세상의 자유를 사랑하며, 그 자유를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 너희는 전쟁과 피와 고통을 원치 않으며,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공로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명료함을 얻고, 스스로를 새롭게 하며, 조금이라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한다.

62.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으니, 평화는 오직 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63. 이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종교 공동체를 더 자세히 살펴봐도, 너희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소명받은 대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에는 평화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왕궁에서부터 가장 초라한 오두막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찾아보아도, 너희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니, 이 시대에 평화는 이미 이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64.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마음이, 이 소박한 모임 장소에서 내 말씀을 들을 때 왜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희 곁에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신성한 영이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65.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전하고, 용기와 믿음, 그리고 힘을 채워 주며,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에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인류는 이미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으며, 땅은 이미 사랑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곳곳으로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과학이 막아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세상을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자들은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들이 준비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66. 누군가 자신이 궁핍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옷이 낡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여 주저한다면, 그것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자기도 모르게 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67.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절하고 있느냐? 인간의 부가 여전히 너희를 감동시키느냐? 아니, 내 백성아, 인간의 삶에서 유일하게 위대하고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은 영혼의 상향적 발전이며, 내 말씀이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68. 지상에서 위대하고 강력했던 자들이 영적 보화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궁핍한 모습으로 내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하는가! 내 왕국의 진리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드러나지만, 학자들과 교양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들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도 세속적인 과학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허영을 위한 보좌와 다툼을 위한 무기를 찾으려 할 것이다.

69. 내가 이 비밀을 밝혀 준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단지 예전에 살았다는 사실만 알 뿐, 너희가 누구였는지는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앞으로 누가 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모르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

70. 태초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참 하나님을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교도와 우상 숭배자들의 한가운데로 보내어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증언하게 하셨다.

71. 그곳에서 족장의 가문은 번성하였고, 그의 자녀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며, 이들은 족속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땅의 왕은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번성해 가는 그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쇠사슬로 묶어 노예로 삼으며 강제 노역을 부과했다.

72. 그 시련은 컸고,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남자들은 일하다가 채찍 아래 쓰러졌고, 여자들의 마음에는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했다. 그 백성에게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힘을 증명하기 위해 굴욕과 비참함이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백성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신 아버지께서는, 또한 파라오에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기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분을 준비시키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가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서 파라오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의와 능력을 드러내라. 내 백성조차도 약해져서 나를 잊어버렸고, 이방인들의 관습과 신앙관에 그들의 마음이 물들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충실함을 지켜온 너에게, 나는 이 사명을 맡기노니, 네 백성 가운데 자유의 이상을 불태우고,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라. 백성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살인 무기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라.”

73. 그 사람은 백성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여러 번 파라오 앞에 나섰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이집트에는 재앙과 불행이 쏟아져 내렸으며, 고통과 파괴가 극에 달하자 왕은 모세를 불러 그와 그의 백성이 자기 땅을 떠나도록 허락했다.

74.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갈망하며 떠나자, 파라오는 그 남자가 진정으로 신성한 권능을 지녔음을 깨달았다.

75. 모세는 백성들이 여정 중의 궁핍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다져 주었다. 그 여정은 길고 위험천만하여, 많은 이들이 지치거나 노쇠하여 도중에 쓰러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 땅에 도달했다.

76. 그 땅은 그것을 정복한 이들에게 마치 새로운 낙원처럼 펼쳐졌다. 그곳에는 평화와 풍요, 그리고 풍족함이 있었고, 드넓은 계곡과 수정처럼 맑은 물, 맑고 화창한 하늘이 있었으며, 그 백성은 그곳에서 번성했다. 그곳에서 참된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경배가 꽃피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 백성이 바로 그 축복의 땅 한가운데서도 유혹과 우상 숭배, 그리고 분열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력을 잃고 다시 이교도들과 권력에 탐닉하는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게 되었다. 그들이 기도하고 나를 찾던 동안에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쾌락과 허영에 빠져 나를 잊을 때면, 그들은 나의 은총을 잃었습니다.

77.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영감을 떠올려 보라. 그들의 왕국은 위엄이 대단했으나, 유혹에 빠지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78. 그 백성은 다시 이방 민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는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백성은 여호와와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셔야만 했다. 그 말씀은 백성에게 구세주이자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었다. 메시아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구원하고, 영적 고향인 천국, 참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길을 세상에 가르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79. 새로운 해방자는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온유함을 가르치셨고, 종의 신분으로 자신의 백성을 만나셨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치시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다.

80.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 꼭대기에서 그 그림자만 바라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맞이하실 천국을 바라보셨습니다.

81.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나라와 지방, 제국을 가로질러 그들은 추적당하고 박해받았다. 채찍질과 순교, 그리고 피의 흔적이 그들의 길 위에 솟아올랐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두려움 없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사형 집행자의 손은 그리스도인의 굳건한 신념과 믿음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떨었는가! 통치자들조차도 그들 앞에서, 혹은 주님의 이름을 입에 머금고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영감 어린 말씀을 들을 때면 얼마나 자주 전율했는가.

82. 예수님의 발자취는 피로 물들었으며,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따랐던 길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수많은 기적과 사랑의 희생으로 정복되고 굴복했던 사람들의 영혼에 마침내 빛이 비추어지자, 그 투쟁은 끝이 났다.

83. 나의 말씀이 열방에 울려 퍼졌고, 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으며,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느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스도는 왕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도 사랑받았으며, 그분의 임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졌다. 민족들이 하나둘씩 다가왔고, 많은 적대감이 사라졌다. 그 후 내 이름은 모든 언어에서 사랑으로 불리게 되었다.

84. 그러나 파라오를 물리치고 사막의 시련을 견뎌낸 그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후 예수님의 말씀만을 무기로 삼아 희생적인 죽음으로 세계 제국과 정권을 무너뜨린 자들은 또 어디에 있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 땅에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잊혀졌고, 나의 율법과 가르침은 왜곡되었다. 그래서 나는 충실하고 겸손하며 이타적이었던 영혼들을 다시 지상으로 보내어, 나의 오심과 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이 백성을 단 하나의 인종이나 단 하나의 국가로만 구성하지는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85. 너희가 누구인지 밝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뿐이며, 나는 말해 주마. 내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밝혀 주고,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리라. 너희는 그 강인한 민족의 씨앗이며, 영의 평화의 왕국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 생에 왔으니, 마치 너희가 다른 시대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사막의 고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말이다.

86.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을 보여주고, 너희의 은사를 드러내어, 그것들이 너희가 밭을 일구는 농기구이자, 너희가 싸우는 무기가 되게 하리라.

87.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계속 노예로 남고 싶으냐? “아니오”라고 너희 마음이 내게 말하느니라.

88. 나는 여러 대변자들을 통해 땅에 큰 혼란이 닥칠 것임을 너희에게 예고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임에도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했기에,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전쟁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져야만 했다. 그들의 자녀들이 무기를 들도록 소집되어야만, 그들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 말씀을 믿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89. 깨어 기도하고, 너희 아들들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의 전사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90. 엘리야가 너희와 열방을 앞서가며 길을 평탄하게 하고, 진리의 빛으로 영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91. 내 말씀을 분별하고 깊이 탐구하여 그 신성한 본질을 발견하라.

92.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내 축복을 너희에게 남기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 가르침 239

1. 나를 느껴 보라. 나는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느니라. 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아무도 너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믿음의 빛은 저절로 타오를 것이며, 그 빛은 너희의 사랑을 드러내 줄 것이다.

3. 너희는 이 지상의 골짜기에서 내가 이성의 은사를 부여한,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며, 나는 너희를 내 권능의 작품과 피조물, 그리고 그 현현들로 가득 찬 광활한 세상 한가운데에 두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4. 나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사상의 자유를 허락했으나, 인간은 언제나 노예였으니, 때로는 광신주의에, 때로는 파라오와 황제의 그릇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이 얻고 있는 자유와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명료함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그 자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부셔하는 이유이다.

5. 인간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약화시켰고, 그 때문에 광신주의에 빠지고, 비뚤어진 길을 걷게 되었으며, 타인의 의지의 그림자처럼 되어 버렸다.

6. 그는 자유를 잃었고, 더 이상 자신이나 자신의 생각의 주인이 아니었다.

7. 그러나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 - 진리를 갈망하며 무한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 족쇄를 끊고 날개를 펼치어야 할 때이다.

8. 영성화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듣고 이 해방적인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한 이들은, 자신들 앞에 드넓은 계곡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때가 왔음을 위해 싸우고 이를 증언할 것이다.

9. 전능과 지혜, 완전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비참함과 무지, 죄로 가득 찬 인간 피조물 사이에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그 직접적인 연결을, 내가 실현하였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10. 누가 인간이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너희는 이것이 오직 의인과 예언자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환상에 눈이 멀어 엎드려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던 자들이며, 기도가 너무나 깊고 간절하여 황홀경에 빠져 신성을 엿볼 수 있었던 자들이었다.

11.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는 것만을 믿는 데 그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삶을 끊임없이 예감하고 있다.

12.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매우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너희와 같은 인간의 이성을 빌려 이 가르침을 전한다. 죄 많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줄 안다면, 내가 그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3. 내가 너희의 꿈속에서 말할 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너희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내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내가 그와 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느냐? 너희 안에는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초월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신의 형상인 영적 영혼 외에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14. 깨어나라, 백성들아, 나를 깨달아라. 나의 가르침과 너희의 영적 영혼에 전념하라.

15. 나는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가르침은 너희를 기다리는 하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를 강하게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계관과 교리의 혼란 속에서도 너희가 평온을 유지하며,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16. 어떤 이들은 내가 사람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뜻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스승이셨다. 처녀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신 ‘순결한 신랑’이시라.

17. 내가 이미 떠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재림을 준비하려 애쓰는 종교 공동체들이 있다.

18. 나는 모든 이를 부르셨고, 진실로 나의 부르심과 내가 현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문은, 나를 증언하는 증거들과 함께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에 퍼져 나갔으니, 그것은 회개한 죄인들, 믿음을 갖게 된 불신자들, 부활한 “죽은 자들”, 치유받은 불치병자들, 그리고 악령에서 해방된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19. 그러나 나는 많은 이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명성에 취해 있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진리의 영으로서 나의 계시를 알리기에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내게로 와서 나의 사랑을 신뢰한 모든 이를 받아들이고 가르쳤다.

20. 너희가 이 샘으로 왔을 때, 너희는 모두 세상에서 묻은 먼지를 씻어내어, 식탁의 떡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었고, 내 율법의 두루마리를 더럽히지 않게 되었다.

21. 세상에 심판이 온전히 느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행위와 말, 그리고 생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자들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나의 신성한 저울에 달릴 것이다.

22. 그러나 정의와 보복을 혼동하지 말며, 배상과 처벌을 혼동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함으로써, 그 맛과 효과를 통해 그것이 선한지 해로운지, 너희가 선을 뿌렸는지 악을 뿌렸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뿐이니라.

23.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 흘린 무고한 피, 과부와 고아, 비참과 굶주림을 겪는 추방자들의 슬픔과 눈물 – 이 모든 것이 정의를 외치고 있으며, 나의 완전하고 사랑이 넘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의가 모든 이에게 내려질 것이다.

24. 나는 사람이 나를 거스르는 데 사용하는 그의 왕좌와 오만, 그리고 권세를 빼앗는다. 나는 그에게 그가 나의 자녀이며, 내가 그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나의 왕국은 겸손한 자들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그에게 유산으로 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25. 항상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나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26. “일꾼들아”, 너희가 내 밭에서 거둔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내가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하라.

27. 어떤 이들은 냉담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내게 묻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며 내게 감사한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전에 불모지였던 밭을 가꾸기 위해 오늘 너희가 기울이는 수고는 너희 영혼에 평화와 기쁨을 줄 것이다.

29. 지친 이들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정신적 능력이 흐트러진 이에게 이성의 빛을 주었을 때, 너희 마음은 어떤 평안을 경험했느냐.

30. 너희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꽃피우는 데는 분명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전은 너희의 현재 물질적 삶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 중에는 인류의 만아들이라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믿음의 부족이 너희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31. 지금 너희는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낸 제3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계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찾고 기다리는 법을 아는 모든 이에게 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32. 내가 한때 광야로 물러났을 때, 나는 인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고통받았다. 나중 예 땅이 열려 내 육신의 무덤이 되었을 때도, 나는 내 자녀들과 결코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안겨준 죽음 너머에서, 나의 영은 모든 이 안에서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해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33. 내가 1950년 말에 나의 말씀이 끝나고 나의 영적 세계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영적 종들도 계속해서 너희의 삶을 지켜보시며, 인류와 길을 잃고 빛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헌신하실 것임을 깨달아라.

34. 보라,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성약을 유산으로 남기노니, 이는 내가 거하는 너희 마음의 성전에 그것을 간직하게 하므로 결코 변조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너희 안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잃을 수 있겠느냐?

35.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할 것이며, 그 중에서 어떤 것에서는 의를, 어떤 것에서는 지혜와 교훈을, 또 다른 것에서는 위로와 치유, 그리고 어떤 것에서는 예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은 법이자 계명이며, 길이자 목표이며, 사랑이다. 깨어 있으라. 투쟁의 시기에는 유혹이 너희 발걸음을 노리고 있을 것이니, 갱신을 향한 너희의 결심과 내 가르침에 대한 헌신이 클수록,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소리와 외침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에 굳건함을 주어, 훌륭한 군인들이 지닌 용기와 힘을 얻도록 하라.

36. 모두 내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을 느껴라.

37. 사랑하는 제자들아, 스승 곁에서 쉬어라. 너희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몸을 단련하라.

38. 나는 인종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내 빛을 비추나니, 마치 내가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게 위대한 영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인류가 나의 신성한 메시지와 율법, 예언, 계시를 받게 하였듯이 말이다.

39.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나 또한 사람이 되어, 너희가 나를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였노라. 비록 많은 이들이 예수 안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훗날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노라.

40. 나는 다시금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나 사람이 되는 대신, 이제 나는 그를 통해 나를 드러낸다.

41.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길에서 벗어나, 연약하고 병들며, 지치고 무관심한 상태로, 과학이 너희에게 허위의 위대함을 부여한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이 세기의 영광 한가운데서도 내면에 평화를 찾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며, 마음의 양식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원한 분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평화와 사랑의 새로운 사도들이 언제 이 땅에 올 것인지 물었다.

42.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듣기 위해 불러 모은 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이유이다. 그들은 나에 의해 파수꾼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43. 인류가 용서와 위로를 갈망하며 창조주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제2시대의 예언 중 하나가 성취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나의 빛을 구원의 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빛이 그들의 발걸음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44. 이미 오랫동안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쉬지 않고 울려 퍼지며, 모두를 모임으로 초대하고 있다.

45. 나는 너희 마음속에 슬픔을 본다. 너희는 불신과 무관심, 조롱을 마주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느끼기에 그것들은 마치

가시와 같은 것으로 너희 마음을 찢어 뚫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고통을 너희의 가족, 형제자매, 심지어 친구에게서 받았기 때문이다.

46.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니, 그들도 나중에 너희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원한이나 분노를 품지 말고, ‘깨어’ 있으며 준비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다.”

47. 너희 영혼은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 내 식탁에 초대받았다. 여기, 이 식탁에서는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첫 번째도 마지막도 없으며,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자리는 스승 곁에 있다. 나중에, 너희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로 나아갈 때, 너희 마음속에도 이웃을 맞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만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다가올 것이며, 너희는 지구의 위대한 민족들에게로, 또한 미미한 지역과 작은 마을들로 이어지는 길을 향해 나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이 바로 여러분의 씨앗을 받아들이 준비가 된 비옥한 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8. 나의 작별이 예정된 1950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해가 지나면 너희 가운데 준비의 시간이 시작되어, 그제야 너희는 길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각자에게 그 시간을 분명히 알려 줄 것이다. 너희가 사명을 시작할 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믿음에 굳건하며, 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의 일상적인 일에는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나의 영감이 함께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를 기다려 왔는지 보게 될 것이다!

49.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내 계시와 영계의 계시를 통해, 너희의 이성 능력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해야 할 수 없는 자비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제1의 시대에는 나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제2의 시대에는 나의 사도들을 통해 말했었다.

50. 오늘 나는 다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다른 때에 너희에게 주었던 가르침 중 잊혀진 부분을 거두기 위해 왔다.

51.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과거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노라

52. 나는 이 시대에 여섯 번째 장을 펼쳐, 사람들이 마땅히 ‘빛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혜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드러내 보이는 그 책이다.

53. 너희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세상에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은 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였으며, 너희를 가르친 것은 나의 말씀이었고, 너희가 본 빛은 바로 여섯 번째 봉인이 발산한 빛이었다고.

54. 한 시기와 한 단계에서 다음 시기와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나는 너희의 영 앞에 점점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나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지 깨달으십시오.

55. 지금까지 너희가 진리와 평화, 고양을 찾기 위해 나를 찾으려는 동기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56. 너희는 갈증과 고독, 궁핍, 불행, 굶주림, 지침을 경험하기 위해 거대한 영혼의 사막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는 생명을 주는 물을 찾아 나서고, 오아시스를 찾아 나섰으며, 평화의 땅으로 이끄는 그 흔적을 갈망하게 되었다.

57. 너희 삶의 사막이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보여주었는가! 너희는 삶의 투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으며, 고통 속에서 얼마나 강해졌는가! 내일, 여러분이 영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려 평화의 품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시련과 평화의 광활한 사막을 횡단했던 그 시간을 속죄의 시간으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58. 모세는 사막을 횡단하는 내내 백성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했으며, 여호수아는 수많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의 영에게 약속된 영원하고 참된 고향의 상징이자 표상에 불과했습니다.

59. 이제 엘리야가 백 배나 더 많은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게 앞서 나아가, 사막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를 순례의 목적지인 의인들의 고향, 참된 사랑과 참된 지혜로 가득 찬 영혼들의 고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60. 무엇이 너희를 그 약속된 왕국에 더 가까이 이끌어 줄지 아느냐? 바로 너희의 사랑과 자비와 겸손의 행실들이다.

61. 오늘날 내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온 세상에 말로 설교하고, 내 가르침이 그들에게 불어넣은 빛을 그들의 행실로 증언하는 영성가들이 나타나면,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마침내 연합하여, 영성화의 보루이자 아버지의 율법을 진정으로 해석하는 자가 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62. 나는 이 시대에 나를 따를 모든 이들을 나의 빛으로 표징하리라. 나의 빛은 영에서 영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63. 제2의 시대에는 영혼들을 비추기 위해 내 희생의 죽음을 통해 흘린 피가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64. 첫 번째 시대에는 무죄한 어린 양의 피로 집의 문설주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그 순간부터 내가 신적 계시의 길로 인도한 그 백성을 위한 아버지의 계명이었습니다.

65. 세 시대에 걸쳐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라야 할 자들을 확실하게 표식하셨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나의 사랑의 인장은 모든 영혼에 영원히 훼손될 수 없이 새겨져 있다.

66. 이 시대에 나를 들을 은총을 받은 제자들아, 내 가르침을 듣고 깊이 묵상하라. 훗날 너희는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설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67. 내 말씀이 모든 나라에서 인간의 대변자들을 통해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제자들아, 이 대변자들을 통한 나의 선포가 잠잠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나를 듣게 될 한 민족이 증인으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내 가르침에 대해 전하는 증언과 해설은, 사람들이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받아야 할 준비가 될 것이다.

68. 보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경전을 탐구하고, 선지자들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해 하신 약속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69. 그들이 “스승님이 가까이 계시다” –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또는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분의 재림의 징조는 분명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이는 것을 들어보라.

70. 어떤 이들은 나를 찾고 부르며, 어떤 이들은 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은 영 안에서 나의 오심을 예감한다.

71. 아, 만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지극히 높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고 있었다면!

72. 많은 이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내 말씀의 완성이 이미 가까웠다는 사실은 더욱 알 수 없다.

7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백성은 은밀함에서 빛으로 나와 내 오심을 증언할 것이다.

74. 나는 사람들이 오늘 당장 이 백성을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찮고 불완전한 행적은 사람들의 눈에 –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대신 – 내 가르침이 선포하는 영성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75. 세상이 너희의 배은망덕함을 본다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너희의 태만과 이기심을 본다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76. 이 백성 중에서 사자와 선교사, 사도들이 나서서 부족과 주, 마을, 도시, 그리고 나라들에 이 씨앗을 뿌릴 날이 올 것이며, 그들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를 드러내리라.

77. 내 진리의 증언을 전할 이들은 영혼이 강인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나는 그들을 통해 내 능력의 위대한 증거를 보여 주리라.

78. 내 일꾼 중 한 사람의 사랑의 증언을 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길을 떠나 내 메시지를 전파하며 다른 나라로 가서 빛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 영성화로 마음과 민족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79. 그 싸움은 거대하고 치열하겠지만, 그 당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 전에 땅은 흔들릴 것이며, 이는 씨앗이 그곳에 닿았을 때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0.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증언을 가지고 길을 떠나기 전에, 세계관 간의 전쟁과 종교 공동체 간의 투쟁, 교리 간의 싸움을 목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나의 정의가 임할 것이며, 그토록 큰 혼란 속에서 너희는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빛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81. 오, 백성들아, 이러한 두려움에 찬 질문들이 바로 너희가 올 적기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82. 너희는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겸손과 지식을 갖추고 올 것이며, 진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득 품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 목숨을 구하는 일이나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헤쳐 나가는 일보다는, 너희의 말과 사랑의 행실을 통해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것이다.

83. 제자들아, 너희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너희가 인류에게 내 진리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너희의 목숨이나 피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84. 시대는 변하고, 관습은 바뀌며, 사람들은 발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희가 전파할 가르침의 진리를 믿기 위해, 너희에게 사랑과 진실함, 그리고 도움의 의지를 증거로 요구할 것입니다.

85. 선포된 말씀이 오직 목숨을 바치거나 피로 인치어야만 믿어지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죽을 각오를 하는 대신, 너희의 삶으로 행실과 말과 본보기를 통해 진리를 증언할 준비를 해야 한다.

86. 오랫동안 이 백성은 나의 신성한 자비 아래, 내 말씀의 본질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보시고, 자비의 망토로 그들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감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둘러싸고, 내 가르침을 배워 너희의 잘못을 버리라. 이곳, 내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에서 너희의 감정이 고귀해지고 정화되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웃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87. 그렇다, 백성아, 세상이 너희를 바로잡거나 깨우게 두지 마라.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면, 그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88. 사람들에게는 연민과 자비가 없다.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무슨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남은 길은 진리와 영 안에서 준비하고, 자비가 있고 따라서 정의가 계신 너희의 주님이신 나를 신뢰하는 것뿐이다.

89. 보라,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계시를 전한 이후의 시기를 위해 너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때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3시대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내 영과 너희 영 사이의 완전한 교감에 가까워질 것이며, 이는 인류가 아직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교감이다.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들었던 목소리, 즉 천둥 소리와 함께 물질적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며, 오늘날 너희가 황홀경에 빠진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듣는 형태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형태나 수단 역시 주님께서 다른 시대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것들처럼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90. 이제 너희의 영적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고, 신성한 언어를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며, 너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소박하며 고귀한 경외심이 깃든 성소가 되었을 때, 너희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91. 백성들아: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하는 이 은총은 오직 너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것이 영적 영혼에게 속한 능력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능력이 꽃피면, 사람을 영적인 세계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한다. 오늘날 그 연결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화가 주는 준비를 갖추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 및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이 방식이 너희가 실천해 온 그 어떤 방식보다도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92. 영과 영 사이의 대화는 광범위하고 무한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 너희의 모든 능력과 은사의 발전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93. 그 안에서 너희는 영원한 지혜의 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 속에서 너희는 위대한 영감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직관은 너희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며, 치유의 향유는 저 세상에서 직접 너희 손으로 전해질 것이다. 오늘날까지 잠들어 있던 모든 은사가 잠에서 깨어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은 나의 사도 요한의 손과 같아질 것이며, 영감을 받는 그 순간에 신성한 음성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받아쓰게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너희는 그 목소리의 전달자가 미약한 표현 능력으로 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영성화의 시대를 여는 자들을 뒤따를 세대들이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빛나는 예언이 너희의 이성에 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94. 그 시대가 도래하여 너희가 수많은 군중에게 말할 때, 너희는 성령의 영감 아래서 말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람들이 그 영감의 근원에서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해야 한다.

95. 기억하라. 내가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말씀의 지혜나 내 행위의 의로움에 놀라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그러자 나는 그저 “네가 말한 대로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96. 너희가 나의 계시를 깊이 연구한다면, 그것이 1950년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자녀들을 비추는 일을 결코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매체를 통한 이러한 계시의 형태는, 내 뜻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분명히 중단될 것이며, 그 후에는 내가 너희의 영을 통해 계시될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97. 아무도 내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이 백성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 영적 세계가 그때 쉬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라. 너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그 날들이 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내면에서 스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은총이라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켜야 할 준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 삶의 길을 비추는 등대나 별과 같은 그 축복받은 존재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임을,

98.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고양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가 내 임재의 증거를 너희에게 주리라.

99. 깨어 있으라,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거짓 예언자로 자처할 것이니, 그들은 내 말씀의 핵심을 꿰뚫지 못한 자들이며, 영과 영이 대화한다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스승께서 저것을 명하신다고 말할 것이나,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100. 깨어나라, 제자들아.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중 누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며, 너희 가운데 거짓이 일어나게 하거나 누구라도 허영에 눈이 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하도록 가르쳤다.

101. 너희의 성장과 공로 덕분에 얻은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10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짓 예언을 하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거나 예언자가 아닌데도 예언자인 척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진리를 옹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무리에 다시 속하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10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백성아, 깨어나라. 위험한 시대가 너희에게 닥쳐오고 있으니!

104. 또한 너희의 예배가 낯설게 느껴지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지켜본 뒤, 너희에게 제단이 없고, 그림이나 상징, 의식이나 예식이 없다는 이유로 너희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의 예배가 영적인 것임을, 너희 마음속에 성소나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제물임을,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너희 양심이 알려준다는 것, 또한 너희의 기도가 영과 영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105. 너희가 분명하게 말하면, 너희를 조사하던 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진실을 말했고, 너희를 공격할 만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다.

106.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이들은 “영성주의의 제자”라고 불릴 것이니, 그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실로 이를 입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로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도 행실로는 그와 모순되는 자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자칭하면서도 평생 동안 상징이라 부르는 사물들을 숭배하는 많은 이들을 나는 봅니다. 그러한 모순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주겠다. 그들이 숭배 행위를 바로잡고 삶을 새롭게 하도록 말이다. 어떤 이들은 나의 부르심에 따르겠지만, 다른 이들은 광신에 눈이 멀어 반항할 것이다.

107. 나는 자신의 오류를 버리고 영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나는 우상을 경멸하는 자들과, 황금 송아지 주위를 맴돌던 자들이 물질주의를 버리고 영성화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108. 오, 백성들아, 너희 스승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자녀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이 세대들이 너희 과거의 광신주의 잔재를 물려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라. 그들의 영혼은 아직 육신에게 그 사명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먼저 그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스승께서는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바로 가족의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다듬어 그것이 영의 역사에 기초가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9.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한 여러분의 다정함과 지성, 그들을 이끌고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분의 사랑은, 그 세대의 도덕적·지적 본질을 다듬고 매끄럽게 만드는 조각칼이 될 것입니다.

110.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귀중한 유산은, 그들이 강인한 민족과, 단합되고 건강하며 형제애가 넘치고 모두에게 유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 가르침 240

1.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를 믿는 자는 그녀의 순결을 믿어야 한다. 그녀는 모든 여성  
중에서 여성으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흠 없는 완전함의 상징이

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연민과 사랑, 온유함, 그리고 순결의 귀감이 되어야 했다.

2. 그분은 모든 여성을 위한 완벽한 본보기이시니, 모든 여성의 사명은 어렵고 고귀하며, 자기 부정을 통해 희생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슴에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 깃들어야 하며, 그 자궁 속에서 인간이 형성된다. 여성은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우고, 아이의 감정을 선의 길로 이끌며, 아이가 울면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을 때 위로해 줍니다. 인간에게 첫 기도를 가르치고 창조주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어머니의 그림자는 인간 곁을 떠나지 않으니, 마치 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 때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고,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의 육신을 자신의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3. 여성의 영적 사명은 위대하며, 그녀의 마음과 이성, 자궁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모든 신경 섬유는 예민하다. 오직 그래야만 그녀는 그토록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그토록 쓰라린 잔을 마실 수 있다.

4. 육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두 완전함을 추구하는 영혼들입니다.

5. 나는 여성을 남성의 곁에 두어, 그의 삶을 달콤하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였다.

6. 남자는 여자의 삶에서 방패이자 수호자, 그녀의 주인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빛과 법,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7. 이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을 정해 주었다.

8. 너희 자신을 깨달으라. 그러면 너희는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9. 너희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들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먼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가르치기 위해 나서려 하지 말라. 먼저 너희가 배운 바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얻어야만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지 말라.

10. 너희 마음속에 나의 근본적인 계시들을 간직하여, 그것이 너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11. 이 영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영혼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간직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가는 길에서 영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니, 그릇된 길을 따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12. 삶의 매 순간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필요한 마음가짐을 간직하십시오.

13. 영혼이 곧 영계에 머물게 될 때, 너희가 꿈꾸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임을 알아두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자신의 죄과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이 바로 내 가르침의 기초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행실과 회개의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영혼 안에서 더욱 큰 차원의 완성에 대한 이상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14. 또한 영혼이 행복을 누리거나 형벌을 받는 것이 물질적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지 마십시오.

15. 영혼은 정화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직관과 나의 계시가 그 영혼에게, 자신이 신성에서 비롯되었으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6.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성장하여 나 안에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기회를 부여한다.

17. 영성주의는 너희가 소유하고 내면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는 계시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단지 물질만이 아니며, 너희의 “육체” 위에 너희를 둘러싼 자연의 차원과 너희 정욕의 더러움 위로 끌어올려 주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18. 사람이 영성을 얻게 되면, 모든 계명과 교리가 그 영혼의 빛의 일부가 될 것이다. 비록 그의 기억이 나의 가르침 중 한 문장이나 단 한 마디도 간직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이해했고, 느끼며,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자신 안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19. 영성인은 신성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의 왕국을 물려주려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의* 큰 가족으로 만드셨다.

20. 이제 제3의 시대에, 성령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은 너희는, 내가 세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전해 준 가르침이 동일한 원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단지 시대마다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21. 첫 번째 시대에는 너희의 삶과 마음속에 그토록 소박함이 있었고, 너희가 자연과 그토록 가까웠기에, 나도 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나를 드러냈다. 너희는 찬란한 자연 속에서 나의 현존을 보고 느꼈으며,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며 너희 영혼은 황홀해했고, 이를 통해 너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22. 제2의 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싹트고, 사람들의 이성이 악을 향해 깨어났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태어나서, 너희가 신성에 대한 숭배라고 행하던 것들과 그리고 서로에게 행하던 행위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바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너희가 행한 것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겉으로만 법을 지키는 척한 것에 불과했고, 마음속에는 위선과 이기심을 숨기고 있었음을 말이다.

23. 예수께서 너희가 따라야 할 원칙들, 즉 너희가 멀어졌던 그 원칙들을 너희에게 보여 주셔야만 했다.

24.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온유함과 사랑,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보여 주었으며, 너희의 마음이 감동받고 이성이 깨어나게 하려고 너희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셨다. 마음은 선을 향해 거듭나야만 했으며, 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보는 고통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 위해 사랑을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약속한 것은 영원한 평화, 곧 성령 안에서 끝이 없는 지극한 행복이었습니다.

25. 이 시대에 내가 주신 약속도 그 근본은 같고, 그 내용도 동일하지만, 너희는 정화될 때까지 진정으로 그 약속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6. 내가 내 피를 흘려 너희 영에 사랑과 정의의 법을 새겨 넣었던 때부터, 너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 영혼이 더 성숙해졌음을 본다. 너희의 수용력과 이해력은 더 커졌으며, 너희의 능력과 힘은 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기 만큼 성장했다.

27.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구별할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혼을 시험하는 시기이다. 사방에서 온갖 세계관, 이론, 교리, 종교, 그리고 “과학”들이 등장하여,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의 마음을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8. 이 시기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 여정에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9. 수많은 어둠의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는 사라지며, 사건의 전개에 대한 수많은 환상은 지워지고, 전통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러면 모든 덧없는 것들은 버려질 것이다.

30. 내 자녀들아, 너희의 처지에 만족하고, 너희보다 더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낮음 속에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를 더 잘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라.

31.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32.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준다. 나의 사랑은 너희와 함께 있다.

33. 이 제3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되시는지를 의심하는 자는, 제2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이니, 나의 사랑과 나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신성한 스승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내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 왔음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4.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알아야 할 가르침의 신비를 파헤치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경외심과 겸손인 영성화를 통해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리라. 너희 영의 눈이 열리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의 길을 걸으시며, 여전히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인류의 수많은 고통 위에 그분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승께서 모든 이에게 자비를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경청하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며,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빛을 얻은 제자들이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5. 너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주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희는 신성한 말씀에서 발산되는 지혜의 빛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그분을 무한한 지성으로, 너희를 깨우치고 동시에 위로하며 치유해 주는 영적 은총으로 알게 될 것이다.

36.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대변자를 통해 들을 때,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안에 내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37.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또한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즉 그분의 계시의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모든 형태로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38. 일단 이 경지에 이르면,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스승으로 오는 그 고귀한 영들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인간의 뇌를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은 그들을 깨우치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통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임무를 완수하면 여러분 앞에 한 단계 더 높은 승천의 계단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정화되고 완성되어, 마침내 신성한 영의 가장 순수한 빛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39. 나는 너희가 올라갈 다음 단계를 위해 이미 지금부터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밟아야 할 일곱 단계가 있다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각 단계에서 여러분은 영혼을 위한 은총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은총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돕는 힘이 되어, 마침내 하느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최종 목적지까지 나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40. 너희의 사고 능력으로는 이 모든 교훈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너희와 같은 육체적 형상을 지닌 존재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육체와 합쳐져 내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오직 영혼만이 지구상에서 여러 번 다른 육신을 입고 나타난 후, 영적 존재로서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영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1. 인류가 해석해 온 최후의 심판은 오해이다. 나의 심판은 한 시간이나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꽤 오랫동안 그 심판이 너희에게 무겁게 얹혀 있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육체들은 그들에게 상응하는 자연계와

융합되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 운명을 따랐으니, 땅에서 나온 것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며, 영적인 것 또한 나의 품인 고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이 말을 하노니, 너희는 심판의 날에 스스로가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의 양심과 자기 성찰, 그리고 직관이 너희에게 어느 정도까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영적 고향에 거해야 할지를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나의 신성의 빛을 받게 되면 너희의 행실을 깨닫고 너희의 공로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2. “영적 계곡”에는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 너희가 언젠가 그곳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와 빛을 전하라.

43. 이미 지금부터도 기도를 통해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이러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너희의 목소리는 그들이 머무는 곳에 울려 퍼져,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울 것이다. 그들은 울며 회개의 눈물로 자신을 정화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한 줄기 빛을 받게 될 것이니, 그때 비로소 그들은 과거의 허영과 오류,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4. 양심이 영혼을 깨울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큰가! 그때 영혼은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는가! 용서를 구하는 간구와 서약, 그리고 내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가! 이제 영혼은 아버지의 완전함에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닫고, 목표에 더 가까워질 기회를 주었던 시간과 시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이 땅을 바라보며, 과오를 속죄하고 미완성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또 다른 육신을 청합니다.

45. 그렇다면 누가 정의를 실현했는가? 스스로를 심판한 것은 바로 그 영 그 자체가 아니었는가?

46. *나의* 영은 너희가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할 거울이며, 그 거울은 너희가 가진 순결의 정도를 알려 줄 것이다.

47. 너희가 영적인 경지에 이르면, 너희의 영이 너희 자신에 대해 깨달음을 줄 것이다. 너희의 기억은 맑아질 것이며, 잊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 공의를 두려워하느냐? 차라리 지금 당장 너희 자신의 행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얼마나 큰 자비로 너희의 이성이 너희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게 허락하고 있는지.

48. 진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광신주의를 버리라. 평화와 빛, 그리고 축복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라.

49. 비록 너희가 ‘영적 계곡’으로 건너간 이들을 잇는 다 해도, 스승께서는 그 누구도 잇지 않으신다.

50. 영적인 세계에도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으며,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방황하며, 자책과 혼란, 고통의 사슬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51.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병자를 치유하고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길을 안내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사는 존재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 중에도 병든 자, 길을 잃은 자,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정화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내 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와 자비,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속죄를 돕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52. 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영혼을 하나로 묶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이며, 삶의 세계들 사이에 분열의 선을 그리지 않고, 존재들이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53. 어둠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뇌우 구름처럼 인류 속으로 침투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생각을 어지럽히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비록 이 인류가 이러한 교활한 공격에 맞서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짐작하지 못한다.

54. 전쟁과 살인, 그리고 저급한 정욕 속에 바로 그 세력들의 영향이 도사리고 있다. 빛을 향해 눈을 뜬 너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사랑과 정의라는 영적 무기를 아는 너희여 — 세상과 영계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을 화해시키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라.

55. 그러나 지상에서 행하는 선행이 혼란에 빠진 영혼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혼란에서 해방시켜 줄 치유제가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악한 영감에 맞서 싸워, 빛의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56. 준비하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7. 너희는 선한 행실로 가르쳐야 하며, 과학이 포기한 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다고 말했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내 사역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어두운 눈가리개가 벗겨질 것이다.

58. 이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이 안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하며, 세상에 말씀하실 때가 왔다.

59.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순결을 지키며 자신의 길에서 마리아의 본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순결과 온유 그 자체이다. 그녀를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너희의 행동이 그 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이름을 되뇌거나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60. 참된 인간적·영적 가치를 깨달으라. 세속적 영광의 거짓된 광채에 현혹되지 말라. 너희의 빛은 이미 모든 거짓을 드러낼 수 있다. 겉으로는 순결함을 내세우지만 실은 어둠만을 품고,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어두운 길로 너희를 이끄는 일들이 많음을 깨달으라.

61. 그러므로 내가 나를 드러내는 너희는, 너희의 삶과 생활 방식, 그리고 시련 속에서, 내가 계시되는 순간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품위 있게 실천해야 할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백성들은 너희가 행동 속에서 영적 고양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며 너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너희는 맑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나를 듣지 못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는 자들의 행동이 항상 용납될 수는 없더라도, 세상은 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서 똑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너희를 지켜보는 이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가 그 은총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은 가르침과 상반되는 행동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스캔들을 조심하라. 그날부터 너희 영혼은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멸해 왔음을 명심하라. 그러니 너희는 선의 길을 고수하고 너희의 모든 책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뜻에 자신을 맡긴 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며, 내 계시의 진리를 완전히 확신하고 너희 안에 의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62. 내가 너희가 이처럼 내 봉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너희가 이웃들에게 큰 자비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 의무를 다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누구도 내 가르침의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가르침의 본질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로부터 영감을 얻게 하라.

63. 내 신성한 뜻이 너희의 이성 능력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로 보이냐!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지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으로 인해 창조주와 닮은 인간이 관련된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희는 아직 알 수 없는 많은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것들을 밝혀줄 것은 과학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영일 것이다.

64.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그대로의 소박함으로 나의 일을 드러내라. 그러면 너희 동료 인간들은 그들이 이론 발전 수준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행실이 너희가 받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너희의 일은 경탄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65. 나는 너희 영혼이 세상의 피로와 고난을 뒤로 하고 내 곁으로 오도록 받아들이노라.

66. 너희는 나의 가르침과 평화를 갈망하며 땅의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같은 온기를 느끼고 너희 마음은 평온해진다.

67.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임 장소로 기꺼이 따라오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으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막고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내면의 목소리가 너희가 걷는 길이 옳으며, 그것이 진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해주더라도, 심지어 새로운 시대, 즉 심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앞당기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센 자연 현상과 비범한 사건들의 외침을 듣더라도, 너희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는 지구의 모든 곳과 모든 마음속에 내 존재를 드러내었다. 나는 영감, 직관, 꿈 또는 계시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68. 나는 현재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남길 책들의 기록에 진정한 가치와 올바른 해석을 부여할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69. 그들은 옛 예언들의 성취를 선포할 것이다.

70. 나는 오늘날의 기록들을 너희의 책임 하에 남겨두어, 내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71. 나의 가르침과 너희의 예배 방식, 그리고 너희의 행실은 종파와 교회에서 탐구하러 올지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환영하고, 나의 사역을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가르침 241

1. 영혼의 양식인 신성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맞이한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온다. 아, 오직 고통과 피와 두려움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들이여! 물질주의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시야를 어둡게 가려, 그들은 속죄로 가는 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2. 적어도 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내 말씀으로 기뻐하고, 내게서 위로를 얻으라. 이 인류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혼란을 향해 나아가며, 이성과 감정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위대한 인간의 지성들은 범죄 속에서 꽃을 피우며, 그것을 그들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제자라 부르는 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말해 왔으니, 그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수행할 때, 그들의 모범이 다른 이들의 삶과 사고, 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들이 “오늘 나는 예전에 쓸모없다고 여겼던 내 정신을 활용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3. 제자: 사람들의 정신이 곧게 솟아오르고, 해방되어 마땅히 해야 할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마시고 있는 고통의 잔은 끝날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이성과 마음속에 영성이 꽃피면, 여러분 삶의 모든 길에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 나는 지금 내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내 목소리를 들을 때 감수성을 보이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4. 나의 백성아, 너희 삶의 단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라. 서로 사랑하고,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라. 과거의 본질적인 선행과 악행을 깊이 성찰하라. 그 성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니, 그다음에는 미래를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다가올 시대를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너희는 인류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것, 인류가 현재 죽음이 덮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수의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인류가 깨어나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아, 이 인간의 허영이여! 아, 이 땅에서 자신의 전성기와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들이여!

6. 죽음을 부르는 말을 하기 위해, 너희는 전쟁을 선포하고 파괴와 죽음을 소환하는 명령을 내리는 왕좌를 세웠도다!

7. 양심과 정의, 자비인 영성화와 결합되지 않은 인간의 지성이란 무엇이겠는가? 그 빛으로 거대한 파괴 무기를 발명한 그 사람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인가? 그들이 현재 짊어지고 있는 죄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그들이 뿌린 거대한 씨앗의 결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8. 그리고 나를 말하며 내 제자이자 종이라 자칭하는 모든 이에게 묻노라. 이 순간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세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9. 오, 이 시기에 내 말씀을 듣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의 일에 힘쓰고, 서둘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삶의 그 부분을 이웃의 복을 위해 바치라. 그것은 곧 너희 자신의 복이 될 것이다.

10. 나의 사역에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어차피 전장에서 아무런 보람도 없이 목숨을 바칠 바에야, 차라리 이 영적 전선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11.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가르치고, 사랑과 지식이 가득한 강연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우치라.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구원하는 사명에 전념하는 나의 신성한 존재를 바라보라. 내가 인간으로서도 내 온 생애를 너희에게 바쳤음을 기억하라. 적은 양의 씨앗만을 거두는데 만족하지 마라. 너희가 ‘저 세상’이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갈 때, 내 손에 건네줄 선물은 무엇이 되겠느냐? 나는 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나에게 고작 몇 방울만 돌려주려는 것이냐? 너희의 선한 행실로 증언하라.

12. 이 시기에 너희에게 드러난 영적 은사들은, 너희가 그 수정처럼 맑은 물을 이웃들의 영혼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항상 너희를 위해 사랑의 샘, 변함없는 선물, 고통받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타오르는 등불로 나타나신 너희 스승에게서 배우라. 내 모든 말씀이, 자신의 운명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위에 놓인 횃불과 같지 않은가? 이 메시지가 너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겠는가?

13. 오직 나의 가르침과 법을 느끼고 실천하는 자만이 나의 사역에서 ‘스승’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안에 담긴 높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이끈다. 위대 하고자 하는 영은 오직 위대한 업적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작은 영은 오직 작은 것만을 추구하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며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14. 반면 위대한 영은 자신의 고귀한 이상이나 사랑의 사명을 위해, 너희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조차 기꺼이 희생한다.

15. 제2시대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라십니까?

16. 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사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초대한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은 이웃에 대해 증오나 원한을 품었거나, 그들을 계속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과 동시에 회개의 기쁨을 느끼며 다시 진심으로 그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영성이 드러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사라진다.

17. 나는 위대한 영혼들에 대해 더 말해 주겠다. 그들은 모욕에 예민하지도 않고, 구타에 약하지도 않다. 그들은 그러한 비열한 행위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들 위에 서서 오직 위대한 것만을 바라본다.

18. 너희 모두는 큰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낙담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해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이 식탁에 모여 내 지혜로 양식을 얻은 여러분은 -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19. 선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러나 그는 사도임을 증명해 줄 직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밝혀 준다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위로를 갈망하며 너희에게 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21.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 씨앗을 뿌려라. 이 가르침이 바로 너희의 유산이다. 너희가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법을 안다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너희의 마음으로 돌아와 그 빛으로 너희 마음을 비추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2. 내일 내 오심을 알기 위해 찾아올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심하며 왔다가, 내 말씀의 사랑에 감동받아 믿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떠나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신하며 왔다가, 영혼보다 육신 이 더 많고, 사려 깊음보다 편협함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채로 남을 자들이다. 그러나 내 새로운 제자로 불리며 성령의 표식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언제부터 너희는 사랑의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할 것인가?

23. 들으라. 내가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사람들은 무리 지어 내게로 왔으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허영심에 가득 찬 자들, 나를 몰래 찾아와 내 말을 듣던 통치자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존경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나를 거부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무리가 내게로 와서 아침, 오후, 밤마다 내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언제나 스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계심을 발견했다. 그들은 스승께서 자신을 잊고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의 몸이 쇠약해지지 않고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언제 식사를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그분 자신 안에서 양식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24.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언젠가, 신성한 사랑에 영감을 받아 이웃을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알 수 없는 힘과 양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힘과 양식이 그를 지탱하여 투쟁 속에서 단 한 순간도 지치지 않게 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그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26. 나에게서 배우고 너희의 은사를 활용하여, 너희 자신과 인류에 대해 지고 있는 큰 빛을 갠다. 기꺼이 속죄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좋아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그 빛을 갠다 하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종종 너희는 희생이나 포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7. 나는 너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시간, 너희 시간의 일부만을 요구할 뿐이다.

28.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어머니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분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떠나신 것이다. 그분은 생전에 어머니 곁을 떠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한 채 내려졌을 때 비로소 어머니의 품에 안기셨다. 나는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가르쳐 준 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요구할 뿐이다.

29.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 병든 이를 치유하며, 길을 잃은 이를 구원함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바치되, 단지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목숨을 잃지는 말라.

30. 나의 가르침 안에는 피고인도, 고발자도, 모욕당한 자도, 모욕하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오직 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이들만이 있어야 한다.

31. 너희는 내게로 나아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세상은 학교요, 삶은 교과서요, 나의 영감은 빛이다. 나는 스승이고,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부르며,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너희 모두는 나의 사랑 속에 자리를 찾을 것이다.

32. 내 가르침을 전할 때 나를 홀로 두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 사랑 앞에서 냉담해지지 말라. 어떤 인간의 입술을 통해 내 영의 말씀이 너희에게 빛을 비추고 있음을 명심하라.

33. 너희가 땅 위에서 내가 나의 가르침과 법으로 종교들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눈에는 오직 하나의 예배만이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랑, 곧 아버지께 대한

사랑, 이웃이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나온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다.

34.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신성한 최상의 계명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깨우쳐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보호하며, 도와주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며, 인종이나 신앙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게 하는 법이 될 것이다.

35. 그러한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그 세상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사랑과 존중, 정의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지는 하나의 가족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36. 이 예언들은 현실이 될 것이니, 너희의 세상은 영원히 어둠과 죄악의 골짜기로 남을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37.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미덕은 정원의 꽃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꽃들의 아름다움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상과 영감과 같기 때문입니다.

38. 이리 오라, 이것이 너희의 길이니, 여기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과 슬퍼하는 자를 위한 위로가 있다. 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39.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너희의 이성을 단련하라. 내가 너희 각자에게 지워지지 않게 새겨둘 내 말씀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넘쳐 흐르게 하는, 내 영이신 지혜의 샘에서 솟아나는 살아 있는 말씀을 경청하라.

40. 나는 모든 자녀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두었다. 이제 깨어날 때가 왔으니, 내가 과거의 말씀과 새로운 계시들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며, 이는 너희가 소유하게 될 책의 완성이자 세 번째 부분이다.

41. 나는 내 가르침의 위대함을 가리던 베일을 너희 앞에서 걷어냈다.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씨앗을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뿌리고 가꾸어 적절한 때에 드러내 보이도록 하라.

42. 그러나 나는 사명을 받은 씨 뿌리는 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겨우 몇 알의 곡식만을 거두었을 뿐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새로운 세대가 이 땅에 올 것이며, 그들은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때가 왔다.

43. 선구자가 내 사역의 첫 일꾼들을 성별하였고, 그 후 스승께서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책을 펼치셨으니, 그 내용은 인류에게 빛과 지혜, 구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 그 은혜의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서로 다른 신앙과 세계관을 가진 남녀들을 하나로 모았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았으나, 오직 괴로움과 실망만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도, 마음을 닫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사랑과 존경으로 받아들었다.

44. 나는 그들이 나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든 계시를 연구하는 데 전념하도록 했으며, 그들은 이를 신뢰할 만하고 깊은 의미가 담긴 것으로 여겼고, 그들의 마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어루만져 주었고, 너희는 나의 어루만짐을 기뻐했으나, 이제 싸울 때가 되었다”고 말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서툴고 침묵하던 입술들이 신성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 말씀을 쏟아 부었고, 그들은 나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다른 이들을 나는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그들을 교회로 세우라. 영혼의 강인함으로 무장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과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신자들과 씨름하게 될 것이니, 토마스의 씨앗이 물을 받아 마음속에 싹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씨앗을 뿌리째 뽑아내고 너희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너희 각자는 동료들의 길을 비추는 횃불과 같을 것이다.

내 계시의 시간이 끝나고, 너희가 나와 오직 영과 영으로만 교감하게 될 때에도, 너희는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너희가 어디서 배웠는지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가르침이 새겨져 있고, 새로운 영감이 솟아날 너희 마음의 책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45. 나는 너희가 내가 떠난 후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긴 기간을 정하였으니, 그 기간 동안 너희가 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시기에 모든 눈, 즉 죄인의 눈과 죄가 없는 자의 눈 모두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반드시 육신의 눈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성령과 영혼에 의해 비추어지고 나를 느끼는 성소로서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46. 나는 내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일꾼들”을 준비해 두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은 얼마나 많은 행복의 순간을 누렸는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기적들에 너희는 얼마나 황홀해했는지! 너희가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를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내가 이 가르침을 알게 하기로 정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치 말형제자매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돌보며, 그들을 돕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길을 잃은 양들을 우리로 다시 데려오고, 고통을 덜어주며, 이웃을 구원하라.

47. 너희가 지칠 때, 나는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산을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나를 들은 후에도 이 가르침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힘을 느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48. 강해지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축복이 이슬처럼 너희에게 내려와 항상 너희를 격려할 것이다.

49. 너희가 삶의 기쁨을 느낄 때, 너희는 그 즐거움을 세상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 행복의 순간들을 보내주는 것이다. 아이가 웃으면 아버지 또한 웃기 때문이다. 영혼을 어지럽히지 않는 건전한 기쁨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참으로 복이 있다!

50. 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아버지 같은 시선이 너희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며, 나는 너희의 경건함을 보고 있다. 너희는 물질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잊고, 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그 본질로 가득 차며, 너희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갈망을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나를 드러낸다. 감사함으로 가득 찬 너희는 겸손히 내게 너희 마음을 보여 주며 “스승이시여, 이 마음을 펼쳐진 책처럼 읽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바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51. 나는 너희의 믿음과 나의 신성에 대한 신뢰를 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의롭고 너희의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뢰를 가지고 내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속죄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완전한 기쁨도, 영원한 평화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조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일시적인 거주자일 뿐이며, 각자의 공로에 따라 이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52. 지상에서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내 영의 평화를 느낄 것이다. 너희가 누렸던,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평화, 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온유함, 너희가 나와 교제하며 고양되었을 때 경험했던 바로 그 영광을 말이다. 세상에는 이러한 유인이 없지만,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모두 진리의 빛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씀은 퍼져 나가서, 나의 “일꾼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집에서 집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더딘 진전과 두려움만을 보았기에, 내 사역은 그들이 가두어 둔 좁은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나의 뜻이 아니다.

53. “일꾼”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일치를 요구했다. 너희가 하나의 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이루도록, 그리하여 너희 동료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에게서 같은 말씀을 듣고, 모두에게서 같은 증언을 들으며, 너희 안에 비친 나의 신성한 사랑을 보게 하려 함이다.

54.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부드러운 십자가처럼 짊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인류의 갱신과 평화, 영성화의 사업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투쟁 정신과 영적 고양을 전수할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완성되어 그 사명을 다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55.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앞서 나가 길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길은 너무나 멀어서 너희가 곧 그 끝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발걸음 곁에 함께하노니, 너희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있노라. 내 영의 힘이 너희를 감싸고 있으니, 지칠 줄 모르고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내면의 힘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해마다 고군분투해 왔으며, 내 사역을 위해 일하던 그 첫날처럼 매일 아침을 맞이해 왔다.

56. 너희는 모두 나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되, “일꾼들”에게 절대적인 정의와 완전함을 요구하지 말라. 그들은 인간이며 약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너희 영혼이 보고 갈망하는 그 완전함은, 모든 것이 사랑과 아름다움, 빛으로 가득한 높은 영적 차원에 거하는 영혼들 속에서 찾으라.

57. 너희의 마음은 사명을 수행함에 따라 정화될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를 섬기려는 열망에 따라 전진한다. 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성화로 큰 진전을 이룬 ‘일꾼’들도 발견했고, 발전에서 뒤쳐진 이들도 발견했다.

58. 내 가르침의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내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그것을 간직할 수도 없고, 내 가르침에 담긴 그 귀중한 정수를 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여, 너희가 그것을 듣는 첫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다.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첫 번째 법이며, 그로부터 다른 모든 법과 계명이 비롯됩니다.

59.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나는 모든 이를 똑같이 창조하였고 모두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인종, 계급, 신앙을 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왜 어떤 이들은 사랑하고 다른 이들은 무시하는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이들만을 사랑하지 말고, 모든 이를 찾아가 사랑의 유대를 맺으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의 육신의 형제자매와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나의 사역은 모든 영혼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 나는 너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보편적인 평화를 이루고, 나의 신성과 연합하여 너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대리자가 되는, 나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60. 너희 각자가 위대한 나무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무한히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61.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는 인류를 보호하는 망토가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다가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전쟁에 대한 해독제가 되어야 한다.

62. 나는 나의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며, 내 벌린 두 팔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노라.

63.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나는 위로이다. 사랑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황무지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아버지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다.

64. 너희 모두는 스승과 닮기 위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이해 부족과 영적 성숙의 미숙함으로 인해 이 십자가가 견딜 수 없거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65. 삶의 기복은 회오리바람처럼 너희 삶을 휘몰아친다. 그러나 아버지께 품은 그 사랑과 그분께 바친 신뢰는 시련 속에서 너희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며, 너희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66.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67. 고통은 굳어진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고, 바위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시련은 영혼을 깨어 있게 한다.

68. 너희는 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길을 떠났으니, 이는 너희가 신성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오랫동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9. 너희가 이 길에서 나를 따르게 한 것은 강요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으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70. 이와 같이 새로운 제자들은 세상을 비추는 햇불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나를 이해하고 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혼 속에서 굶주림도 목마름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1. 내일 너희의 은사로 인해 이루어진 기적들을 목격할 때, 너희 마음이 허영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웃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하고 행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라.

72.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너희의 방식을 완성해야 한다.

73. 나는 너희 모두에게 치유의 은사를 맡겨 주었으니, 이를 통해 너희는 육체적·영적으로 병든 이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

74. 너희는 타락한 자를 진흙탕 속에서도 찾아가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너희가 그곳에서는 나의 씨앗이 싹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나는 그 진흙탕에서도 눈처럼 하얀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영혼이 타락할수록 그 영혼을 찾아가는 데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며, 그 영혼이 그 애정 어린 손길이나 치유의 향유를 느낄 때, 자신 안에 빛의 광선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가장 열렬한 신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영혼의 감사는 매우 클 것이니, 그 영혼의 죄도 마찬가지로 컸으나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75. 너희는 내가 늘 너희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바로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의인들은 이미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목차

| <b>가르침 208 (1948)</b>          | <b>구절<br/>번호</b> |
|--------------------------------|------------------|
| 2000년 전과 오늘날의 주님의 재림           | 3                |
| 진화의 법칙                         | 13               |
| 토마스                            | 23               |
| 1950년 이후를 위한 준비                | 25               |
| 정신적 자유                         | 43               |
| 제3시대의 부름받은 자들의 책임              | 47               |
| 제자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                 | 50               |
| 영적 사다리                         | 52               |
| 아이들의 영적 준비                     | 59               |
| <b>가르침 209</b>                 | <b>절 번호</b>      |
| 영 안에서 오시는 주님과 인간의 과학           | 3                |
| 이데올로기의 전쟁과 영적 왕국               | 10               |
| 물질적 부는 의무를 수반한다                | 21               |
| 주님의 말씀은 은폐되거나 왜곡되었다            | 27               |
| 고통과 평화                         | 44               |
| 우주는 신성한 성전인가?                  | 55               |
| 멕시코, 제3의 시대의 국가                | 62               |
| <b>가르침 210</b>                 | <b>구절<br/>번호</b> |
| 우리는 보편적 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2                |
| 진정한 영성                         | 9                |
| 신성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                 | 16               |
| 예수님의 육신                        | 34               |
| 우리가 자연에 도전함으로써, 자연을 심판자로 변모시킨다 | 45               |
| <b>가르침 211</b>                 | <b>구절<br/>번호</b> |
| 지혜와 신성한 사랑이 말로 변한다             | 1                |
| 이 여섯 번째 봉인 속에서                 |                  |
| 죽음의 불                          | 9                |
| 생명의 불                          | 11               |
| 힘을 통해서는 권력을 얻을 수 없다            | 22               |
|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은 이 세상만이 아니다       | 28               |
| 영적 삶에 대한 지식                    | 48               |
| 진리가 비추다                        | 55               |

|                                             |                  |
|---------------------------------------------|------------------|
| 몸과 마음의 조화                                   | 68               |
| 유다는 이 세상의 인간을 상징한다                          | 70               |
| 돈이 주는 그릇된 가치                                | 77               |
| “수난 주간”과 그 깊은 의미                            | 81               |
| <b>가르침 212</b>                              | <b>구절<br/>번호</b> |
| 신성한 수난의 영적 본질                               | 2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과거에 대해 무지하다                   | 14               |
| 세 시대의 상징적 의미                                | 19               |
| 주님의 새로운 재림에 대해 주저하는 자들                      | 21               |
| 사랑의 힘                                       | 46               |
| 환생의 원인                                      | 57               |
| 마리아 막달레나의 교훈                                | 65               |
| <b>가르침 213</b>                              | <b>절 번호</b>      |
| “부활 주일”                                     | 3                |
| 운명은 성령의 사명을 의미한다                            | 15               |
| “영광과 부활”의 의미                                | 18               |
| 배우고 속죄하기 위한 환생                              | 24               |
| 영적 숭배                                       | 32               |
| 영적 이스라엘과 물질화된 유대인 종족                        | 37               |
| 영성과 영적 진보                                   | 42               |
| 물질화된 존재들의 두려움                               | 52               |
| 영성 덕분에 한계가 사라진다                             | 61               |
|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림은 1866년부터 1950년까지<br>시작되었다     | 69               |
| <b>가르침 214</b>                              | <b>구절<br/>번호</b> |
| 제3시대의 현현에 대한 원인과 결과                         | 1                |
| 용서하고 축복하기                                   | 15               |
| 인간은 자연에 대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겪어야<br>한다        | 20               |
|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br>(U 219, 55 참조) | 25               |
| 영적 이스라엘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 38               |
| 인간은 아직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                     | 45               |
| 영성주의란 무엇인가                                  | 57               |
| 평화의 왕국의 도래                                  | 69               |

| <b>가르침 215</b>                           | <b>구절<br/>번호</b> |
|------------------------------------------|------------------|
| 신의 약속과 인간의 반응                            | 1                |
| 1866년과 1950년                             | 30               |
| 영적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 21               |
| 겉보기에는 물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br>상황에서의 영적 작용 | 32               |
| 제자들에게는 아직 은사가 발달하지 않았다                   | 36               |
| 1950년 이후에는 영적 은사들이 드러날 것이다               | 39               |
| 진리로 가는 길                                 | 44               |
| 모두가 우리의 신성한 근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 62               |
| 일곱 가지 미덕                                 | 69               |
| <b>가르침 216</b>                           | <b>구절<br/>번호</b> |
| 제자의 사명을 위한 준비                            | 1                |
|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                        | 14               |
| 예언들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 16               |
| 세상에 변혁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27               |
| 주님의 영적 재림을 기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 30               |
| 신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답변                         | 41               |
| 고통은 정화한다                                 | 55               |
| <b>가르침 217</b>                           | <b>구절<br/>번호</b> |
| 시대를 거치며 전해진 신성한 가르침                      | 1                |
| 제3시대의 사자, 로케 로하스                         | 13               |
|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 17               |
| 교만한 자와 겉모습에만 매몰된 자                       | 19               |
| 우주는 완전한 거처이다                             | 65               |
| <b>가르침 218</b>                           | <b>구절<br/>번호</b> |
| 허영 대신 사랑                                 | 3                |
| 세 가지 유언                                  | 6                |
| 인류는 방탕한 아들을 본받는다                         | 15               |
| 시련의 이유                                   | 21               |
| 1950년까지의 의사소통                            | 22               |
| 재능에 대하여                                  | 29               |
| 모든 영은 완전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 39               |

|                                        |                  |
|----------------------------------------|------------------|
| 우리의 수호정령들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 40               |
| 선(善)을 위한 과학                            | 47               |
| <b>가르침 219</b>                         | <b>구절<br/>번호</b> |
| 키레네 사람 시몬의 사례 (마가복음 15:21 참조)          | 2                |
| “하늘의 노래”가 지닌 비유적 의미                    | 13               |
| 영성을 통한 조화                              | 16               |
| 예언된 혼돈은<br>우리 자신의 행위의 결과이다             | 24               |
| 스승께서는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 29               |
| 초기 시기                                  | 31               |
| 두 번째 시기                                | 32               |
| 세 번째 시기                                | 34               |
| 환생의 조건                                 | 39               |
| 제자들의 사명과 은사                            | 41               |
| 우리는 여섯 번째 봉인 속에 살고 있다                  | 52               |
| 모든 세계의 영들 간의 동맹 (U 214, 25 참조)         | 55               |
| 영적 삶                                   | 61               |
| <b>가르침 220</b>                         | <b>절 번호</b>      |
| 제2시대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 2                |
| 인간 안의 신성한 삼위일체                         | 11               |
| 영의 진화 단계                               | 16               |
| 영성이 포함하는 것                             | 29               |
| 잘못된 해석들이 사라진다                          | 32               |
| 성취를 위한 준비                              | 42               |
| 영이란 무엇인가?                              | 59               |
|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의 의미          | 63               |
| 영적 진화                                  | 70               |
| <b>가르침 221</b>                         | <b>구절<br/>번호</b> |
| 마리아의 영은<br>신성한 자애                      | 2                |
| 영적 이스라엘의 일부가 멕시코에 환생해 있다               | 11               |
| 성경은 변조되었다                              | 14               |
| 제3의 시대는 우리에게 빛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상기시켜<br>준다 | 16               |
| 성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소명                        | 28               |
| 환생의 영적 특권                              | 54               |

|                                         |                  |
|-----------------------------------------|------------------|
| 진리의 영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 59               |
| <b>교훈 222</b>                           | <b>구절<br/>번호</b> |
|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 2                |
| 혼돈 속에서 영성주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 10               |
| 사랑은 창조의 원리이다                            | 22               |
| 각종<br>종교 공동체와 이단 집단 내에서의                | 29               |
| 이 눈물의 골짜기가 평화의 골짜기가 된다                  | 39               |
|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한다                 | 44               |
| 사람은 언제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다             | 47               |
| <b>가르침 223</b>                          | <b>구절<br/>번호</b> |
| 인류는 구원을 위해 싸워야 한다                       | 1                |
| 은사는 우리의 발전 단계에 따라 드러난다                  | 7                |
| 새로운 환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완성해 나간다          | 10               |
| 영적 은사의 발전은 우리의<br>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 14               |
| 모든 사람은 영생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다                 | 18               |
| 하나님의 법은 단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br>영을 위한 것입니다 | 22               |
| 물질적인 삶 또한 영생의 일부입니다                     | 26               |
| 영적 예배                                   | 35               |
| 제3시대의 사역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                    | 51               |
| 멕시코의 위대한 사명                             | 56               |
| 영적 사다리                                  | 72               |
| <b>가르침 224</b>                          | <b>구절<br/>번호</b> |
| 제자의 영적 성취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 3                |
| 생명의 책                                   | 12               |
| 믿음과 사랑의 보루                              | 25               |
| 영계의 메시지                                 | 31               |
| 사랑의 위대함                                 | 34               |
| 신성한 현현의 시간이 제한된 이유                      | 64               |
| 복잡한 종교 대신 영의 평화                         | 74               |
| <b>가르침 225</b>                          | <b>구절<br/>번호</b> |
| 세 번째 신성한 현현으로 향하는 길                     | 3                |

|                                      |                  |
|--------------------------------------|------------------|
| 고통을 통해 우리는<br>완성에 이르는 길              | 8                |
| 사랑의 “보편적 가르침”은 모든 이를 아우른다            | 21               |
| 허비된 기회 하나하나가 영혼에 고통을 안겨준다            | 35               |
| 세 시대가 특징지어졌다                         | 44               |
| 여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 46               |
| 제2 시대에 육신을 입은 신성한 자애, 마리아            | 48               |
| <b>가르침 226</b>                       | <b>구절<br/>번호</b> |
| 세 가지 영적 시대와 그 교훈                     | 3                |
| 보는 제자 요한의 이야기                        | 7                |
| 환생을 통한 영적 발전                         | 11               |
| 영적 준비를 통한 해방                         | 12               |
| 1866년, 제3시대의 시작                      | 26               |
| 제3시대의 메시지                            | 27               |
| 하나님께서서는 분노가 없으시다                     | 33               |
| 시대별 숭배 형식의 진화                        | 60               |
| <b>가르침 227 (1949)</b>                | <b>구절<br/>번호</b> |
| 선택의 기로에 선 민족                         | 1                |
|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능력                       | 28               |
| 하나님의 위대함은 겸손 속에서 드러난다                | 38               |
|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제한받지 않으신다               | 40               |
| 신성한 지혜는 양심 속에서 드러나며,<br>단순히 지성뿐만 아니라 | 58               |
| 의지의 자유, 그래야 공로가 정당해진다                | 61               |
| 창조의 완전함은 오직<br>영화된 자에게만 드러날 것이다      | 67               |
| 전쟁은 필요하지 않다                          | 70               |
| 영의 혼란과<br>인간의 이성의 혼란                 | 71               |
| 신의 말씀이 인쇄될 것이다                       | 77               |
| <b>가르침 228</b>                       | <b>절 번호</b>      |
| 마리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 1                |
| 신성한 부름에는 빛이 담겨 있다                    | 6                |
| 유물론에서 영성주의로                          | 15               |
| 영의 삶은 물질보다 우선한다                      | 21               |
| 미래 세대는 그리스도의<br>이해하게 될 것이다           | 28               |

|                                          |                  |
|------------------------------------------|------------------|
| 세상의 부자들에게 전하는 몇 마디                       | 47               |
| 이 행성에서 환생이 일어나는 몇 가지 원인                  | 54               |
| 소위 기독교 세계에 보내는 말씀                        | 55               |
| 길 잃은 이웃에 대한 의무 이행의 부족                    | 58               |
| 시간이 촉박하므로 영적 성취를 향한 호소                   | 60               |
| 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진화를 계속할 것이다                | 69               |
| <b>가르침 229</b>                           | <b>구절<br/>번호</b> |
| 성령의 제자들                                  | 1                |
| 깨어난 영과 반항적인 물질                           | 25               |
|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                              | 34               |
| 1950년 이후를 위한 경고                          | 40               |
| 진정한 숭배는 만물과의 조화를 기린다                     | 53               |
| 이 행성에서 인간의 오만함                           | 55               |
| 정신적·물질적 숭배의 형태                           | 58               |
| 사랑은 제한 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 62               |
| 인간의 다양한 존재 방식                            | 66               |
| 약속된 평화 왕국의 준비                            | 71               |
| <b>가르침 230</b>                           | <b>절 번호</b>      |
| 평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br>한쪽의 패배를 바라고 다른 쪽의 승리를 | 6                |
| 여섯 번째 봉인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빛을 비춘다              | 8                |
| 꿈을 통한 신의 메시지                             | 15               |
| 종교들은 신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았다                     | 23               |
| 국가 간의 평화와 통합의 원칙                         | 32               |
| 모든 것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43               |
| 이 세상은 영원할 필요가 없다                         | 47               |
| 영의 소명                                    | 50               |
| 영혼을 위협하는 위험들                             | 64               |
| 영성은 영매주의가 아니다                            | 67               |
| <b>가르침 231</b>                           | <b>구절<br/>번호</b> |
| 이 제3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 2                |
| 공덕의 필요성과 시련                              | 12               |
|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br>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 15               |
| 영과 육체 사이의 올바른 관계                         | 18               |
|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것이다                     | 20               |
| 지식의 은사와 그에 따른 책임                         | 21               |

|                                   |                  |
|-----------------------------------|------------------|
| 길을 잃은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 25               |
| 평화 왕국으로 가는 길과 그 길에 놓인 인간적 장애물들    | 28               |
| 이 행성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               | 30               |
| 신성한 사역의 절정은<br>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 35               |
| <b>가르침 232</b>                    | <b>절 번호</b>      |
| 제3시대의 제자의 사명                      | 1                |
| 속죄와 시련을 위한 준비                     | 13               |
| 신성한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 26               |
| 오늘 의심하는 인류는 내일 믿게 될 것이다           | 31               |
| 영적 통합을 향한 호소                      | 33               |
| 인간의 삶은 하나의 기회이다                   | 37               |
| 양심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의 일부이다           | 41               |
| 고통은 악에 대한 “여기까지”가 될 것이다           | 44               |
|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에 대한 예언              | 49               |
| “삼위일체”                            | 52               |
| <b>가르침 233</b>                    | <b>구절<br/>번호</b> |
| 영의 빛나는 소명                         | 2                |
| 양심이 길잡이이다                         | 8                |
| 공로도 또한 필요하다                       | 12               |
| 과학과 영성                            | 25               |
|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 44               |
| <b>가르침 234</b>                    | <b>절 번호</b>      |
| 영성주의의 시대는 해방<br>과 행동의 시대이다        | 7                |
| 의식의 엄숙함은 영성이 아니다                  | 30               |
| 평화를 누리며 사는 방식                     | 43               |
| 영과 영의 소통                          | 45               |
| 이웃을 섬기는 것이 존엄을 부여한다               | 59               |
| <b>가르침 235</b>                    | <b>절 번호</b>      |
| 혼란과 유혹에 대한 경계                     | 4                |
| 1950년에 이러한 형태의 의사소통은 끝이 난다        | 7                |
| 이 시기에 주어진 신의 메시지의 목적              | 15               |
|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 17               |
|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                     | 37               |
| 인류에는 위선자와 선동가가 많다                 | 39               |
|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 54               |

|                                            |             |
|--------------------------------------------|-------------|
| 우리는 과거 시대의 바로 그 영혼들이다                      | 63          |
| 거의 2000년이 흘렀고, 오늘날에도<br>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 65          |
| 스승께서는 결코 의식을 거행한 적이 없습니다                   | 75          |
| 쓴맛의 잔은 앞으로도 한동안 마셔질 것이다                    | 76          |
| 요한계시록 20장의 의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br>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 79          |
| 신성한 영의 시대                                  | 81          |
| <b>가르침 236</b>                             | <b>절 번호</b> |
| 하나님께서서는 시련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 5           |
| 이 세상에서의 윤회의 끝                              | 10          |
| 영성주의의 의미                                   | 20          |
| 영적인 것이 우세해질 것이다                            | 32          |
| 1866년 9월 1일, 제3시대의 시작                      | 48          |
| 제1시대의 사자 모세                                | 60          |
| 제2시대의 사도 예수                                | 62          |
| 제3시대의 사도 엘리야                               | 65          |
| 진정한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                          | 72          |
| <b>가르침 237</b>                             | <b>절 번호</b> |
| 성령을 통한 이스라엘의 길과 사명                         | 1           |
| 인류를 기다리는 것                                 | 11          |
| 내세는 어떤 곳인가?                                | 24          |
| 이 제3시대의 메시지는 인류를<br>마찬가지로 뒤흔들 것이다          | 28          |
| 제3시대의 제자의 책임                               | 30          |
| 고통은 감수성을 일깨운다                              | 50          |
| 진정한 믿음                                     | 68          |
| <b>가르침 238</b>                             | <b>절 번호</b> |
| 물질적 및 영적 성전                                | 1           |
| 공덕을 통해 우리는 약속된<br>왕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 11          |
| 자연의 훼손과 그 가차 없는 심판                         | 16          |
| 지구의 4분의 3이 사라질 것이다                         | 24          |
| 보편적인 언어는 영적인 사랑이다                          | 28          |
| 강렬한 빛을 지닌 영들이 우리 가운데 환생할 것이다               | 30          |
| 생각과 기도를 통해<br>신성한 영과의 소통                   | 51          |
| 신성한 평화                                     | 62          |
| 삶의 진정한 가치는 고양에 있다                          | 67          |

|                              |             |
|------------------------------|-------------|
| 이스라엘의 모험적인 역사                | 70          |
| 영적인 이스라엘                     | 84          |
| <b>가르침 239</b>               | <b>절 번호</b> |
| 영성화는 자유이다                    | 4           |
|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체                 | 9           |
| 진정한 의                        | 22          |
| 제3의 성서는 우리 내면에 있다            | 34          |
| 성취를 위한 준비                    | 46          |
| 우리는 여섯 번째 봉인 속에 살고 있다        | 52          |
| “약속의 땅”은 영원을 상징한다            | 57          |
|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표식을 받았습니다    | 61          |
| 신의 정의와 인간의 잔혹함               | 87          |
| 영과 영 사이의 교감이 주는 은혜           | 89          |
| 영적 존재들도 직접 소통할 것이다           | 97          |
| 거짓 제자들                       | 106         |
| 청소년을 위한 좋은 본보기               | 108         |
| <b>가르침 240</b>               | <b>절 번호</b> |
| 여성과 남성의 길                    | 1           |
| 매 순간의 준비                     | 12          |
| 영성주의의 중요성                    | 17          |
| 영의 길                         | 38          |
|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설명            | 40          |
| 저 세상의 혼란에 빠진 존재들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 | 43          |
| 빛과 어둠의 투쟁                    | 54          |
| 영원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 57          |
| 투표권자들에게 보내는 말                | 61          |
| 제3의 성서                       | 68          |
| <b>가르침 241</b>               | <b>절 번호</b> |
| 영성화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 3           |
| 위대한 영적 존재들의 특성               | 17          |
| 영적 양식                        | 23          |
| 종교가 아니라 사랑                   | 33          |
| 예언된 평화의 세상                   | 35          |
| 1866년, 제3시대의 시작              | 43          |
| 건전한 즐거움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 49          |
|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 51          |
| 봉사를 향한 열망에 따른 영적 발전          | 57          |
| 보편적 사랑이 포괄하는 것               | 59          |

##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틀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정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mailto: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정한 삶의 책』,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mailto: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의 책』 소개 (무료)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오리노코 54번지 5호, 콜로니아 자카후이츠코,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http://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http://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http://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http://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http://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http://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http://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http://www.dritte-zeit.net)